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배상률

N

Y

P

I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 ▶ 책임연구원 : 배상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 고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촉연구원)

발 간 사 ■ ■ ■

21세기 들어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경을 넘는 이주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저마다 모국에서 언어습득과 사회화 과정을 거치고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만큼 낯선 환경과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장벽, 인종/민족차별, 정보격차, 경제적 어려움 등 중도입국 청소년들 앞에 놓인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책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 및 진학 등 이들의 자립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양한 조사결과들을 바탕으로 공교육 체계, 한국어 지원 체계, 진로 및 취업 지원 체계, 체류신분 입법 체계, 인프라 구축 체계 등 주요 영역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6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 혁

국 문 초 록

본 연구의 주요목적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가진 고유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5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전국의 중도입국 재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약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 일/노동, 진로/진학, 가정환경, 사회적 인식 등 각 영역별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고 진로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어권과 베트남어권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 토론단을 구성하여 5주간에 걸쳐 온라인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보다 실효성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책 제언을 위하여 전국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의 현장 전문가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자문조사를 수차례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 실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교육과 취업에 있어 자신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 10명 중 7명은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으며, 3년 이상 떨어져 있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42%로 조사되었다.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이슈로는 진로문제(54%)가 가장 많았고, 돈문제와 목표의식 부재가 그 뒤를 이었다. 한국에 자발적으로 입국한 청소년들이 비자발적으로 입국한 청소년보다 진로정체감 및 자아존중감 척도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지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래 및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있어 자녀교육/학교생활/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교육,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정신상담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공교육, 한국어, 진로/취업, 입법, 등 총 6대 영역별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도입국 청소년, 자립, 진로, 교육, 취업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통신과 교통의 혁명적인 발달에 힘입어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음. 세계화 현상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경을 넘는 이주(migration)의 빈번함으로, 이 같은 이주현상에 따라 우리사회도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게 되었음.
- 다문화현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사회에 명(bright side)과 암(dark side)을 함께 가져왔음. 비교적 짧은 시기에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접어들어 우리 사회는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접하게 되었음.
-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모국에서 살다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주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음. 이들은 언어 장벽, 문화차이, 가정환경 등에 있어서 여타 다문화배경 청소년들과 견주어 성장과 자립 여건이 척박하며, 사회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절실함.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령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하거나 니트(NEET)족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가진 고유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토록 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학, 진로, 사회자본 강화 등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개발토록하고 세계시민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의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지원정책에 관한 심층연구를 위하여 본원에서 종단연구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관련 종단연구 보고서와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여성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자료집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음. 아울러,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소개된 관련 학술 논문들도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노력과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국제 협약을 고찰하였음.

○ 청소년 설문조사 : 현황 파악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상 스노우 샘플링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등 기관 소속 청소년과 무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현장방문 조사를 통해 설문을 진행하여 총 577명(재학 404명, 비재학 173명)이 설문에 응답함.

○ 청소년 설문조사 : 설문지는 ‘교육’, ‘일/노동’, ‘진로/진학’, ‘가정환경’, ‘입국 동기 및 경위’, ‘사회적 인식’, ‘신체 및 심리적 건강’ 등의 영역별 문항들로 구성되었음.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관련 변인들을 활용한 심층 분석을 하였음.

○ 현장 전문가 설문조사 :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 자기기입방식의 설문조사를 진행함. 총 48명의 설문이 회수되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거나 연계하는 전문가가 23명,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 14명, 국제학교 교사 4명, 대안학교 교사 4명, 예비학교 교사 3명 등이 응답함.

○ 질적조사 :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실태와 이들의 자립지원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중국어권 및 베트남어권)을 대상으로 SNS 토론탄을 구성하여 토론이란 형식을 빌려 온라인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약 5주간에 걸쳐 수행하였음. 한국생활의 고충, 진로 및 진학 관련 장래 희망, 한국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등 각 주제에 맞춰 중국어권과 베트남어권별로 토론활동이 이루어졌음. 마지막 주에는 포토보이스(photovoice) 활동이 희망자에 한하여 이루어졌음.

○ 질적조사 :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고 진로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음. 다양한 배경의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보호자(어머니)를 만나 이들의 가정사와 이민 정착기, 진로 계획 등을 심층 분석하였음. 출신국, 성별, 재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 여섯 명을 선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네 명의 보호자(어머니)들도 추가로 심층면접조사를 하였음.

○ 해외사례 조사 : 오래 전 다문화사회의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는 호주와 캐나다의 언어지원, 진로/취업, 교육 등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례들을 탐색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를 살펴보았음.

3. 주요 연구결과

1) 중도입국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

○ 조사 응답결과, 현재 공교육 과정(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70%,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30%를 차지함. 재학생 63.9%는 공교육 입학 소요기간이 1년 미만이라 응답하였으나, 27.4%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렸다고 응답함. 공교육 진입과정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로는 ‘한국어 실력의 부족(55.3%)’을 손꼽았고, ‘한국어 실력의 부족’은 비재학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주된 이유(24.6%)이기도 함. 즉, 한국어 실력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과정에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조사 응답자 중 31.4%는 한국에서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이들의 평균 주간 근무일수는 3.57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33시간으로 나타남. 아르바이트/일을 하는 주된 목적으로 ‘나의 생활비(용돈)을 벌기 위해(51.6%)’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26%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곤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2.4%가 ‘최저임금 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 12.1%는 ‘한국인과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

○ 구체적 진로계획과 진로확신의 수준을 보여주는 진로정체감에 있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61점으로 조사 되었음. 이는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한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은 평균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평균 3.62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 평균 3.61점, ‘5년 이상’이 평균 3.47점으로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 28.9% 청소년이 ‘한국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취업할 예정’이 18.9%로 나타남.

○ 응답 중도입국 청소년 중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69%로 별거 기간이 ‘3년 이상’이라 응답한 청소년은 41.8%로 나타남. 또한 한국 입국 후에도 부모님과 별거 중인 청소년은 20.2%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이유는 ‘학교 및 직장 때문(45.9%)’를 손꼽음.

○ 한국에 입국하게 된 주된 이유 및 입국 경위는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35.9%,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가 34.5%로 나타남. 본인 스스로 한국에 오기 원한 자발적 입국한 경우는 61.3%, 부모님 혹은 환경적 강요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27.1%인 것으로 나타남.

- 행복한 삶의 핵심 요건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손꼽은 것은 ‘화목한 가정(40.4%)’, ‘건강(19.5%)’, ‘재력(18.%)’이고, 성공의 평가 기준은 ‘꿈이나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한국에서 성공하는 데 가장 필요한 조건은 ‘노력과 성실성(33.1%)’, ‘학벌과 학력(21.1%)’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공기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에서 본인의 성공 가능성은 10점 만점에 6.34점으로 보통수준임.
- 지난 6개월 동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여부에 대한 질문에 약 39% 청소년들이 차별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차별에 대한 대응방법 1순위로 ‘그냥 참는다’의 응답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이탈 가능성은 36.9%로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라는 응답이 19.2%를 차지함.
- 최근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이슈는 ‘진로문제(54.5%)’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돈 문제(채무, 가난 등)’가 23.4%,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가 20.9%로 나타남.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92.8%이며, 온라인 게임(PC, 스마트폰 포함)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66.5%로 나타남. 또한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가 SNS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SNS이용률은 46.3%, 출신국 언어/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SNS 이용률은 52.2%로 나타남.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비한국어 SNS 이용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각각 35.7%, 24.5%라 나타남.
- 조사응답자는 중도입국 청소년 및 가정에 필요한 정책/프로그램으로 ‘수준별 한국어교육(24.9%)’이라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직업기술훈련(11.8%)’, ‘학교수업/교과목지도(11.7%)’ 등이라 응답함.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현장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평균 1.98점)를 나타냄.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구축 필요성(평균 4.38점)’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및 시설확대의 필요성(평균 4.19점)’을 손꼽음.
- 현장 전문가들이 꼽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이 높은 주요 정책 세 가지는 자녀교육/학교생활/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 대상교육,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

사, 정신상담 및 지원임.

3) 심층분석 결과

- 심층분석 결과 자발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비자발적으로 입국한 청소년보다 내적자산(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높을수록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내적자산(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
- 특히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내적자산(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거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

4) 해외 사례조사 결과

-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연방 정부 주도하에 top-down 형식으로 만들어진 국가 후원형 정책이며, 이는 주로 연방 정부의 행정 부서에 의해 운영됨. 호주의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①이민자 대상 언어교육 프로그램(ESL, VoRTCS 등)과 ②이민자 정착 및 적응 관련 교육프로그램(IHSS, NAYSS, 무슬림 청소년 고용증진 프로젝트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호주사회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사회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중에서도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
- 캐나다에서 이주민을 위한 주된 정책 시행의 중심축은 연방정부의 이민부(CIC)이지만, 캐나다 역시 이주민이 유입되면 연방정부에 소속된 각 부처,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각 사안에 대해 협력 관계를 맺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캐나다 정부는 ①정착 및 적응프로그램(SP, SWIS, 호스트 프로그램 등), ②언어교육(LINC 등), ③기술훈련 및 고용알선(취업관련서비스)의 목적으로 이민자 정착 및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정착지원 담당자 학교 배치 프로그램(SWIS)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과 가족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

5) 질적 조사 결과

○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음.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중도입국 이란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일반 청소년들 이상으로 진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됨.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꿈들은 한국에 살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인식에 따라 절충을 시도하게 됨.

○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체류신분 불안에 따른 어려움과 비자연장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사례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음. SNS토론단원들은 비자연장에 대한 충분한 사전정보의 부재, 심사기간의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음. 이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에 대한 불만과 이와 관련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토론 마지막 주에는 사진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참여적 실행연구 방법론 중 하나인 포토보이스 활동을 하였음. 이들이 제시한 사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음. 첫째는 외로움과 그리움, 둘째는 한국생활의 적응 노력. 한국에서의 적응 노력을 보여주는 사진으로는 스마트폰 길찾기 기능으로 보여지는 지도 사진, 한국생활동안 애용한 한국어 사전, 최근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체험활동 시간에 만든 공예품, 그리고 한국인 양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었음.

○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 두 명, 중국 한족 출신 두 명, 중국 조선족 출신 한 명, 몽골 출신 한 명과 이들 중 네 명의 어머니와도 별도의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음. 이들은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양아버지의 입양거부의사에 따른 체류신분 유지의 어려움, 비자 연장 문제,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진로 고민 등을 토로하였음.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게임중독, 폭력,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증상을 보였으나 궁극적으로 이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과 나름대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성공적인 한국생활 적응과 자립을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지역사회,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음.

4. 정책제언

1)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시행에 있어서의 거시적 접근 방법

○ 자립은 영어로 self-reliance로 번역되며,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을 의미함. 그러므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영역에 따라 자립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뉘질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연령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9세의 청소년과 24세의 청소년에게 요구하는 자립의 영역은 다를 수밖에 없음. 저 연령층에게 경제적 자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 같은 맥락에서 본 보고서에서 추구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마련은 정책 대상에 대한 구분과 니즈를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목적으로 함.

○ 저연령층의 경우 공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고연령층의 경우는 진로탐색, 직업기술교육, 취업처 알선 등이 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정착 단계에 한국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요구됨. 또한 청소년들이 낯선 환경과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상담은 가급적이면 이들의 모국어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

○ 매슬로의 5단계 욕구이론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상황을 적용하면 정책의 우선순위 및 효과성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음. 가정간의 갈등이나 낯선 환경에서의 삶이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자아 존중과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들에게 언감생심일 것임. 마찬가지로 교우 및 또래 관계에서 차별과 상처를 받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며 그보다 상위 욕구인 존중과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옮겨가기 어려움. 특정 중도입국 청소년이 공교육 시스템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하더라도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며 시간과 자원만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음. 반대로, 각 개인을 둘러싼 상황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단계별 욕구 충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정책에 투자된 재원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의 근본 취지에 있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거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현장전문가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은 한국어, 공교육, 직업기술교육, 상담, 취업 지원 등 일련의 지원 영역은 각각 분절된 것이 아닌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연쇄적으로 또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한국어 능력은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임. 한국어 실력은 자신의 진학과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자신의 사회경제적지위(SES)를 결정짓는 취업과도 연관됨.

○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이들의 삶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재원과 인프라의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코 단일 성격의 집합체(monolithic group)가 아님. 이들의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과 진로 및 진학 등과 관련한 의지 및 역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상의 니즈(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지원체계별 자립지원 정책

○ 교육 바우처 제도 :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모들도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또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자녀교육과 교육정보 취득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 가정이 많아 자녀교육의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바우처(voucher)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한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원토록 함. 특화된 사교육 시장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별, 문화별,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며 교과목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중도입국 청소년 재학률 및 진학률/취업률에 따른 학교 대상 인센티브 지급 :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나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현재 교육부의 학교발전 전략의 하나로 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문화가정이란 테두리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중도입국 청소년을 별도로 항목화하여 이들의 재학률과 상급학교의 진학률 또는 취업률을 반영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학교와 중도입국 청소년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중도입국 청소년 특별전형 신설 :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진학에 있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특별전형에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테두리 속에 중도입국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성격의 집단으로 규정되어야 함.

- 교원양성 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 : 교사 연수 시 다문화감수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배경 청소년들을 담당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별도의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보통 교사 연수에서 이뤄지는 강의식 연수보다는 스토리텔링 방식과 참여식의 커리큘럼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사들의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것임. 또한 해외선진지에 우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면 동기부여 및 교사들의 인식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임.
- 공교육 진입 제도의 간소화 및 대체 방안 마련 : 증빙서류의 미비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없도록 증빙서류의 간소화나 대체 방안이 요구됨. 경기도 교육청이 현재 실시중인 「다문화예비학교」는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진입의 대체 방안으로 관심이 높음.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29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다문화예비학교의 확대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교육 진입률 제고에 힘써야 함.
-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재 및 커리큘럼 개선 : 한국어 수준이 낮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학교나 예비학급 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가 실시하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취지와 장점을 살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시급함.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40시간의 한국어 교육으로는 성공적인 공교육 진입과 학업 수행이 사실상 어려움.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중등과정 연령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담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함. 또한 한국어 교사들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워크북(workbook)을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제작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교재 및 워크북은 관련 교육전문가들과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모국어로 번역된 학교운영 및 교육제도 매뉴얼 보급 및 학교통신문 번역 앱 개발 : 교육제도 매뉴얼과 학교운영 매뉴얼은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음.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의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학교 통신문이 그들의 모국어로 제공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임. 학교 통신문과 교육관련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학교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클래스팅(classsting)과 같은 앱에 한국어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한다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1+3 제도의 운영 : 중등과정 정규교육제도 최초 진입 이전에 디딤돌 학교나 예비학교 등을 전국적으로 마련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집중 교육이 무상으로 약 일 년 간 실시될 필요 있음.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와 교육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전문 교사 인력을 확충한 후 이수시간을 하루에 최소 다섯 시간 이상 배정하여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특히 「1+3제도」하에서 첫 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일반 한국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 학교부설 한국어 집중교육기관 vs. 별도의 운영 기관 : 「다문화예비학교」처럼 일반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의 장점으로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교육제도가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으며, 교사 및 또래관계에 대한 래포(rapport) 형성을 통해 첫 해를 마치고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점을 꼽을 수 있음. 별도의 운영 기관을 두고 한국어 집중 교육을 맡기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필요함.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경험이 있는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 운영을 하여 1+3의 1인 한국어 집중 교육을 담당한다면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와 현장전문가들에 의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학교마다 인력배치와 시설 확충을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포함한 다문화배경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어 예산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마지막으로, 비슷한 배경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있어 수준별 수업이 더욱 용이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 생겨 이들을 지도·관리하기에도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 주말에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령과 대상을 고려한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질 필요 있음. 모국출신 강사나 모국어 자막이 들어간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동영상 개발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한국어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 소셜러닝(social learning) 개념을 적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 : 본 보고서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루평균이용시간도 4시간이 넘을 만큼 스마트폰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살린 소셜러닝 개념을 도입한 별도의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의응답 형태로 교수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용자인 중도입국 청소년들 간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적 효과성이 제고될 것임. 한국어 학습 소셜러닝 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배경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교감으로 흥미성과 학습동

기를 유발하는 동시에 집단지성의 힘으로 한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학습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같은 앱의 장점으로 언어별로 온라인 스터디그룹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어 소통과 공감 능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임.

○ 다문화 취업 박람회 개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채용 기업 세금감면 혜택 부여 : 다문화 배경에 특화된 직업군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직종에 대한 파악과 취업처와 수요자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취업 박람회의 상설화가 필요함.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제약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중도입국 청소년 채용 시 세금 감면 혜택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모델 전국적 확대 : 폴리텍다솜고등학교는 컴퓨터 기계과, 플랜트 설비과, 스마트 전기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기술을 익히고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학교차원에서 기업들과 MOU를 맺고 3학년 2학기에는 현장학습을 통해 실제 직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음. 졸업생들은 2년간 교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취업현장에서의 고민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하지만 일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보다 수준 높은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음. 전교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가 이루어짐.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기능대학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비교적 어려운 가정형편과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처럼 기숙형 학교로 운영이 된다면 이들의 진로·진학지도와 생활지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교육복지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임. 기능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학교마다 전공분야를 달리하고 다양한 업종의 전문 인력을 양산한다면 인력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산업계에 전문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운영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음.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촉진 및 빈곤탈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족화를

방지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귀화가 완료된 중도입국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 체류한지 3년 이상인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귀화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국적취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8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체류신분 관련 입법 체계 : 만 19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체류자격이 상실되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불안감으로 학업이나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됨.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중도입국 청소년이 원하는 일정 수준의 학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비자를 연장해 줌으로써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만 19세 이후의 비자코드를 만들어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것임.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귀화시험에 합격하여 국적 취득까지 평균 17개월이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이들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잠정적 국적 취득자로 간주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비자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중앙 컨트롤 타워 및 허브 구축 : 다양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 및 허브의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신설 센터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정착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단계별·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 신설 센터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두고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입법적·행정적 정책 시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주어야 함. 신설 센터의 주요 기능과 장점으로 ①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② 부처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관련 정책들의 교통정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자 확대, ③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적·법적 정보 및 지원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제공, ④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법적·행정적 정보 제공으로 정보격차 해소 등을 들 수 있음. 중앙 컨트롤 타워의 또 다른 핵심기능으로 전국에 산재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나가야 함. 효과적인 공조체제의 구축력을 갖추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에게 신설 센터의 운영에 일정한 직책과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 있음.

○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확대 운영 : 지역사회 내 대안교육 시스템의 확대차원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비자연장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학력인정기관인 공교육에 진입하는 경우, 학업이 부진하거나 학업에 관심이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겹도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음. 이것은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차원에서도 큰 손실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는 통합방식과 비슷한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들을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분리방식 중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력수준 및 성향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 일반학교만으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선별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학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학생들의 비자연장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맞춤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시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부모 교육 :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은 현장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 및 가족 상담,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 제고 노력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함.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기에 우리 사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이 밖에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코치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진로코치 양성」을 목적으로 서울시내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학교와 가정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학부모 진로코치의 존재감은 크다고 할 수 있음. 자신의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자녀의 진로고민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됨. 다문화배경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이들을 진로코치로 양성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교육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II.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
1. 선행연구 고찰	15
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현황	18
3. 중도입국 청소년의 지원	23
III. 설문조사 결과	25
1.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27
2.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81
3. 심층 분석 결과	96
IV. 질적조사 결과	101
1. 조사 개요	103
2.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운영	103
3. 중도입국 청소년 및 보호자 심층면접조사	133
V. 해외사례조사 결과	173
1. 호주	175
2. 캐나다	182

VI. 결론 및 정책제언	189
1. 결론	191
2. 정책제언	202
3. 로드맵	229
 참고문헌	 231
 부 록	 239
 Abstract	 277

표 목 차

〈표 Ⅰ-1〉 주요 연구 내용	5
〈표 Ⅰ-2〉 설문조사 문항구성	8
〈표 Ⅰ-3〉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주차별 토론 주제	10
〈표 Ⅱ-1〉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양적 연구(2011~2016)	16
〈표 Ⅱ-2〉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20
〈표 Ⅱ-3〉 한국 입국 후 가장 힘든 사항	21
〈표 Ⅱ-4〉 15세 이상 외국성장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별 현황	23
〈표 Ⅲ-1〉 조사 설계	28
〈표 Ⅲ-2〉 설문조사 문항 출처	28
〈표 Ⅲ-3〉 성별 및 연령 분포	31
〈표 Ⅲ-4〉 조사 응답자의 거주 지역 및 재학여부	32
〈표 Ⅲ-5〉 체류 비자 및 한국 거주기간	33
〈표 Ⅲ-6〉 한국 입국 전 출신국에서의 학력수준	34
〈표 Ⅲ-7〉 귀화상태 및 영주권 획득현황	35
〈표 Ⅲ-8〉 재학생 교육 현황	36
〈표 Ⅲ-9〉 재학생 최종 희망학력	37
〈표 Ⅲ-10〉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37
〈표 Ⅲ-11〉 한국어 수준	41
〈표 Ⅲ-12〉 학교 및 센터생활 적응 및 또래애착	43
〈표 Ⅲ-13〉 일상생활경험(교육,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등)	44
〈표 Ⅲ-14〉 평균 근무강도(주간 근무일수, 일간 근무시간)	45
〈표 Ⅲ-15〉 근무강도(주간 근무일수, 일간 근무시간)	46
〈표 Ⅲ-16〉 아르바이트 목적(1순위)	46
〈표 Ⅲ-17〉 아르바이트 목적(1+2순위)	47

〈표 III-18〉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경험	48
〈표 III-19〉 진로 정체감 및 한국에서의 나의 미래	49
〈표 III-20〉 한국 거주기간별 진로정체감 수준	50
〈표 III-21〉 진로 고민해결 방법(1순위)	52
〈표 III-22〉 진로 고민해결 방법(1+2순위)	52
〈표 III-2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	53
〈표 III-24〉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	55
〈표 III-25〉 경제적 지원 출처	55
〈표 III-26〉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56
〈표 III-27〉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57
〈표 III-28〉 한국 입국 이유	58
〈표 III-29〉 한국 입국경위	59
〈표 III-30〉 다문화 친구 수용성	61
〈표 III-31〉 출신국/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61
〈표 III-32〉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	62
〈표 III-33〉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건(1순위)	64
〈표 III-3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충족여부	65
〈표 III-35〉 성공 평가 기준 & 한국사회 성공조건	65
〈표 III-36〉 한국사회에서의 미래 성공 가능성	66
〈표 III-37〉 차별대응 방법(1순위)	67
〈표 III-38〉 차별대응 방법(1+2순위)	68
〈표 III-39〉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수	69
〈표 III-40〉 한국사회 이탈희망여부	69
〈표 III-41〉 한국 이탈희망 이유(1순위)	70
〈표 III-42〉 한국 이탈희망 이유(1+2순위)	70

〈표 III-43〉 신체 및 심리적 건강	71
〈표 III-44〉 최근 개인적인 고민(1순위)	72
〈표 III-45〉 연령별 개인적인 고민(1순위)	72
〈표 III-46〉 최근 개인적인 고민(1+2순위)	74
〈표 III-47〉 매체이용여부	75
〈표 III-48〉 매체별 하루 평균(중위수) 이용시간	75
〈표 III-49〉 매체별 하루평균 이용시간	76
〈표 III-50〉 온라인 게임 집착관련 문항	77
〈표 III-51〉 성별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1순위)	78
〈표 III-52〉 연령별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1순위)	79
〈표 III-53〉 한국거주기간별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1순위)	80
〈표 III-54〉 프로그램 및 정책제안(1+2순위)	80
〈표 III-55〉 지원 체계에 대한 문항	82
〈표 III-56〉 정책 필요성에 대한 문항	83
〈표 III-57〉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85
〈표 III-58〉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87
〈표 III-59〉 학교/기관/지역사회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89
〈표 III-60〉 부처/ 제도적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91
〈표 III-61〉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전문가)	94
〈표 III-6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 정책에 대한 평가	95
〈표 III-63〉 한국 입국 동기별(자발/비자발) 내적자산 수준비교	97
〈표 III-64〉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태도가 내적자산에 미치는 영향	98
〈표 III-65〉 사회적지지 자원이 내적자산에 미치는 영향	100
〈표 IV-1〉 토론 중재자 및 코디네이터	105
〈표 IV-2〉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중국어권)	106

〈표 IV-3〉 SNS 중도입국 청소년 토론단(베트남)	107
〈표 IV-4〉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주차별 토론 주제	108
〈표 IV-5〉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134
〈표 IV-6〉 중국 출신 김OO 청소년과 어머니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139
〈표 IV-7〉 중국 출신 송OO 청소년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146
〈표 IV-8〉 베트남 출신 Huong OO 청소년과 어머니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152
〈표 IV-9〉 베트남 출신 Van OO 청소년과 어머니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160
〈표 IV-10〉 몽골 출신 엘OO 청소년과 어머니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167
〈표 VI-1〉 중도입국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정책 로드맵	230

그림 목차

【그림 Ⅱ-1】 중도입국자녀 출신국의 구성비 추이(2011년, 2012년)	19
【그림 Ⅲ-1】 출신국가(%)	33
【그림 Ⅲ-2】 3개월 이상 입학이 지체된 이유	36
【그림 Ⅲ-3】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_개인적인 이유	39
【그림 Ⅲ-4】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_학교 및 학업적인 이유	39
【그림 Ⅲ-5】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_가족관련 이유	40
【그림 Ⅲ-6】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_법·제도적 이유	40
【그림 Ⅲ-7】 아르바이트 또는 일을 해본 경험여부	45
【그림 Ⅲ-8】 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정체감	50
【그림 Ⅲ-9】 향후진로계획(중복응답 n=1,062)	51
【그림 Ⅲ-10】 향후 진로계획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n=240)	51
【그림 Ⅲ-11】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n=117)	54
【그림 Ⅲ-12】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이유(n=109)	54
【그림 Ⅲ-13】 한국거주기가별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태도	58
【그림 Ⅲ-14】 한국 입국 전 준비사항	60
【그림 Ⅲ-15】 차별경험여부	67
【그림 Ⅲ-16】 연령별 개인적인 고민(1순위)	73
【그림 Ⅲ-17】 지원체계에 관한 문항	82
【그림 Ⅲ-18】 정책필요성에 관한 문항	84
【그림 Ⅲ-19】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86
【그림 Ⅲ-20】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88
【그림 Ⅲ-21】 학교/기관/지역사회 지원정책 중요도 및 시급성	90
【그림 Ⅲ-22】 부처/제도적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92
【그림 Ⅲ-23】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순위(전체)	93

【그림 III-24】 중도입국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전문가 평가)	94
【그림 III-25】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	95
【그림 IV-1】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모집 및 운영절차	105
【그림 IV-2】 중국 토론단 활동예시	109
【그림 IV-3】 베트남 토론단 활동예시	110
【그림 VI-1】 연령과 교육/취업 여부에 따른 2×2 분류체계와 집단간 이동 방향	204
【그림 VI-2】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	205
【그림 VI-3】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재학률 저하의 주요 원인	210
【그림 VI-4】 경기도 다문화예비학교 교재(국립국어원 발간)	214
【그림 VI-5】 한국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220
【그림 VI-6】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패키지	222
【그림 VI-7】 UN아동권리협약문 발췌내용	224
【그림 VI-8】 광주 고려인마을 「고려FM」 관련 소식	227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통신과 교통의 혁명적인 발달에 힘입어 세계화(globalization)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세계화 현상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압축”을 의미한다(앤서니 기든스, 2001, Bai, 2010A). 지구 건너편의 사람들과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하루사이에 전 세계 어디든 여행이 가능할 수 있게 되면서 불과 3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거나 경험하기 어려웠던 여러 사회현상들을 일상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경을 넘는 이주(migration)의 빈번함이다.

이 같은 이주현상에 따라 우리사회도 명실공히 다문화사회로 들어서게 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기업투자자 등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외국출신 거주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늘어나고 있다(양계민, 김승경, 김윤영, 2012). 다문화현상은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사회에 명(bright side)과 암(dark side)을 함께 가져왔다. 비교적 짧은 시기에 다문화사회로 급격히 접어든 우리 사회는 이전에 미처 경험하지 못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접하게 된 것이다.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함께 정책적 제도 마련과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 중 중도입국 청소년은 정부차원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라 함은 ①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모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 ②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입국한 청소년, ③ 근로 및 학업을 목적으로 청소년기에 입국한 외국인 무연고 청소년, 그리고 ④ 북한이탈주민 외국인(중국인 등)과 제3국에서 출생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에 온 청소년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1).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다양한 배경의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결혼

이민자의 자녀로 모국에 살다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주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언어 장벽, 문화차이, 가정환경 등에 있어서 여타 다문화배경 청소년들과 견주어 성장과 자립 여건이 척박하며, 사회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절실하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령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하거나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최근 국제결혼 재혼가정이 증가하면서 중도입국청소년의 수도 나날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1; 장명선·이애란, 2010). 이들 중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정부가 마련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취업, 교육, 문화적응 등 다양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한류 붐으로 한국사회에 대해 가진 막연한 동경과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는 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예: 가정불화, 언어 및 문화차이, 차별, 경제적 어려움 등)들을 가뜩이나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 한꺼번에 경험하게 되면서 이탈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배경의 청소년들 중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중도입국 청소년, 이들의 부모, 현장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하여 이들에게 유용한 자립지원 정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다양한 배경의 학교 밖에 머물러 있는 소위 ‘비제도권’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노우볼 샘플링 기법을 통하여 심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가진 고유의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고,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토록 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다. ①우리 사회와 정부의 보호 및 지원 대상; 또는 ② 우리 문화와 사회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한 이방인.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가지는 차별성은 제도권 밖의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 조사와 상기한 패러다임을 벗어난 선도적 연구로 세계화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학, 진로, 사회자본 강화 등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개발토록하고 글로벌 시대에 권리와 책임을 가진 당당한 민주 시민으로서 설 수 있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실태와 이들의 자립지원 방안이란 연구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관련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보다 다문화사회를 먼저 이루고 정책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선진지를 살펴 국내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 관련 학교 및 기관에 종사하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자문조사를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연령 및 진로·진학 의사 등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지원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상기한 각 사항에 대한 세부 연구 내용을 정리하여 <표 I-1>에 담았다.

표 I-1 주요 연구 내용

주요 영역	세부 연구 내용
1.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화에 따른 이주의 보편화 및 다문화주의 탐구 -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실태조사 및 학술 연구 분석 -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법률 및 정책 분석
2. 중도입국 청소년의 양적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600명 가량의 중도입국 청소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태 분석 - 성별, 체류기간, 진로 및 진학, 가정환경, 매체이용, 신체 및 정신 건강 등 주요 항목별 분석 -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주요 변인 간 심층 분석
3. 중도입국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으로 한 질적 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어권 및 베트남어권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SNS 토론단」운영 결과 분석 - 중도입국 청소년 및 보호자 사례조사를 위한 심층면접 조사 분석
4. 해외 선진지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해외 선진지(호주 및 캐나다) 벤치마킹 사례 조사
5. 현장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학교 및 지원 기관의 현장전문가 약 50명 대상 설문 및 자문조사 결과 분석 - 현재 지원 정책의 평가 및 각종 자립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분석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1) 세계화(globalization)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지금까지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언론보도, 정책보고서, 학술연구의 대부분은 다음의 두 가지 패러다임에 바탕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①우리 사회와 정부의 보호 및 지원 대상; 또는 ② 우리 문화와 사회에 온전히 녹아들지 못한 이방인.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며, 사회학적·역사학적 관점에서의 충분한 담론과 성숙한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세계화에 따른 현상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증가와 다문화주의 관련 국내외 관련 문헌을 심층 분석하였다.

(2)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조사 선행연구 및 학술조사 결과 분석

국내의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지원정책에 관한 심층연구를 위하여 본원에서 수행한 다문화 청소년 관련 보고서와 무지개청소년센터와 여성정책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자료집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아울러, 최근 5년 내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소개된 관련 연구들도 주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법률 및 부처별 지원 정책

중도입국 청소년의 지위 개선과 역량 개발을 위하여 법률적, 행정적, 지역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노력과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국제 협약을 살펴보았다.

2) 양적 연구

(1)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의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 양적 연구를 통한 실태파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출입국관리소에 특별귀화 신청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거나(양계민, 조혜영, 2011) 레이보우스쿨에 소속된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신현옥 외, 2013) 등 제한된 영역의 틀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청소년들이 조사 대상이었다.

본 연구의 제도권 밖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기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접촉하며 조사하였다. 비확률적 샘플링 기법인 스노우볼 샘플링은 ① 국내에 거주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숫자 파악이 구조적으로 어렵고, ② 일반 청소년과는 달리 개별적인 접촉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으며, ③ 중도입국 청소년의 출신국가별 차이보다는 사회경제적 지위(SES)에 따른 차이가 사회적·심리적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 및 현장전문가들의 자문내용에 비추어 적절한 샘플링 기법이라 판단하였다.

언어 및 문화 등 현지 적응이 상대적으로 빠른 초등학교 연령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 연구의 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전국에 걸쳐 연구진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방문 조사한 결과 589명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지 응답 내용을 살피고 그 중 연령과 성장배경이 본 연구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본 보고서에는 총 577명의 설문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스노우볼 샘플링 기법을 감안하여, 조사는 7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이뤄졌다.

설문지는 공교육에 재학 중인 청소년용과 비재학 청소년용으로 나눠 설문지 문항을 구성하였다. 두 종의 설문지는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로 번역을 하여 한국어를 포함한 총 5개 언어로 구성하였다. 설문문항의 주 내용은 <표 I-2>에 정리된 것처럼 성별, 연령, 출신국 등 응답자의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질문과 함께 ① 교육, ② 일/노동, ③ 가정환경, ④ 사회적 인식, ⑤ 심리 및 정서, ⑥ 지역사회, ⑦ 개인 등 7개의 영역별 다양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표 I -2 설문조사 문항구성

번호	영역	하위 영역
1	교육	입국 후 정규학교 입학 소요기간*
		최종희망학력*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학교생활 적응도
		또래 관계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2	일/노동	아르바이트/일 참여 실태(업종, 임금, 시간 등)
		아르바이트/일하는 목적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경험
3	진로/진학	진로정체감 및 한국에서의 나의미래
		향후 진로계획
		진로고민 해결방법
4	가정환경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
		현재 한국에서 부모와 별거 기간 및 이유
		한국 입국 전 부모와 별거 기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여부
		부모와의 관계
		가족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5	입국 전 상황	한국에 입국하게 된 주된 이유 및 경위
		한국 입국 전 준비사항
6	사회적 인식	다문화 친구 수용성
		입국 전/후 전반적 삶의 만족도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우선순위
		본인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
		성공의 평가 기준 및 한국사회 성공 조건

번호	영역	하위 영역
		본인이 한국사회에서의 성공 가능성 평가
		차별경험 여부
		차별을 느낄 때 대응 방법/행동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
		한국사회 이탈가능성 및 이유
7	신체 및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자존감
		자아정체감
		행복감
8	개인	최근 개인적인 고민 주제
		한국어 수준(읽기, 쓰기, 듣기)
		한국거주 기간
		매체 이용 실태

★ 정규학교 재학생용 문항

* 비재학생용 문항

(2)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및 지원 기관/센터 등에서 종사하는 현장 전문가 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대부분은 주로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6년 9월말부터 10월초에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①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 자립지원 체계의 만족도, ② 영역별(개인, 가정, 학교/기관/지역, 부처/제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정책에 있어서 중요도 및 시급성, ③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 ④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부 정책의 평가점수 등으로 구성되었다.

3) 질적 연구

(1)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운영 결과 분석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실태와 이들의 자립지원 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 토론단을 구성하여 토론이란 형식을 빌려 온라인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장시간에 걸쳐 수행하였다. 토론단 운영은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어권과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수민족들(minority ethnic groups) 중에서도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베트남어권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본 조사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물리적·시간적 제한 없는 심층 토론이 가능; ② 중도입국 청소년의 제한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결; ③ 사적이고 민감한 내용의 개진을 위한 신분노출 차단 및 익명성 보장.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각 토론방에 한 명의 원어민 토론 중재자(moderator)와 한 명의 원어민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두었다.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모집은 2016년 4월부터 5월 초까지 이루어져 지원서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총 24명, 베트남어권 청소년 총 9명을 선발하였다. 본격적인 활동은 5월부터 6월 사이 약 5주간에 걸쳐 다음의 주제를 주차별로 진행하였다. 마지막 주차에는 포토보이스(photovoice)¹⁾를 토론단 구성원들 중 지원자에 한 해 수행하였다.

표 I-3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주차별 토론 주제

주차	중국어권	베트남어권
1	한국의 첫 인상과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	
2		
3	진로·진학 관련 장래 희망	
4	한국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5	사진으로 말해요(포토보이스)	

1) Wang과 Burris(1997)에 의해 처음 개발된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인식을 사진을 통해 공유하는 참여적 실험연구방법이다.

(2) 중도입국 청소년 및 보호자 대상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s)

다양한 배경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만나 이들의 가정사와 이민 정착기 그리고 진로 계획 등을 살피고 심층 분석하였다. 본 심층면접조사의 주목적은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고 진로 및 경제적 자립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저연령층의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① 한국어 습득이 상대적으로 늦고 ② 공교육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③ 특히 경제적 자립이 시급하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연구진은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 여섯 명과 네 명의 보호자(어머니)를 심층면접조사 하였다. 출신국, 성별, 재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선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면접조사에 응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부는 제한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을 활용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든 심층면접조사는 이들의 거주지 인근으로 연구진이 방문하여 카페나 지원 기관 및 센터 내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각각의 면접조사는 회당 평균 2~3시간이 소요되었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진행된 심층면접조사의 인터뷰 내용은 면접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취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동의하지 않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면접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4) 전문가 자문 조사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 상황과 자립지원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관련 기관 및 학교의 현장 전문가 및 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방문과 이메일 조사를 병행하여 수십 명의 현장 전문가들을 접촉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및 현황,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공적인 한국 사회 정착 및 자립지원 방안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다.

5) 해외 선진지 사례 조사

본 연구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 파악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 조성과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오래 전부터 다문화사회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 호주와 캐나다의 언어지원, 진로/취업, 교육 등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사례들을 탐색하고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벤치마킹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당분야에 오랜 기간 현장경험을 쌓으며 문헌고찰을 해온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김진희 박사에게 집필을 의뢰하였다.

6) 정책 실무 협의회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자립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의 긴밀한 협조 속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여가부와 정책협의회를 두 차례 갖고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부차원의 전반적인 자립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쳤다. 또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정책실무 협의회를 갖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립지원 정책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다.

제 Ⅱ 장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고찰
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현황
3. 중도입국 청소년의 지원

제 II 장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선행연구 고찰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의 일부로서 연구가 되어오다 2010년대 들어서야 정부 및 학계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수탁과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양계민, 조혜영, 2011)를 필두로 IOM이민정책연구원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오성배 외, 2013),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신현옥 외, 2013),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장명선 · 이애란, 2010) 등이 양적 또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심층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져 2010년까지 드물었던 중도입국 청소년 연구가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정체성, 또래관계, 학업실태, 적응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40여편의 연구논문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정부 및 정책연구기관 등에서 이루어진 보고서들은 제도권 내 청소년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어권 청소년 등을 주요 조사대상으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 또는 니트족들의 지원정책 방안 마련에 한계가 있으며,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고찰이 제한적이었다. 학계 주도로 진행된 연구들은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대한 학술적 고찰이 여러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논문들의 상당수가 일부 지역의 제한된 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삼분의 이 가량이 질적 연구에 치우쳐있다. 즉, 연구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있어 한계성을 드러내 정책 방안 마련의 근거로 삼기에도 제한이 따른다. 본보고서는 이 같은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총 5개 언어(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현장방문을

통해 청소년기본법에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대인 전국의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 중 중등과정이상의 연령층을 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재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선행조사 결과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항들도 다룰 수 있었다.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KCI)에 실린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논문들 중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은 총 10여 편에 머무르고 있다(<표 II-1> 참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거나 양적 연구임에도 접근성의 어려움 등으로 100명대 이하의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설문 조사하여 분석한 논문들이다. 양계민, 조혜영(2012), 이유신, 김한성(2014), 한광현, 강상경(2015), 고남정, 오성배(2016) 등의 연구는 각각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한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다수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는 장점이 있으나, 2012년 조사 데이터로 최근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표 II-1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양적 연구(2011~2016)

연구제목	저자	발행일	연구대상	핵심 주제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조혜영, 양계민	2012	중국출신 403명	학업실태, 진로포부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양계민, 조혜영	2012	중국출신 403명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모학대 및 방임, 사회적지지, 심리 사회적적응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유신, 김한성	2014	2009년 인권위원회 조사 데이터/ 총 141명	차별, 따돌림, 학교생활부적응, 사회적 자본(교사지지)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	홍종명	2014	중국출신 30명	한국어학습동기 (내적, 외적 동기 등)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국적과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요인에 관한 연구	좌동훈	2014	중국 및 몽골 출신 187명 (9~24세)	출신국적, 문화적응유형, 한국어능력, 심리사회적적응

연구제목	저자	발행일	연구대상	핵심 주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 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허경미	2015	총 63명 (초등 55명/ 중등 8명)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다문화가정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이 비행경험 및 피해에 미 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경희, 양문승	2015	총 136명 (초4~고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및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 향요인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정체감 수준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유비, 김기현	2015	총 97명	집단별(중도/비빈곤/빈곤) 차별, 우울, 자존감, 진로정 체감 비교연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석준	2015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 총 193명	상황적 특성에 따른 다문화 가족청소년 차별수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지원 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	한광현, 강상경	2015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 총 815명	겔버그-앤더슨모형을 바탕 으로 다문화가족 청소년들 의 교육지원서비스 이용 예 측요인 고찰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오승환, 좌현숙	2015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 총 5,846명 (가중치적용)	일반다문화가족청소년과중 도입국청소년집단비교,우울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남정, 오성배	2016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 총 619명	재학 여부에 따른 한국어능 력 비교, 부모의 학력, 관계 만족도, 교육기대 수준 등
가족환경스트레스가 중도입국자 녀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은영, 황혜원	2016	총 105명 (10세~26세)	연령, 주거주지에 따른 무 력감 차이, 자아정체성이 가족환경스트레스와 무력감 간 매개효과

심층면접조사, 사례연구 등 양적 연구방법을 이용한 논문은 총 20여편이 2011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한국연구재단등재지(KCI)에 실렸다. 이 논문들의 상당수는 적응(예: 가족 적응, 한국사회 적응,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주제를 다룬 연구이며, 제한된 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법(윤향희, 김정제, 2016), 영국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체계(김진희, 2011),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에 관한 고찰(박영준, 2016) 등 해외 선진지의 벤치마킹 사례 탐구 및 국내 관련 현황을 고찰한 논문들도 최근 들어 소개되고 있다.

2.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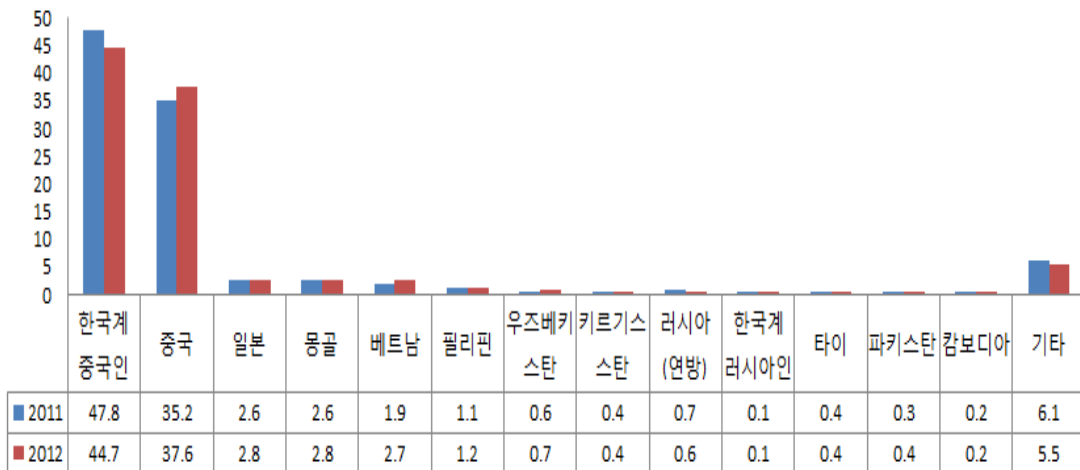
학자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 양계민, 조혜영(2011)은 중도입국청소년을 “200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재혼가정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집단”(p. 11)으로 “외국인 부모의 출신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재)입국한 청소년”(p. 11)이라고 정의하였다. 최대회(2014)는 “외국에서 일정기간을 보내고 학령기 이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청소년”(p. 136)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규정하였다. 학자마다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정의의 세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구분되는 특징은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성장하다 한국사회로 삶의 터전을 옮겨왔다는데 있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모국에서 언어습득과 사회화과정을 거친 후 한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모의 국제결혼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한 일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과는 확연히 다른 가치관과 환경적 특성을 갖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친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한 후 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이다(양계민, 조혜영, 2011).

2006년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주민의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처음으로 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를 맞았으며,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주민 비율은 3.4%(170만여명)를 차지하였다(행정자치부, 2009, 2015). 특히, 18세 미만의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5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 총 207,693명을 기록하였다.

부처마다 제각각의 기준으로 국내 거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치를 가늠하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앞서 살핀 외국인주민 자녀의 증가 추세에서 알 수 있듯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도 가파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출입국관리소에

귀화를 신청한 부모 동반 입국 19세 이하 청소년은 총 7,500여명으로 조사되었으나(신현옥 외, 2013), 이는 보수적인 집계방법에 의한 것으로 같은 해에 여성가족부가 추산한 17,000여명과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교육부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외국출신 부모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총 8만 2,536명으로 전체 학생의 1.4%를 차지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전체 학생 수는 최근 5년 사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 수는 급증 추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박영준, 2016).

이처럼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증가추세에 따라 이들의 출신 국가 및 거주 지역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중국출신(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몽골,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및 러시아의 주변 국가 출신 청소년들의 유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II-1] 참조). 거주 지역에 있어서도 2010년 초기까지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제주, 충청, 전라, 경상권 등 다양한 지역에 거주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연령별로는 17세부터 19세의 연령대 청소년과 10세 이하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 아동의 비율이 중도입국 청소년 전체 비율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신현옥 외, 2013).



*출처: 신현옥 외(2013).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22p (법무부내부자료, 2012)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직접 작성.

【그림 II-1】 중도입국자녀 출신국의 구성비 추이(2011년, 2012년)

<표 II-2>에 나타났듯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자신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 60.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13.4%), 취업을 위해(13.0%), 유학을 위해(10.0%) 등의 이유로 조사되었다(서덕희 외, 2015). 중도입국 전 모국에서의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서 온 청소년은 1%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으로의 이주를 통해 가족의 결합, 생활수준의 향상, 진로 및 진학의 부푼 기대를 안고 이주를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게 된 계기

구 분	빈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서	140(60.6)
중도입국 전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3(1.3)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31(13.4)
유학을 위해	23(10.0)
취업을 위해	30(13.0)
기타	4(1.7)

*출처: 서덕희 외(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연구(p.52).

가족의 대표적 기능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정서적 지지와 자녀의 사회화를 들 수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이 같은 가족의 기능의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모국에서 상당기간 부모와 떨어져 살던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소원했던 애착·유대 관계가 한국에 와서도 원만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낯선 한국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물질적·정서적 지원이 사실상 부재함에 따라 부정적인 심리 및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이수진, 김현주, 2016; 좌동훈, 2014). 상당수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낯선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데서 오는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재혼 가정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낯선 가족 구성원과의 적응과정에 따른 긴장과 갈등으로 이중고에 노출되어 있다. 석희정, 하춘광(2015)은 중도입국 청소년들 상당수가 모국에서의 정체성과 경험을 무시 또는 박탈당한 채 급조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을 강요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들의 가족생활적응의 과정과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범주를 ‘자신의 근거를 박탈당하고 유예인으로 살기’로 규정하

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있어 언어, 문화, 경제, 제도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그 중에서도 언어장벽을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고 있다(서덕희 외, 2015) <표 II-3 참조>. 전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중후반 청소년의 경우, 언어문제는 학업과 진로 등 한국사회에 터전을 잡고 살아나가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소 중 하나인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와 정부가 한국어 교육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언어장벽 해결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성공적인 적응과 진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이다. 즉, 이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언어문제의 해결이 없다면 다수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꿈과 재량을 제대로 펼칠 수 없기에 우리사회의 아웃사이더로 남아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은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언어교육 지원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김진희, 2011; 장명선, 송연숙, 2011).

표 II-3 한국 입국 후 가장 힘든 사항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빈도(%)	빈도(%)
경제적 어려움	24(11.9)	8(4.0)	12(5.9)
건강	13(6.4)	6(3.0)	2(1.0)
부모님과의 관계 악화	16(7.9)	8(4.0)	6(3.0)
이성과의 교제	8(4.0)	5(2.5)	7(3.5)
일자리 구하기	12(5.9)	20(9.9)	19(9.4)
외국인에 대한 차별	6(3.0)	14(6.9)	6(3.0)
체류자격 문제	21(10.4)	22(10.9)	13(6.4)
미래에 대한 불안	11(5.4)	24(11.9)	26(12.9)
우울, 불안, 좌절 등 정서적 문제	6(3.0)	15(7.4)	11(5.4)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8(4.0)	13(6.4)	13(6.4)
언어(한국어) 문제	55(27.2)	31(15.3)	34(16.8)
기타	4(2.0)	1(0.5)	3(1.5)
무응답	18(8.9)	35(17.3)	50(24.8)
합계	202(100.0)	202(100.0)	202(100.0)

*출처: 서덕희 외(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연구(p.57).

언어 문제에 이어, ‘경제적 어려움(11.9%)’, ‘체류자격 문제(10.4%)’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항으로 조사되었다(서덕희 외, 2015). 중도입국 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상당수는 사회경제적지위(SES)가 중산층 이하로 청소년 복지지원법의 개선을 통해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 및 진로 탐색 등 일상생활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윤향희, 김정제(2016)는 현재의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물질적·경제적 복지에 관련된 근거조항이 사실상 부재함을 들어 현재의 이 법 조항으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충분한 복지지원과 보호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체류자격으로 인한 제도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적·정책적 개선 노력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한 송효진 외(2015)는 현재의 법제도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어 우리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법적·제도적 지원 및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체류자격의 불이익에 따른 교육적 혜택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중도입국 청소년의 고충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류방란, 오성배, 2012; 양계민, 조혜영, 2011). 법적·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몰린 중도입국 청소년 상당수의 경우 제한된 언어능력 및 교육수준 그리고 어려운 가정형편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학령기에도 학업중단을 경험하고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자신의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게 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NEET: Not in eud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비율은 37.7%로 일반 청소년의 니트족 비율 대비 3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이규용 외, 2014). 이는 결국 빈곤의 악순환과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저연령일수록 재학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양계민, 조혜영 2011). 9세부터 13세 집단의 경우 대부분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중학교 및 고등학교 연령집단은 각각 60.5%와 36.7%만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 이상 집단의 재학률은 18.3%에 머물러 교육에 의한 계층이동 축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학령기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중단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중도입국 및 외국인 학생의 학업중단 사례는 2012년 6,764명에서 2013년에는 9,720명으로 급증하였다(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 2015). 비재학 상태의 학령기 청소년 절반이상(57.4%)이 학교공부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학업중단의 주원인으로 들고 있다(양계민, 조혜영, 2011).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15세 이상 외국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의 활동별 현황을 제시한 <표 II-4>에 의하면, 응답자의 삼분의 일 가량이 교육/훈련이나 취업 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족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이선 외, 2015).

표 II-4 15세 이상 외국성장 자녀가 주로 하는 활동별 현황

연령	학업(학생)	일(취업자)	직업훈련	하는 일 없음	전체(%)
만 15세 ~ 17세	74.4	4.7	3.6	17.3	100(1,994)
만 18세 이상	24.7	34.8	5.0	35.4	100(12,253)
계	31.7	30.6	4.8	32.9	100(14,247)

*출처: 김이선 외(2015).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표 재구성.

3. 중도입국 청소년의 지원

중도입국청소년들을 포함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법적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서구의 관련법과 비교했을 때, 이들에 대한 법적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신현옥 외, 2013).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재단의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 사업은 교육과 복지의 사각 지대에 처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진로 지도, 문화 및 심리 적응 등의 체계적 프로그램을 2011년부터 꾸준히 제공하며, 정부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주요 기관이다(신현옥 외, 2013; 오성배 외, 2013). 이외에, 대안학교와 지자체별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종교 및 시민 단체별로 이들에 대한 지원노력을 기울이는 곳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 중 하나인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다문화 예비학교를 운영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청 주도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경기도내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방문학습지를 통한 한글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의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초기 관문 진학지도 상담실인 꿈 다리 상담실을 운영하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학·진로 초기 상담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교육 적응지원 및 진로·직업기술지원에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정몽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멘토링 및 진로·진학 교육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체류신분 관련 법적·행정적 체계에 있어 아직까지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체류신분상 외국인이란 이유로 실질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다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얻은 후 교육과 취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을 발휘하는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고 빈곤의 악순환 속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방치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하여 우리 국민으로 살아갈 이민자들에게만 지원과 보호가 따라야한다는 논리는 세계적 흐름에 거스르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다. UN아동권리협약문 중 실제적인 아동권리를 담고 있는 조항은 총 40조이다. 1조부터 4조, 7조부터 9조, 그리고 30조의 내용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게는 누구나 행정적·입법적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인권 보호와 부당한 차별과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누려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유엔 아동권리 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아동권리협약문의 내용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법제 현황을 들여다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안녕을 국가 차원에서 도모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이같은 입법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법적·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손영화, 박봉수, 2015; 윤향희, 김경제, 2016).

제 III 장

설문조사 결과

1.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심층 분석 결과

제 III 장 설문조사 결과

1.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본 조사는 현황 파악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의 특성상 스노우볼 샘플링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등의 소속된 청소년들과 무소속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은 서울 다솜학교, 인천 한누리 학교, 한국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등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사회복지시설 등에 소속되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어떠한 기관 및 학교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아르바이트 및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사설 학원 등에 다니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등을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연구진이 현장방문조사를 통해 직접 설문을 진행 및 수거하는 형태를 취했으며, 시·공간의 한계로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참여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조사 시기는 2016년 7월 초순부터 10월 초순까지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589개가 수거되었으나, 연령제한 및 한국출생으로 외국거주경험이 없는 응답자의 설문지 등을 제외하여 재학생 404명, 비재학생 173명으로 총 577명의 표본을 얻었다. 조사 설계는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조사 설계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청소년 지원기관에 소속된 중도입국청소년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지역사회복지시설 등)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서울다솜학교, 인천한누리학교, 한국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 예비학교 등) ✓ 무소속 중도입국청소년 등 기타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방문조사 ✓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 시기	✓ 2016년 7월 ~ 2016년 10월
표본 크기	✓ 577명(재학: 404명, 비재학: 173명)

2) 설문조사 문항 구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 내용은 크게 중도입국 청소년의 실태파악과 자립지원방안으로 구분된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영역과 내용 등을 개발하고, 현장전문가와 관련부처 등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정책협의회를 통해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특성상 2번부터 12번까지 재학생과 비재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언어장벽으로 인해 설문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등 총 5가지 언어로 작성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된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은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설문조사 문항 출처

	영역	하위 영역	출처
1	교육	입국 후 정규학교 입학 소요기간*	연구진 작성
		최종희망학력*	연구진 작성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III, 김현철 외, 2015) '학업종단이유' 문항 재구성

	영역	하위 영역	출처
		학교생활 적응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김지경 외, 2010)
		또래 애착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김지경 외, 2010)
		교육/프로그램 참여경험	연구진 작성
2	일/노동	아르바이트/일 참여 실태 (업종, 임금, 시간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황여정 외, 2015)
		아르바이트/일하는 목적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황여정 외, 2015)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경험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양계민 조혜영, 2011)
3	진로/진학	진로정체감 및 한국에서의 나의미래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김지경 외, 2010) ‘진로정체감’ 문항 재구성 및 연구진 작성
		향후 진로계획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Ⅲ, 김현철 외, 2015) ‘향후 진로계획’ 문항 재구성
		진로고민 해결방법	연구진 작성
4	가정 환경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	연구진 작성
		현재 한국에서 부모와 별거 기간 및 이유	연구진 작성
		한국 입국 전 부모와 별거 기간	연구진 작성
		경제적 지원 주체	연구진 작성
		부모와의 관계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이봉주 외, 2015)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문항 재구성
		가족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이봉주 외, 2015) ‘가족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문항’ 재구성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김지경 외, 2010)
5	입국 전 상황	한국에 입국하게 된 주된 이유 및 경위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양계민, 조혜영, 2011)
		한국 입국 전 준비사항	연구진 작성
6	사회적 인식	다문화 친구 수용성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Ⅲ, 김현철 외, 2015) ‘다문화 수용성’ 문항 재구성
		입국 전/후 전반적 삶의 만족도	연구진 작성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	(중도입국청소년실태조사, 양계민, 조혜영, 2011)

	영역	하위 영역	출처
			‘한국문화적응도’ 문항 재구성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우선순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배상률 외, 2013)
		본인이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충족 여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배상률 외, 2013)
		성공의 평가 기준 및 한국사회 성공 조건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배상률 외, 2013)
		본인이 한국사회에서의 성공 가능성 평가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배상률 외, 2013)
		차별경험 여부	연구진 작성
		차별을 느낄 때 대응 방법/행동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정해숙 외, 2015) ‘차별대응’ 문항 재구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	연구진 작성
		한국사회 이탈가능성 및 이유	연구진 작성
7	신체 및 심리적 건강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연구진 작성
		자존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김지경 외, 2010)
		자아정체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김지경 외, 2010)
		행복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 김지경 외, 2010)
8	개인	최근 개인적인 고민 주제	연구진 작성
		한국어 수준(읽기, 쓰기, 듣기)	연구진 작성
		한국거주 기간	연구진 작성
		매체 이용 실태	(청소년 매체이용실태조사, 배상률 외, 2013)

★ 정규학교 재학생용 문항,

* 비재학생용 문항

3) 응답자 특성

(1) 성별 및 연령 분포

조사대상자는 총 577명으로 남자 청소년 327명, 여자청소년 247명, 무응답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18세 이상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15세 이상 18세 미만

32.1%, 12세 이상 15세 미만 5.7%, 9세 이상 12세 미만 0.5%이다.

표 Ⅲ-3 성별 및 연령 분포

		계	
		사례수 (명)	%
전체		577	100
성별	남자	327	56.7
	여자	247	42.8
	무응답	3	0.5
연령	9세 이상 12세 미만	3	.5
	12세 이상 15세 미만	33	5.7
	15세 이상 18세 미만	185	32.1
	18세 이상	320	55.5
	무응답	36	6.2

(2) 거주 지역 및 정규학교 재학현황

조사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권이 63.4%(366명)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제주권이 15.2%(88명), 대구/부산/울산/경상권이 13.8%(80명), 대전/충청/세종권이 6.7%(39명)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조사 응답자의 70%는 서울다솜학교, 인천한누리학교, 한국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등 국공립, 사립 중/고등학교 및 교육청 인가 위탁형 대안학교, 예비학교 등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나머지 30%의 상당수는 지역사회복지시설, 비인가 대안학교 등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한국어 수업, 레인보우스쿨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현재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기관 종사자 및 설문 참여 청소년들의 소개를 통해 설문(온라인/ 오프라인)이 가능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다.

연구진은 전국 단위의 중도입국 지원기관 및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 진행 및 수거를 진행하고, 제도권 밖 청소년들을 포함시키고자 온/오프라인으로 광범위하게 노력하였으나 조사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접촉이 용이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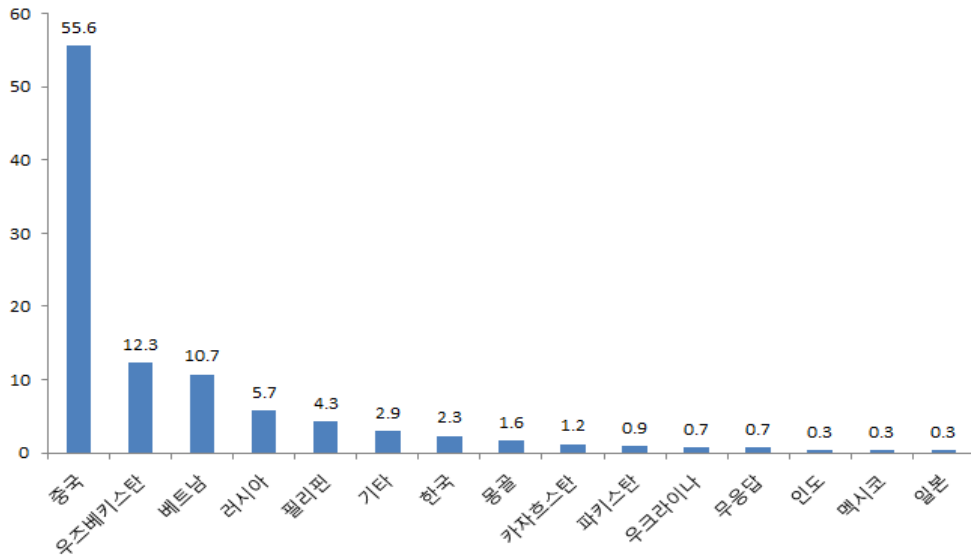
표 Ⅲ-4 조사 응답자의 거주 지역 및 재학여부

		계	
		사례수 (명)	%
전체		577	100
거주 지역	서울/인천/경기/강원	366	63.4
	대전/충청/세종	39	6.7
	광주/전라/제주	88	15.2
	대구/부산/울산/경상	80	13.8
	무응답	4	0.6
정규학교 재학여부	재학	404	70.0
	비재학	173	30.0

(3) 출신국가

다음으로 조사대상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출신국가를 비교해보면 [그림 Ⅲ-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출신국가는 총 20여개국으로 중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한국, 몽골,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인도, 멕시코, 일본을 포함해, 기타 출신국 응답으로 캄보디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미국, 방글라데시, 과테말라, 네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나타났다. 그 중 조사대상 청소년의 출신 국가로는 중국이 55.6%(321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우즈베키스탄이 12.3%(71명), 베트남 10.7(62명), 러시아 5.7%(33명), 필리핀 4.3%(25명), 기타 2.9%(17명) 등의 순이었다.

본 연구진은 최대한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언어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총 5가지 언어로 구성하였지만 여전히 타 언어권 출신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설문 참여가 불가능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III-1】 출신국가(%)

(4) 체류비자 및 한국 거주기간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어떤 종류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 III-5]와 같이 방문동거비자인 F-1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30.7%로 가장 많았고, 거주비자인 F-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14.6%, 단기종합비자인 C-3가 6.6%, 재외동포비자인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간은 '1년 이상 3년 미만'이 35.4%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이라 응답한 청소년이 32.4%, '3년 이상 5년 미만'이 19.1%, '5년 이상'이 8.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 체류 비자 및 한국 거주기간

		계	
		사례수 (명)	%
전체		577	100
체류비자	F-1(방문동거비자)	177	30.7
	F-2(거주비자)	84	14.6
	F-4(재외동포비자)	36	6.2

		계	
		사례수 (명)	%
	F-5(영주비자)	12	2.1
	C-3(단기종합비자)	38	6.6
	기타	72	12.5
	모름	137	23.7
	무응답	21	3.6
한국 거주기간	1년 미만	187	32.4
	1년이상 3년미만	204	35.4
	3년이상 5년미만	110	19.1
	5년 이상	48	8.3
	무응답	28	4.9

(5) 한국 입국 전 출신국에서의 학력수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의 학력수준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이 30.7%(17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중학교 중퇴를 한 후 한국으로 입국한 청소년이 25.3%(146명), 초등학교 졸업 후에 온 청소년이 13.7%(79명), 고등학교 중퇴 청소년이 11.3%(65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6 한국 입국 전 출신국에서의 학력수준

		계	
		사례수 (명)	%
전체		577	100
출신국 학력 수준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	37	6.4
	초등학교 졸업	79	13.7
	중학교 중퇴	146	25.3
	중학교 졸업	177	30.7
	고등학교 중퇴	65	11.3
	고등학교 졸업	47	8.1
	대학교 중퇴	7	1.2
	대학교 졸업	13	2.3
무응답		6	1.0

(6) 귀화상태 및 영주권 획득 현황

〈표 III-7〉은 조사 대상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귀화상태 및 영주권 획득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약 28%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본인의 귀화상태(28%) 및 영주권 획득현황(28.8%)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귀화 및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각각 25.6%와 27.5%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귀화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20.3%이며, 영주권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은 16.6%, 귀화를 신청한 상태인 청소년은 10.1%,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인 청소년은 9.8%로 나타났다.

표 III-7 귀화상태 및 영주권 획득현황 (%, 명)

		계			계
		% (명)			% (명)
전체		100(542)	전체		100(559)
귀화 상태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15.9(86)	영주권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다	17.2(96)
	귀화를 신청한 상태이다	10.1(55)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다	9.8(55)
	귀화 신청을 준비 중이다	20.3(110)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다	16.6(93)
	신청할 계획이 없다	25.6(139)		신청할 계획이 없다	27.5(154)
	모름	28.0(152)		모름	28.8(161)

4) 교육 및 일상생활

(1) 교육현황 및 최종 희망학력(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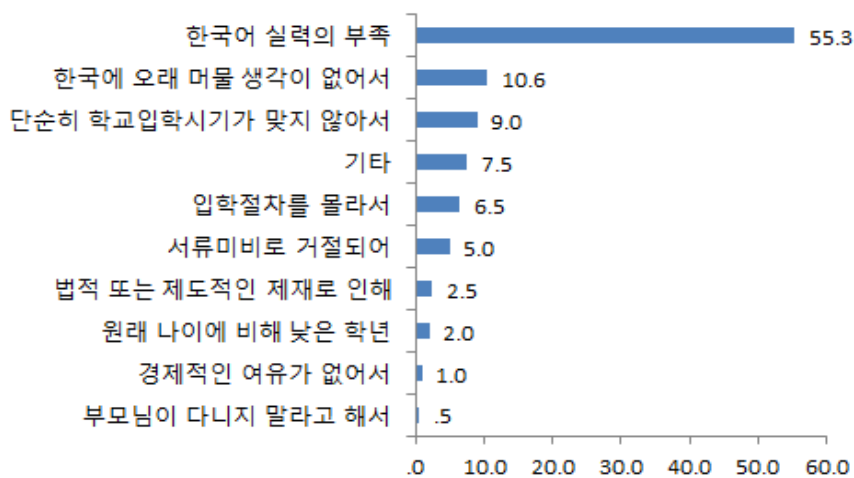
응답자 중 현재 정규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은 총 404명으로 중학생 141명(34.9%), 고등학생 245명(60.6%), 대학생 9명(2.2%)이다. 이들이 정규학교에 입학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3개월 미만인 31.7%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16.1%,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16.1%,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12.4%,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인 4.5%, 2년 이상이 10.6%으로 나타났다(〈표 III-8〉 참고).

표 Ⅲ-8 재학생 교육 현황

(%, 명)

		계			계
		% (명)			% (명)
전체		100(404)	전체		100(404)
학년	중학교 1학년	10.6(43)	입학 소요 기간	3개월 미만	31.7(128)
	중학교 2학년	10.9(44)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6.1(65)
	중학교 3학년	13.4(54)		6개월 이상 1년 미만	16.1(65)
	고등학교 1학년	24.0(97)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12.4(50)
	고등학교 2학년	19.1(77)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4.5(18)
	고등학교 3학년	17.6(71)		2년 이상	10.6(43)
	대학생	2.2(9)		무응답	8.7(35)
	무응답	2.2(9)			

입국 후 정규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 응답한 학생들은 입학 지체의 가장 큰 이유로 '한국어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55.3%)' 라고 응답하였고, '한국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어서(10.6%)', '단순히 입학시기가 맞지 않아서(9.0%)', '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입학절차를 몰라서(6.5%)', '입학 서류미비로 거절되어서(5.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그림 Ⅲ-2] 참고).



【그림 Ⅲ-2】 3개월 이상 입학이 지체된 이유(n=199)

정규학생들의 최종 희망학력은 '4년제 대학교(33.8%)'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20.8%)', '2·3년제 전문대학교(13.8%)', '대학원(6.7%)' 순의 응답을 나타냈다(<표 III-9> 참고). 응답 결과 성별에 따라 최종 희망학력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25.2%)', '4년제 대학교(25.2%)'의 순으로 응답한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46.2%)'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III-9 재학생 최종 희망학력 (% , 명)

		성별		% (명)
		남자	여자	
전체		100(230)	100(160)	100(390)
최종 희망학력	중학교	3.5(8)	0(0)	2.1(8)
	고등학교	25.2(58)	14.4(23)	20.8(81)
	전문대학교(2·3년제)	16.1(37)	17(10.6)	13.8(54)
	대학교(4년제)	25.2(58)	74(46.2)	33.8(132)
	대학원	5.2(12)	14(8.8)	6.7(23)
	모르겠음	24.8(57)	32(20.0)	22.8(89)

(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비재학생)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응답자 173명 중 과거에 한국에서 정규학교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4명(8.1%)으로 대부분 한국에서 정규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90.8%).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24.6%로 가장 높았고, '기타(17.6%)',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9.3%)', '비자문제로 인해(5.8%)',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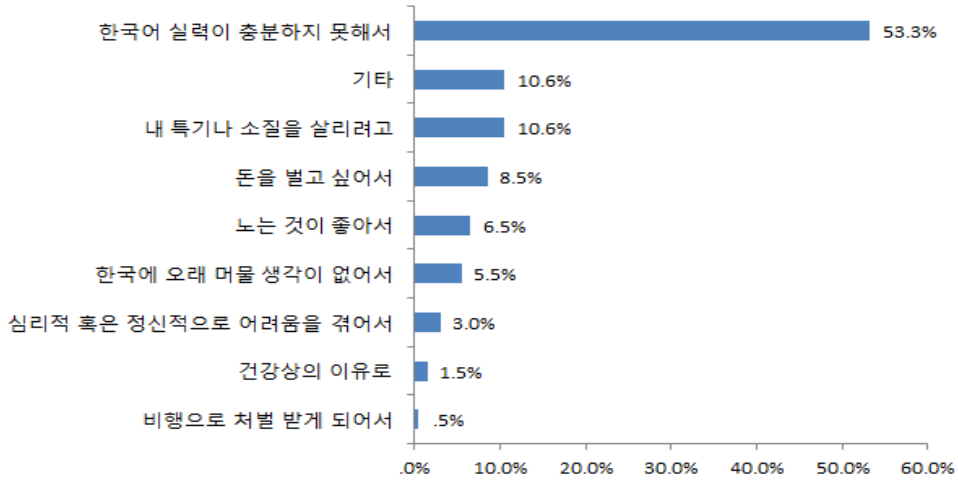
표 III-10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 (% , 명)

내용		계
1순위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24.6(106)
2순위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	9.3(40)
3순위	비자 문제로 인해	5.8(25)

내용		계
4순위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4.9(21)
5순위	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입학절차를 몰라서	4.6(20)
6순위	돈을 벌고 싶어서	3.9(17)
7순위	노는 것이 좋아서	3.2(14)
8순위	학교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3.0(13)
9순위	서류 미비로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지 못해서	3.0(13)
10순위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못 느껴서	3.0(13)
11순위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2.8(12)
12순위	한국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어서	2.6(11)
13순위	원래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을 다녀야 해서	2.6(11)
14순위	학교 친구나 선후배와의 갈등, 따돌림 때문에	1.9(8)
15순위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1.4(6)
16순위	단순히 학교 입학 시기가 맞지 않아서	1.4(6)
17순위	선생님이 싫어서 또는 선생님과 의견의 갈등 때문에	0.9(4)
18순위	부모님이 다니지 말라고 해서	0.9(4)
19순위	건강상의 이유로	0.7(3)
20순위	가정불화 때문에	0.7(3)
21순위	기타 법적, 제도적 제재로 인해	0.7(3)
22순위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0.2(1)
23순위	학교 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0.2(1)
-	기 타	17.6(76)

주) 다중응답으로 처리하여 N값이 일치하지 않음(N=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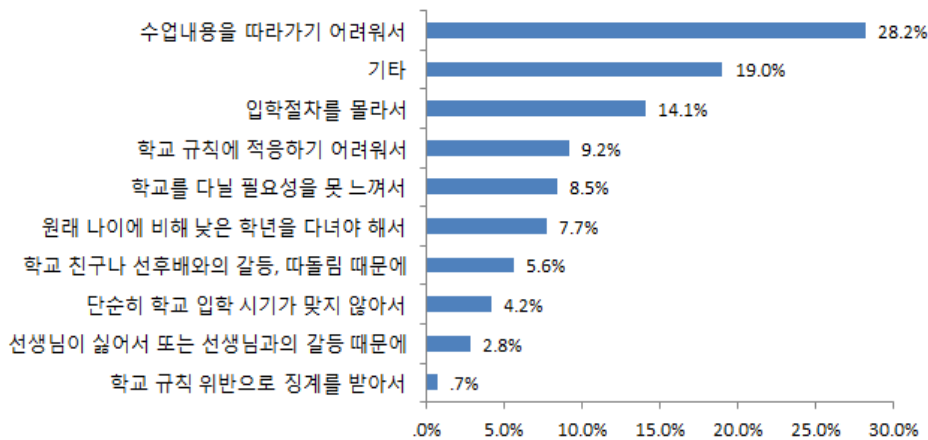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를 개인·학교·가족·제도적 영역별로 살펴보면 [그림 Ⅲ-3]과 같다. 먼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개인적인 영역으로는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해서’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기 위해(10.6%)’, ‘기타(10.6%)’, ‘돈을 벌기 위해서(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199)

【그림 III-3】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_개인적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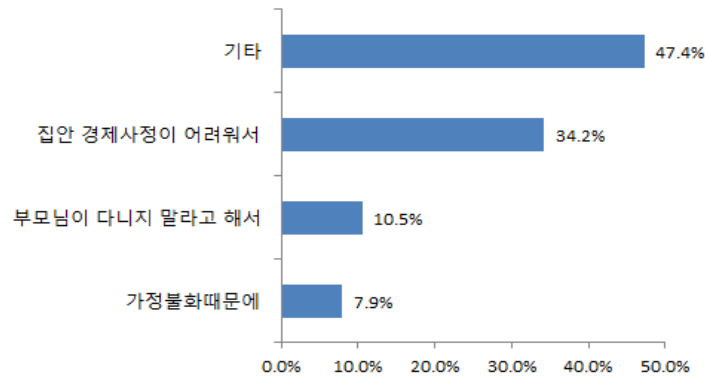
학교 또는 학업적인 영역에서는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서’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19%)’, ‘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입학절차를 잘 몰라서(14.1%)’, ‘학교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워서(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142)

【그림 III-4】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_학교 및 학업적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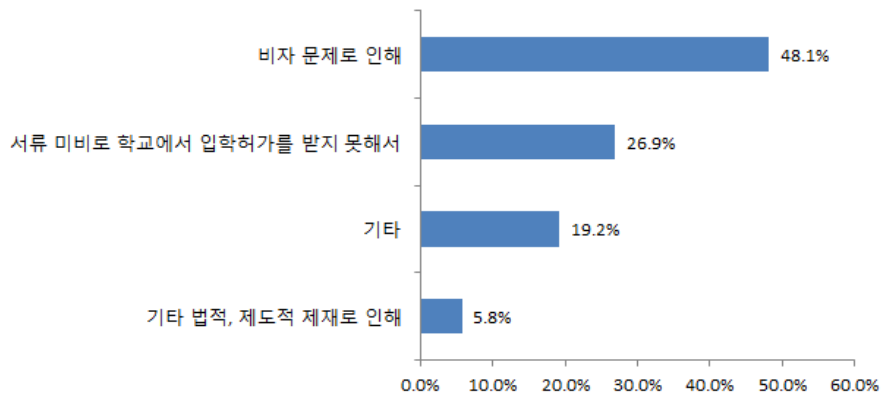
가족과 관련된 영역으로는 ‘기타(47.4%)’,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34.2%)’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38)

【그림 Ⅲ-5】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_가족관련 이유

법·제도와 관련된 영역에 응답한 청소년들은 ‘비자문제로 인해(48.1%)’가 가장 많았으며, ‘서류미비로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지 못해서(26.9%)’ 등의 응답을 나타냈다.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38)

【그림 Ⅲ-6】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_법·제도적 이유

(3) 재학여부에 따른 차이

① 한국어 수준

한국어 수준은 중도입국청소년이 본인의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등의 수준을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1= 전혀 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잘한다'의 범주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이 자신의 한국어수준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결과, 듣기수준(3.3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읽기(3.21), 말하기(3.10), 쓰기(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쓰기(여:3.14 > 남:2.96), 읽기(여:3.26 > 남:3.18), 전반적인 한국어실력(여:3.20 > 남:3.15)의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재학여부에 따른 응답결과는 재학생이 비재학생보다 말하기(재:3.19 > 비재:2.88), 쓰기(재:3.14 > 비재:2.80), 읽기(재:3.35 > 비재:2.89), 듣기(재:3.45 > 비재: 2.98), 전반적인 한국어 실력(재:3.28 > 비재:2.90)의 평균값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III-11 한국어 수준

			5점 평균(표준편차)
말하기	전체		3.10(.83)
	성별	남자	3.1(.88)
		여자	3.1(.76)
	재학여부	재학생	3.19(.81)
		비재학생	2.88(.85)
쓰기	전체		3.04(.81)
	성별	남자	2.96(.87)
		여자	3.14(.71)
	재학여부	재학생	3.14(.81)
		비재학생	2.80(.77)
읽기	전체		3.21(.80)
	성별	남자	3.18(.84)
		여자	3.26(.74)
	재학여부	재학생	3.35(.76)

			5점 평균(표준편차)
듣기		비재학생	2.89(.81)
	전체		3.30(.90)
	성별	남자	3.32(.97)
		여자	3.30(.79)
	재학여부	재학생	3.45(.85)
		비재학생	2.98(.95)
전반적인 평가	전체		3.17(.80)
	성별	남자	3.15(.85)
		여자	3.20(.73)
	재학여부	재학생	3.28(.79)
		비재학생	2.90(.78)

② 학교 및 센터생활 적응 및 또래애착

학교(센터)생활 적응에 대한 지표는 학교(센터) 내 선생님, 친구, 수업내용에 대한 적응수준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편이다', '5=매우그렇다'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센터)생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애착 지표는 친구와의 의사소통, 신뢰 관계 등의 수준을 측정한 것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그렇다'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2>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센터)생활 적응과 또래애착 수준과 성별 및 재학여부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응답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 및 센터생활적응은 평균 3.85점, 또래애착은 평균 3.65점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학교 및 센터생활적응 수준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고(여:3.95 > 남:3.77) 비재학생이 재학생보다 높은 적응수준을 보였으며(비재학생:3.99 > 재학생:3.80)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또래애착수준은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고(여:3.77 > 남:3.56), 비재학생은 재학생보다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비재학생:3.75 > 재학생:3.61)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III-12 학교 및 센터생활 적응 및 또래애착

			사례수	5점 평균	표준편차	t-test
학교 및 센터생활 적응	전체		567	3.85	.62	—
	성별	남자	321	3.77	.63	-3.38**
		여자	243	3.95	.60	
	재학여부	재학생	401	3.80	.59	-3.34**
		비재학생	166	3.99	.68	
또래애착	전체		566	3.65	.72	—
	성별	남자	320	3.56	.73	-3.51**
		여자	243	3.77	.69	
	재학여부	재학생	404	3.61	.69	-2.11*
		비재학생	163	3.75	.78	

주) *** p<.001; ** p<.01; * p<.05

<표 III-13>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참여경험(교육,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등)을 살펴본 것이다. 전체 중도입국 청소년 중 41.9%는 정규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8.0%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종교단체 등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7.4%,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6.5%, 사립학원(검정고시, 컴퓨터 학원 등)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22.7%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일상생활 참여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자 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정규학교에 다녀본 경험(남:44.4% > 여:39.4%), 지역 및 종교단체 등에서의 프로그램 참여경험(남:28.9% > 여:26.9%), 사립학원에 다녀본 경험(남:26.3% > 여:19.8%), 아르바이트나 일을 해본 경험(남: 42.3% > 여:34.4%)이 많다고 나타났으며, 여자는 남자보다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여:29.7% > 남:25.3%)를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생의 경우 현재 다니는 정규학교 이외의 다른 학교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44.4%인 반면, 비재학생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규학교에 다녀왔다는 응답률이 16.4%로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비재학생은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한 경험(비재학생:34.5% > 재학생:23.9%)을 제외한 지역 및 종교단체 프로그램 참여(재학생:30.2% > 비재학생:22.6%), 사립학원(재학생:24.1% > 비재학생:21.4%), 아르바이트(재학생:42.5% > 비재학생:29.8%) 등에서 재학생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13 일상생활경험(교육, 아르바이트, 프로그램 등)

(% , 명)

			경험 있다
정규학교*에 다닌 적이 있다	전체		41.9(242)
	성별	남자	44.4(143)
		여자	39.4(97)
	재학여부	재학생	53.5(214)
		비재학생	16.4(28)
아르바이트나 일한 적이 있다	전체		38.0(219)
	성별	남자	42.3(135)
		여자	34.4(84)
	재학여부	재학생	42.5(169)
		비재학생	29.8(50)
지역 및 종교단체 등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체		27.4(158)
	성별	남자	28.9(92)
		여자	26.9(66)
	재학여부	재학생	30.2(120)
		비재학생	22.6(38)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전체		26.5(153)
	성별	남자	25.3(80)
		여자	29.7(73)
	재학여부	재학생	23.9(95)
		비재학생	34.5(58)
사립학원(검정고시, 컴퓨터 학원 등)에 다닌 적이 있다	전체		22.7(131)
	성별	남자	26.3(33)
		여자	19.8(48)
	재학여부	재학생	24.1(95)
		비재학생	21.4(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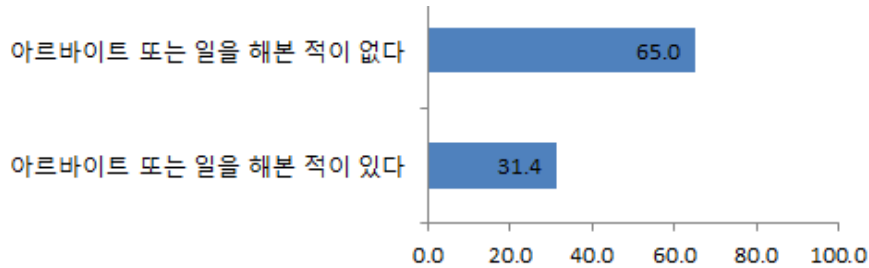
주) *재학생의 경우 현재 다니는 학교 이외의 정규학교의 경험을 묻음.

5) 일과 노동

(1) 아르바이트 또는 일 경험여부

전체 중도입국 청소년 577명 중 31.4%(182명)은 한국에서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의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그림 III-7] 참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남자 57.7%(105명), 여자 41.7%(76명)이며, 17세 이하 청소년이 35.7%(65명), 18세

이상이 54.9%(100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7】 아르바이트 또는 일을 해본 경험여부

(2) 근무 강도(주간 근무일수, 일간 근무시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평균 주간 근무일수 및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을 살펴보기 위해 본 설문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주관식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주간 평균 근무일수는 3.57일이며, 하루 평균 8.33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4> 참고).

근무강도를 성별, 연령 집단별로 살펴보면 주간 근무일수(남=3.73, 여=3.35)와 근무시간(남=8.79, 여=7.81)을 보면 모두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세 이상 청소년(4일)이 17세 이하 청소년(3.06일)보다 주간 근무일수는 많았다. 일간 근무시간은 남자 청소년이 평균 8.79시간으로 여자청소년(7.81시간)보다 많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7세 이하 청소년이 하루 평균 8.70시간으로 18세 이상 청소년(8.27시간)보다 많았다.

표 III-14 평균 근무강도(주간 근무일수, 일간 근무시간)

			사례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주간 근무일수	전체		158	3.57	2.03
	성별	남자	91	3.73	2.06
		여자	67	3.35	1.99
	연령	17세이하	58	3.06	1.92
		18세이상	87	4.00	2.03

			사례수	5점 평균	표준편차
일간 근무시간	전체		169	8.33	3.12
	성별	남자	96	8.79	3.02
		여자	72	7.81	3.08
	연령	17세이하	62	8.70	3.55
		18세이상	93	8.27	2.52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주간 근무일수는 주간 평균 1~2일이 122%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6일 이상 근무하는 청소년은 6.1%로 나타났다. 이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이하라 응답한 청소년이 57.5%, 9시간 이상이라 응답한 청소년이 4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근무강도(주간 근무일수, 일간 근무시간)

		사례수(%)			사례수(%)
주간 근무일수	1~2일	70(27.2)	일간 근무시간	1~4시간	15(8.9)
	3~4일	23(14.5)		5~8시간	82(48.6)
	5~6일	49(8.5)		9~12시간	68(40.3)
	7일	16(2.8)		13~24시간	4(2.4)

(3) 아르바이트 또는 일하는 목적

이들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주된 목적 1순위로 가장 많은 꼽은 것은 ‘나의 생활비(용돈)을 벌기 위해(51.6%)’이며, 그 다음으로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15.1%)’, ‘기타(13%)’,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10.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Ⅲ-16> 참고).

표 Ⅲ-16 아르바이트 목적(1순위)

(%, 명)

	성별		%(명)
	남자	여자	
전체	100(115)	100(77)	100(192)
등록금을 벌기위해	3.5(4)	5.2(4)	4.2(8)
나의 생활비(용돈)을 벌기 위해	49.6(57)	54.5(42)	51.6(99)

	성별		% (명)
	남자	여자	
나 이외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4.3(5)	9.1(7)	6.2(12)
나의 빚을 갚기 위해	.9(1)	0(0)	.5(1)
나 이외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0(0)	0(0)	0(0)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17.4(20)	11.7(9)	15.1(29)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13.9(16)	6.5(5)	10.9(21)
해외연수/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7(2)	0(0)	1(2)
다른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하지 못해서	0(0)	0(0)	0(0)
기타	8.7(10)	13(10)	13(20)

아르바이트 목적 1, 2순위로 응답한 것을 다중응답처리로 살펴보면, ‘나의 생활비(용돈)을 벌기 위해(38.8%)’,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18.7%)’,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16.7%)’, ‘나 이외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7.3%)’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Ⅲ-17> 참고).

표 Ⅲ-17 아르바이트 목적(1+2순위) (% , 명)

	성별		% (명)
	남자	여자	
전체	100(206)	100(136)	100(342)
등록금을 벌기위해	5.2(6)	9.0(7)	3.8(13)
나의 생활비(용돈)을 벌기 위해	67.0(77)	71.8(56)	38.8(133)
나 이외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9.6(11)	17.9(14)	7.3(25)
나의 빚을 갚기 위해	1.7(2)	0(0)	.5(2)
나 이외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2.6(3)	0(0)	.8(3)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33.0(38)	33.3(26)	18.7(64)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36.5(42)	19.2(15)	16.7(57)
해외연수/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8.7(10)	7.7(6)	4.7(16)
다른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하지 못해서	4.3(5)	1.3(6)	1.7(6)
기타	10.4(12)	14.1(11)	6.7(23)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342)

(4)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경험

<표 Ⅲ-18>은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의 부당한 경험여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근로한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 중 26.0%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에 응답한 청소년이 12.4%, ‘한국인과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가 12.1%,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11.4% 등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한 근로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아르바이트 또는 직장에서의 부당경험** **(%, 명)**

내용	경험있다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6.3(20)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거나 처음 하기로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5.7(18)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11.4(162)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4.8(15)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5.7(18)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8.3(26)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0(3)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6(2)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	12.4(39)
한국인과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2.1(38)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	26.0(82)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5.7(18)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315)

6) 진로 및 진학

(1) 진로정체감 및 한국에서의 나의미래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확신 및 구체적인 진로계획 등에 대한 것으로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편이다’,

‘5=매우그렇다’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2문항(외국출신이기에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힘들 것 같다, 한국은 내 장래 희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을 질문하였으며, 이 또한 5점 척도로 응답범주가 동일하다.

진로정체감은 여자청소년(3.73점)이 남자청소년(3.52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18세 이상(3.66점)이 17세 이하(3.58점)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9> 참고). ‘외국출신이기에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힘들 것 같다’는 문항의 응답평균은 남자청소년(2.95점)이 여자청소년(2.72점)보다 높았으며, 18세 이상(2.86점)이 17세 이하(2.8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내 장래희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는 문항의 응답평균은 여자청소년(3.79점)이 남자청소년(3.73점)보다 높았고, 17세 이하(3.77점)가 18세 이상(3.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II-19 진로 정체감 및 한국에서의 나의 미래 (평균, 표준편차)

	5점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세 이상
진로정체감	3.61(.75)	3.52(.73)	3.73(.77)	3.58(.8)	3.66(.71)
외국출신이기에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힘들 것 같다	2.85(1.1)	2.95(1.1)	2.72(1.1)	2.81(1.1)	2.86(1.1)
한국은 내 장래 희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3.75(.92)	3.73(.96)	3.79(.86)	3.77(.91)	3.7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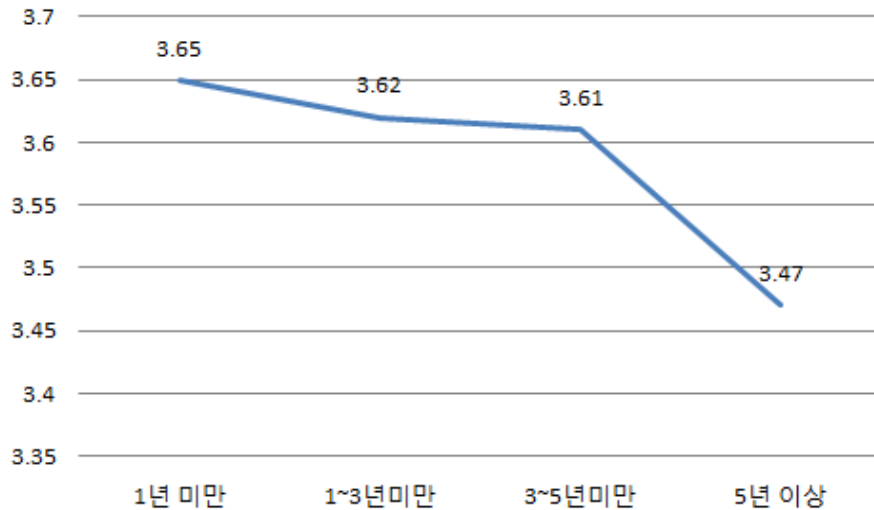
특히 진로정체감은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진로정체감 평균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평균 3.62점, ‘3년 이상 5년 미만’은 3.61점, ‘5년 이상’은 3.47점으로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로정체감이 점차 낮게 나타났다(<표 III-20>, [그림 III-8] 참고).

표 Ⅲ-20

한국 거주기간별 진로정체감 수준

(평균,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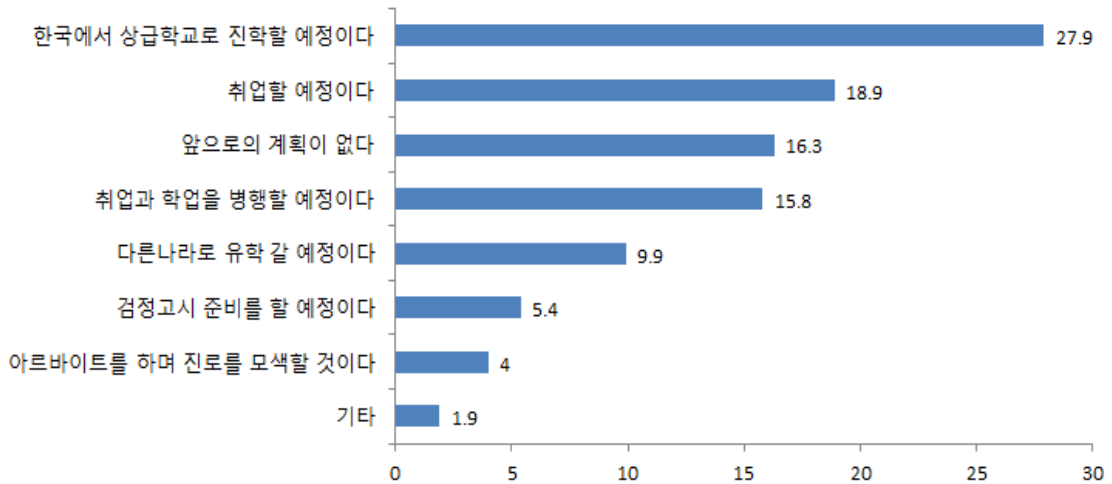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진로정체감	3.65(.71)	3.62(.82)	3.61(.76)	3.47(.63)



【그림 Ⅲ-8】 거주기간에 따른 진로정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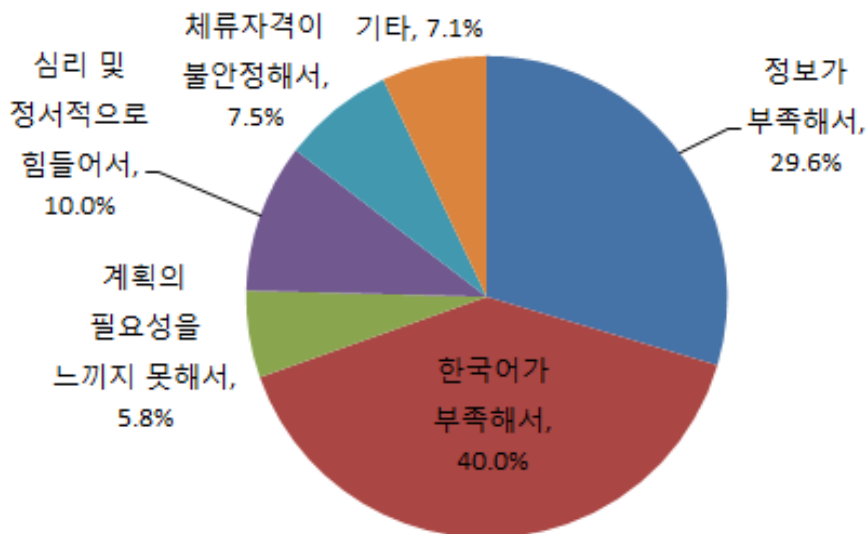
(2) 향후 진로계획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한국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라는 응답률은 2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취업할 예정이다’의 응답률은 18.9%,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가 16.3%로 나타났다.



【그림 III-9】 향후진로계획(중복응답 n=1,062)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 중 40%는 ‘한국어가 부족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하였으며,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정보가 부족해서’가 29.6%, ‘심리 및 정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응답이 10% 등으로 나타났다([그림 III-10] 참고).



【그림 III-10】 향후 진로계획이 없는 이유(중복응답 n=240)

(3) 진로 고민해결 방법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진로선택이나 미래계획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식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62.6%)’이며, ‘한국에 사는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 사람과의 소통/대화를 통해’가 16.1%,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대화를 통해’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진로 고민해결 방법(1순위) (%) , 명

	성별		% (명)
	남자	여자	
전체	100(308)	100(237)	100(545)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62.3(192)	62.9(149)	62.6(341)
한국에 사는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14.0(43)	19.0(45)	16.1(88)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나 지인과의 대화를 통해	6.8(21)	8.0(19)	7.3(40)
한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매체를 통해	4.2(13)	4.6(11)	4.4(24)
기타	5.5(17)	3.0(7)	4.4(24)
출신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비한국어 매체를 통해	4.5(14)	2.1(5)	3.5(19)
한국의 정부나 지원기관을 통해	2.6(8)	.4(1)	1.7(9)

진로 고민해결 방법 1, 2순위로 응답한 것을 다중응답처리로 살펴보면,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서’가 39.1%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 사는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사람과의 소통/대화를 통해’가 27.6%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정부나 지원기관을 통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2.8%로 가장 적었다(<표 Ⅲ-22> 참고).

표 Ⅲ-22 진로 고민해결 방법(1+2순위)

내용	응답률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39.1
한국에 사는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사람과의 소통/대화를 통해	27.6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대화를 통해	14.3

내용	응답률
한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매체를 통해	7.1
출신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비한국어 매체를 통해	5.0
기 타	4.1
한국의 정부나 지원기관을 통해	2.8

주) 다중응답 처리하여 n수의 차이가 있음 (n=1,026)

7) 가정 환경

(1)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은 ‘친어머니’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친아버지’가 18.6%, ‘양아버지’가 15.2% 등으로 나타났다(<표 III-2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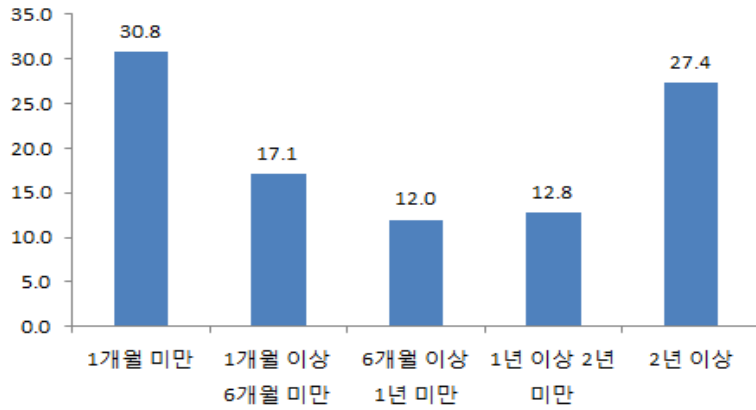
표 III-2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구성원 (% , 명)

	%(명)		%(명)
친어머니	40.8(463)	기타	3.3(37)
친아버지	18.6(211)	친척	2.5(28)
양아버지	15.2(173)	혼자	1.7(19)
형제/자매	12.6(143)	양어머니	1.1(12)
조부모	3.6(41)	친구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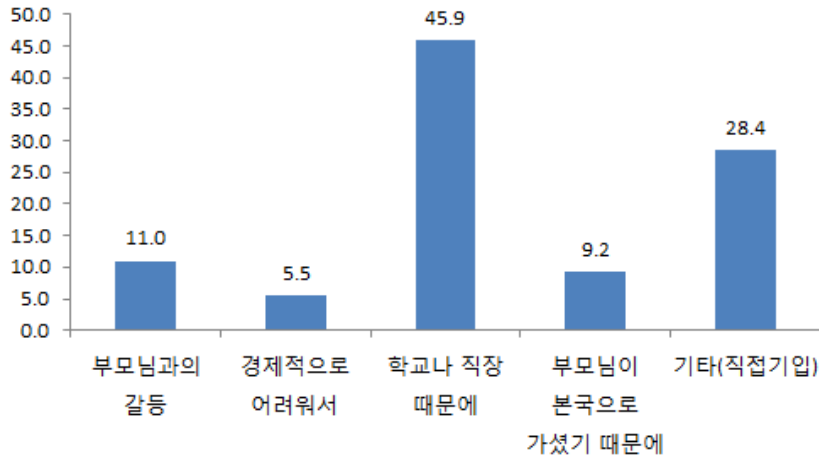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1135)

(2) 현재 한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 및 이유

현재 한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소년만 응답하는 문항에 117명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응답하였는데, 그 중 떨어져 지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가 30.8%, ‘2년 이상’이 27.4%,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17.1%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이유로는 ‘학교나 직장 때문에’라는 응답이 45.9%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8.4%, ‘부모님과 갈등’이 11.0%, ‘부모님이 본국으로 돌아가셔서’가 9.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1】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n=117)



【그림 III-12】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이유(n=109)

(3)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

한편, 조사 대상 중도입국 청소년 중 23.9%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41.8%는 '3년 이상', 8.5%는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지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4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 (% , 명)

	% (명)
전체	100(577)
없다	23.9(138)
6개월 미만	5.9(34)
6개월 이상 1년 미만	5.2(30)
1년 이상 2년 미만	8.5(49)
2년 이상 3년 미만	7.6(44)
3년 이상	41.8(241)
무응답	7.1(41)

(4) 경제적인 지원

현재 경제적인 지원(용돈, 생활비 등)을 받는 출처는 ‘친어머니’가 44.0%로 가장 많았고, ‘친아버지’가 24.4%, ‘양아버지’ 12.7%, ‘나 스스로 별어서 충당함’이 9.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경제적 지원 출처 (% , 명)

	% (명)		% (명)
친어머니	44.0(441)	나 스스로 충당	9.0(90)
친아버지	24.4(244)	조부모	2.7(27)
양아버지	12.7(127)	친척	4.0(40)
양어머니	1.0(10)	기타	2.3(23)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1,002)

(5)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부모와의 관계 지표는 긍정적인 관계를 묻는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으로 5점 척도이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 및 안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편이다’, ‘5=매우그렇다’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가족 환경을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버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각각 묻는 문항에 대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아버지(3.80점)보다 어머니(4.05점)와 더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평균 차이를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 남자청소년(3.84점)이 여자청소년(3.74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17세 이하 청소년(3.81점)이 18세 이상 청소년(3.7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여자청소년(4.07점)이 남자청소년(4.04점)보다 더 높은 평균을 보였고, 18세 이상 청소년(4.06점)이 17세 이하 청소년(4.0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문항에 대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평균 3.89점으로 응답하였고, 집단별 응답결과는 여자 청소년(3.99점)이 남자청소년(3.82점)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17세 이하 청소년(3.92점)이 18세 이상 청소년(3.87점)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26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평균, 표준편차)

	5점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세 이상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	3.80(.94)	3.84(.92)	3.74(.98)	3.81(.96)	3.78(.95)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	4.05(.83)	4.04(.85)	4.07(.80)	4.02(.85)	4.06(.82)
긍정적인 가족 환경	3.89(.9)	3.82(.91)	3.99(.87)	3.92(.91)	3.87(.91)

(6)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지표는 부모의 체벌, 폭언 등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편이다’, ‘5=매우그렇다’로 5점 척도이다. 평균 점수가 높을수록 중도입국 청소년이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은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각각 묻는 문항에 대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어머니(2.21점)가 아버지(2.15점)보다 더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남자청소년은 여자청소년보다 아버지(남: 2.25점 > 여: 2.01점), 어머니(남: 2.29점 > 여: 2.10점)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세 이하의 경우 아버지(17세이하: 2.19점 > 18세이상: 2.18점), 18세 이상의 경우 어머니(18세이상: 2.26점 > 17세이하: 2.19점)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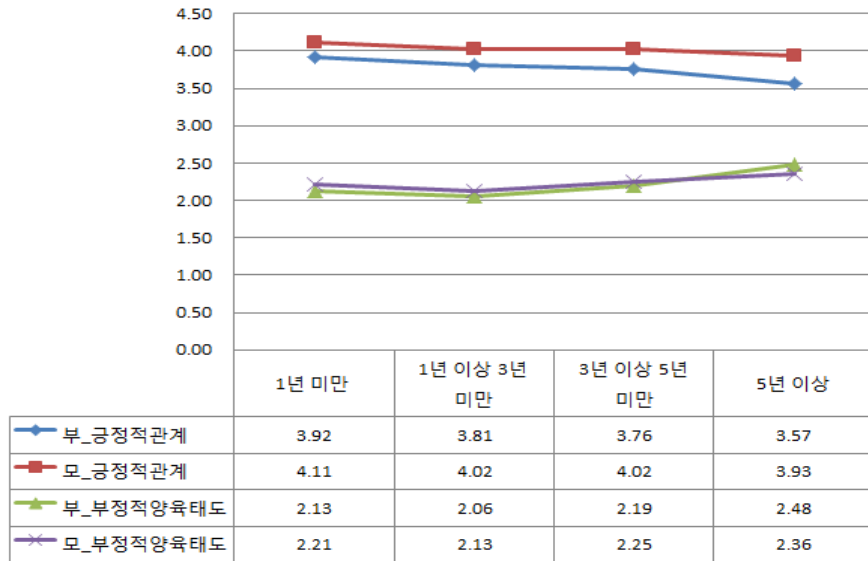
표 III-27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평균, 표준편차)

	5점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세 이상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2.15(1.01)	2.25(1.0)	2.01(1.0)	2.19(1.0)	2.18(1.02)
어머니의 부정적인 양육태도	2.21(1.02)	2.29(1.0)	2.10(1.0)	2.19(1.0)	2.26(1.05)

(7) 한국거주기간별 부모와의 관계 및 부정적인 양육태도

특히 한국에서의 거주기간별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 및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림 III-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모님과의 긍정적인 관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부:3.92, 모:4.11),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부:3.57, 모:3.93). 한편, 부모님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경우 한국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청소년들이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으며(부:2.06, 모:2.13), ‘5년 이상’인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부:2.48, 모:2.36).



【그림 Ⅲ-13】 한국거주기가별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태도

8) 입국 전 상황

(1) 한국에 입국하게 된 주된 이유 및 입국 경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 입국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35.9%)’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34.5%)’라고 응답하였다.

표 Ⅲ-28 한국 입국 이유

(%, 명)

	%(명)
전체	100(577)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35.9(207)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34.5(199)
한국에서 돈을 벌기위해서	7.8(45)
부모 이외 가족 또는 친척과 함께 살기 위해서	2.1(12)
기타	9.0(52)
무응답	10.7(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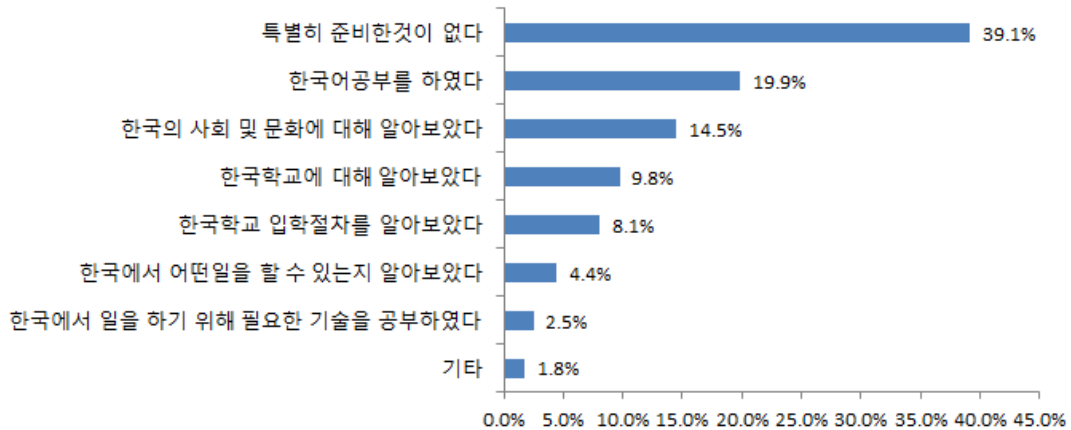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청소년이 약 61.3%, 가족 및 환경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이 약 27.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나와 부모님 모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53.7%로 가장 많았으며, ‘나는 싫었으나 부모님이 원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19.6%, ‘기타’ 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9 한국 입국경위

		% (명)
전체		100(577)
자발적	부모님은 고국에서 살기를 원했으나, 내가 들어오기를 적극 원했다	7.6(44)
	나와 부모님 모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53.7(310)
비자발적	나는 싫었으나 부모님이 원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19.6(113)
	나와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	7.5(43)
기타		8.8(51)
무응답		2.8(16)

(2) 한국 입국 전 준비사항

한국에 들어오기 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19.9%)’, ‘한국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14.5%)’, ‘한국 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다(9.8%)’, ‘한국 학교 입학 절차를 알아보았다(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다중응답처리로 N수가 일치하지 않음(n=841)

【그림 Ⅲ-14】 한국 입국 전 준비사항

9) 사회적 인식

(1) 다문화 친구 수용성

다문화친구 수용성과 관련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단짝/이성)친구를 사귀어 의향에 대해 단짝 친구의 경우에는 한국 청소년보다 다른 나라 청소년과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타문화권: 3.89점 > 한국: 3.86점), 이성친구가 될 의향은 한국 청소년이 다른 나라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한국: 3.75점 > 타문화권: 3.69점).

성별 및 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 청소년들과 단짝이 될 의향은 여자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성친구가 될 의향은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17세 이하 청소년보다 다문화 친구 수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30 다문화 친구 수용성 (평균, 표준편차)

		5점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세 이상
단짝친구 (이성/ 동성)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출신국(한국 제 외)의 청소년과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3.89 (.99)	3.86 (.99)	3.93 (.99)	3.88 (.99)	3.88 (.99)
	한국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3.86 (.95)	3.81 (.97)	3.92 (.92)	3.80 (.94)	3.90 (.96)
이성친구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출신국 (한국 제외)의 사람을 기꺼이 이성 친구로 사 귄 수 있다	3.69 (1.06)	3.72 (1.03)	3.66 (1.08)	3.53 (1.10)	3.82 (.99)
	한국 사람을 기꺼이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3.75 (1.06)	3.84 (1.04)	3.65 (1.08)	3.63 (1.10)	3.86 (1.02)

(2) 입국 전/후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한국 입국 전과 후로 각각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1=매우불만족' ~ '10=매우만족'으로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입국 전 고국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6.94점으로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6.89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응답결과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입국 전 삶의 만족도(7.01점)가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6.92점)보다 더 높으나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입국 전 삶의 만족도(6.82점)가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6.86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입국 전 고국에서의 삶의 만족도(7.23점)가 한국(6.94점)에서보다 더 높았으며, 18세 이상 청소년은 입국 전(6.84점)보다 한국(6.92점)에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표 III-31 출신국/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입국 전 고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전체		6.94(2.14)	6.89(1.79)
성별	남자	7.01(2.18)	6.92(1.81)
	여자	6.82(2.07)	6.86(1.77)

		입국 전 고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연령	17세 이하	7.23(1.98)	6.94(1.70)
	18세 이상	6.84(2.20)	6.92(1.86)

(3)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

<표 III-32>는 한국 문화 및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각 문항별 평균값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의 평균은 4.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열심히 노력하면 한국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가 평균 3.86점,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친절하다’의 평균은 3.76점, ‘평소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를 즐기는 편이다’의 평균이 3.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t-test를 통해 검증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한국문화에 더 관심이 있고(여:3.67점 > 남:3.43점), 평소 한국문화를 더 즐기는 편(여:3.79점 > 남:3.53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더 자랑스럽다고(여:3.63점 > 남:3.39점) 응답하였으며,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여: 3.71점 > 남:3.52점)고 응답하였다. 한편, 연령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18세 이상인 청소년이 17세 이하 청소년보다 한국 문화에 관심이 더 많으며(18세이상:3.63점 > 17세이하:3.41점), 평소 한국문화를 더 즐기고 있는 편(18세이상:3.72점 > 17세이하:3.55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믿을만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17세 이하 청소년의 평균이(3.55점) 18세 이상 청소년의 평균(3.39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32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에 관심이 많다	전체	571	3.53	.95	—
	성별	남자	3.43	1.023	-2.96**
		여자	3.67	.845	
	연령	17세이하	3.41	.975	-2.54**
		18세이상	3.63	.936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평소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를 즐기는 편이다	전체	571	3.64	.916	—
	성별	남자	323	3.53	-3.36**
		여자	245	3.79	
	연령	17세이하	216	3.55	-2.11*
		18세이상	312	3.72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전체	571	3.49	.899	—
	성별	남자	323	3.39	-3.19**
		여자	245	3.63	
	연령	17세이하	216	3.50	.17
		18세이상	312	3.49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전체	570	3.60	.908	—
	성별	남자	322	3.52	-2.56*
		여자	245	3.71	
	연령	17세이하	215	3.58	-.26
		18세이상	312	3.61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전체	565	4.16	.88	—
	성별	남자	320	4.12	-1.56
		여자	242	4.24	
	연령	17세이하	213	4.21	.93
		18세이상	310	4.13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전체	570	3.76	.85	—
	성별	남자	323	3.78	.57
		여자	244	3.74	
	연령	17세이하	216	3.81	.99
		18세이상	312	3.73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믿음만하다	전체	568	3.45	.87	—
	성별	남자	322	3.46	.13
		여자	243	3.45	
	연령	17세이하	216	3.55	2.06**
		18세이상	309	3.39	
열심히 노력하면 한국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전체	567	3.86	.85	—
	성별	남자	321	3.85	-.51
		여자	243	3.88	
	연령	17세이하	215	3.87	-.18
		18세이상	310	3.85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test
출신국에 있는 친구와 지인에게도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전체		571	3.59	1.00
	성별	남자	323	3.57	1.033
		여자	245	3.64	.960
	연령	17세이하	216	3.61	.999
		18세이상	312	3.55	1.023

주) *** p<.001; ** p<.01; * p<.05

(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건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화목한 가정(40.4%)’이며, ‘건강’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9.5%, ‘재력 및 경제력’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8%, 꿈·목표의식 4.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3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건(1순위) (% , 명)

내용	성별		% (명)
	남자	여자	
전체	100(313)	100(231)	100(544)
화목한 가정	38.0(119)	43.7(101)	40.4(220)
건강	19.8(62)	19(44)	19.5(106)
재력, 경제력	20.1(63)	15.2(35)	18.0(98)
꿈·목표의식	4.2(13)	4.8(11)	4.4(24)
감사·긍정적 태도	3.8(12)	4.3(10)	4.0(22)
친구/대인관계	2.6(8)	5.2(12)	3.7(20)
연인(이성관계)	4.5(14)	0.4(1)	2.8(15)
직업/직장	2.6(8)	1.7(4)	2.2(12)
종교생활	1.6(5)	2.2(5)	1.8(10)
자아성취	1.5(5)	2.2(5)	1.8(10)
기타	1.3(4)	1.3(3)	1.3(7)

조사 대상 청소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에 5점 만점의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이 평균 3.28점으로 남자 청소년(3.2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7세 이하 청소년이 평균 3.26점으로 18세 이상 청소년(3.24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 충족여부

		평균(표준편차)
전체		3.24(.86)
성별	남자	3.21(.89)
	여자	3.28(.82)
연령별	17세 이하	3.26(.79)
	18세 이상	3.24(.90)

한 개인의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평가 기준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50%의 중도입국 청소년은 ‘꿈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 응답하였고, ‘삶의 주관적 만족감(21.1%)’, ‘사회적 지위나 권력(11.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조건으로 ‘노력/성실성(33.1%)’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학벌/학력(21.1%)’, ‘타고난 자질 및 재능(15.5%)’, ‘돈/재력(10.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35 성공 평가 기준 & 한국사회 성공조건 (%, 명)

내용		성별		%(명)
		남자	여자	
삶의 성공 평가 기준	전체	100(309)	100(221)	100(530)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	9.1(28)	4.1(9)	7.0(37)
	사회적 지위나 권력	12.9(40)	9.0(20)	11.3(60)
	주위의 평판이나 명성	8.7(27)	5.4(12)	7.4(39)
	삶의 주관적 만족감	20.4(63)	22.2(49)	21.1(112)
	꿈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44.0(136)	58.4(129)	50.0(265)
	기타(직접기입)	4.9(15)	0.9(2)	3.2(17)

내용		성별		%(명)
		남자	여자	
한국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수단/조건	전체	100(287)	100(191)	100(478)
	타고난 자질 및 재능	17.1(49)	13.1(25)	15.5(74)
	학벌/학력	21.3(61)	20.9(40)	21.1(101)
	가정환경/집안배경	4.9(14)	8.9(17)	6.5(31)
	돈/재력	12.2(35)	8.9(17)	10.9(52)
	노력/성실성	31.4(90)	35.6(68)	33.1(158)
	인맥(학연, 지연, 혈연 등)	4.2(12)	3.1(6)	3.8(18)
	외모	1.0(3)	1.6(3)	1.3(6)
	운	2.1(6)	3.7(7)	2.7(13)
	기타	5.9(17)	4.2(8)	5.2(25)

<표 III-35>는 위에 삶의 성공 평가 기준 및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수단/조건을 고려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의 미래 성공가능성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응답범주는 '1=매우불만족' ~ '10=매우만족'으로 10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한국사회에서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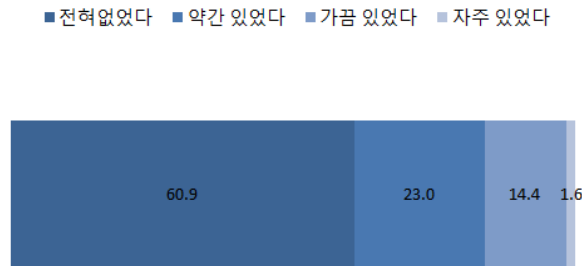
응답결과, 여자 청소년(6.36)이 남자 청소년(6.34)보다 한국사회에서의 본인의 미래성공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고, '18세 이상(6.32)'이 '17세 이하(6.24)'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표 III-36 한국사회에서의 미래 성공 가능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전체		6.34(1.87)
성별	남자	6.34(1.95)
	여자	6.36(1.87)
연령별	17세 이하	6.24(1.89)
	18세 이상	6.32(1.87)

(5) 차별경험 및 대응방법

지난 6개월 동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문화 차이, 언어 장벽, 외모 차이 등)으로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60.9%이며,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약 39%로 '약간 있었다(23.0%)', '가끔 있었다(14.4%)', '자주 있었다(1.6%)'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15】 차별경험여부

차별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대응방법 1순위는 '그냥 참는다'가 58.9%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알린다' 17.8%, '친구나 선생님, 지인 등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9.1%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37 차별대응 방법(1순위) (% , 명)

	성별		%,(명)
	남자	여자	
전체	100(127)	100(91)	100(219)
그냥 참는다	61.4(78)	54.9(50)	58.9(129)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알린다	15(19)	22(20)	17.8(39)
차별을 한 당사자에게 따진다	7.9(10)	11(10)	9.1(20)
친구나 선생님, 지인 등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5.5(7)	6.6(6)	5.9(13)
기타	5.5(7)	3.3(3)	4.6(10)
정부나 관련기관에 민원처리를 한다	3.1(4)	1.1(1)	2.3(5)
SNS 등 인터넷에 올린다	1.6(2)	1.1(1)	1.4(3)

차별 대응방법 1, 2순위로 응답한 것을 다중응답처리로 살펴보면, '그냥 참는다' 38.4%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알린다' 22.0%, '친구나 선생님, 지인 등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16.4%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38 차별대응 방법(1+2순위)

	응답률(%)
그냥 참는다	38.4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알린다	22.0
친구나 선생님, 지인 등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16.4
차별을 한 당사자에게 따진다	11.5
기타(직접기입)	6.4
SNS 등 인터넷에 올린다	2.8
정부나 관련기관에 민원처리를 한다	2.6

주) 다중응답처리로 인해 N수가 일치하지 않음(n=391)

(6)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수

<표 III-39>는 현재 한국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이나 가족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한국인, 한국에 사는 고국출신동포/비한국인, 고국에 사는 친척/친구/지인 별로 살펴본 응답 결과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한국인의 경우, '1명 이상 5명 이하'라 응답한 청소년이 69.4%로 밀집 되어 있었으며, '6명 이상 10명 이하' 20.9%, '11명 이상' 4.7%로 나타났다. 한국에 사는 고국출신동포/ 비한국인의 경우, '1명 이상 5명 이하'라 응답한 청소년이 38%로 가장 많았지만, '6명 이상 10명 이하'라고 응답한 청소년도 20.3%나 됐고, 10.6%는 '11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고국에 사는 친척/친구/지인의 경우에도 '1명 이상 5명 이하'라 응답한 청소년이 46.7%로 가장 많았으나 '6명 이상 10명 이하'라 응답한 청소년도 27.5%, '11명 이상'이 25.1%로 나타났다.

표 III-39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수 (% , 명)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전체
	없음	1명 이상 5명 이하	6명 이상 10명 이하	11명 이상	
한국인	1.5(5)	69.4(229)	20.9(69)	4.7(27)	100(330)
한국에 사는 고국출신동포/ 비한국인	.7(4)	38.0(219)	20.3(117)	10.6(61)	100(401)
고국에 사는 친척/친구/지인	.5(3)	46.7(192)	27.5(113)	25.1(103)	100(411)

(7) 한국사회 이탈가능성 및 이유

한국 거주 희망여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중도입국 청소년 중 49.3%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한국이 아닌 출신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6.9%, ‘모르겠다’는 응답은 13.8%로 나타났다.

표 III-40 한국사회 이탈희망여부 (% , 명)

	성별		%,(명)
	남자	여자	
전체	100(291)	100(224)	100(515)
한국 계속 거주 희망	47.4(138)	51.8(116)	49.3(254)
한국이 아닌 출신국 또는 다른 나라에 거주 희망	37.8(110)	35.7(80)	36.9(190)
모르겠음	14.8(43)	12.5(28)	13.8(71)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벗어나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그 1순위 이유에 대해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19.2%)’, ‘한국에서의 삶은 외로워서(12.6%)’, ‘한국문화가 너무 달라 적응이 어려워(12.0%)’, ‘한국어가 어려워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아서(12.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41 한국 이탈희망 이유(1순위)

(% , 명)

	성별		%,(명)
	남자	여자	
전체	100(97)	100(69)	100(167)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는 차별 때문에	7.2(7)	8.7(6)	7.8(13)
한국 문화가 너무 달라 적응이 어려워서	13.4(13)	10.1(7)	12.0(20)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	22.7(22)	14.5(10)	19.2(32)
한국어가 어려워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아서	10.3(10)	14.5(10)	12.0(20)
한국에서는 구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6.2(6)	5.8(4)	6.0(10)
한국에서의 삶은 외로워서	14.4(14)	8.7(6)	12.6(21)
한국의 법적, 제도적 제재 때문에	1.0(1)	8.7(6)	4.2(7)
기타	24.7(24)	29.0(20)	26.3(44)

한국을 벗어나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은 이유 1, 2순위로 응답한 것을 다중응답처리로 살펴보면,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21.1%)’, ‘한국에서의 삶은 외로워서(14.3%)’, ‘한국문화가 너무 달라 적응이 어려워서(12.8%)’, ‘한국어가 어려워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아서(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한국 이탈희망 이유(1+2순위)

내용	응답률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	21.1%
한국에서의 삶은 외로워서	14.3%
한국문화가 너무 달라 적응이 어려워서	12.8%
한국어가 어려워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아서	12.0%
한국에서는 구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8.6%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는 차별때문에	7.1%
한국의 법적, 제도적 제재 때문에	5.6%
기타(직접기입)	18.4%

주) 다중응답처리로 인해 N수가 일치하지 않음(n=266)

10) 신체 및 심리적 건강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신체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 등으로 살펴보았다.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1문항, 자아존중감은 총 8문항, 삶의 만족도는 총 3문항, 자아정체감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한 것이다. 각각의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편이다', '5=매우그렇다'로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건강상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여자 청소년보다 신체적 건강상태(남:3.75 > 여:3.62), 자아정체감(남:3.36 > 여:3.33)이 높았고, 자아존중감(남:3.56 < 여:3.64)과 삶의 만족도(남:3.56 < 여:3.65)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7세 이하 청소년이 18세 이상 청소년보다 신체적 건강상태(17세 이하:3.75 > 18세이상:3.65), 자아정체감(17세이하:3.15 > 18세이상: 3.09), 삶의 만족도(17세이하: 3.60 > 18세이상: 3.59)가 높게 나타났고, 자아존중감(17세이하:3.48 < 18세이상:3.58)은 17세 이하 청소년이 18세 이상 청소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III-43 신체 및 심리적 건강 (평균, 표준편차)

	5점 평균 (표준편차)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7세 이하	18세 이상
신체적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	3.69(.88)	3.75(.87)	3.62(.87)	3.75(.85)	3.65(.95)
자아존중감	3.59(.61)	3.56(.61)	3.64(.61)	3.48(.48)	3.58(.47)
삶의 만족도	3.60(.83)	3.56(.86)	3.65(.79)	3.60(.83)	3.59(.83)
자아정체감	3.34(.58)	3.36(.61)	3.33(.54)	3.15(.59)	3.09(.59)

11) 최근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이슈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최근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 1순위는 '진로문제(37.2%)'로 나타났으

며, 그 다음으로 ‘돈 문제(15.7%)’,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7.3%)’ 등의 순을 나타냈다.

표 III-44 최근 개인적인 고민(1순위)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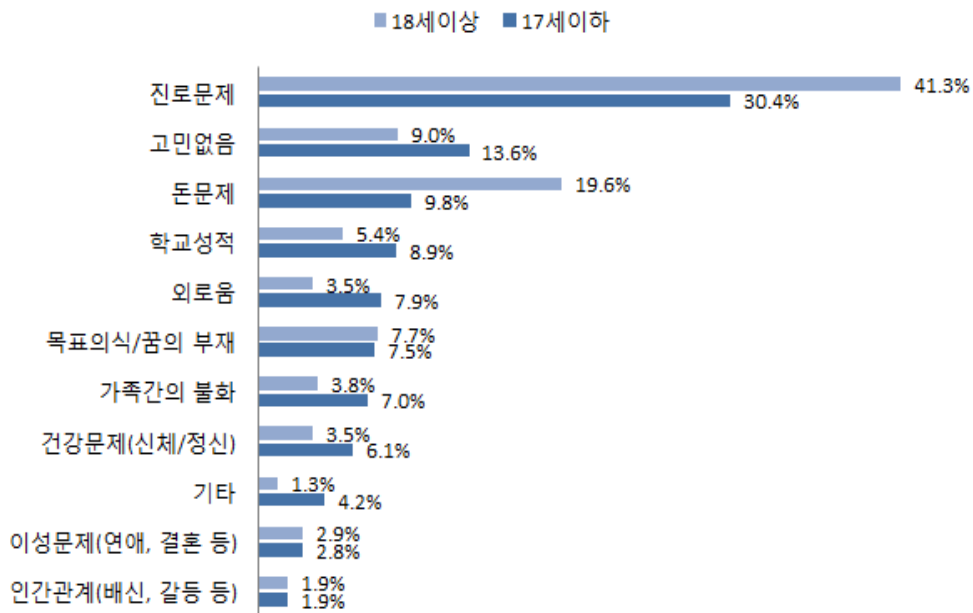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00(320)	100(239)	100(559)
진로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30.0(96)	46.9(112)	37.2(208)
돈 문제(채무, 가난 등)	19.4(62)	10.9(26)	15.7(88)
고민 없음	10.6(34)	10.9(26)	10.7(60)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7.5(24)	7.1(17)	7.3(41)
학교성적	5.6(18)	7.9(19)	6.6(37)
외로움	7.5(24)	3.3(8)	5.7(32)
가족 간의 불화	5.9(19)	3.8(9)	5.0(28)
건강문제(신체적 또는 정신적)	4.4(14)	4.2(10)	4.3(24)
이성문제(연애, 결혼 등)	3.4(11)	2.1(5)	2.9(16)
기타	3.1(10)	2.1(5)	2.7(15)
인간관계(배신, 갈등, 괴롭힘, 왕따 등)	2.5(8)	0.8(2)	1.8(10)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개인적인 고민 1순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III-45>와 같다.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진로문제(30.4%)’, ‘고민 없음(13.6%)’, ‘돈 문제(9.8%)’, ‘학교성적(8.9%)’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18세 이상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는 ‘진로문제(41.3%)’, ‘돈 문제(19.6%)’, ‘고민 없음(9%)’,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연령별 개인적인 고민(1순위) (%) , 명)

	연령별		전체
	17세이하	18세이상	
전체	100(214)	100(313)	100(526)
진로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30.4(65)	41.3(129)	36.9(194)
돈 문제(채무, 가난 등)	9.8(21)	19.6(61)	15.6(82)

	연령별		전체
	17세이하	18세이상	
고민없음	13.6(29)	9.0(28)	10.8(57)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7.5(16)	7.7(24)	7.6(40)
학교성적	8.9(19)	5.4(17)	6.8(36)
외로움	7.9(17)	3.5(11)	5.3(28)
가족 간의 불화	7.0(15)	3.8(12)	5.1(27)
건강문제(신체적 또는 정신적)	6.1(13)	3.5(11)	4.6(24)
이성문제(연애, 결혼 등)	2.8(6)	2.9(9)	2.9(15)
기타	4.2(9)	1.3(4)	2.5(13)
인간관계(배신, 갈등, 괴롭힘 왕따)	1.9(4)	1.9(6)	1.9(10)



【그림 III-16】 연령별 개인적인 고민(1순위)

최근 개인적인 고민의 1, 2순위로 응답한 것을 다중응답처리로 살펴보면, '진로문제(54.5%)'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돈 문제(23.4%)',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20.9%)' 등의 순을 나타냈다.

표 Ⅲ-46 최근 개인적인 고민(1+2순위)

내용	응답률
진로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54.5%
돈 문제(채무, 가난 등)	23.4%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20.9%
학교성적	17.6%
고민 없음	16.4%
외로움	10.0%
건강문제(신체적 또는 정신적)	9.4%
이성문제(연애, 결혼 등)	8.6%
가족 간의 불화	8.4%
인간관계(배신, 갈등, 괴롭힘, 왕따 등)	7.5%
기타	3.4%

주) 다중응답처리로 인해 N수가 일치하지 않음(n=1,010)

12) 매체이용실태

(1) 매체이용실태

중도입국 청소년의 매체이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6개월 동안 온라인게임, TV 프로그램/영상(한국어/비한국어 구분), 스마트폰, SNS(한국어/비한국어 구분), 서적/신문/인쇄물(한국어/비한국어 구분) 이용여부 및 이용시간을 파악하였다. 응답결과, 중도입국 청소년의 92.8%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6.5%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52.2%는 출신국 언어 또는 비한국어 사용을 통해 SNS를 이용하였으며, 한국어 TV 프로그램/영상(48.9%)을 본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47 매체이용여부

(%, 명)

		성별		% (명)
		남자	여자	
온라인게임 (PC, 스마트폰 포함)	이용	77.7(241)	51.7(121)	66.5(363)
	이용안함	22.3(69)	48.3(113)	33.5(183)
한국어 TV 프로그램/영상	이용	41.7(126)	58.8(134)	48.9(260)
	이용안함	58.3(176)	41.2(94)	51.1(272)
출신국 언어 또는 비한국어 TV 프로그램/영상	이용	40.9(122)	53.1(121)	46.0(243)
	이용안함	59.1(176)	46.9(107)	54.0(285)
스마트폰 이용	이용	92.1(281)	93.6(220)	92.8(503)
	이용안함	7.9(24)	6.4(15)	7.2(39)
SNS이용(한국어사용)	이용	45.0(130)	48.5(110)	46.3(240)
	이용안함	55.0(159)	51.5(117)	53.7(278)
SNS이용 (출신국어/비한국어 사용)	이용	48.1(137)	57.5(131)	52.2(269)
	이용안함	51.9(148)	42.5(97)	47.8(246)
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이용	30.3(88)	37.3(84)	33.3(172)
	이용안함	69.7(202)	62.7(141)	66.7(345)
출신국어/비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이용	32.2(94)	39.6(90)	35.5(185)
	이용안함	67.8(198)	60.4(137)	64.5(336)

매체별 하루 평균(중위수)이용시간은 스마트폰이 4시간 20분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게임(PC, 스마트폰)이 2시간 30분, SNS이용(한국어/비한국어)이 각 2시간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48> 참고).

표 III-48 매체별 하루 평균(중위수) 이용시간

매체별 평균(중위수) 이용시간							
온라인 게임(PC, 스마트폰)	TV프로 그램/영상 (한국어)	TV프로그 램/영상 (비한국어)	스마트폰 이용	SNS이용 (한국어)	SNS이용 (비한국어)	서적/신문 /인쇄물 (한국어)	서적/신문 /인쇄물 (비한국어)
2시간 30분	1시간	1시간 30분	4시간 20분	2시간	2시간	1시간	1시간

매체별 하루평균 이용시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폰이용과 비한국어를 사용한 SNS이용을 제외한 온라인 게임, TV프로그램 및 영상(한국어/비한국어), 한국어 사용 SNS, 서적/신문/인쇄물(한국어/비한국어) 이용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 이용의 경우 이용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35.7%로 가장 많았고, 출신국 언어나 비한국어로 사용하는 SNS이용도 '6시간 이상'의 응답률이 24.5%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게임과 한국어 사용을 하는 SNS 이용의 경우에도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이 각각 15.3%와 14.2%로 나타났다.

표 III-49 매체별 하루평균 이용시간

(%, 명)

	온라인 게임	TV 프로그램/ 영상 (한국어)	TV 프로그램/ 영상 (비한국어)	스마트폰 이용	SNS이용 (한국어)	SNS이용 (비한국어)	서적/신문 /인쇄물 (한국어)	서적/신문 /인쇄물 (비한국어)
1시간미만	6.8 (23)	15.7 (39)	12.2 (27)	1.9 (8)	18.1 (37)	15.0 (33)	23.4 (36)	25.0 (37)
1시간 ~ 2시간미만	21.8 (74)	42.6 (106)	38.5 (85)	10.7 (46)	30.4 (62)	22.7 (50)	35.7 (55)	39.9 (59)
2시간 ~ 3시간미만	21.8 (74)	24.9 (62)	28.5 (63)	13.1 (56)	14.7 (30)	16.8 (37)	16.9 (26)	16.2 (24)
3시간 ~ 4시간미만	19.5 (66)	8.4 (21)	8.6 (19)	16.4 (70)	10.3 (21)	10.5 (23)	9.7 (15)	11.5 (17)
4시간 ~ 5시간미만	13.3 (45)	3.6 (9)	7.7 (17)	20.6 (88)	12.3 (25)	10. (22)	7.8 (12)	4.1 (6)
5시간 ~ 6시간미만	1.5 (5)	.4 (1)	0 (0)	1.6 (7)	0 (0)	.5 (1)	0 (0)	0 (0)
6시간이상	15.3 (52)	4.4 (11)	4.5 (10)	35.7 (153)	14.2 (29)	24.5 (54)	6.5 (10)	3.4 (5)

(2) 온라인 게임 집착

온라인 게임 집착정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는 '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매우그렇다'로 4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온라인 게임 집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근 6개월 이내 온라인 게임(PC, 스마트폰 이용 모두 포함)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게임 집착관련 문항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문항들의 응답 평균이 1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그 중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동안 온라인 게임을 한다’의 4점 평균은 1.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러 차례 온라인 게임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의 평균이 1.70점, ‘온라인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진다’ 평균은 1.6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0 온라인 게임 집착관련 문항 (% , 명)

	4점평균 (표준 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온라인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진다	1.68 (.75)	47.3 (228)	39.4 (190)	11.0 (53)	2.3 (11)	100 (482)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졌다	1.54 (.71)	57.1 (274)	33.8 (162)	7.1 (34)	2.1 (10)	100 (480)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한다	1.95 (.94)	40.7 (194)	29.8 (142)	23.1 (110)	6.5 (31)	100 (477)
여러 차례 온라인 게임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1.70 (.85)	50.6 (241)	33.0 (157)	11.8 (56)	4.6 (22)	100 (476)
다른 일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게임의 아이템을 얻거나 레벨업 시키는 일에 폭 빠져 있다	1.53 (.75)	60.5 (290)	27.6 (132)	9.8 (47)	2.1 (10)	100 (479)
온라인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1.45 (.67)	63.5 (305)	28.8 (138)	6.5 (31)	1.3 (6)	100 (480)
가족들과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을 계속한다	1.51 (.75)	63.0 (301)	25.1 (120)	9.8 (47)	2.1 (10)	100 (478)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 온라인 게임을 해야 만족할 수 있다	1.49 (.73)	63.3 (304)	26.3 (126)	8.3 (40)	2.1 (10)	100 (480)

13)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

중도입국 청소년 및 가정에 가장 필요한 정책/프로그램의 1순위 응답결과, ‘수준별 한국어교육’이 39.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수업/교과목지도(11.0%)’, ‘직업기술 훈련(10.8%)’, ‘재정

지원정책(6.4%), '취미활동 지원(6.4%),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1>, <표 III-52>, <표 III-53>는 집단별 프로그램 및 정책제안 1순위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성별 응답결과 남자 청소년의 1순위 응답률은 '수준별 한국어교육(42.8%)', '학교수업/교과목지도(9.8%)', '직업기술훈련(9.5%)', '재정지원정책(8.8%)', '취미활동지원(7.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여자 청소년의 1순위 응답률은 '수준별 한국어교육(35.7%)', '학교수업/교과목지도(12.6%)', '직업기술훈련(12.6%)',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7.6%)', '1:1멘토링 프로그램(7.6%)' 등의 순으로 차이를 보였다(<표 III-54>).

표 III-51 **성별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1순위)** **(%, 명)**

	성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100(306)	100(238)	100(544)
수준별 한국어교육	42.8(131)	35.7(85)	39.7(216)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9.8(30)	12.6(30)	11.0(60)
직업기술 훈련	9.5(29)	12.6(30)	10.8(59)
재정지원정책	8.8(27)	3.4(8)	6.4(35)
취미활동 지원	7.8(24)	4.6(11)	6.4(35)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	4.6(14)	7.6(18)	5.9(32)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4.9(15)	5.0(12)	5.0(30)
1:1 멘토링 프로그램	3.9(12)	7.6(18)	5.5(30)
별로 필요하지 않다	2.9(9)	5.5(13)	4.0(22)
주거 지원정책	3.6(11)	3.4(8)	3.5(19)
상담프로그램	1.0(3)	1.3(3)	1.1(6)
기타	.3(1)	.8(2)	.6(3)

다음으로 연령별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 1순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수준별 한국어교육(43.6%)', '학교수업/교과목지도(11.4%)', '별로 필요하지 않다(7.9%)',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6.4%)', '직업기술훈련(6.4%)' 등의 순으로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18세 이상 청소년들은 '수준별 한국어교육(37.1%)', '직업기술훈련(13.9%)', '학교수업/교과목 지도(10.6%)',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7.1%)', '재정지원정책(7.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III-52 연령별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1순위) (%) , 명

	연령별		전체
	17세이하	18세이상	
전체	100(202)	100(310)	100(545)
수준별한국어교육	43.6(88)	37.1(115)	39.6(216)
학교수업/교과목지도	11.4(23)	10.6(33)	11.0(60)
1:1멘토링 프로그램	5.4(11)	6.1(19)	5.5(30)
직업기술훈련	6.4(13)	13.9(43)	10.8(59)
진로 및 적성탐색프로그램	6.4(13)	5.5(17)	5.9(32)
취미활동 지원	5.9(12)	6.1(19)	6.4(35)
한국사회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	2.5(5)	7.1(22)	5.0(27)
상담프로그램	1.0(2)	1.0(3)	1.1(6)
주거지원정책	3.0(6)	3.2(10)	3.5(19)
재정지원정책	5.9(12)	7.1(22)	6.4(35)
별로필요하지않다	7.9(16)	1.6(5)	4.0(22)
기타	.5(1)	.6(2)	.7(4)

한국거주기간별 프로그램 및 정책제안 1순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준별 한국어교육(44.6%)’, ‘학교수업/교과목 지도(16.4%)’, ‘직업기술 훈련(7.9%)’,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6.2%)’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도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수준별 한국어교육(46.3%)’이었으나,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은 ‘직업기술 훈련(8.4%)’, ‘취미활동지원(8.4%)’, ‘학교수업/교과목지도(6.3%)’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준별 한국어교육(30.8%)’이 가장 많았고, ‘직업기술 훈련(15.0%)’, ‘학교수업/교과목지도(12.1%)’,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9.3%)’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수준별 한국어교육(20.8%)’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직업기술훈련(20.8%)’, ‘재정지원정책(14.6%)’ 등을 꼽았다.

표 III-53 한국거주기간별 프로그램 및 정책 제안(1순위)

(% , 명)

	한국 거주기간				전체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전체	100(177)	100(190)	100(107)	100(48)	100(522)
수준별 한국어교육	44.6(79)	46.3(88)	30.8(33)	20.8(10)	40.2(210)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16.4(29)	6.3(12)	12.1(13)	8.3(4)	11.1(58)
직업기술 훈련	7.9(14)	8.4(16)	15.0(16)	20.8(10)	10.7(56)
재정지원정책	2.8(5)	7.4(14)	7.5(8)	14.6(7)	6.5(34)
취미활동 지원	3.4(6)	8.4(16)	6.5(7)	8.3(4)	6.3(33)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	5.1(9)	3.7(7)	9.3(10)	4.2(2)	5.4(28)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6.2(11)	4.7(9)	3.7(4)	6.3(3)	5.2(27)
1:1 멘토링 프로그램	2.8(5)	5.8(11)	8.4(9)	4.2(2)	5.2(27)
별로 필요하지 않다	4.5(8)	2.6(5)	3.7(4)	10.4(5)	4.2(22)
주거 지원정책	3.4(6)	4.2(8)	2.8(3)	2.1(1)	3.4(18)
상담프로그램	2.3(4)	1.1(2)	0.0(0)	0.0(0)	1.1(6)
기타	.6(1)	1.1(2)	0.0(0)	0.0(0)	.6(3)

중도입국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제안의 1, 2순위로 응답한 것을 다중응답처리로 살펴보면, ‘수준별 한국어교육(24.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기술훈련(11.8%)’, ‘학교수업/교과목지도(11.7%)’, ‘취미활동 지원(10.1%)’,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9.9%)’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프로그램 및 정책제안(1+2순위)

내용	응답률
수준별 한국어 교육	24.9%
직업기술훈련	11.8%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11.7%
취미활동 지원	10.1%

내용	응답률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	9.9%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7.8%
재정지원 정책	7.3%
1:1 멘토링 프로그램	6.4%
주거지원정책	3.8%
별로 필요하지 않다	3.5%
상담프로그램	2.0%
기타	1.0%

주) 다중응답처리로 인해 N수가 일치하지 않음(n=1,054)

2.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본 장은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 48명을 대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이다. 응답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거나 연계하는 전문가가 23명,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사 14명, 국제학교 교사 4명, 대안학교 교사 4명, 예비학교 교사 3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진행방법은 자기기입방식으로 연구진이 직접 현장 방문 시 개별 접촉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이메일 및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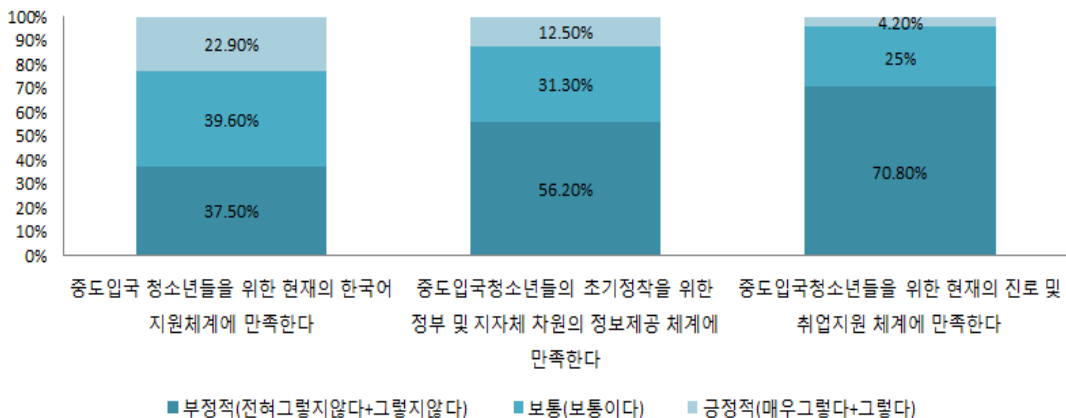
1) 지원체계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체계에 대해서 묻는 문항은 총 3문항으로 한국어 지원체계, 초기정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제공체계, 진로 및 취업지원체계에 관한 것이다. 세 가지 지원체계의 5점 평균 결과, 진로 및 취업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1.9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초기정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제공체계의 만족도가 2.33점, 한국어 지원체계의 만족도가 2.7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55 지원 체계에 대한 문항

문항	5점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현재의 한국어 지원체계에 만족한다	2.79 (.94)	8.3%	29.2%	39.6%	20.8%	2.1%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초기정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제공 체계에 만족한다	2.33 (.97)	22.9%	33.3%	31.3%	12.5%	0%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현재의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에 만족한다	1.98 (.88)	35.4%	35.4%	25%	4.2%	0%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현재의 한국어 지원체계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인 응답률이 37.5%, 보통인 응답률이 39.6%, 긍정적(그렇다+매우그렇다)인 응답률이 22.9%로 나타났다. 초기정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제공체계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인 응답률이 56.2%, 보통의 응답률이 31.3%, 긍정적(그렇다+매우그렇다)인 응답률이 12.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 및 취업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인 응답률이 70.80%, 보통의 응답률이 25%, 긍정적(그렇다+매우그렇다)인 응답률이 4.2%로 나타났다.



【그림 Ⅲ-17】 지원체계에 관한 문항

2) 정책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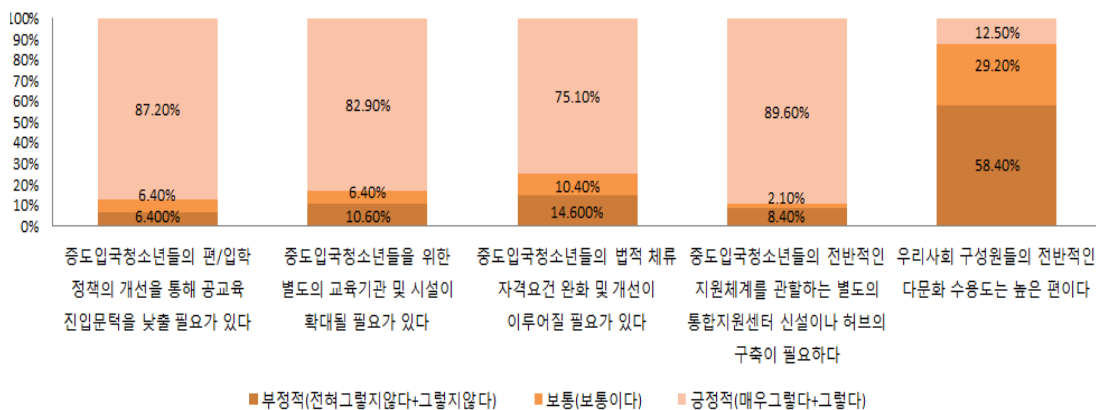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문항은 총 5개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편/입학 정책의 개선, 별도의 교육기관 및 시설 확충, 법적 체류자격 완화 및 개선,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 및 허브구축,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도 등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각각의 정책 필요성에 대한 5점 평균 결과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 및 허브 구축의 필요성이 평균 4.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별도의 교육기관 및 시설의 확대 필요성이 4.19점, 편/입학 정책의 개선의 필요성이 4.11점, 법적 체류자격요건 완화 및 개선의 필요성이 3.92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전문가들은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도에 대해 평균 2.5점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표 III-56 정책 필요성에 대한 문항

문항	5점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편/입학 정책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 진입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4.11 (.78)	0%	6.4%	6.4%	57.4%	29.8%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및 시설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4.19 (1.03)	2.1%	8.5%	6.4%	34.0%	48.9%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법적 체류 자격요건 완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3.92 (1.00)	0%	14.6%	10.4%	43.8%	31.3%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의 구축이 필요하다	4.38 (.95)	2.1%	6.3%	2.1%	31.3%	58.3%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도는 높은 편이다	2.50 (.85)	6.3%	52.1%	29.2%	10.4%	2.1%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편/입학 정책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 진입문턱을 낮출 필요성에 대해 87.2%가 긍정적(그렇다+매우그렇다)으로 응답하였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및 시설확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2.9%가 긍정적(그렇다+매우그렇다)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법적 체류 자격요건의 완화 및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5.1%가 긍정적(그렇다+매우그렇다)인 응답을 하였으며,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한편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 수용도에 대해서는 58.4%가 부정적(전혀그렇지않다+그렇지않다)인 응답을 하였다.



【그림 Ⅲ-18】 정책필요성에 관한 문항

3)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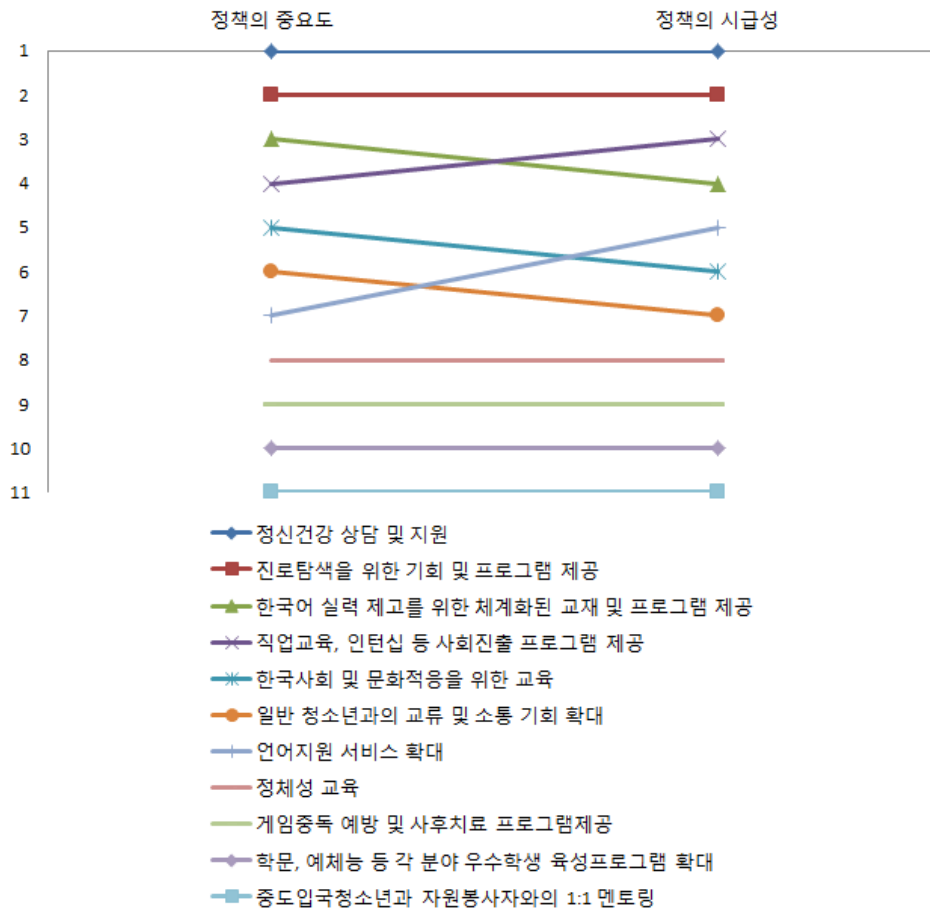
(1)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다음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이다. 먼저, 정책의 중요도는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이 평균 4.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4.46점)’, ‘한국어 실력 제고를 위한 체계화된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4.42점)’, ‘직업교육, 인턴십 등 사회진출 프로그램 제공(4.4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이 평균 4.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4.26점)’, ‘직업교육, 인턴십 등 사회진출 프로그램 제공(4.24점)’, ‘한국어 실력 제고를 위한 체계화된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4.11점)’

등의 순으로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III-57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문항	정책의 중요도		정책의 시급성	
	5점평균 (표준편차)	순위	5점평균 (표준편차)	순위
한국어 실력 제고를 위한 체계화된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	4.42(.53)	3순위	4.11(.75)	4순위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	4.46(.61)	2순위	4.26(.76)	2순위
직업교육, 인턴십 등 사회진출 프로그램 제공	4.35(.75)	4순위	4.24(.92)	3순위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4.56(.61)	1순위	4.46(.74)	1순위
한국사회 및 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4.23(.78)	5순위	3.96(.98)	6순위
중도입국청소년과 자원봉사자와의 1:1 멘토링	3.52(.96)	11순위	3.33(1.0)	11순위
학문, 예체능 등 각 분야 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 확대	3.69(.77)	10순위	3.42(.87)	10순위
언어지원 서비스 확대	4.15(.65)	7순위	3.98(.84)	5순위
게임중독 예방 및 사후치료 프로그램 제공	3.83(.93)	9순위	3.56(1.0)	9순위
정체성 교육	4.02(.91)	8순위	3.79(.92)	8순위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및 소통 기회 확대	4.19(.76)	6순위	3.94(.78)	7순위



【그림 Ⅲ-19】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그림 Ⅲ-19]은 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의 순위변동을 살펴본 것으로 ‘직업교육, 인턴십 등 사회진출 프로그램 제공’은 정책 중요도 4위에서 정책의 시급성 3위로 변동했고, ‘언어지원 서비스 확대’는 정책 중요도 7위에서 5위로 상승하였다. 반면, ‘한국어 실력 제고를 위한 체계화된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은 정책 중요도 3위에서 시급성 4위로 변동했고,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을 위한 교육’,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및 소통의 기회 확대’는 각각 정책의 중요도 5,6위에서 6,7위로 순위가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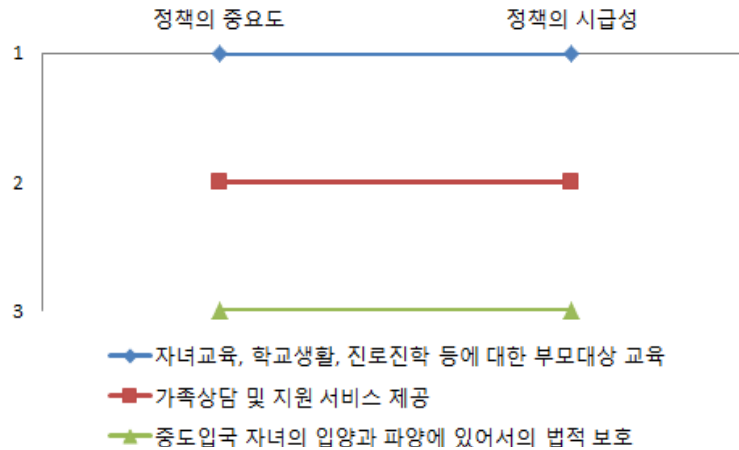
(2)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자녀 교육, 학교생활, 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대상 교육’ 문항은 정책 중요도 평균이 4.60점, 정책 시급성이 평균 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상담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의 경우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의 평균이 각각 4.38점, 4.15점으로 나타났으며, ‘중도입국 자녀의 입양과 파양에 있어서 법적 보호’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은 각각 평균 4.31점과 4.08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0]은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의 순위변동을 살펴본 것으로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은 ‘자녀교육, 학교생활, 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대상 교육’이 1순위, ‘가족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이 2순위, ‘중도입국 자녀의 입양과 파양에 있어서의 법적보호’가 3순위로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의 의견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표 III-58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문항	정책의 중요도		정책의 시급성	
	5점평균 (표준편차)	순위	5점평균 (표준편차)	순위
자녀교육, 학교생활, 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 대상 교육	4.60(.57)	1순위	4.42(.76)	1순위
가족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4.38(.53)	2순위	4.15(.74)	2순위
중도입국 자녀의 입양과 파양에 있어서의 법적 보호	4.31(.68)	3순위	4.08(.71)	3순위



【그림 III-20】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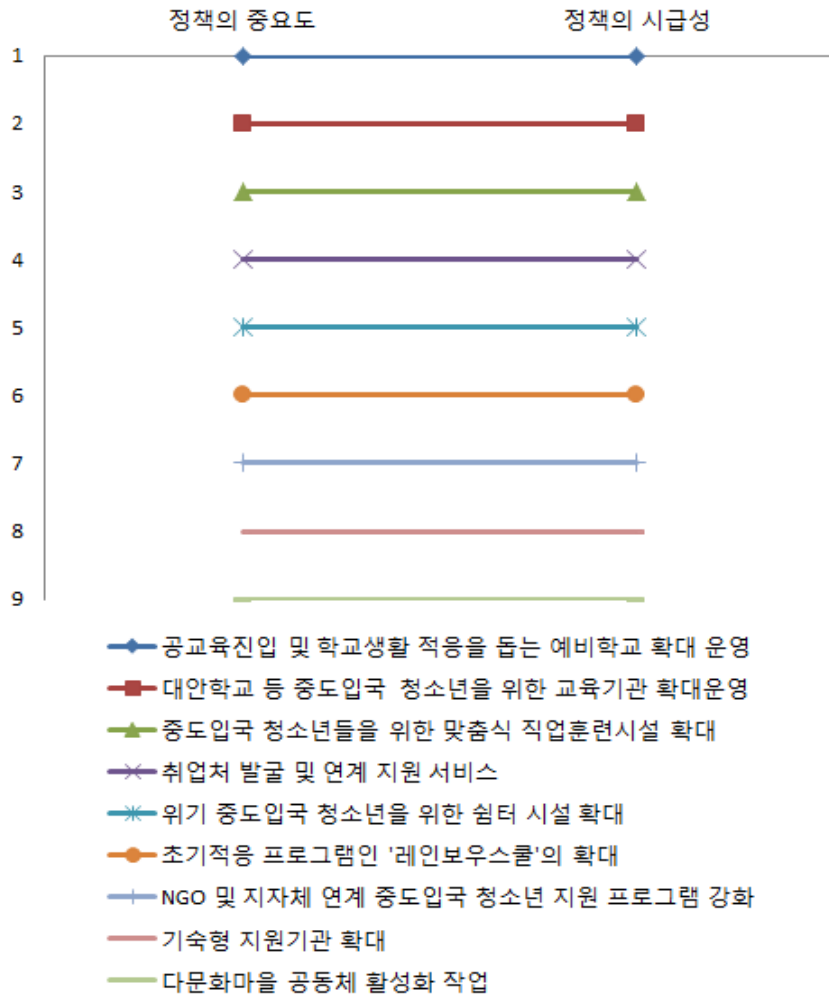
(3) 학교/기관/지역사회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학교/기관/지역사회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의 응답결과,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공교육진입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예비학교 확대 운영’에 대한 정책의 중요도(4.35점) 및 시급성(4.11점)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대안학교 등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운영’이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서 각각 4.25점, 4.10점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시설 확대’와 ‘취업처 발굴 및 연계지원 서비스’가 공동으로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표 Ⅲ-59 학교/기관/지역사회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문항	정책의 중요도		정책의 시급성	
	5점평균 (표준편차)	순위	5점평균 (표준편차)	순위
기숙형 지원기관 확대	3.27 (1.14)	8순위	3.17 (1.20)	8순위
대안학교 등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운영	4.25 (.86)	2순위	4.10 (.95)	2순위
공교육진입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예비학교 확대 운영	4.35 (.87)	1순위	4.11 (.98)	1순위
초기적응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의 확대	3.75 (1.04)	6순위	3.63 (1.10)	6순위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시설 확대	4.19 (.86)	3순위 (공동)	4.04 (.94)	3순위 (공동)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작업	3.02 (.95)	9순위	2.81 (1.0)	9순위
NGO 및 지자체 연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강화	3.68 (.86)	7순위	3.43 (.92)	7순위
위기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쉼터 시설 확대	3.94 (.88)	5순위	3.81 (.96)	5순위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지원 서비스	4.19 (.81)	3순위 (공동)	4.04 (.89)	3순위 (공동)

[그림 Ⅲ-21]는 학교/기관/지역사회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순위의 변동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학교/기관/지역사회 지원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의 순위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림 III-21】 학교/기관/지역사회 지원정책 중요도 및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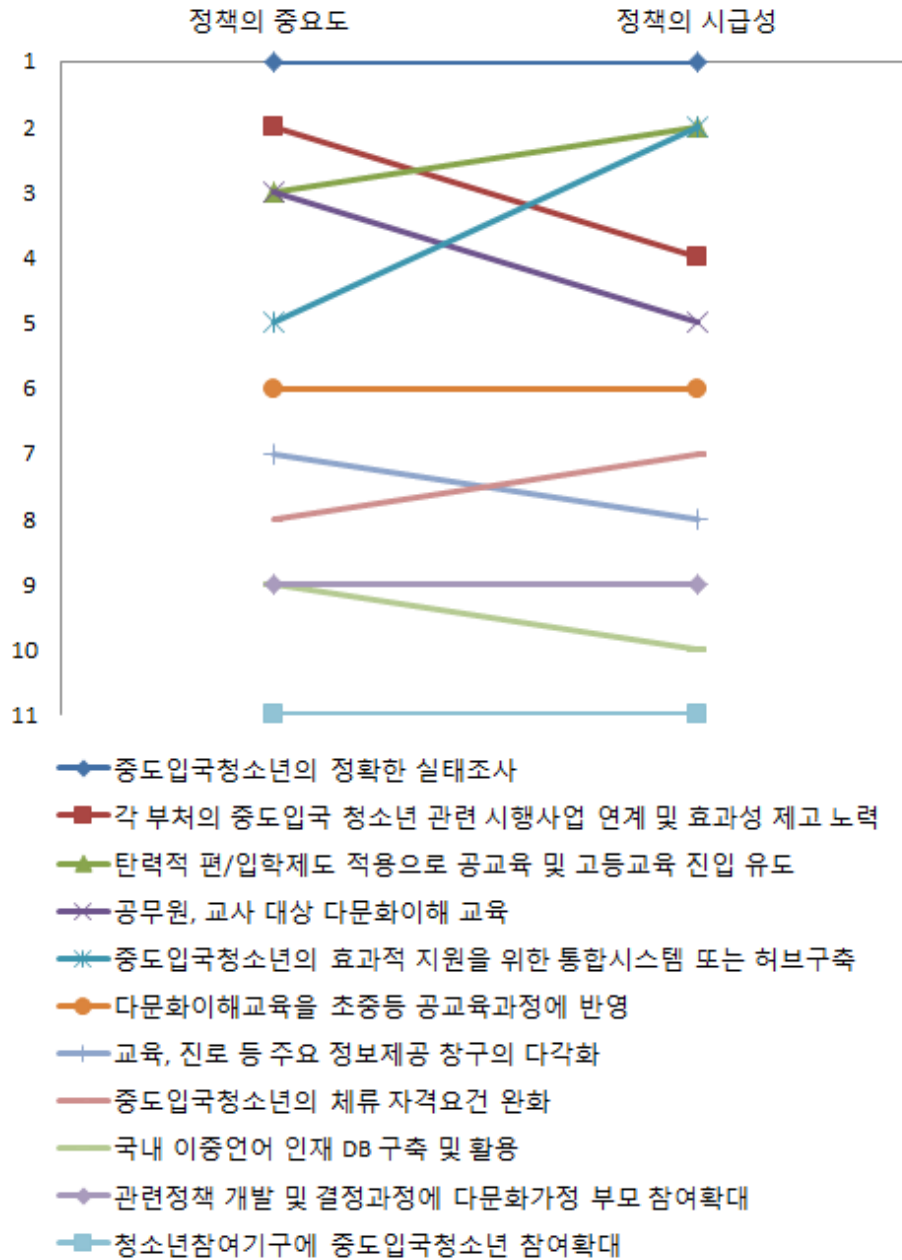
(4) 부처/제도적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중도입국 청소년관련 부처 및 제도적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의 중요도 및 시급성의 응답평균은 각각 4.6점으로 1위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처/제도적 지원정책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각 부처의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시행사업 연계 및 효과성 제고 노력(4.44점)', '탄력적 편/입학제도 적용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 진입 유도(4.3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응답결과는 '효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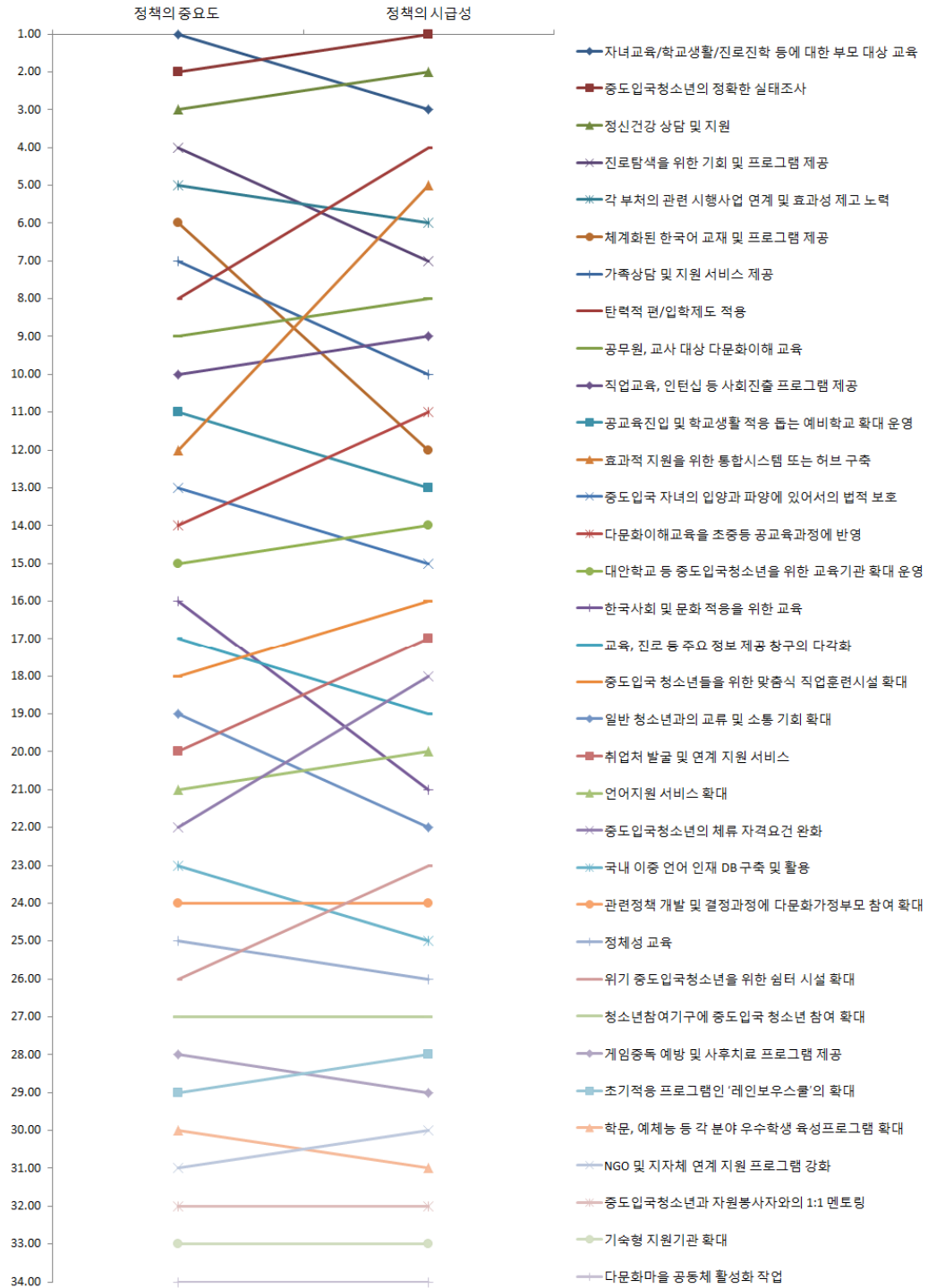
인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또는 허브구축, ‘탄력적 편/입학제도 적용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 진입유도’가 각각 평균 4.40점으로 공동 2위로 나타났다.

표 III-60 부처/ 제도적 지원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문항	정책의 중요도		정책의 시급성	
	5점평균 (표준편차)	순위	5점평균 (표준편차)	순위
공무원, 교사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4.35 (.69)	4순위 (공동)	4.25 (.70)	5순위
다문화이해교육을 초·중·고 공교육과정에 반영	4.29 (.79)	6순위	4.15 (.89)	6순위
관련정책 개발 및 결정과정에 다문화가정 부모 참여 확대	4.02 (.75)	9순위 (공동)	3.81 (.84)	9순위
청소년참여기구에 중도입국 청소년 참여 확대	3.92 (.71)	11순위	3.77 (.85)	11순위
교육, 진로 등 주요 정보제공 창구의 다각화	4.23 (.66)	7순위	4.02 (.78)	8순위
탄력적 편/입학제도 적용으로 공교육 및 고등교육 진입 유도	4.38 (.73)	3순위	4.40 (.76)	2순위 (공동)
중도입국청소년의 체류 자격요건 완화	4.08 (.82)	8순위	4.04 (.87)	7순위
국내 이중 언어 인재 DB 구축 및 활용	4.02 (.89)	9순위 (공동)	3.79 (1.09)	10순위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	4.60 (.67)	1순위	4.60 (.67)	1순위
중도입국청소년 효과적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또는 허브 구축	4.35 (.66)	4순위 (공동)	4.40 (.70)	2순위 (공동)
각 부처의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시행사업 연계 및 효과성 제고 노력	4.44 (.58)	2순위	4.35 (.69)	4순위



【그림 Ⅲ-22】 부처/제도적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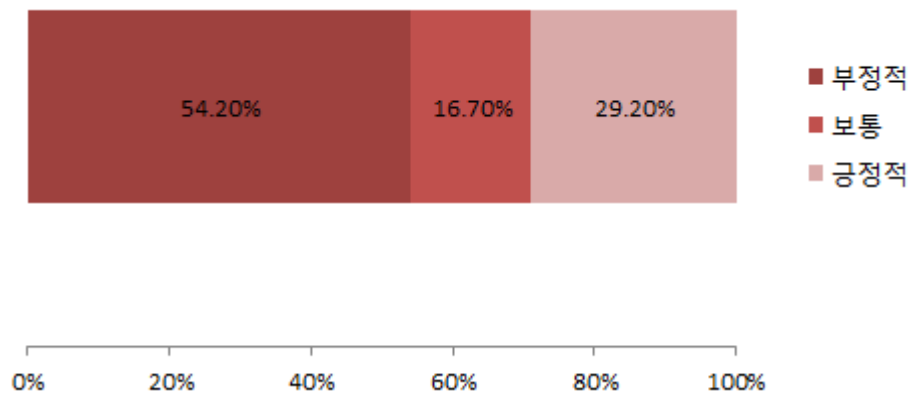
【그림 III-23】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 순위(전체)

4)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현장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10점 만점 중 평균 4.77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부정적 수준(1~4점)으로 평가한 응답률은 54.2%, 보통수준(5점)의 응답률은 16.7%, 긍정적 수준(6~10점)으로 평가한 응답률은 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61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전문가)

10점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4.77 (1.67)	21%	21%	14.6%	35.4%	16.7%	12.5%	8.3%	6.3%	2.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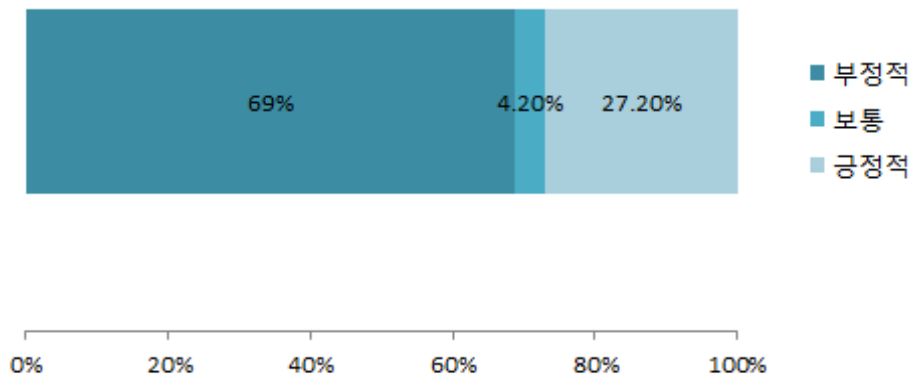
【그림 Ⅲ-24】 중도입국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전문가 평가)

5)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

현장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10점 만점에 평균 4.25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부정적인 평가(1점~4점)가 69%로 가장 많았고 보통수준의 응답률은 4.2%, 긍정적인 평가(6점~10점)이 27.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 정책에 대한 평가

10점 평균 (표준편차)	1	2	3	4	5	6	7	8	9	10
4.25 (1.59)	0%	12.5%	20.8%	35.4%	4.2%	18.8%	4.2%	4.2%	0%	0%



【그림 III-25】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평가

3. 심층 분석 결과

1)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

내적 자산은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역량 및 특성을 의미한다. 본 분석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자산으로 진로정체감, 자아정체감, 자아존중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들의 내적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질문 1.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입국 자발성에 따라 내적 자산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질문 2.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태도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질문 3. 사회적지지 자원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자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1) 한국 입국 자발성에 따른 내적자산 비교

연구질문 1.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 입국 자발성에 따라 내적 자산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가설 1.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발적 입국은 비자발적 입국 보다 내적 자산 수준이 높을 것이다.

<표 III-63>는 가설 1에 대한 검증을 위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국 동기에 따른 내적 자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이다. 입국 동기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에 대해 청소년 본인이 동의를 표하고 입국하게 된 ‘자발적 입국’ 집단과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가족 및 환경적 강요에 의해 입국하게 된 ‘비자발적 입국’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 입국 집단은 진로정체감(자발:3.66점 > 비자발:3.48점), 자아정체감(자발:3.38점 > 비자발:3.22점), 자아존중감(자발:3.66점 > 비자발: 3.52점)에서 모두 비자발적 입국 집단보다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의 입국 동기가 자발적인 집단이 비자발적인 집단보다 더 내적자산 수준이 높고,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으로 가설1이 채택되었다.

표 III-63 한국 입국 동기별(자발/비자발) 내적자산 수준비교

요인	입국 동기	사례수	평균(표준편차)	t값
진로정체감	자발적 입국	353	3.66(.75)	-2.50*
	비자발적 입국	155	3.48(.73)	
자아정체감	자발적 입국	353	3.38(.58)	-2.32*
	비자발적 입국	156	3.22(.56)	
자아존중감	자발적 입국	352	3.66(.60)	-2.90**
	비자발적 입국	156	3.52(.61)	

주) 비자발적입국=1, 자발적입국=2로 코딩함

*p<.05, **p<.01, ***p<.001

(2)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태도가 내적자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질문 2.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태도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2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III-64>는 가설 2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태도가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이다. 분석결과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진로정체감($\beta=.298, p<.001$), 자아존중감($\beta=.242, p<.001$), 자아정체감($\beta=.26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청소년들이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과 같은 내적자산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한국어수준($\beta=.106, p<.05$)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64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태도가 내적자산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1(진로정체감)			모형2(자아존중감)			모형3(자아정체감)		
		B	S.E	베타(β)	B	S.E	베타(β)	B	S.E	베타(β)
(상수항)		1.55	.367		1.941	.305		2.184	.287	
통제 변인	성별	.138	.070	.091*	.024	.058	.020	-.049	.054	-.042
	연령	.108	.057	.089	.101	.047	.102	.059	.045	.063
	한국 거주기간	-.044	.040	-.056	-.034	.033	-.053	-.024	.031	-.040
	경제적 수준	.055	.067	.038	.090	.056	.076	.075	.053	.067
	한국어 수준	.044	.047	.045	.084	.039	.106*	-.042	.037	-.056
	입국 동기	.013	.078	.008	.000	.065	.000	.062	.061	.050
독립 변인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339	.055	.298***	.226	.046	.242***	.237	.043	.269***
R^2		.119			.093			.098		
Adjusted R^2		.105			.078			.083		
F		8.42***			6.34***			6.71***		

주) 성별: 1=남, 2=여,

연령: 1=9세이상 12세미만, 2=12세이상 15세미만, 3=15세이상 18세미만, 4=18세이상,

한국거주기간: 1=1년미만, 2=1년이상 3년미만, 3=3년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한국어수준(전반적인 평가): 1=전혀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잘한다

입국동기: 비자발적입국=1, 자발적입국=2

* $p < .05$, ** $p < .01$, *** $p < .001$

(3) 사회적지지 자원이 내적자산에 미치는 영향

연구질문 3. 사회적지지 자원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자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3. 사회적지지 자원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III-65>은 가설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사회적지지 자원이 이들의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사회적지지 자원으로 부모님, 교사, 친구를 설정하였고, 이를 살펴보기 위해 아버지/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 교사의 지지, 또래애착 변수를 투입하여 각각의 내적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모형 4는 사회적지지 자원 중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beta=.140, p<.05$), 교사의지지($\beta=.179, p<.01$)가 진로정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이 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교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귀계수 값(β)을 비교해보면, 교사의 지지가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보다 진로정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5는 사회적지지 자원 중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beta=.258, p<.001$),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관계($\beta=.155, p<.05$), 또래애착($\beta=.148, p<.001$)이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이 아버지/어머니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관계의 회귀계수 값(β)은 .258로 다른 사회적 지지자원들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6에서는 부모 및 교사, 친구의 사회적지지 자원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대신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beta=.153, p<.01$)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의 경우 사회적 지지자원보다는 한국 문화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III-65 사회적지지 자원이 내적자산에 미치는 영향

구분		모형4(진로정체감)			모형5(자아존중감)			모형6(자아정체감)		
		B	S..E	베타(β)	B	S..E	베타(β)	B	S..E	베타(β)
(상수항)		.845	.403		1.264	.313		1.787	.319	
통제 변인	성별	.160	.074	.105*	.040	.057	.033	-.024	.058	-.021
	연령	.085	.059	.069	.100	.046	.101*	.052	.046	.055
	한국 거주기간	-.007	.041	-.009	-.012	.032	-.019	-.009	.032	-.015
	경제적 수준	-.015	.073	-.009	-.029	.057	-.023	-.011	.058	-.009
	한국어 수준	.039	.050	.039	.086	.039	.105*	-.031	.040	-.040
	입국 동기	.052	.082	.031	.072	.064	.054	.119	.065	.094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212	.064	.180**	.029	.049	.030	.139	.050	.153**
독립 변인	아버지와의 긍정적인관계	.010	.056	.013	.171	.044	.258***	.061	.045	.097
	어머니와의 긍정적인관계	.129	.063	.140*	.115	.049	.155*	.069	.050	.098
	교사지지	.163	.050	.179**	-.007	.039	-.010	.047	.039	.067
	또래애착	.023	.056	.022	.124	.043	.148***	.036	.044	.046
R ²		.186			.254			.140		
Adjusted R ²		.163			.232			.116		
F		7.99***			11.83***			5.70***		

주) 성별: 1=남, 2=여,

연령: 1=9세이상 12세미만, 2=12세이상 15세미만, 3=15세이상 18세미만, 4=18세이상,

한국거주기간: 1=1년미만, 2=1년이상 3년미만, 3=3년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한국어수준(전반적인 평가): 1=전혀못한다, 2=못한다, 3=보통이다, 4=잘한다, 5=매우잘한다

입국동기: 비자발적입국=1, 자발적입국=2

*p<.05, **p<.01, ***p<.001

제 IV 장

질적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2.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운영
3. 중도입국 청소년 및 보호자 심층면접조사

제 IV 장 질적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실태파악과 이들의 자립지원 방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양적조사와 병행하여 중도입국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효과적이다(황창순, 1992; Mason, 1996). 구조화된 설문지와 통계분석으로 파악하기 힘든 중도입국 청소년 당사자의 생활상과 문제의식을 미시적·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질적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째로, 청소년의 일상에 깊게 자리 잡은 SNS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에서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총 5주에 걸쳐 이루어진 SNS 토론탄 활동의 마지막 주차는 희망자에 한하여 포토보이스(photovoice) 기법을 적용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생생한 이미지들을 통해 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다양한 감정들과 이들의 생활상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심층면접 조사를 했고, 필요한 경우 그들의 보호자도 함께 만나 면접 조사를 수행하였다. 모든 면접 조사는 대상에 맞는 주제를 중심으로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2.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탄 운영

1) SNS 토론탄의 기획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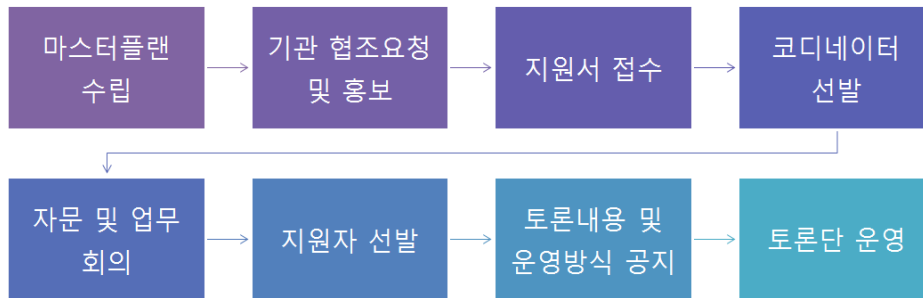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탄>을 운영함으로써 그간 제한되어 왔던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질적 조사를 확장 및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던 질적

조사 방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시공간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여러 토론주제에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모국어 사용을 통해 그동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연구 참여가 불가능했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포함하고자 기획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SNS 토론단 운영은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어권과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소수민족들(minority ethnic groups) 중에서도 마이너리티에 속하는 베트남어권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각 국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함께 통합하지 않고 언어권으로 구분하여 두 개의 토론단을 별도로 운영한 이유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란 네이밍(naming)하에 공통적으로 가지는 이주배경 청소년으로서의 정체성 이외에 출신국가와 문화배경에 따른 고유한 차이를 파악하고, 모국어를 사용함으로써 토론 참여자마다 복합적이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 있는 토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본 조사의 특이점은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행해오던 FGI를 온라인상에서 토론이란 방식을 빌려 수행한 점이다. 상기한 본 조사 방식이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물리적·시간적 제한 없는 심층 토론이 가능; ② 중도입국 청소년의 제한된 한국어 실력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결; ③ 사적이고 민감한 내용의 개진을 위한 신분노출 차단 및 익명성 보장.

[그림 IV-1]은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모집 및 운영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온라인 토론단의 장점을 최대 활용하고자 전국에 다문화 지원센터 및 레인보우스쿨, 대안학교 등 관련 기관에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토론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의지가 있을 경우 간단한 지원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도록 하였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참여를 돕기 위해 모든 홍보물과 안내문은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로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토론단의 운영 및 중재를 위해 결혼이주여성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중국과 베트남 출신의 코디네이터를 뽑아 배치하였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각 토론방에 한 명의 원어민 토론 중재자(moderator)와 한 명의 원어민 코디네이터(coordinator)를 두었다. 「중도입국 청소년 SNS토론단」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각각 진행되기 때문에 중재자 및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어권 토론단은 중국 출신의 서울대학교 교육공학 전공자가, 베트남어권 토론단은 베트남 출신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중재자로서 토론 활동의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코디네이터에게는 토론 운영과 토론내용의 번역 업무 등 토론 중재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보다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진은 SNS 토론활동에 게시글, 댓글 등을 통한 직접적인



【그림 IV-1】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모집 및 운영절차

개입을 배제하였다. 이는 같은 문화권에서 성장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들 사이에 보다 원활한 토론 진행을 보장하는 동시에 보다 진솔한 토론내용을 끌어낼 수 있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연구진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중재자와 수차례 만나 토론 운영방식 및 토론 주제 선정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표 IV-1>은 중재자 및 코디네이터의 인구학적 통계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IV-1 토론 중재자 및 코디네이터

번호	이름	역할	학교/전공
1	Nguyen Thi Phuong Thao	베트남 토론단 중재자	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2	Dang Thi Ngoc Nhung	베트남 토론단 코디네이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3	Zhang Shuai	중국 토론단 중재자	서울대/ 사범대학 박사과정
4	Fan Fan	중국 토론단 코디네이터	서울대/ 사범대학 석사과정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모집은 2016년 4월부터 5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토론단 구성원들은 각 기관의 협조요청 및 연구진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모집되었으며, 연구진 및 코디네이터들은 이들이 작성한 지원서를 토대로 개별적인 연락을 취함으로써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비밀그룹으로 생성된 「중도입국 청소년 토론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두 언어권의 토론단 활동은 2016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약 5주간 이루어졌다. 지원서를 바탕으로 중국어권 총 24명, 베트남어권 청소년 총 9명이 선발되었다. <표 IV-2>은 중국 출신 토론단 구성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중국어권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총 24명이 모집되었으며, 참여자들의

성별은 여자가 6명, 남자가 18명으로 1:3의 성비를 이루었고 연령층은 1993년생부터 2002년생으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충청, 대구, 부산 등에서 참여가 이루어졌다.

표 IV-2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중국어권)**

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도	거주지역
1	권O	남	1997	서울
2	김명O	남	2001	충남 천안
3	김수O	남	2000	경기 시흥
4	김시O	여	2002	인천
5	김정O	남	1996	서울
6	남연O	여	2002	경기 김포
7	리원O	여	1998	경상북도
8	박군O	남	1998	경기 수원
9	손종O	남	1999	경기 시흥
10	송자O	남	1993	부산
11	양금O	남	1997	인천
12	염은O	여	2002	인천
13	왕택O	남	2000	경기 안산
14	왕홍O	남	2000	인천
15	유O	남	1997	경기 수원
16	임양O	여	2000	인천
17	장웅O	남	2000	인천
18	조상O	남	2000	충북 음성
19	조해O	여	2001	경기 수원
20	조현O	남	2001	인천
21	추유O	남	1997	서울
22	한자O	남	1999	인천
23	함도O	남	1998	대구
24	황진O	남	1999	경기 안산

<표 IV-3>은 베트남 출신 토론단 구성원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 토론단 구성원들의 성별은 여자가 6명, 남자가 3명으로 2:1의 성비를 이루며,

1991년생부터 2000년생까지의 연령층을 이루고 있다. 애초 「중도입국 청소년 SNS토론단」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중도입국하게 된 청소년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원자 중 최고연령인 만25세의 지원자 한 명을 토론단에 포함시켰다.

표 IV-3 SNS 중도입국 청소년 토론단(베트남)

번호	이름	성별	출생년도	거주지역
1	LinhThi Thuy O	여	1997	경기 수원
2	Nguyen Thi Van O	여	1996	경기 안산
3	Duong Minh O	남	1995	인천
4	Choi Chung O	남	1991	경기 시흥
5	Nguyen Thi Huong O	여	1992	인천
6	Le Hoai O	여	1995	서울 성북구
7	Tran Thuy O	여	2000	인천
8	Nguyen Thi Kieu O	여	2000	인천
9	김강O	남	2000	수원

<표 IV-4>는 중국어권 토론단과 베트남어권 토론단의 주차별 논의 주제를 정리한 것이다. 첫 2주차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받은 인상과 한국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3주차에는 자신의 장래희망이나 꿈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4주차에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겪은 어려움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5주차에는 각 토론방 참여 청소년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인식을 사진을 통해 공유 및 파악하자는 취지에 따라 포토보이스(photovoice) 그룹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포토보이스는 조사 대상자의 내면에 깔린 의견과 감정을 파악하기 위한 참여적 실험연구 방법론 중 하나이다(이현주, 2015). 연구 참여자 입장에서 자신의 내면세계를 시각적 대상화를 통해 타자와 소통함에 따라 언어적 소통으로는 모두 표현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표현하고 이를 통해 타자로부터의 감정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IV-4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주차별 토론 주제

주차	중국어권	베트남어권
1	한국의 첫 인상과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	
2		
3	진로 · 진학 관련 장래 희망	
4	한국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5	사진으로 말해보아요(포토보이스)	

베트남어권 토론단은 세계적으로 청소년 세대가 즐겨 사용하며, 장문의 글과 사진 및 동영상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을 토론활동의 플랫폼으로 활용하였다. 중국어권 토론단의 경우는 대다수의 중국어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중국의 대표적 SNS인 웨이보(Weibo)를 토론단 활동의 플랫폼으로 선택하였다. 토론 참여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과정 중에는 연구진의 개입은 가급적 지양하였으며, 토론자들은 토론주제의 게시글이나 이에 대한 댓글에 공감할 경우 ‘좋아요’나 ‘댓글’을 이어가면서 자발적으로 토론의 역동을 만들어 갔다. 한편, 토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진 및 코디네이터들에게 비공개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활동의 예시는 [그림 IV-2]과 [그림 IV-3]와 같다. [그림 IV-2]은 중국어권 토론단의 웨이보를 통한 토론 활동 내용을 캡처한 것이다. [그림 IV-3]는 베트남어권 토론단 참여 청소년들 간에 토론이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페이지를 캡처한 것이다.

각 영역별 토론은 토론 중재자가 해당 게시글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되며 참여 청소년들은 댓글과 답글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토론활동 중에 필요한 경우 중재자나 코디네이터가 추가 질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 및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토론 중재자는 매주 차 영역별 토론이 완결되면 이를 캡처 사진과 함께 한국어로 번역하여 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보다 원활하고 생산적인 토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자 및 코디네이터와 토론 내용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수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논의를 진행 하였다.



【그림 IV-2】중국 토론단 활동예시

2) 영역별 토론 내용 분석

(1) 한국의 첫 인상과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와서 처음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은 낯설음과 외로움이다. 특히 국내에서 지역별 중국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중국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다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베트남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소수이기에 이 같은 감정을 더 깊게 느끼고 있었다.

다들 안녕. 한국에 온지 4년 좀 넘었습니다. 나도 중도입국청소년이라 한국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즐거움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2년 전에 한국에 왔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전혀 몰라서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저에게 말하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 난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활발하고 유머러스한 사람인데 한국어를 몰라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맨날 집에서 노래를 들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그 때는 너무 중국에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너무 고통스러워 중국에 돌아갔다가 작년 말에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 중국친구를 많이 사귀어서 같이 농구를 하고 산책해서 좀 나아졌습니다. 2년 전에 먹는 것도 살 줄 모르는 내가 지금 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중국)

지금 아직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가 거의 다 중국이나 태국 사람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재학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중에 저만 베트남사람입니다. (베트남)

2014년에 한국에 입국해서 중간에 몇 번이나 베트남에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 친구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새 아버지랑 놀았었어요. 그 후 센터에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처음에 한국말도 잘 모르고 친구도 없어서 정말 심심했어요. 근데 점점 한국말이 늘고 공동체와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아졌어요. 친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제 친구들은 주로 중국인이었어요. (베트남)

한국 생활이 편리하지만 좀 심심합니다. 베트남처럼 평일에 놀 수 있는 오락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친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친구가 몇 명밖에 없습니다. 학교 안에 베트남 친구가 별로 없으니까 친구 사귀기 어렵습니다. (베트남)

토론 참여자 일부는 자신들이 나고 자란 모국의 생활환경보다 월등히 좋은 한국에서의 삶, 특히 한류 드라마를 통해 입국 전 막연히 동경했던 한국에서의 삶과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살아가는 실제 한국에서의 삶의 차이로 인한 괴리감을 토로하였다.

한국은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같을 줄 알았어. 막상 와보니까 돈을 많이 벌려면 그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국)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영화를 통해, 또 엄마한테 한국에 대해 얘기 좀 들었었어요. 한국은 나무가 많고 깨끗하고 치안이 좋다고 들었어요. 와 보니까 정말 깨끗하고 치안도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가족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자녀가 아내/엄마한테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베트남)

저는 2011년에 한국에 오는데 처음에 왔을 때 한국은 살기 괜찮고 별 어려운 것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개월이 지나면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이민으로 왔습니다. 중국에 돌아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습니다. 돌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중국)

한국어 공부가 정말 힘들어요. 한국에 와서 친구도 친척도 별로 없어서 고향이 너무나 그리워요. 한국말을 못해서 한국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늦게까지 일해요. 하루 종일 말을 잘 안 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 계획을 잘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루한 환경과 안 좋은 상태에서 길을 잘못 갈 수가 있어요. (베트남)

상당수 토론 참여자들은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친절과 예의를, 단점으로는 자신과 같은 외국인들에게 행하는 차별적 언행을 들었다.

한국의 “인사”와 “미안” 문화를 좋아합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 인사할 때 머리를 숙여서 하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데 아직도 외국인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오기 전에 한국인이 다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조선족이라서 한국말 좀 알아들어요. 외국인을 경시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 아무튼 한국에 오서 느끼는 것과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국)

처음에 왔을 때 “한국 사람이 정말 친절하구나”라고 느꼈었어요. 한 번 버스에서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시자마자 젊은 남자 세 명이 자리를 양보해 드렸어요. 그래서 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제가 택시를 10분 정도 탔는데 택시기사가 2만원의 요금을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 멀리 가도 8천원밖에 안 드는 거리인데... 이럴 때는 베트남 사람들이 정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베트남)

가끔 저도 거리에서 몇 명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 특히 베트남이나 라오스 등과 같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차별한 거 봤어요. 그럴 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으로서 한국에서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음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토론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앞에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체류자격, 경제적 어려움, 차별 등 넘어야 할 ‘큰 산’들이 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 습득이 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며 자신들이 처한 문제의 해결점이라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출신 토론단 참여자는 자신이 한국어를 잘 못해 겪은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학교에서 단체급식을 먹을 때 제가 먹기 싫은 음식을 거절할 줄 몰라서 아깝게 버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버스는 정말 귀찮습니다. 버스에서 한국어 몰라 난처한 일 생길까봐 매일 걸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같이 축구하자고,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냥 손동작으로 표현합니다. 교류할 수 없어서 정말 난처했습니다. 한국어를 할 줄 몰라서 난처한 일이 정말 별처럼 셀 수 없습니다. (중국)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그 나라의 말을 잘 배워야 하는 사실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조선족이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전에는 “한국어 할 줄 몰라도 괜찮아. 뭐, 어차피 대림(동)에서 사니까 다 중국인인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모르면 이 나라에서 제대로 적응해 살 수 없습니다. 소통이 어려워 좋은 직장을 찾더라도 상사에게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친구 사귀기도 어렵습니다. (중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한국에 입국한 지 2주가 되었을 때 베트남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6월 중순에 입국했는데 엄마 아빠는 제가 어디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한국어를 배웠는데 수업을 못 알아들겠더라고요. 엄마도 한국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문법을 못 가르쳐 줬어요. 그때 앞날이 정말 캄캄하다고 느꼈었어요. 어디에 갈지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은 베트남 고향이 그리워요. (베트남)

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 재학 중인데 TOPIK 4급을 합격했음에도 언어 장벽 때문에 공부하기가 힘드네요. 현재 인천(남구)에 살고 있는데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곳이 서울처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마다 구로까지 가서 한국어를 배워야 돼요. 예전 서울에 살 때는 집 근처 교회에서 한국어를 배웠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도와 주셨고 베트남어를 아는 한국인 오빠가 한국어 쓰기를 가르쳐 줬어요. 인천에 있는 지원센터를 몇 군데 알아봤는데 거기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기초 한국어만 가르치고 저 같은 사람들에게 TOPIK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한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한국어예요. 가까운 지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앞서 서술한대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현안은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것이다. 토론 참여 청소년들은 토론 틈틈이 자신들이 체험한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법에 대해서도 조언하였다. 단어습득을 위해 사전을 적극 활용하고,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꾸준히 시청하며,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학습이나 가족 및 한국인 친구와 한국어로 자주 소통의 기회를 갖는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이외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문화와 한국어 실력을 늘리는 목적으로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여름 방학 때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받고 싶어요.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것도 있고 교통비 등 조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지원금은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활동을 통해서 한국 문화나 한국어 능력도 늘릴 수가 있어요. (베트남)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거라면 내 생각에는 한국 드라마와 뉴스를 많이 보고 한국 친구도 많이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알바를 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말에 알바하면 한국어 정말로 빨리 느린 것 같아요. 또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중국)

저는 일을 나가서 한국어 능력을 늘리면서 경력을 쌓고 싶어요.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실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달라요. 또한 사람마다, 지역마다 이야기 방식이 달라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용돈을 벌고 싶어요. 미국 학생들을 보면 10대인데도 사업하거나 상품을 만들 수 있다 해서 정말 부럽네요. (베트남)

이들은 언어장벽이외에 한국에서의 삶을 어렵게 하는 문제로 자신들이 다니는 학교나 지원 기관에서 겪은 경험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불만들을 토로하였다: ① 기관 및 프로그램의 서울 편중 현상, ② 수적 우세에 따른 중국출신 청소년 위주의 수업방식, ③ 중도입국 청소년에 특화된 프로그램의 부재에 따른 비효율성

무지개청소년센터라는 데가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센터만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수원 센터가 직업교육을 안 해서 정말 안타깝네요. (베트남)

학교에서 경험한 차별 문제로 불만이 있어요. 베트남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차별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겪고 있는 문제는 베트남사람과 중국사람 간 차별이에요. 제가 다녔던 센터에서 90%가 중국학생이었어요. 베트남학생은 많아도 세 명이고 다른 외국학생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통역 선생님이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중국어를 아셔요. 제 친구도 주로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학생 경우에는 그들이 자주 중국어로 대화하니까 한국어가 좀 느렸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말을 사용해야 되니까 한국어 능력이 빨리 늘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중국학생한테만 관심을 주고 제가 존재하지 않은 듯이 아무 관심을 안 줬어요. 수업 때 무엇을 결정하거나 학생자치회 활동을 논의해야 할 때 선생님이 중국학생들한테 중국말로만 물어봤어요. 그들이 다 결정한 다음에 저한테 통역해 줬어요. (베트남)

센터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어요. 대학교 3학년 학생인 한국 언니가 저의 멘토였어요. 제가 다니는 센터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족 아이들이나 중도입국한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애들이 거의 다 한국 사람처럼 한국말이 유창하더라고요.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들에게 친구도 사귀고 사회 적응력과 가족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활동이지만 제가 싫은 것은 저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과 같이 활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20살인데 9-10살짜리 아이들과랑 노니까 너무 어색해요. 애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또 어리니까 뭐든지 제가 다 양보해야 됐어요. 같은 센터이니깐 그렇게 배정하는 게 편하겠지만 그런 자리가 저에게도 애들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를 또래 친구랑 같이 배정해야지요. 저 같은 (중도입국)청소년이 많지 않은 걸 알지만 그래도 또래끼리 모아서 활동을 해야 효과가 있지요. (베트남)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다가 얼마 안 지나 공부에 대한 싫증이 났어요. 그 센터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 대 사람은 서너 명이고 대부분은 모두 아저씨, 아줌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어요. (중국)

저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지난 주말에 센터 선생님과 같이 무지개축제에 참여하러 서울에 갔는데 참여자들이 다 아줌마와 아이들이고 저만 청소년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저도 아이들처럼 명찰을 목에 걸고 다녔어요. 얼마나 어색하던지...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느끼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첫인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차별적 언행을 경험하고 일방적인 문화수용의 강요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일반 국민들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들의 접근성 제고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원 기관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효과성 및 참여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말하는 장래희망과 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특히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라는 점 이외에 ‘중도입국’이란 특수한 환경이 더해지면서 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일반 청소년의 그것보다 더 깊어 보인다. 아직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적성에 맞는지 모른다는 토론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나는 꿈에 대해 항상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한국에 와서 더욱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OOO(토론단내 구성원을 지칭)이 아주 강인해서 내가 모델을 삼을만합니다. 그도 전에는 미래가 막막했는데 나중에 결국 자신이 가야할 길을 찾아냈다니 정말로 대단해보입니다. 근데 지금의 나는 내 자신의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한국에 계속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있어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돌아가면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요. (중국)

지금 나도 나의 꿈이나 취미에 따라 해야 할지, 아니면 대다수에 따라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나중에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겠지요? (베트남)

저는 지금 16살이고 아직 중학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누가 나를 고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종업원은 하지 말래요. 하지만 저 지금 졸업증도 없고 학적도 어디에 잃어버렸는지....정말 앞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밤에 그냥 누워서 생각했는데, 누가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여자를 고용하겠어요? 꿈은 누구나 다 꾸지만 현실이... (중국)

중도입국 청소년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진로 교육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특히 베트남 토론단에서 나온 다음의 토론 내용은 부처와 현장 전문가들이 곱씹을만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해당 청소년이 쓴 전문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나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언어교육을 하는 센터들은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내가 공부했던 센터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거 아닌데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거기서 우리가 꿈이 있을 수 있도록 상담만 하는 거고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도 말해 주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아직 노는 나이로 미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엄마 곁에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나랑 달리 어떤 친구는 빨리 일을 나가서 엄마 아빠를 도와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몇 가지의 프로그램에서 선생님들은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대요. 선생님들은 물어 볼 때 어떤 친구가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겠다고 다른 친구들이 한국어 선생, 변호사 등이 되고 싶어 하다고 또 어떤 친구가 화장품, 옷가게 등 사업하고 싶다고 해요. 하지만 선생, 변호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친구들은 그 다음 날에 숙제를 안 하고 결석했어요. 옷가게 등 사업하고 싶어 한다는 친구들도 직업교육 수업 때 결석했구요. 그 친구들은 정말 그들의 적성에 맞거나 자기 꿈에 따라 진로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 같은 청소년들의 현황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실질적인 진로상담을 받고 싶어요.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전공이나 컴퓨터,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직업교육을 받는 게 좋아요.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국내 유입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정보와 교육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일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내용을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이들의 기대수준과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이라 불리는 집단의 프로파일(예: 국적, SES, 연령, 언어수준 등)을 살펴보면 매우 복잡적이고 다양하다. 이들도 국내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고유한 꿈과 장래희망을 갖고 있으며, 자신들에게 처한 상황을 반영하여 진로 및 교육에 대한 절충을 시도하고 있었다.

저는 바를 하나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런 조용한 바. 저는 노래를 부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의 바에서 제 장기자랑을 하면서 이익을 얻으니까요. (중국)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커피를 타는 법을 배울 계획입니다. 스타벅스와 견줄 만한 카페를 열고 싶어요. 한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직업은 안정적이겠죠. (중국)

저는 미용하고 네일아트를 하고 싶어요. 직업교육센터에서 직업상담과 교육을 받고 싶어요. 미용학과에 관심이 있는데 이 학과 안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또 도구 비용과 학비가 비싼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울 수 있을지 잘 몰라요.(베트남)

저는 어떤 센터나 어학원에서 베트남어를 가르치거나 회사에서 알바를 하고 싶어요. 이러한 기회나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가르치려면 경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알바라도 하려면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된대요. 저번에 한국 여행사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물어보니까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더 일찍 혹은 늦게 퇴근할 수 있대요. 하지만 저는 6시 수업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일이라도 못하게 되었어요. (베트남)

저의 어머니는 제가 대학교에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기술학교에 가서 그냥 보통한 일을 하면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대학교에 가지 못하면 많은 지식을 배우고 국가 자격증을 많이 따고 직업을 찾을 겁니다. (중국)

(3) 한국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부모를 따라 자의든 타의든 낯선 한국에 온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성장하기까지는 새로운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등의 남다른 노력이 요구된다. 토론에 참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문화차이에서 오는 당혹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저마다의 방식과 의지를 제시하였다.

나이든 한국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고 자기 나라의 문화만 좋다고 외국인이 한국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해요. (베트남)

한국에 왔기 때문에 모든 일이 험클어졌어요. 쉬운 길을 버리고 힘든 길을 가야 되고 앞날도 막막해요. 하지만 여기에 계속 살다 보니까 나의 생각과 생활방식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내 자신이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되돌지 않아서 항상 자기 자신한테 후회하지 않다고 말해요. 다시 선택할 수 있어도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계속 살다 보면 적응이 되고 내가 선택을 잘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들 미래를 위해서 파이팅해요. (베트남)

외국인한테 차갑게 무시하지 않고 올바른 자세를 취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외국출신 거주자들을 많이 고려해주길 바랍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집 떠난 아이 같이 기쁠 데가 없어요. 도움을 받은 외국인은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나중에 도움을 준 사람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중국)

중도입국 청소년 상당수는 자신들의 체류신분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비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가장 먼저 꼽았다. 체류자격을 위한 행정제도에 있어서 비용문제, 절차의 간소화, 심사기간의 단축, 정책변화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 등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외국 출신은 (한국에서) 취직이 아주 큰 문젯거리입니다. F4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뭘 배우면 그것만 할 수 있어서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이 허용이 안 됩니다. 특히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없으면 가족부양은 이미 큰 부담인데 수속은 말도 마세요. 나 같은 경우는 수속을 신청할 때 다른 비용은 물론 보증금만 삼천만원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우리가족은 편모가정인데... (중국)

모든 일은 좀 간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그렇게 복잡해요. 그리고 특히 중국인은 한국국적 시험을 좀 쉽게 하고 정책 중의 제한을 완화하면 좋겠습니다. (중국)

보통 외국인이 한국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은 비자 문제이예요. 다행히 제가 F2비자가 있기 때문에 비자 관련 어려움을 별로 겪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비자 연장할 때 결핵검사를 받아야 되고 미리 예약도 해야 한대요. 법 규정이 가끔 이렇게 바뀌는데 잘 모르는 사람은 좀 불편하겠네요. 또한 여기서 무슨 검사를 받거나 서류를 뽑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 엄마가 언제나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예요. 어제 오후 수업을 결석해서 결핵 검사를 받으러 갔다 왔어요. (베트남)

여기에 온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관한 법적 절차도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출입국사무소에 갈 때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저번에 체류 연장하러 갔는데 신청서는 이전보다 많아지고 다 제출한 다음에 또 다른 신청서 하나를 쫓습니다. 보건소에 가서 건강 검진하라는 것입니다. 병이 없어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입양한 아들도 보았습니다. 그 한국인 아버지가 이렇게 말 했어요. “당일에 끝날 수 없다면 미리 알려줘야죠.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와서 건강검진을 다 하고,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연장신청을 하잖아요. 지금처럼 한다면 출입국사무소에 갔다가 신청서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고 또 며칠 후에 건강진단서를 받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야합니다(건강진단서는 며칠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지금 휴가를 신청하고 아들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또 휴가를 신청해야 되잖아요.” 정책변화가 있을 때는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중국)

난 귀화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수속을 다 마쳤고 정부의 심사와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허가가 나올 때까지 1년간 대기해야 된대요. 난 입국한지 1년이 되었고 귀화 시험을 본지 6개월밖에 안됐어요. 근데 시험을 합격한지 1년 뒤에야 서류 심사를 받을 수 있대요. 귀화시험을 보기 전이나 보고나서도 베트남에 가면 서류 심사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 기간에 한 번도 베트남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너무 슬퍼요... 심사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대기기간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출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4) 포토보이스(photovoice) : 사진으로 말해요!

포토보이스(photovoice)는 주로 사회 약자나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사진을 통해 이들의 내면에 깔린 의견과 감정을 밖으로 표출토록하고 연구 참여자들과 사진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참여적 실행연구 방법론 중 하나이다(이현주, 2015).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의 마지막 주차에 실행한 포토보이스를 통해 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다양한 감정들과 이들의 생활상을 중도입국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본 생생한 이미지들을 통해 탐색할 수 있었다.

① 외로움과 그리움

각자 모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낯선 한국에 와서 느끼는 중도입국 청소년 대다수의 공통된 감정은 외로움과 그리움일 것이다. 자신이 현재 발을 딛고 서있는 한국 사회는 물론 모국의 친구들과도 단절된 느낌의 고독감이 커질수록 마음 한켠에 묻어둔 모국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는 더 커지게 된다.

#1.



귀여운 두 아이를 보면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때 매일 카드를 들고 나가서 놀 친구랑 놀니다. 어린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외로워졌습니다.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힘듭니다. 어릴 때 어른이 되고 싶고 이제는 어릴 때 돌아가고 싶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자기에게 힘내라고 합니다. 저 방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를 인생의 여정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중간에 멈추고 어떤 때는 순조롭고, 하지만 순조로울 때가 거의 없죠. 그래도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하죠. 아마 삶이 그런거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중국_사진제공자)

댓글 1: 제 생각은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탔다기보다는 엘리베이터 내부의 작동하고 있는 기계로 비유하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중간에 멈추거나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의 기계는 수리하는 사람이외에는 일반사람이 엘리베이터의 운영과 용법을 모릅니다. 우리 중도입국 청소년처럼 개별적인 학교와 센터만 우리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

댓글 2: 저 동생의 글과 사진을 봤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모두 성장의 과정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필수과목입니다. 하지만 겪은 고통은 나중에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될 것입니다. (중국)

#2.



채팅방 대화 번역

친구: 너 한국에 있어서 재미있지?
 나: 음 그저 그러지 뭐.
 친구: 한국에 잘 생긴 사람 많지?
 나: 성형 수술 받은 사람이 많아.
 친구: 부러워. 나도 한국에 가고 싶어.
 나: 뭐가 부러워?
 친구: 한국에 잘 생긴 오빠가 많아?
 나: 그래. 한국은 사실 내가 생각한 것처럼 좋지 않아.
 친구: 헉, 왜?

내 생각에는 거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좋니? 잘 생긴 남자나 예쁜 여자가 많니? 어떤 친구가 한국에 온 게 많이 부럽다고 해. 근데 그들이 직접적 경험해보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른가 봐요. 아마 어떤 친구가 본인의 어려움을 잘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어떤 대장부들이 어떻게 마음속의 슬픔을 너무 가볍게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친구들의 경솔한 질문에 대한 그냥 가볍게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고통을 겪고 나서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마다 다시 회상하고 싶지 않은 과거나 경험이 여전히 있어.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의 처지를 잘 이해 못 하는 것 같습니다.(중국_사진제공자)

댓글 1: 맞아요. (중국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한국에 잘 생긴 남자, 예쁜 여자, 맛있는 음식 많니? 재미있니? 이런 질문을 할 때 내 느낌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들이 직접 경험해보지 못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국)
댓글 2: 난 중국의 친구한테 내가 한국에 겪었던 일을 알려줄 용기 없어.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 산다는 말도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중국)

#3.



남이섬 연못이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 근처에도 괜찮은 연꽃 연못이
있어요. 작년에 거기에 다녀왔어요. (베트남_사진제공자)

댓글 1: 이거 보니까 베트남 하노이 연꽃이 그립네요. (베트남)

댓글 2: 우와 예쁘네요. 연꽃은 베트남 여자의 상징이에요. (베트남)

#4.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찍은 공원 한 구석이에요. 요즘 주변 풍경을 구경하는 시간은 주로 버스를 탈 때예요. 여기에 이사 오기 전에 내가 학교에 갔던 길이 더 예뻐어요. 같이 다니고 있는 커플을 보니 남자친구와 같이 오후마다 바람을 쐬러 갔을 때가 생각난다.

“엄마, 난 결혼하고 싶다.”

(베트남_사진제공자)

댓글 1: 사랑의 계절이 왔어요. 데이트해요. 결혼은 천천히 해도 돼요...(베트남)

댓글 2: 내 남친이 베트남에 들어갔어요.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베트남_사진제공자)

#5.



이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중국_사진제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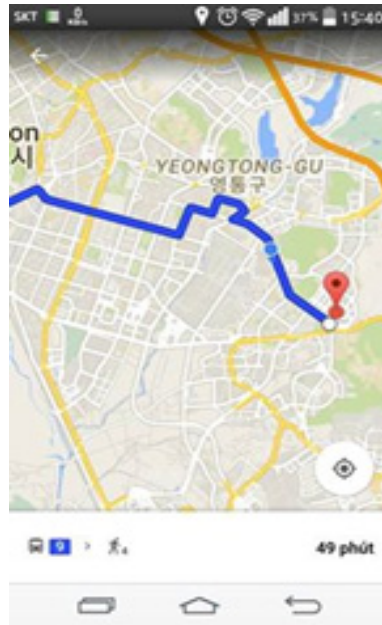
댓글 1: 길이 아득히 멀다. (중국)

댓글 2: 이곳은 중국의 내 고향입니다. 아름다운 하얼빈 인근 작은 도시. 생활은 이 눈처럼, 눈이 내리면 추워집니다. 하지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낙관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생활도 낙관적인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중국)

②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

한국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상을 이들이 SNS에 올린 사진을 통해서 엿볼 수 있었다. 사방이 낯설고 언어장벽으로 길을 묻기도 수월하지 않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의 길 찾기 기능은 큰 도움이 된다.

#6.



길을 잃을까봐 항상 지도를 사용해야 돼요. (베트남_사진제공자)

댓글 1: 나는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는데도 길을 헤매곤 해요. (베트남)

댓글 2: 혼자 멀리 갈 때마다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면 편리하지요? (베트남)

또한 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로 탐색을 겸한 한국어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른 중도입국 청소년은 평소에 사진을 가까이하며 모르는 한국어가 나올 때마다 찾아보는 습관을 들일 것을 조언하였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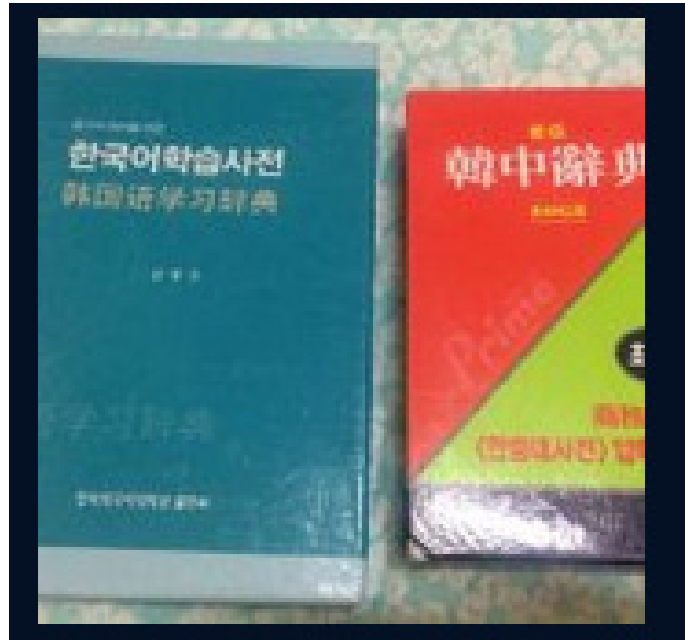


나는 사회활동이나 체험 활동(상품 만들기, 체육 활동 등)을 좋아해요. 경험도 쌓고 친구를 사귀면서 한국 문화를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베트남_사진제공자)

댓글 1: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나도 사회활동을 아주 좋아해요. (베트남)

댓글 2: 사회활동을 나가면 즐겁기도 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엄마도 나중에는 시간이 없으니 지금 시간이 날 때 참여하래요. (베트남_사진제공자)

#8.



여러분에게 내가 늘 쓰고 있는 사전 두 권을 추천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전은 단어의 양이 매우 매우 많고 찾고 싶은 단어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어느 부분은 조선어도 있어(주: 한국에서 쓰지 않는 말들). 그리고 관용어, 속어 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중국_사진 제공자)

(덧글없음)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취업과 체류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다. 중국어권 토론단의 한 중도입국 청소년은 자신이 최근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사진을 올려 다른 토론 참여자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9.



모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 자격증 이미 나왔습니다. (중국_사진 제공자)

댓글 1: 축하합니다.

댓글 2: 뭐든지 배울 수 있으면 다 배우세요. 나중에 취업을 도움이 됩니다.

댓글 3: 무슨 자격증인가요?

댓글 4: 시스코 전문 자격증, 가장 기초적인 것

#10.



이 두 사람은 우리 집의 주요 돈 버는 사람들이예요. 이것은 작년에 전주한옥 마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여기는 우리 가족이 자주 여름휴가를 보내는 곳이에요. (베트남_사진제공자)

댓글 1: 누구시나요?^^ (베트남)

댓글 2: 우리엄마와 새 아빠예요 (베트남_사진제공자)

댓글 3: 예전에 나도 전주에 한동안 자원봉사활동을 나갔어요.(베트남)

댓글 4: 우리엄마와 새 아빠예요 (베트남_사진제공자)

댓글 5: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새 아빠와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 첨부해요(베트남)



3. 중도입국 청소년 및 보호자 심층면접조사²⁾

1) 심층면접조사의 기획 및 구성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의 유용한 근거자료로 삼고자 다양한 배경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만나 이들의 가정사와 이민 정착기 그리고 진로 계획 등을 살피고, 이를 심층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고 진로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저연령층의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은 ① 한국어 습득이 상대적으로 늦고 ② 공교육 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③ 특히 경제적 자립이 시급하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사회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연구진은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 여섯 명과 네 명의 보호자(어머니)를 심층면접조사 하였다. 출신국, 성별, 재학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선별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V-5>는 연구진이 인터뷰한 중도입국 청소년 및 보호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연령은 18세부터 24세까지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세 명, 남성 세 명으로 1 : 1의 비율을 이루었다. 국적은 베트남 두 명, 중국 한족 출신 두 명, 중국 조선족 출신 한 명, 몽골 한 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네 명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각각 재학 중이며, 다른 두 명은 학교에는 다니지 않지만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심층면접조사에 응한 이들 어머니의 연령대는 모두 40대이며, 베트남 2명, 몽골 1명, 중국 1명으로 구성되었다.

면접조사에 응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일부는 제한된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 필요한 경우 통역 지원을 활용하여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든 심층면접조사는 이들의 거주지 인근으로 연구진이 방문하여 카페나 지원 기관 및 센터 내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각각의 면접조사는 회당 평균 2~3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필요한 경우는 연구진이 추가 방문 조사나 온라인 사전 조사를 별도로 수행하였다. 상기한 이 같은 조치들은 래포(rapport) 형성 정도에 따라 보다 충실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인터뷰 내용은 면접대상자의

2) 본 절의 (4)Huong00모녀 인터뷰, (5)Van00모녀 인터뷰는 Nguyen Thi Phuong Thao(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가 집필하였음.

동의하에 녹취를 하였으며 그 결과 동의하지 않은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면접내용을 녹취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 IV-5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특성

번호	이름	성별	연령	학교소속	출생년도	거주지역
1	령OO	여	19	대학생(2년제)	중국(한족)	인천
2	김OO	남	21	학교 밖	중국(조선족)	경기 성남
3	송OO	남	23	학교 밖	중국(한족)	부산
4	Huong OO	여	24	대학생(4년제)	베트남	인천
5	Van OO	여	20	대학생	베트남	경기 안산
6	엘OO	남	18	고등학생	몽골	부산
7	김OO 어머니	여	49	—	중국	경기 성남
8	Huong OO 어머니	여	44	—	베트남	인천
9	Van OO 어머니	여	40	—	베트남	경기 안산
10	엘OO 어머니	여	44	—	몽골	부산

2) 심층면접조사 결과 분석

(1) 령OO(19세, 여, 중국연변출신 한족, 2012년 입국)

연구자가 령OO의 거주지역을 두 차례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한 내용을 토대로 기존의 면접조사 분석의 집필의 방식을 벗어나 중도입국 청소년 1인칭 시점의 내러티브 방식을 적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였다. 령OO은 상당수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언어장벽, 문화차이,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 갈등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과 대학 입학 등 자신의 꿈을 향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령OO의 경우는 중도입국 청소년 상당수가 겪는 다양한 고충을 고스란히 겪었다는 대표성과 함께 중도입국 청소년의 성공 사례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연구진은 판단하였다. 령OO의 하루 생활에 대한 일인칭 시점의 내러티브는 실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사실왜곡, 변조, 과장을 배제하고 이야기 구성만을 각색한 것이다. 이 같은 시도는 보다 현실감 있는 묘사를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고충과 애환을 직시하고 이들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령OO의 내러티브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을 들여다본 후 나머지 면접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환경과 한국에서의 정착 및 자립이란 두 개의 주제에 따라 질적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한국에서 살아가기”

오전 8시: 누워있는 침대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고 싶지 않지만 9시 시작인 강의에 늦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일어나야 한다. 새벽2시가 되어서야 끝난 학교 인근 호프집 알바로 몸은 아직도 천근만근. 학교 건너편 원룸에서 살고 있는 터라 강의실까지는 걸어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오늘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친구들을 강의시작 10분전에 만나기로 해서 서둘러야 한다. 오늘은 내가 가장 꺼리는 팀프로젝트(team project) 발표가 있는 날이다. 한국에 온 지 채 4년도 되지 않아서 전문적인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는 공대 강의를 완벽히 이해하기에는 한국어 실력이 과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다. 나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을 받을 만큼 폴리텍다솜학교의 동기생들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났다고 자부하던 나는 올해 대학에 와서 주눅이 들어버린 것 같다. “내가 발표를 망쳐버리면 어찌지,” “혹시나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여러 걱정을 지울 수 없지만 친구들은 그런 나를 위해 많이 배려를 해주려 한다. 공대의 특성상 여학생이 나 포함 다섯 명 밖에 되지 않지만, 그런 환경이 이들과 더욱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오전 9시: 팀 프로젝트 발표의 리허설을 간단히 하고, 강의실에 앉아 내가 속한 조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조의 발표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잔뜩 긴장하였다. 문득 3년 전인 한국폴리텍다솜학교에서의 첫 학기가 생각난다.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한국에 온 지 7개월 만에 엄마 손에 이끌려

제천으로 가게 되었다. 한국인 아버지와 서먹한 관계를 생각하면 차라리 비슷한 처지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숙형학교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별도로 한국어 공부를 배워가며 교육과정은 한국어로 진행되는 시스템이라 처음에는 선생님의 간단한 질문이나 설명도 못 알아들을 만큼 애를 먹었다. 당연히 수업시간은 긴장의 연속으로 스트레스가 쌓여만 갔다. 다행히 주위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3년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다.

오후 12시: 무사히 발표를 마치고 집에 와서 하루 첫 끼 식사를 챙겨먹는다. 매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거니와 식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잠이 부족한 내가 다음 강의 시간 전 까지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어 대부분 집에서 식사를 혼자 하는 편이다.

오후 2시: 40여명의 수강생들이 뻘뻘이 들어차 있는 강의실 한편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 아직도 낯설다. 내가 한국에 와서 공대생이 된 것이 필연일까 우연일까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지인으로부터 제천에 있는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정보를 처음 전해들은 엄마는 그 때부터 나를 그 학교 학생으로 만들 각오를 하신 것 같았다. 서둘러 학교에 이런저런 문의를 하고 결국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난 또 다시 엄마의 품을 떠나 학교가 있는 제천으로 가야했다. 그 과정에서 나의 의사나 적성은 엄마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았다. 국비로 운영되다보니 경제적인 짐을 덜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 취업도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면 좋을 것이란 계산이셨다. 학교에 문의해보니, 컴퓨터 기계과, 플랜트 설비과, 스마트 전기과 세 개 중 하나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컴퓨터 기계과는 경쟁률이 제법 세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택은 플랜트 설비과와 스마트 전기과 중 하나였다. 여자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결국 스마트 전기과였다. 다행히 적성이 맞았다. 주변 동기생들 중 적성이 맞지 않거나 학습의욕 저하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았다. 나처럼 대학진학을 한 선배나 동기의 경우에도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이 아닌 일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인 교육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나이가 또래보다 많아 적응을 못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사실 나라고 포기하려는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귀화신청이 진행 중으로 한국 사람이 아니란 관계로 장학금 혜택도 없을뿐더러 좁은 취업시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출신인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오후 5시: 강의를 마치자마자 학교 인근 호프집으로 서둘러 가야만 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급 6,500원의 알바를 해야만 지금 사는 월세와 학비를 일부 충당할 수 있다. 한국인 양아버지는 입양은 물론 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해 거부의를 분명히 하셨다.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9살 여동생과 나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차별을 당하는 느낌이 종종 들어 섭섭할 때가 많지만 엄마를 위해서 갈등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려 참는 편이다. 가부장적인 한국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주 싸우시곤 하신다. 그 때마다 어머니는 아홉 살 여동생 때문에 참고 산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다. 내가 어렸을 적 중국인 친아빠와 이혼하시고 생활고를 겪던 어머니는 외할머니에게 나를 맡기시고 한국으로 돈 벌러 떠나셨다. 그 이후로 10년 가까이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했던 기간은 엄마에게도 쓰린 경험이었을 것이다. 결국 어머니는 빠듯한 살림살이에 직장생활을 하시며 틈틈이 모은 돈을 내 학비에 보태주신다. 400만원에 달하는 한 학기 등록금은 엄마의 도움 없이는 시급 6,500원의 알바로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워, 엄마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래도 금전적 고민은 여전하다. 최근 들어 부족한 한국어와 취업준비를 위한 별도의 학습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너무 빠듯하다.

오전 2시: 잠시 앉아 있을 틈 없이 동분서주 손님들의 주문을 받으며 술과 안주를 나르고, 테이블 정리를 새벽까지 하고 집으로 향할 때면 피곤함이 파도처럼 몰려온다. 이따금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 가슴 깊숙이 묻혀두었던 외로움이 비집고 올라온다. 한국인 양아버지의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는 처지로 법률상으로는 무연고 외국인 신분이다. 한국폴리텍다솜학교 1학년 때 준비 없이 무턱대고 신청했던 귀화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두 차례 있던 나는 일 년 넘게 한국어를 열심히 익히고, 그 사이 전기기능사 자격증과 승강기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결국, 3학년 첫 학기에 귀화 면접시험에도 무사히 통과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적으로 한국인 신분이 아니라서 통장하나를 개설하는 데도 복잡한 절차로 어려움이 따른다. 한국생활을 못 버티고 중국으로 돌아간 친구들과 SNS로 연락을 하면서 중국으로 가서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다. 나는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이 있는 한국에서 내 꿈을 펼치며 살고 싶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신이 나머지를 채워 주리란 기대를 안고 잠을 청한다.

(2) 중국 출신 김OO 모자 인터뷰

최근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중독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낯선 한국사회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현실도피의 방편으로 과도한 온라인 게임 이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 면접조사 대상 청소년 역시 피씨(PC)방에서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며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국 조선족 출신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현재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표 IV-6>에 정리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바탕으로 김OO과 그의 어머니의 한국생활 정착기를 살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IV-6 중국 출신 김OO 청소년과 어머니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주제	소주제	내용
가정환경	입국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의 가난한 삶을 끝고자 보호자 한국입국 - 중국에서의 보호자 부재에 따른 한국입국 -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3년 후 재입국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의처증이 심한 남편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복형제와의 갈등 - 남편과의 갈등
한국 정착에서의 어려운 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에서의 입학 거부 - 초등학교는 가기 싫어 검정고시를 결정함 - 학업수행의 어려움
	과도한 게임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게임하는데 소모 - 게임시간을 줄이려는 노력
한국 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지원정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 가정 지원 - 중도입국 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① 한국의 입국 배경과 가정환경

한국에서 재혼한 어머니의 권유로 당시 14살이었던 김OO은 관광비자로 처음 한국에 입국하여 어머니와 양아버지랑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살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픈 어머니는 김OO이 아홉 살 때인 2009년 한국인 남성과의 재혼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러나 막상 알고보니 남편의 경제력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한다.

한국에 처음 오게 된 이유는 중국에 보호자가 없어서요. 학교에서는 보호자 없으니깐 학교 퇴학 처리 됐어요. 학교도 못가고, 엄마한테 가야하던 상황이었어요. 함께 살던 외할머니도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모부네서 함께 살았는데, 이모부네도 한국에 가서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김OO)

제가 출국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이 가난하게 사니깐,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지로 제가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에 올 수 없으니깐 결혼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중략) 근데 웬걸, 남편은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았거든요. 직업은 그냥 없다고 봐야 해요. 있으면 가고, 없으면 놀고. (어머니)

김OO은 2009년에 한국에 처음 왔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2012년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여 지금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처음 한국에 입국했을 때는 낯선 한국문화와 새로운 가정에 적응이 어려웠다고 한다.

김OO이 14살일 때, 한국에 처음 왔었어요. 엄마랑 같이 살고 싶으니깐 김OO이도 온 거죠. 그런데 김OO이 한국에 딱 와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이진 아니라고 생각했나봐.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중국에 다시 갔어요. (어머니)

처음 한국 왔을 때는 거부감 때문에.... 한국이 좋았던 점도 있지만 어찌 되었든 중국이 더 좋았어요. 시간 지나면서는 한국에 있을 때가 중국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처음 한국 왔을 때는 한국에서 살기 싫었어요. 중국 다시 가고 싶었어요. 엄청... 엄마만 만나면 ‘중국 간다 중국 간다’ 계속 그랬어요. (그 당시 한국에는) 친구도 없고, 여자 친구도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음... 이런 말 자주 해도 되나... 한국에는 마트 편의점 가면 19금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담배, 술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갑자기 못하게 하고 못가는 데도 많고... 피씨방 10시 넘으면 19세 이하는 못 있어요. (김OO)

②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과 이혼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어머니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남편은 의처증이 심했으며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김OO보다 나이가 많았다고 한다. 의처증으로 인한 남편과의 가정불화는 버틸 수 있었지만 김OO이 이복형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한 사건을 목격하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사건은 예전에 우리 가족 모두가 옥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던 날이에요. 심부름을 다녀오면서 김OO이 담배를 피웠나봐요. 그걸 본 남편아들이 “네가 우리 아빠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고기를 사와 이렇게 먹는 건데, 담배를 피우고 있냐”면서 김OO이를 혼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래도 그냥 아들들이니 형이 동생을 잘 다독이겠거니 했었는데, 둘이 밥 먹다가 잠깐 1층으로 내려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형이 김OO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치더라고요. 여동생 아들이 그 광경을 봤는데, “이모, 김OO이 다 죽게 생겼어”라고 하면서 나한테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니 코뼈가 부러졌는지 바닥은 피가 흥건하고... (중략). 입이 다 터지고 코뼈까지 나갈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 아마 병원에서 사건경위 같은거 작성할 때 김OO이 입막음을 하려고 형이 단단히 일러두기도 하고, 감시도 좀 하려고 같이 간 거 같아. 그래서 그 때 남편이랑 헤어졌어요. (김OO이를 위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내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머니)

김OO 어머니는 자신의 어머니와 형제식구들을 가족초청비자로 데려오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그러나 남편은 가족 초청을 위해 준비한 서류를 찢어버리는 등 평소 남편과의 갈등이 잦았다고 한다.

결혼으로 왔는데, 좀... 이게 좀 그랬어요. 제가 8시간 근무하는데, 제가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에 꼭 아저씨(남편)한테 전화를 해야 했어요. 핸드폰도 그 사람 앞으로 해두니깐, 제가 전화를 못 받고 그런 날이면 전화를 딱 정지시켜버려요. 왜냐면, 의심이 많으니깐. 의처증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결혼생활이) 엄청 힘들었어요.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어떤 남자랑 둘이 뭐를 하진 않을까... (어머니)

친정이 가난해 가난을 벗어나고자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된 건데, 결국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비자가 다 나왔어요. (한국에 올 수 있는 초청비자가) 예전에는 남편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화가 나면) 내가 가족들을 초청하려고 준비한 서류들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기도 했어요. (어머니)

③ 교육

중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였던 김OO은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라는 어머니와 주변의 권유에 검정고시를 택하였다. 김OO의 어머니는 자녀의 교육 문제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한다. 처음 김OO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보부재로 당시 김OO과 함께 방문한 학교 측의 말만 듣고 너무 안이하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 김OO이를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고등학교 까지 중국에서 마치고 한국으로 초대하는 거였을 거예요. 중국에서 고등학교 까지 졸업하고 나면 한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엔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김OO이 중학교 2학년일 때, 제 가족, 친척들이 다 한국에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김OO이 혼자 중국에 내버려 두고 오기가 마음 아팠어요. 저는 김OO이가 한국에 오면 중학교 2학년에 다닐 수 있을 거란 생각해서 김OO이가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추진한 거였죠. 그런데 중학교 측에서 말씀하시기로는 한국어 시험도 봐야하고, 김OO이가 한국어실력이 안되는데 수업을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요. 제가 후회되는 건 그 때 그렇게라도 일이던 더 어린 친구들이랑(초등학교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공부를 하게 해야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건 1~2년 정도 공부하면 중학교 졸업장 쉽게 딸 수 있는 거라고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 말에 제가 속은 거예요. (어머니)

엄마가 학교 알아봤는데,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다니라고 했어요. 일반 초등학교에. 제가 다니기 싫어서 검정고시 한다면 했어요. 그 때는 초등학교 가기 싫으니깐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학원간 거예요. (김OO)

김OO이 본격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한지도 벌써 사 년이 되었다. 중학교 과정 검정고시 학원에는 자신보다 연배가 훨씬 높은 노년층이 많았다고 한다. 당연히 또래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학과 같은 일부 교과목 수준은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로 어려워 학습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한다. 그럴수록 현실도피 차원에서 시작한 게임이용 시간은 늘어만 가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중국출신 청소년들과 PC방에서 살다시피 하며 학업을 외면한 때도 있었다

고 한다.

하다가 안한 적도 많아요. 하고 시험 보고난 직후 한 반년 정도 공부 안하고, 또 시험쳐보고 떨어지면 또 공부 좀 하다가 또 떨어지면 안하고... 공부 안할 때는 다문화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하고, 아니면 놀고, 아니면 일하고.... (김OO)

고등학교 검정고시학원이라면 또래 애들도 있고 할텐데, 중학교 검정고시학원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으시거든요. 문제는 김OO이 시험에 계속 떨어진다 는 거.... 학원에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인데, 그 분들은 공부에 한이 맺히신 분들이니깐 정말 열심히 하셔서 시험에 거의 붙으시는 편이에요. 근데 OO는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공부할 맛이 잘 안날 거예요. (어머니)

그땐 게임하는 게 좋으니깐, 공부해야하는 건 아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노력은 하고 싶어요. 진짜로 노력은 하고 싶는데... 안 따라줘요. 제 생각에는 배우는 과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배우는 수준도 어렵고, 하기 싫은 것 보다... 컴퓨터, 친구들 같은 유혹도 많아서... (김OO)

④ 과도한 게임이용

게임은 김OO과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낯선 환경과 복잡한 현실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며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능을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에 대한 과도한 집착증세로 학업 등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되고 가족과의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이다. 김OO은 자신의 과도한 게임이용의 폐단을 자각하고 있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게임만 한 적도 많았는데 최근 들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이전에는) 상관하는 사람 없으면 하루 종일 게임을 했어요. 일어나서 9시,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요즘은 학원 다니니깐) 학원 끝나고 2시부터 11시 12시까지 해요. (김OO)

(이전에 커피가루 봉제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당시) 하루 벌고, 이틀이나 하루 놀고 하루 7만원 정도 벌면 그 다음날은 피씨방에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하고... 그리고 나서 돈 없으면 다시 일하고...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말할까... 음 집 없는 사람? 노숙자 같은 생각 들어요. 지금 다시 그 때를 생각해보면... (김OO)

⑤ 지원정책 개선

김OO은 한국생활 초기에는 문화차이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한국생활이 싫어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어머니에 의해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된 경우이다. 지금은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만큼 한국 문화와 생활에 적응을 한 상태이다.

시간 지나고 한국에서 계속 살아보니깐 중국에 갈 생각도 없어지고, 한국이 좋아요. (김OO)

그러나 한국생활에 적응을 하고 철이 들어 한국에서 자립을 하려고보니, 이제 어엿한 청년이다 되었는데 중학교 졸업장도 없고 전문 기술도 제대로 배워놓지 못한 상태였다.

지금 21살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깐... 21살인데 중학교 졸업장도 없고... 21살인데 졸업도 해야죠... (김OO)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우리 사회와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김OO과 어머니에게 물었다. 김OO은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어머니는 한부모가정 지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김OO에게 자신처럼 14살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하고 싶은 충고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은 정책 개선 및 실행에 있어 곱씹어 볼 대목이다.

먼저 돈이 있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단 공부해야 해요. 한국어 공부. 그리고 나서는 한국 문화를 좀 알아야 해요. 그러면 말도 할 수 있고, 문화도 잘 아니깐 취업도 잘할 것 같고... 그런데 돈이 없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일단 돈 버는 거... (김OO)

지금 막 한국에 도착한 14살 정도의 중도입국 청소년이 있다면, 학교에 다니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싶으니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금 유쾌하고 활발한 사람은 한국인 학교에 가도 좋을 것 같고, 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외국인이 많은 학교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한국학교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한국에서 살아야하니깐. 만약에 옛날의 저라면 그냥 외국학교에 가라고 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한국학교를 추천해요.

(김OO)

한국에는 한부모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결혼이주여성들이 많은데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한부모들은 혼자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한부모들을 위해서 집을 지원해준다던가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인터뷰 말미에 김OO에게 한국에서의 어떤 삶을 꿈꾸는지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너무 소박한 내용이었다. 그만큼 상당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순탄하지 않다는 반증일 것이다.

음.. 한 가족을 이루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나처럼 아니면 돼요. 그니깐. 한부모 가정... 그거 아니면 돼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김OO)

(3) 중국 출신 송OO 중도입국 청소년

면접 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출신의 중도입국청소년으로 18세에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23세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인터뷰 내용은 <표 IV-7>에 정리된 개념들로 코드화하였다.

표 IV-7 중국 출신 송OO 청소년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주제	소주제	내용
가정환경	입국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서의 가난한 삶 - 한국 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출신 양아버지 - 경제적으로 무책임하고 의처증 심한 양아버지
	양아버지와의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아버지의 신체적·정신적 학대 - 한국어가 부족하여 도움요청마저 어려운 현실
한국 정착에서의 어려운 점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가정 상황 - 임금차별과 과도한 육체노동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현실 - 내게 꿈을 꾸고 학업에 열정을 보이도록 도와주신 선생님
한국 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지원정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 출입국 관리소

① 입국배경 및 가정환경

상당수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송OO도 중국에서 경제적 빈곤과 방임으로 힘든 시기를 겪다가 한국에 먼저 와 자리 잡은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왔다. 처음 어머니가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나름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한다.

어렸을 때 4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친척집을 계속 옮겨 다녔는데요,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도 좀 어렵고 또한 학교에서 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학교 친구들이랑 많이 싸우고, 선생님들도 나를 많이 때리고... 그래서 공부할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미용실에서 미용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했어요.

중국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하얼빈에서 겨울에 여름옷입고 살아야할 정도로... 그냥 어렸을 때는 한국 노래 듣고 그러다보니깐 한국에 대한 이미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국에 간다니깐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한국이 너무

좋으니깐 인터넷으로 서치도 해봤어요.

어머니는 중개사를 통해서 한국에 먼저 오셨어요. 방문비자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여행비자로 한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엄마와 양아버지가 싸우셨어요. 아마 돈 때문에 싸운 것 같아요. 한국 집에 처음 간 날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② 양아버지와 갈등

한국에서 송OO이 직면해야 했던 현실은 중국에서 꿈꿨던 것과 매우 달랐다. 어머니와 재혼한 상대는 북한이탈주민이다. 송OO은 양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을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다는 등 의 고통을 호소하였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경제적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이 송OO의 주장이었다.

처음에 어머니가 양아버지를 만났을 때는 북한(출신)사람이라서 서로 이해해주고, 자신에게도 더 잘 해줄거라 생각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괴롭혀요. 밤엔 잠도 못 자게하고 아침엔 일찍 일 나가라고 쫓아내고, 물리적으로...아빠는 이유 없이 엄마를 괴롭혀요. 아빠는 정신병자예요. 아빠는 엄마한테 집에 오지마라, 다른 남자하고 가서 자라.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해요. 어머니가 직장에 가면 아버지가 뒤를 따라서 미행을 해요.

항상 자기가 번 돈은 저축해요. 우리 돈만 써요. 그 돈 쓰지 않으면 싸워요.

양아버지가 칼들이고 엄마 목 가까이 대고 그랬어요. 엄마와 아빠가 싸움이 있었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런데 저는 경찰서 가도 아무 말 못해요. 그냥 거기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엄마아빠 싸워요. 경찰차가 출동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은 우리말 안 믿어요. 아버지한테만 물어봐요. 아버지는 경찰들이랑 이야기 할 때 울어요. 아 정말 이 아저씨는 심술쟁이예요. 그 사람 집에서는 너무 강해요. 그런데 경찰 오니깐 울면서 이야기해요. 경찰들은 우리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친구도 없고 주변에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경찰들이 우리 집 왔을 때 우리 경찰들에게 통역해주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진짜 절망했어요. 아버지 진술만 듣고 경찰들은 그냥 가요. 저는 한국말 아무것도 못하니깐 경찰아저씨한테 계속 ‘아니예요, 아니예요, 아버지 나빠요’ 이런 말 밖에 못했어요.

③ 취업

송OO은 중국에서 자신이 벌어 하루하루를 살아야하는 환경에서 성장하였다. 18세에 한국으로 왔을 때도 그에게는 교육보다는 취업이 우선 목표였다. 지금은 소속된 센터에서 한국어 공부와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이지만 입국 초기에는 교육은 그에게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돈을 벌고 싶어서, 일도 했지만 오래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때 제가 공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양아버지가 엄마에게 돈 안주면 외국인 등록 신청 취소하겠다고 계속 협박했어요. 저한테도 계속 협박하고, 국적신청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돈 때문에 그런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을 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하니깐.

엄마가 법무부에서 하는 사회통합이라는 한국어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밤에도 잠을 못 자게 괴롭혔어요. 어머니는 낮에 일도 하시고 그래서 피곤한데 밤에 잠도 못 자게 괴롭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공부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이러다 진짜 중국으로 돌아 가야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 지금 내가 한국어 공부할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회통합 교육은 결혼이주여성분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어머니는 그 프로그램에 1기였어요. 그게 1단계, 2단계 하면 5단계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 공부하면 국적 신청할 때 면접 안 봐도 되고. 양아버지는 어머니나 내게 둘 중에 한 명은 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시험 보기로 하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반년이 지난 뒤 어머니가 합격을 하셨어요.

송OO은 그렇게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임금 차별, 폭언 등을 당했다고 한다.

엄마가 공부하시기 위해서 제가 서포트 해주는 그 시기에 TV선반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만두게 된 이유는 다른 한국 사람들은 220만원 받는다고 들었는데, 저는 미성년자이고, 외국인이다 보니깐 7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어망 만드는 회사로 가서 일했는데 거기서는 120만원씩 받았어요. 거기 일은 정말 힘들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정말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이랑 관리자 빼고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외국인이에요.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이 관리자는 저를 엄청 괴롭혔어요. 너무 무서워서 아예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어요. 때리지는 않았지만, 폭언, 소리지르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일을 시키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 3년이 지난 지금도 손바닥이 아파올 때가 있어요. 손을 이렇게 누르면, 너무 아파요.

④ 교육

앞서 살핀 김OO의 경우처럼 송OO도 자신에게 처한 불안한 미래와 불행한 현실의 도피처로 게임에 몰두한 적도 있었다.

정말 한국 사람들 부러운 거 많아요. 저는 혼자 돈을 벌어야하니깐... 다른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보면 학교도 다니고... 왜 저는 이런 인생 살아야 하나... 너무 부러워요. 마음이 많이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던 2년 동안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중국에 돌아가게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공부는 별로 안하고 일을 계속 했었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인데, 한국에 오면 컴퓨터만 하게 되요. 게임하고, 집에서 지내는 것도 싫고. 그리고 일하고 나면 쉬고 싶고,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게임만 했어요.

그렇게 육체노동과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던 송OO이 지금처럼 한국어와 국가기술고시자격증 시험 준비를 위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몰두하게 된 것은 현재 소속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의 선생님과 만남이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의 지속적인 칭찬과 관심은 학업에 뜻이 없고 무기력했던 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치관과 생활패턴을 결국 바꿔놓았다.

저는 원래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어요. 학교(현재의 지원센터)에 일단 오게 되었으니깐 열심히 하려 했죠. 그 며칠 동안 선생님은 저에게 너무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잘하지 않았지만, 하나하면 선생님이 칭찬, 계속해서 칭찬. 저는 그래서 (나중에는) 거의 100점 맞게 되었어요, 매일 단어 70개씩 저는 외웠어요. 집에서 계속 공부하게 되고요. 저의 집에서 여기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이 걸려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통학시간이 들긴 하지만 제가 여기를 계속 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기 학교 다니는 것 저한테 힘들긴 해요. 아침에 7시에 차타야하니깐 6시 쯤 나와요. 아침 일찍 나와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가요. 그렇게 공부하면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도 일하고 집에 들어가서 힘들고 피곤한데도 2시까지 공부해요.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야하니깐 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깐 저도 처음에만 열심히 하겠다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밤 12시 쯤에 제가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봐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졸려요, 선생님은 뭐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답장해주세요. '응 선생님도 책을 읽고 있어' 라고요. 매일매일 잠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문자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힘들지만 조금 더 합시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렇게 한 달 지나니깐 습관이 되었어요.

⑤ 지원정책 개선

송OO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꿈을 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설사 한국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도 낮은 한국사회와 문화, 어려운 가정형편, 언어장벽이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다. 아래 송OO의

인터뷰 내용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진로 및 진학에 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을 갖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이들의 특수한 환경과 여건을 고려한 구체적인 진로 및 진학 상담 및 교육이 요구된다.

사람들이 꿈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부터 몰라요. 저는 제 능력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공부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고려해야해요. 저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나 제 능력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는 몰라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하나를 잡아 전문성을 높이라고.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이 직업을 택할 때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몰라요. 이 직업이 미래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면 돼요. (여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지내지만, 그래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라요.

어... 그리고 대학교 다니면, 지금은 대학교에 다니지 않지만, 어떤 과목을 전공으로 할지 그런 것도 아직 전 잘 몰라요. 처음에는 컴퓨터 쪽으로 할까 했는데, 한국어 잘 못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깐, 그럼 졸업도 못할 거고 그러면 힘들까봐 망설여져요.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님들도 그냥 가르치고, 낯설고 그런 환경들 아직 저는 두렵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처럼 대학교육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한국에는 조선족 많아요. 조선족들은 원래 한국어를 잘해요. 그래서 원래 한국어를 잘하니깐 통역이나 이런 것도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번역하거나 가이드 찾는 일들은 경쟁률이 높아요. 조선족들이 많으니깐. 그래서 중국어 관련 직업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한국에는 중국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로 직업을 가지면, 저는 굶어죽어요.

이 밖에 송OO은 체류문제에 따른 정보제공과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태도가 보다 이민자 친화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포함해 다문화배경이라는 이유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한국어 등 각종 프로그램을 들어야하는 부적절함의 개선을 요구했다.

출입국 사무소는 너무 태도가 안 좋았어요. 출입국 사무소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비자연장 같은 내용을 결정해요. 너무 주먹구구식이죠.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태도가 안 좋아요. 정보같은 것도 절대 주지 않아요.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이고 친절한) 이야기 절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는 거랑, 전화로 물어보는 거랑 태도가 180도 달라요. 정확한 정보는 절대 주지 않고요.

(어머니가 다녔던 사회통합교육은) 결혼이민자 여성분들만 있으니까, 가기 좀 싫어요. 이런 프로그램 실시하는 곳이 지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지정된 곳은 거의 결혼이주여성분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은 매우 시끄럽고, 가르치는 것도 많지 않아요. 마치 오락실같은... 그냥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서 수다 떨고...

(4) 베트남 출신 Huong OO 모녀 인터뷰

첫 번째로 인터뷰에 응한 베트남 출신 가정은 인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인 Huong OO(24세)과 Huong OO 어머니(44세)였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 <표 IV-8>에서 나타난 개념들로 코드화하였다.

표 IV-8 베트남 출신 Huong OO 청소년과 어머니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주제	소주제	내용
가정환경	가족해체	- 아버지의 배신으로 해체되는 가족
	가족과 미래를 위한 한국 선택	- 절망 속 희망 찾아 한국으로 떠난 어머니 - 어머니와 미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한 딸
	화목한 새로운 가정	- 성격이 순한 양아버지 - 외국인 며느리를 존중하는 시댁

주제	소주제	내용
한국에서의 정착 및 자립생활	사회적응의 어려움	- 언어의 장벽 - 경제적 어려움
	어려움 극복	- 가족의 지지로 힘을 얻음 -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음 - 자아존중감과 독립성으로 어려움 극복
한국 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사회적 편견	-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함
	지원서비스 확대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원센터 증가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장학제도

① 가족해체

Huong OO은 부모의 이혼으로 해체된 가족이다. 이 가정의 딸은 친아버지가 한국에서 9년간 일하다가 돌아와서 갑자기 어머니에게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였다. 이 경험은 여전히 그녀와 어머니에게 트라우마(trauma)로 남아 있다.

제가 대학교 입학시험이 앞두었을 때 아빠가 한국에 갔다 와서 엄마와 이혼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돈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아빠를 기다리면서 저와 동생을 키우기 위해 엄마가 일을 엄청 많이 했고 노력한 결과 집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들어와서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을 지은 건데... 아빠가 들어온 후에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 재산을 나누기 위해 엄마가 새로 지은 집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를 데리고 하숙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숙집에서 입학시험을 공부했습니다. 날씨가 더울 때 이웃집에 가서 공부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시험에 붙어서 학부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과외 등 아르바이트를 많이 나갔습니다. 항상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위장염에 걸려서 진료비가 많이 들었고... 그 시간은 정말 힘들었고 슬펐습니다. (Huong OO)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다른 여자와 사귀어서 귀국할 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지요. 제가 9년간 열심히 일하면서 그를 기다린 결과가

“이혼”이라는 겁니다. 결국 새로 지은 집을 팔고 18살짜리 딸과 1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길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 때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② 가족과 미래를 위한 한국 선택

Huong OO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였다. 그녀가 친척과 이웃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특히 아는 사람을 통해 좋은 한국 남자를 알게 되고 그 남자와 재혼해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다. 그 후 그녀의 딸도 대학교를 졸업한 후 어머니와 같이 살려고 한국에 유학 비자로 입국하였다. 이 청소년은 어머니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하였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주로 엄마를 위한 것입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베트남에 있었을 때 한국 가수나 연예인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저에게 한국은 그저 그랬습니다. 그냥 엄마와 같이 살고 싶어서만 한국에 왔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도 좀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관광을 공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때 사람들이 한국 대학이 관광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한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좋은 교육환경을 체험하고 싶었던 거지요. (Huong OO)

③ 화목한 새로운 가정

Huong OO은 한국인 양아버지와 관계가 좋다. 이 청소년은 한국 양아버지의 성격과 한국에서의 가정환경을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저희 양아버지가 지금 65세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일을 못 하십니다. 심지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시거든요. 몇 번이나 컴퓨터를 고장시켜서 제가 고쳐야 했습니다. 그래도 양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순합니다. 양아버지의 전 아내가 많이 아프셔서 7년간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2년 후 저희

엄마와 재혼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정신장애인인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희랑 같이 살지 않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외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Huong OO)

어머니도 한국 남편과 재혼하여 좋은 사람과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댁도 외국인인 그녀를 이해와 존중으로 대하고 있다고 했다.

저희는 부부싸움이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있도록 항상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나 시댁도 저를 좋아합니다. 외국인이라 가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저를 이해해 주고 존중해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머니)

④ 사회 적응에 있는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 상당수는 외국인으로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언어 문제라고 하였다. Huong OO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국에 온 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대학원 입학 을 위해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도 준비해야 하였다. 처음에 한국어를 잘 몰라서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을 하는 데 많이 불편했다고 하였다. 이 청소년은 가정에서도 양아버지한테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고 거주 지역에 자신이 필요한 외국인지원센터가 없어서 멀리 가서 한국어를 배워야 했다.

한국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한국어입니다. 처음에 한국말을 잘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못했고 나중에 (한국어를) 좀 배웠는데도 말하면 틀릴까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양아버지도 말이 적으시고 또 사투리를 쓰셔서 저희가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양아버지한테는 한국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주로 알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한국 대학원에 들어가려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봐야 되는데 집 근처에 TOPIK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한 시간 넘게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가서 한국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Huong OO)

Huong OO 어머니 경우에도 한국에 입국한 후 5개월 동안만 한국어를 배워서 바로 취직하였다. 동료와 대화를 많이 못했고 직장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제가 재혼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를 5개월간 배웠습니다. 그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바로 일을 나가야 했는데 한국어 때문에 많이 불편했지요. 날마다 공장에서 일만 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말하고 싶을 때 손짓 발짓으로 소통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Huong OO의 어머니와 딸은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현재 가정에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일하지 못하고 어머니만 일해서 베트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비롯한 온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정 청소년도 특수대학원을 다니면서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나가고 있다.

저희 엄마가 혼자 일하시면 너무 힘들실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다니고 동생도 베트남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학비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밤에는 수업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멀리 있으니까 집에서 항상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식비를 절약하려고 늦게라도 집에 와서 저녁을 해 먹습니다. (Huong OO)

⑤ 어려움 극복

Huong OO과 어머니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가족과 주위의 지원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Huong OO은 어머니의 지지가 자신이 한국에서 어려움을 이기며 열심히 생활하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와 시댁식구들로부터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 엄마는 가족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셨습니다. 베트남에 있었을 때도 혼자 일하시면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고 특히 아빠랑 이혼하신 후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이 힘드셔도 항상 저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엄마가 너희를 위해 힘껏 노력할 테니 공부를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항상 엄마를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도 엄마가 제가 알아야 할 한국문화나 생활방식을 알려 주셔서 제가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Huong OO)

사실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착하고 공부를 잘 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 꼭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략) 지금 남편과 시댁은 성격이 좋고 너무 잘 해 줘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힘이 났습니다. (어머니)

또한 Huong OO은 이웃이나 교회 등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 입국했을 때 한국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서 3개월간 계속 아팠습니다. 엄마 아빠는 일을 나가서 제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그때 친절한 이웃 아주머니가 자주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외로울까 봐 인형까지 갖다 주셨거든요. 그런 추억을 잊을 수가 없지요. (중략) 그리고 제가 TOPIK을 준비할 때도 TOPIK을 가르치는 가까운 지원센터가 없어서 집 근처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치는데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시고 잘 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합격했을 때 장려금까지 주셨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Huong OO)

사회적 자원은 이 가정 청소년과 어머니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Huong OO이 한국 생활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주 요인을 꼽자면 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self-esteem)과 독립성(independency)이라 할 수 있다. Huong OO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고 오랜 기간 동안 홀로 하숙집에서 생활하며 독립성을 키워왔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도와주려고 많은 일을 해 봤고 특히 엄마 아빠가 이혼한 후 공부와 일을 병행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씹씹해 졌고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려운 일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략) 여기에 와서 스트레스를 겪을 때 가까운 데라도 놀러가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잘 해소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젊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야 나중에 남길 것이 있고 나이가 들 때 다시 볼 것이 있지요. (Huong OO)

⑥ 사회적 편견

최근에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Huong OO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인의 부정적인 태도를 자주 목격하였다. 그녀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동남아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갖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지적을 하였다. 다문화 사회에 반하는 이 같은 부정적 태도는 다문화 가정과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위험 요소이다. 정부 차원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엄마가 한국 사람과 결혼한 것을 더 이상 남에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를 당해서요. 지난번에 어떤 한국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갑자기 안 좋은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자존심도 상하더라고요. (중략) 저는 지금 엄마랑 같이 인천에서 사는데 날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친구들이 제가 왜 학교 근처에 있지 않고 멀리 다녀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인천에서 친척과 같이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략) 한국 사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 여성을 무시하는 걸 보니까 정말 슬프고 속상합니다. (Huong OO)

⑦ 지원서비스 확대

최근에 중도입국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이들을 위한 언어나 진로 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현황과 규모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서 접근성이 떨어진 현황이다. 게다가 다양한 연령, 배경과 욕구를 갖고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해서 Huong OO과 어머니는 한국 정부에 바라는 점을 표하였다.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지역에는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센터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센터가 거의 서울에만 있고 이쪽(인천)에 별로 없더라고요. 있더라도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곳이라서 저희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Huong OO)

저는 현재 정부에서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단체들이 저희에게 관련 정보를 좀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또한 Huong OO은 자신이 한국에서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가 있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 청소년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 일을 나가고 밤에 수업을 듣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다. 그녀는 주말에도 서울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받아서 지칠 때가 많았다고 하였다. 실제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언어와 경제 등 많은 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청소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5) 베트남 출신 Van OO 모녀 인터뷰

두 번째로 인터뷰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 가정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인 Van OO(20세)과 Van OO 어머니(40세)였다. 인터뷰 내용은 <표 IV-9>에서 나타난 개념들로 코드화하였다.

표 IV-9 베트남 출신 Van OO 청소년과 어머니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주제	소주제	내용
가정환경	가족해체	- 부모의 성격 차이로 해체되는 가족 - 친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딸
	자신과 미래를 위한 한국 선택	-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국으로 떠난 어머니 - 미래를 위해 한국에 오기로 결정한 딸
	화목한 새로운 가정	- 정이 많고 가족을 잘 챙겨주는 양아버지 - 외국인 며느리를 존중하는 시댁
한국에서의 정착 및 자립생활	사회적응의 어려움	- 언어의 장벽 - 학교에서의 차별 - 삶에 즐거움을 찾지 못함 - 직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어려움 극복	- 높은 자아존중감 - 가족, 주변 사람의 도움
한국 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사회적 편견	- 외국인학생한테 차별이 없었으면 함
	지원서비스 확대	-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사업 확대
	귀화요건의 단순화	- 까다로운 귀화 요건이 단순화되었으면 함

① 가족해체

앞서 Huong OO의 가정은 아버지의 배신으로 해체되었다면 Van OO의 가정은 부모의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었다. Van OO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Van OO은 재혼한 아버지와 양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사실 엄마 아빠는 성격이 달라서 관계가 별로 안 좋았지만 저는 아빠와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한 후에도 주로 아빠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 뒤 엄마가 한국에 떠났고 아빠가 재혼해서 양어머니도 같이 살았습니다. 양어머니가 문학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말부터 행동까지 항상 고치려고 했거든요. 사실 그때 좀 힘들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양어머니 덕분에 제가 더 좋아진 면도 있기 때문에 고맙지요. (Van OO)

② 자신과 미래를 위해 한국에 떠남

Van OO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한 후 열심히 일해서 딸을 키웠으나 육체적·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하였다. 그녀가 처음에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적으로 취업해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후 베트남에 있는 딸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이 딸은 워낙 베트남을 좋아하고 그 당시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한국에 안 오려고 했었다.

처음에 엄마가 오라고 했을 때 안 오고 싶었습니다. 그 때 베트남에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고 입학시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이 저를 막 설득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대학교 졸업자가 너무 많고 청년 실업률도 높는데 엄마가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대학교에 유학 가래요.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제가 돈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 미래를 위해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Van OO)

③ 다정한 새로운 가정

Van OO은 양아버지의 입양아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그녀는 친아버지와 친어머니가 다 재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두 그녀에게 잘 챙겨준다고 하였다. 이 청소년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지금 남편을 알게 되었고 정이 많고 가족을 잘 챙겨주는 남편과 재혼할 수 있어서 고마워하기만 하였다.

제가 대전에서 일했을 때 지금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우연히 미용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오빠(남편)가 안산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저를 좋아해서 자주 찾아 왔습니다. 특히 제가 아팠을 때 날마다 음식과 약을 들고 안산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중략) 결혼하고 나서도 바로 제 딸을 초청해 주고 잘 해 줬습니다. (남편은) 요즘 일이 많아 저서 주말에만 집에 들어오는데 올 때마다 집안일까지 도와줍니다. 제 딸도 자기의 양아버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댁도 다 좋고 제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제 의견을 존중하고 잘 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깊은 인연을 맺게 돼서 정말로 운이 좋았고 고맙지요. (어머니)

④ 사회 적응에 있는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에 있어서 Van OO은 언어의 장벽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였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인사만 하고 공동체 활동 등에 참여하지 못하며 어려운 한국어 때문에 공부도 싫어한다고 하였다.

저는 한국 친구가 없고 한국 사람을 잘 모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그냥 인사만 하고 대화를 잘 못합니다. 가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한국어가 짧아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동아리나 공동체 활동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괜히 참여해서 어울리지 못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을까 봐서요... 하루 종일 일을 나가는 엄마 아빠한테 한국말을 배울 수 없고 처음에 교회에서 한국어 수업을 받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중략)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인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싫증이 납니다.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요. 집에서 책을 읽을 때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두통이 너무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시험공부를 할 때입니다. (Van OO)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은 학교 선생님에게 차별도 받아서 속상해 하였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 저를 잘 도와주는 선생님이 한 명만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생님들은 아마 제가 외국인이라서, 아니면 한국인만큼 공부를 못해서 저를 차별적으로 대우합니다. 예를 들면 팀을 나누고 팀별로 과제를 줄 때 제가 존재하지 않는 듯이 합니다. 또 저희 팀이 과제를 제출했을 때 제가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반에 중국학생도 한 명 있는데 선생님들은 중국학생보다 베트남학생을 더 무시합니다. (중략) 그럴 때마다 집에 와서

영영 울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저도 많이 노력했는데... 억울했지요. 한국 친구들도 저랑 같이 놀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차별을 당해서 한국인을 다 싫어했습니다. (Van OO)

이 청소년은 한국 생활에 있어서 아무 재미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지루한 삶을 살고 있던 20세 청소년은 우울할 때가 있었다.

대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삶의 즐거움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날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갈 때 오늘 재미가 하나도 없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공부에도 친구 관계나 가족생활에도 재미가 없습니다. (중략) 저는 어렸을 때 자폐증이 좀 있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가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럴 때 밖에 나가고 싶지 않고 친구를 사귀고 싶지는 않았습시다. 아마 그래서 삶이 더 지루한 것 같습니다. (Van OO)

이렇듯 학교생활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청소년의 어머니도 자녀의 학교 부적응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사실 저희 딸은 워낙 베트남을 좋아해서 처음부터 애가 한국에 오도록 설득하느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애가) 한국에 와서 첫 해에 외국인지원센터에서 한국어만 배워서 괜찮았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자 적응하지 못해서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학교에서 들어올 때마다 우울해 보이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애가) 학교에서 한국어 때문에 수업을 못 알아듣고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차별도 받아서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베트남에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거의 석 달간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애도 저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원래 저희 딸의 꿈은 베트남 의대에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저 때문에 꿈을 버렸잖아요. 제가 자녀를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네요. (어머니)

한편 Van OO 어머니는 계약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삶을 살아오면서 경제적 문제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그녀가 오늘 취직했어도 내일은 아직 모른다고 하였다. 동료관계가 안 좋거나 일이 없어질 때 직장을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안산 지역에는 정규직이 거의 없고 계약직만 있기 때문에 취업상태도 불안정하고 직장환경도 열악하다며 이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였다.

지금 남편과 재혼을 하고 안산에 와서 직장을 구했는데 계약직 때문에 몇 달만 다니다가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끔 동료가 별로 안 좋아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또 남편은 성격이 좋은데 돈을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번 돈을 금방 써 버리거든요. 돈도 없고 직장 생활도 힘들어서 한 1년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날마다 자살만 생각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⑤ 어려움 극복

앞서 언급했듯이 Van OO과 어머니는 한국에서 살면서 언어, 차별, 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내외적 자원이 있었다.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놀러가는 겁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놀러갑니다. 한 30분 정도 나갔다 와도 화장을 꼼꼼하게 합니다. (Van OO)

제가 처음에 취직했을 때 한국말을 잘 몰라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필리핀 친구가 친절하게 잘 도와줬습니다. 그녀가 항상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제가 모르는 것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제가 경제적 문제와 직장생활 때문에 우울증에 빠졌을 때 남편이 옆에서 많이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도 격려해 줬고... 아마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⑥ 사회적 차별

Van OO은 한국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동남아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을 알 수 있다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저는 한국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 특히 저희 베트남 학생들에게 차별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유학생이 많은데 여전히 베트남 학생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한국 선생님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네요. (중략) 제가 베트남에서 공부를 아주 잘했거든요. 언제나 모범생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공부도 잘 안 되고 선생님과 친구들한테 차별까지 받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Van OO)

⑦ 지원서비스 확대

한편 Van OO은 한국 정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주기를 바랐다. 외국에서 태어났고 한동안 살다가 한국에 입국한 이 청소년들에게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여전히 낯설다. 때문에 그들이 공부를 마치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앞날이 걱정되기 마련이다.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 상담이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직업교육, 상담 등을 많이 해 줬으면 합니다. 지금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공부할 동기가 없네요. 지금 보니까 저희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아직 별로 없고 있어도 그냥 상담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기관들과 연계해서 직업교육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Van OO)

⑧ 귀화 요건 단순화

인터뷰에 참여한 어머니들 중 Van OO은 어머니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귀화가 까다롭고 불만스러운 과정이었다며 앞으로 귀화 요건과 절차가 단순화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저는 정부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한국에서 좀 안정적으로 살려고 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귀화 신청할 때부터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3년이나 걸렸고 그 과정에서 밤에도 전화가 오고 집 수색까지 받아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가 귀화 신청을 한 후 거기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조사했습니다. 가족의 칫솔부터 옷까지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가족은 세 명 있는데 왜 칫솔 두 개만 있냐고... 또 옷장을 열어서 왜 남편 옷은 별로 없는데 아내 옷은 그렇게 많냐고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 칫솔은 위에 걸려 있다고... 그리고 남편은 회사가 멀어서 주말만 집에 들어오니까 옷은 회사 기숙사에 놓아둔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혹시나 누군가가 숨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세탁기까지 열어봤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지요. 한국인과 결혼했고 범죄자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엄격한 조사를 받아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머니)

(6) 몽골 출신 엘OO 모자 인터뷰

면접 대상자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몽골 출신의 중도입국청소년 엘OO과 그의 어머니이다. 엘OO은 현재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인터뷰 당시 서울 명문 국립대 및 사립대에 수시 합격통지를 받아 놓은 상태였다. 몽골 국립대 내과의 전공자인 엘OO의 어머니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국내 모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을 위한 유학이었다. 인터뷰 내용은 <표 IV-10>에 정리된 개념들로 코드화하였다.

표 IV-10 몽골 출신 엘OO 청소년과 어머니 면접자료의 코드 구성표

주제	소주제	내용
가정환경	입국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몽골 상류층 가정 출신의 의과대 출신 어머니 - 엘OO은 몽골 내 러시아 대사관 부속학교 재학 - 자녀와 함께 살아야한다는 신념에 따른 자녀초청
	가정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 - 양아버지와 원만한 관계의 엘OO - 엘OO의 교육비는 친아버지가 부담
한국 정착에서의 어려운 점	학교에서의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왕따와 학교폭력 - 초등학교 재학과 중학교 중퇴
	입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댁식구의 반대로 입양에 어려움을 겪음
한국 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지원정책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입학전형 필요 - 교육정보 제공 -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입국 배경

엘OO의 어머니는 몽골 국립 대학교 의과대 출신인데, 국내 한 대학의 박사과정으로 2009년에 유학을 오게 되었다. 이듬해에 남동생과 함께 엘OO이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왔으며, 어머니는 2014년 한국 남성과 재혼을 하였다. 엘OO은 한류를 통해 한국을 먼저 알았고 몽골에서 한국출신 친구를 통해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저는 아이들이 오기 일년 전에 박사과정 때문에 먼저 한국에 오게 되었고, 일년 후에 아이들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메신저로, 전화로 연락하다보니깐 너무 아쉽고 보고 싶고... 그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같이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교육이 하나의 이유이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사는데 제게는 제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처음에 한국에 올 때 느낌은) 떨리기도 하고, 한류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 운영하는 주 러시아 몽골 대사관 학교에 다녔습니다. 정치외교 쪽으로 갈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곳입니다. 거기 있는 학생들은 외교관 자녀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라 입학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경험삼아 시도했었는데, 운 좋게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 학교에서 한국학생을 통해 김치, 김밥 같은 한국 음식과 한국어도 좀 배우고, K-pop도 많이 알게 되고...한국어는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엘OO)

어머니가 유학생할 하시는 중에는 (몽골에 계시는) 아버지가 사업이 좀 잘 안됐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이혼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새아버지는 저에게 잘 해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십니다. 새아버지는 서울에 계셨고, 주말마다 오셨다가 다시 서울에 가시곤 했습니다. 이제는 부산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엘OO)

② 가정환경

2년 전 새로 꾸린 가정에서 엘OO과 그의 동생은 양아버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고 있었다. 엘OO의 교육비는 친아버지가 전담하다시피 지금까지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엘OO의 외가는 교육자 집안으로 어머니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매우 높았다.

(지금 남편은) 개인 사업하고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 있는 아이들의 친아버지가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줘요. 처음 왔을 때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지금까지 쪽 해주고 있어요. 특히 엘OO의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영어, 한국사, 토플시험 등까지 책만 사주기도 너무 비싸요. 아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하니깐 서포트를 해주긴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한국 남편에게는 아이들 교육비 부담은 안주려고 해요. 교육비 지원은 몽골 친아빠가 해주고 있어요. 한국 남편도 저와 재혼이에요. 남자아이 둘이 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거의 2년 안되는데, 첫 1년 동안은 주말부부로 지냈어요. (어머니)

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자기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

③ 학교에서의 차별

엘OO은 중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이지만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 초등학교 6학년을 다시 다녔다.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를 하였다. 한국정착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물었을 때, 엘OO은 자신이 당한 교우들의 폭력적 언행을 이야기해주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일 년 동안 한국어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로 바로 입학하고 싶었으나, 그 당시에는 몽골에 러시아 대사관 학교의 학적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
다. 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자꾸 저한테 높임말 쓰고,
형님형님 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다니고 2012년 중학교에 입학했지만 이 주
만에 바로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엘OO)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역사 수업 때 고려시대 몽골 대몽항쟁을 배웠는데
그것 때문에 한 여학생이 저한테 화를 냈어요. 친원과 사람이라고 놀리고 왜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냐고 그러면서 제 얼굴을 핏퐁했습니다. 그
때 당시는 제가 외국인이다보니 참고 그랬어요. 그때 다른 친구들도 저한테
'왜 한국에 왔냐, 몽골인 다시 돌아가라'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도 친구들도 저한테 도움을 줄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싸우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 남학생만 있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좀 충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지같은 놈아, 왜 몽골에서 우리나라 왔냐?'며 이야기하고 몸을 만지기도 하고,
짱패친구들도 막 뭐라 하면서 때렸어요. 그런 일들을 겪다보니깐 제가 더 이상
이대론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입학하고 이 주 만에 학교를 중간에 자퇴하게
되었어요. (엘OO)

엘OO의 동생도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엘OO과 달리 어린나이

에 한국에 온 덕분에 한국어를 유창하게 했지만 몽골이름이 문제가 되었다. 현재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고 거기서는 몽골이름 대신 남편이 지어준 한국이름으로 개명하여 불리게 되면서부터 자신감을 찾았다고 한다.

막내아들은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막내아들은 ○○그라고 써서 보냈는데, 아이들이 ○○개라고 별명을 붙여서 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름 때문에 많이 놀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여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름을 바꿔달라고 그러기에 저는 담임 선생님과 상의를 하여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외국아이여도 학교에서는 간단한 한국 이름으로 바꿔서 부를 수 없겠냐고요. 그런데 안 된대요. 자료상에서 ○○그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아이 이름을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이름을 사용했어요. 막내애가 4학년 올라갔을 때 제가 한국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이이름을 △△이라고 지어주었고, 우리는 이사를 가서 다른 학교로 △△이가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 학교에 우리는 이런 사정 때문에 아이 이름은 △△이라고 이야기도 했구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름 때문에 놀림 받을 일이 없게 되었다고 앞으로 공부만 열심히 하겠다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직 국적변경이 안 되어 집이랑 학교에 서만 불리는 이름이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어머니)

엘○○은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였다. 당시 몽골의 친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어려웠던 시기로 유학생 비자로 박사과정 중인 어머니의 제한된 수입으로는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한다. 그 때 마침 지역의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센터와 교회의 도움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검정고시를 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문화체험도하고, 2011년부터는 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2013년 4월에 합격했어요.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생활비는 몽골 아버지가 사업 안 좋아지기 전에는 생활비를 주셨지만 사업이 안 좋아지시면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종교기관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여러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생활비를 조달했어요. (엘OO)

④ 입양

엘OO의 어머니는 몽골출신의 자신과 자녀들을 시댁식구가 인정해주지 않아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막내아들을 입양하기로 남편과 합의하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 서류들을 준비했으나 막상 남편의 형제들이 강력히 반대하며 동의를 해주지 않아 결국 입양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결혼한 다음에 막내 아이 입양과 관련한 문제가 생겼어요. 작년에 서울 가정법원에 가서 막내아이 입양신청을 했어요. 심사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기간도 좀 길어요. 몽골에서도 친부모 동의서 같은게 필요하고, 친자 확인서 등등 여러 가지 서류를 다 구비했어요. 전 남편하고는 이미 이혼 후에 아이들을 한국에서 키울 거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서류들을 갖추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다른 가족들, 즉 남편의 누나 동생 등의 동의서도 필요한데 거기서 반대에 부딪혔어요. 남편의 친척들은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사는 것에 대해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막내아이를 입양 할 수 없었어요. 막내아이가 많이 실망했죠. 이제 한국아이들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입양하는 과정에서 막혔으니깐... (어머니)

⑤ 지원정책 개선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아쉬운 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물음에 엘OO의 어머니는 자녀 교육 관련하여 평소 자신이 느끼고 있던 아쉬운 부분을 열거하였다. 다음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 정보 제공, 중도입국청소년들을 별도로 고려한 다문화 입시 전형 도입에 대해 어머니가 제시한 의견이다.

막내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학을 너무 좋아해요. 막내가 수학, 과학 학원을 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일주일에 한번 가는 학원비가 15만원, 20만원이에요. 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경제적인 여부와 상관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지만 그거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학원을 저도 보내주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으로) 그런 관심 있는 분야에 학원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중도입국 청소년 어머니들에게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한국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해서 엘OO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처음에 학원은 아니지만 방과 후 활동이라도 시키면 좋았을 걸...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

이 아이들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중도입국 학생이니깐 여기서 (계속) 자랄 아이이잖아요. 이번에 막내가 국제중학교 가보고 싶다고 해서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 배려 전형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다문화 자녀 유형으로도 생각해봤는데 한 명 뽑아요. 제 생각에는 다문화 가정의 유형은 참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입학전형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의 유형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 중도입국청소년 전형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다문화는 아직 그냥 다문화 가족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인터뷰 말미에 엘OO는 한국에 입국예정이거나 최근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초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을 남겼다.

처음 한국에 입국하려면 마음 준비를 좀 해야 해요. 처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 그런 부분에서 쉽게 지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엘OO)

제 V 장



해외사례조사 결과

1. 호주
2. 캐나다

제 V 장

해외사례조사 결과³⁾

유엔은 21세기를 ‘글로벌 이주’의 시대라고 칭할 만큼 전 지구적으로 자본, 정보, 지식, 노동, 기술은 물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수가 점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정치, 경제적 이유로 태어난 국가를 떠나서 제 3국에 정착하게 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중도에 타국으로 입국하게 된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새로운 국가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제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다문화사회를 정책적으로 천명한 두 국가, 호주와 캐나다를 중심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호주

□ 개괄적 이해

영국의 유형지로 건립된 호주는 대표적인 이주민 정착국가(resettlement countries)이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을 받아들면서 점차 다양한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유산을 받아들이면서 문화 접변과 변이를 맞이하게 된다. 1989년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아젠다(National Agenda for a Multicultural Australia)’를 채택한 호주는 지금도 전 세계의 이주민이 대거 유입되는 국가이다(김진희, 2012).

호주 사회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는 국가이자, 동시에 기술과 재능을 가진 이주민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여 선별적 이주민 정책을 이중적으로 두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몰려오면서 호주는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다문화사회 체제

3) 본 장은 김진희(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가 집필하였음.

정비를 위한 각종 입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인구의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나 여전히 호주 사회에서 인종적 경계 짓기와 차별 이슈는 상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다수의 난민들은 시민권을 얻은 이후에도 실업, 경제적 기반 취약, 빈약한 인적 네트워크, 낮은 교육성취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이주민에 대한 교육은 학교라는 특정한 장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정, 산업체, 지역사회, 종교 공동체 등 시민사회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호주 사회의 저변이 깔려 있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김진희, 2016).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규범적으로 작동하는 학교 ‘밖’으로 벗어나면 모종의 불편한 시선과 차별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 비교적 상쇄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보여준다.

가.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4)

원주민을 주변부로 배치시키고 있는 호주는 백인들을 위한 역사를 다시 쓰고 유지하기 위해서 1901년에 이민 제한 법안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노동 및 생산을 담당하는 인구가 줄어들자 당면한 노동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유럽국가 출신의 이민자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오세아니아 대륙에 위치한 호주는 아시아권 국가와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결국 1973년대 다국적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다문화 국가임을 선언하였고 이를 주창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관련 법안을 제정한다. 2003년 ‘다문화 호주: 다양성을 통한 통합’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중도입국자(아동·청소년 및 성인)에게 다양한 언어 정책 및 사회 보장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유관 맥락에서 호주사회는 1990년에 발의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 동의한 이래로 아동 및 청소년 이민자 혹은 난민들을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⁵⁾ 세부 조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4) 이재원, 2012, 호주의 이중 언어 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www.kocw.net/home/search/kernView.do?kernId=439629> (접속일자: 2016.09.21)

- 아동은 최우선순위의 고려대상 이어야한다: Art.3(1)
- 구금된 아동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Art 37 (a), (c)
- 망명 신청 그리고 난민 아동들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Art.22 (1)

이러한 법안을 기반으로 호주에 유입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탄력을 받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적, 사회적 지원책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정책 시행 체계

호주는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로 이어지는 3개의 단위 구획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문화주의 정책은 연방 정부 주도하에 Top-down 형식으로 만들어진 국가 후원형 정책이며, 이는 주로 연방 정부의 행정 부서에 의해 운영된다. 특히, 이주민, 이민, 이민자 교육 등을 포함한 다문화주의 정책은 연방 정부의 ‘이민 및 국경 보호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에 의해 입안돼 추진된다. 입안된 정책을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단위 사업이나 전략 그리고 프로그램 등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연방 정부 자문기구인 다양한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운용하고 있다. 예컨대 호주 민족문제위원회(Australian Ethnic Affairs Council, AEAC), 호주 인구 및 이민 위원회 (Australian Population and Immigration Council, APIC), 국가 인구 위원회 (National Population Council, NPC), 정착자문위원(Settlement Advisory Council, SAC)는 상시 자문기구이며, 여기서 논의된 세부 전략을 주정부가 전체적인 틀에서 활용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1989년에 발표된 ‘다문화 호주를 위한 국가 아젠다’는 2000년에 다시 발전적으로 계승되었고 이것이 호주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 원리와 추진 방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간으로 호주는 각 주정부와 지역정부간의 업무 수행 범위 및 관계 등을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어 이주민이 사회 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 OECD (2010), Education for Refugee and asylum seeking children in OECD countries.

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⁶⁾

호주의 경우, 이민자(중도입국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 통합 정책 프로그램이 연방/주 정부 주도하에 시행되고 있다. 정책 프로그램 중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비교적 체계화되어 있다. 호주에서 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이민자(중도입국자)를 위한 사회 통합 정책 프로그램은 방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상환 외(2011)의 연구에서는 사회 통합 정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두 가지 축에서 정리하였다.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이민자 정착 및 적응 관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1) 이민자 대상 언어 교육 프로그램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 교육 프로그램은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① 이주배경 어린이를 위한 CMEP(Child Migrant English Program)의 일환인 ESL (English Language School) 프로그램, ② 브리즈번에서 난민들을 위한 튜터링을 지원하는 VoRTCS (Volunteer Refugee Tutoring and Support) 프로그램이 있다.

언어는 한 사회에서 정착과 소통을 위한 가장 첫 걸음이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자신의 언어 및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모국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새로운 호주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주의 국가 공용어인 영어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연방정부의 ESL 프로그램을 예시로 제시하고자 한다.

(1) ESL 프로그램

	내용
담당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 주 교육부 관할
대상	호주 입국 후 6개월 이내 아동·청소년
장소	각 주 또는 대도시의 예비영어센터 (Introductory English Centers/Schools)

6) 성상환, 김명정, 배화순, 이윤주, 2011,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내용
형태 및 내용	학생 1인당 20주의 ESL 프로그램 진행 (영어교육)
목적	사회 적응
기타사항	연방 정부의 CMEP(Child Migrant English Program) 중 주요 프로그램

호주 연방 정부의 CMEP 사업의 일환인 ESL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가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주 교육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리를 맡고 있다. 특히, 호주에 입국한지 6개월 이내의 아동 및 청소년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주로 이민자가 많은 주에서 시행되는 보편화된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원이 한 학생당 20주로 한정되어 있어서 더 오랜 시간동안 깊은 학습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에게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따라서 2007년 이후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ESL은 별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됨으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2) VoRTCS 프로그램 (Volunteer Refugee Tutoring and Support)

	내용
담당	브리즈번 주 정부 및 St Vincent de Paul Society
대상	퀸즐랜드 남부 지역의 난민 청소년
장소	가정
형태 및 내용	1주 한번(90분) 방문 교습/ 영어 및 일상생활 팁 (무료)
목적	사회적응
기타사항	자원봉사자들을 채용하여, 교육을 시킨 후 난민 청소년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영어 공부를 도와주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 제공

VoRTCS는 브리즈번주에서 입국한지 6개월 내의 새롭게 정착한 난민 가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ESL과 달리, VoRTCS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교습 형태와 멘토링 상담이 서비스로 포함되어 있다. 브리즈번 주 정부의 운영체계 아래, 협력관계를 맺은 지역사회 커뮤니티인 St Vincent de Paul Society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훈련시킨 뒤, 난민가정에 담당 자원봉사자를 배치시켜서 일주일에 한번씩 아동 및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는

7) 이재원, 2012, 호주의 이중 언어 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www.kocw.net/home/search/kernView.do?kernId=439629>(접속일자: 2016.09.21)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다. 최소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난민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영어교육 및 그 외 교과목,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정착을 위한 생활기술(life skill) 및 지역사회 융합을 위한 상담을 제공한다.

2) 이민자 정착 및 적응 관련 교육 프로그램

호주에서 이민자 정착 및 적응 관련 교육으로는 ① 통합형 인도주의 정착 전략 서비스(Integrated Humanitarian Settlement Strategy, IHSS), ② 신규 이주민 청소년 대상 지원 서비스(Newly Arrived Youth Support Services, NAYSS), 그리고 ③ 무슬림 청소년 고용 증진 프로젝트(Muslim Employment Youth Worker Project)가 있다.

(1) 통합형 인도주의 정착 전략 서비스 (Integrated Humanitarian Settlement Strategy)

	내용
대상	이주/난민 청소년 (피난민, 위험에 빠진 여성, 긴급 구조된 자, 호주국적의 재정착이 필요한 자)
형태 및 내용	상담 및 임시 숙소, 장기 거주 주택 신청,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	사회 정착 및 적응
기타사항	입국한 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정착 기금 프로그램(Settlement Grants Program)의 재원 지원되는 조직들을 통해 IHSS 진행

통합형 인도주의 전략 서비스(IHSS)는 호주에 처음 입국한 인도주의적 입국자⁸⁾(이민/난민)들을 지원하는 집중 정착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입국자들이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입국자들에게 새로운 국가에서 정착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입국 시 단기간 머물 수 있는 숙소 및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는 숙소에 대한 지원 등 이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피난민, 재정착이 필요한 호주국적을 가진 자, 긴급구조 되어 도움이 필요한

8) Newly-arrived Humanitarian entrants

자, 위험에 빠져있는 여성들을 주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IHSS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또는 상업(commercial)을 목적으로 하는 제공자들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IHSS 프로그램에 계약을 맺은 기관은 총 38개이며, 호주 전역에 있는 중도입국자들을 위한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신규 이주민 청소년 대상 지원 서비스 (Newly Arrived Youth Support Services)⁹⁾

	내용
담당	호주 가족, 주택, 지역서비스, 원주민 지원 부처 (Australia 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대상	호주 입국 5년 미만인 12~21세의 청소년
형태 및 내용	일자리,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사회 복귀 프로그램 제공
목적	노숙자 방지
기타사항	—

신규 이주민 청소년 대상 지원 서비스(NAYSS)는 중도 입국 청소년에게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마련해주고, 사회 복지의 최전방에 배치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신규 이주 청소년 중 노숙을 하거나 노숙의 가능성을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노숙에 취약한 여성 청소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지원된다. 현재, 시드니, 멜버른의 북쪽에 위치한 WISHIN 지역에 여성 청소년을 수용하는 여성의 집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3) 무슬림 청소년 고용 증진 프로젝트 (Muslim Employment Youth Worker Project)

	내용
담당	퀵랜드 주정부 고용 및 산업부 (Employment and industrial relations)
대상	무슬림 청소년 대상
장소	무슬림 지역 사회

9) Francis S and Cornfoot S, (2007). Working with Multicultural Youth: Programs, Strategies and Future Directions, Australian Research Alliance for Children & Youth

	내용
형태 및 내용	고용 상담가를 통한 고용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목적	고용 증진
기타사항	-

다문화 사회인 호주에서 무슬림 청소년 고용 증진 프로젝트는 위에서 살펴본 신규 이주민 청소년 대상 지원 서비스(NAYSS)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주 배경을 가진 무슬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고용 상담가의 컨설팅과 면대면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고용 역량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다. 즉 고용 상담가를 통한 상담 및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상이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이주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을 잡고 고용을 통해서 시민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2. 캐나다

□ 개괄적 이해

캐나다는 앞서 살펴본 호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다문화국가의 대표 모형 국가로 지칭되고 있다. 호주보다 앞서서 1971년에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로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한 캐나다는 국적과 상관없이 사회참여, 평등, 민족적 고유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했다(김진희, 2014). ‘캐나다 다문화법안(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은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로서 인종과 국적, 피부색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2015년 캐나다는 40대 총리(쥐스탱 트뤼도)가 이끄는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원주민·이민자 출신도 기용하고, 동성애, 무슬림 등 ‘다양성’ 그 자체로 무지개 내각을 구성하여 주목받은 바 있다. 이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종과 언어, 그리고 문화를 가진 민족 집단이 어울려 살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보수적인 기존 내각을 혁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민들이 단순히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정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정치

사회적 리더로 활약할 수 있는 능동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호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그리고 불이익은 존재하지만 캐나다 사회는 중도입국 이주민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캐나다 사회가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새롭게 변화하고, 이주민과 정주민이 모두 참여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보고 있는 것이다(김진희, 2014).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는 단·장기적 경제 수요와 고령화·저출산률, 노동력 수요에 맞춰 이주민의 수를 조절하고(이로미, 장서영, 2010) 정치, 사회, 경제적 섹터에서 이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플러스(plus)'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주민들을 사회 속에 공존시키면서 전 사회적으로 이주민이 가져온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델을 취하고 있다.

가.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캐나다는 다문화사회의 통합이 비교적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중 하나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여, 특정 기술을 가진 이주민에 대한 선별적 수용에 따른 이민 프로그램을 가동시키고 있다. 1971년 다문화주의 정책(the Multiculturalism Act)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면서 다양한 인종, 민족,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동시에,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캐나다인들의 권리 행사와 관련한 법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합법적 프레임 중 하나로 해석된다. 그러나 누가 진정한 캐나다 사람인가라는 논쟁 역시 진행되어 왔다(김진희, 2014).

캐나다 이민국에서 적시한 다문화주의 정책에 따르면, 고용균등법안(Employment Equity Act)과 이민 및 난민 보호 법안(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 IRPA)은 캐나다 사회로 유입된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 및 통합을 지원하는 정책들에 기반을 하고 있다(캐나다이민국, 2016).¹⁰⁾ 이는 인구학적으로 새로운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사회 질서를 새롭게 재구성할 수밖에 없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10)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rpp/2016-2017/#a2.3.1> (검색일자: 2016.09.20.)

나. 정책 시행 체계¹¹⁾

캐나다에서 이주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주요한 중심축은 연방정부의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in Canada, CIC)이다. 이민 및 출입국 관리 정책 수립 및 집행, 이민 자격 선정 및 허가, 신규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등 캐나다의 이민(immigration)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이주민이 유입되면 연방 정부에 소속된 각 부처, 주 정부, 지방자치제, 민간부문, 그리고 비영리 자원봉사 단체들이 각 사안에 대해서 협력 관계를 맺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내용

캐나다 연방 정부는 3가지 세부 목적 하에서 이민자 정착 및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유입된 이민자를 위한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은 주로 신규 이민자를 위한 언어교육, 기술훈련 그리고 고용 알선 등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신규 이민자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ISAP)은 신규 이민자가 캐나다에 정착하여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가운데 아동 및 청소년 이민자 또는 난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Immigration and Refugee and Citizenship Canada의 신규 정착 프로그램(Settlement Program), 정부기관(교육부, 이민부)과 시민사회의 협업을 이루는 ‘정착 지원 담당자 학교 배치 프로그램(Settlement Workers in Schools, SWIS)’, 그리고 ‘취업관련 서비스(Employment-related Services), 그리고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 교사들의 추가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배치된 전담인력은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상담을 진행하고, 청소년의 요구에 맞는 생활 지도와 안내를 보조하게 된다.

11) 성연옥, (2013). 미국,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교 연구. 경영컨설팅 리뷰 제 4권 제2호, 2013년 8월, pp.23-44

정착 프로그램(Settlement Program, SP)¹²⁾

장애인(청각 및 시각장애인)과 신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정착 및 재활 프로그램이다. SP는 교육(언어), 건강, 고용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은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캐나다에서 공용어 영어와 불어 교육을 제공하여 신규 이민자들이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고, 융화될 수 있도록 그 발판을 마련하도록 한다. SP는 연방정부의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의 자원 지원을 받고 있으며, CHS(Canada Hearing Society)라는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이주민이 국가의 복지 체계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수 없기에 캐나다에 유입된 이주민들은 곧 바로 고용과 취업 이슈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고용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김진희, 2016). 아래에 제시한 취업 관련 서비스는 신규 이주민이 자신의 고용 능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가이드를 받기 위한 각종 서비스를 보여준다.

취업관련 서비스(Employment-related Services)¹³⁾

‘취업관련서비스’는 캐나다에 입국하여 어려움을 겪는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국제적으로 훈련된 이민자들과의 1:1 상담 및 평가를 통하여 이민자들의 고용 능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일자리를 추천하는 것 이외에도 취업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과 취업을 위해 필요한 관련 기술들을 교육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자, 긴급구호 및 박해로 인하여 피난을 온 자, 영주권을 신청한 자, 출입국 사무소로부터 고용 허가를 받고,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임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위에서 상술한 정착 프로그램과 취업관련 서비스는 신규 이민자중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어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직업과 연계된 서비스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신규 이민자 (성인대상) 대상으로 진행되는 언어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LINC(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한편 정착 지원 담당자 학교 배치 프로그램은 신규 이민자 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관련 프로그램이다. 청소년과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유연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해당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한 학교를 포함한 지역 사회의 각종 자원을 동원하고

12)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rpp/2016-2017/#a2,3,1> (검색일자: 2016.09.20)

<https://www.chs.ca/governance-and-leadership> (검색일자: 2016.09.21)

13) <http://www.bmccentre.com/index.php/programs/job-search-workshop> (검색일자: 2016.09.20)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중도입국한 청소년들이 이주를 통해 발생하는 학습의 단절을 최소화하여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권리를 보장받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정착 지원 담당자 학교 배치 프로그램(Settlement Workers in Schools, SWIS) ¹⁴⁾
캐나다 연방정부 소속 이민부 CIC(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에서 재원을 지원하는 SWIS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정착 지원 담당자(Settlement workers)들을 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초·중등학교에 배치시키고, 새로이 캐나다에 정착하는 이민 학생과 가족들을 만나 학교와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11개 Ontario지역에서 SWIS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22개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250명의 정착 지원 담당자를 차출하여 22개의 학교에 배치되어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범사회적으로 이주민과 정주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호스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아래에서 약술한 호스트 프로그램은 다문화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시달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원봉사라는 무형의 원동력과 자원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신규 이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호스트 프로그램(Host Program) ¹⁵⁾
유사한 관심사와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와 신규 이민자를 매칭시켜 영어 연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멘토링 및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해를 이해하며, 함께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인맥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태생 또는 캐나다 정착에 성공한 이전의 이주자가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Host Program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사한 형태로 청소년들에게도 제공이 된다. Toronto's Youth Assisting Youth(YAY)는 토론토에서 시행하는 Host Program으로서, 신규 이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자원봉사자의 연령대는 16-29세, 신규 이주자의 연령은 최대 15세이다. YAY 역시, 1:1 멘토링을 실시하여, 신규 이주 청소년들이 캐나다의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국가에 이주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 및 숙제 도우미, 토론, 자원 봉사 등과 같은 모임을 형성하여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4) <http://www.tvdsb.ca/programs.cfm?subpage=123449> (검색일자:2016.09.20.)

15) 성상환, 김명정, 배화순, 이윤주, 2011.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 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Host Program: Creating friendship; <http://www.cnmag.ca/issue-22/845-host-program-creating-friendships> -e08

이렇듯, 캐나다는 다양한 신규 이민자 정착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캐나다 사회에서 다양성을 그대로 담지하면서 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도입국한 청소년들은 삶의 분절(disjuncture)에서 오는 충격과 변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교, 지역 중심 시민단체가 협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호주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후원하고 지향하는 다문화정책과 그 프로그램이 단순히 연방정부에 의해 관리,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되, 지역사회의 일반 구성원과 소규모 커뮤니티를 통해 실행되는 것을 보면 정부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접속일자: 2016.09.21)

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3. 로드맵

제 VI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1) 중도입국 청소년 설문조사

(1) 교육

조사 응답자들의 한국 입국 전 학력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76.1%, 고등학교 중퇴가 11.8%로 약 87.9%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중등교육과정을 이수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현재 공교육 과정(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에 다니고 있는 학생은 70%로 이들이 교육과정에 입학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가 63.9%, 1년 이상이 27.5%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진입기간이 길어지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여(55.3%)’가 나타났다. 반면, 조사 응답자 중 공교육을 받지 않는 비재학생(학교밖 청소년)들은 30%이며, 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된 이유는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해서(24.6%)’이다. 즉, 한국어 실력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과정에 주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 및 센터생활 적응은 성별, 재학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별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평균 3.77점)보다 여학생(평균 3.95점)이, 공교육 과정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평균 3.80점)보다 비재학생(평균 3.99점)이 더 높은 적응도를 나타냈다. 또한 또래 관계에서는 여학생(평균 3.77점)이 남학생(평균 3.56점)보다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났고, 비재학생(평균 3.75)이 재학생(평균 3.6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노동

조사 응답자 중 31.4%(182명)는 한국에서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 또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의 평균 주간 근무일수는 3.57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3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주간 근무일수는 18세 이상(4.0일) 청소년이 17세 이하(3.06일)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남자(8.79시간) 청소년이 여자(7.81시간)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아르바이트 또는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나의 생활비(용돈)을 벌기 위해(51.6%)'로 나타났다.

근로 경험이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 26%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24%, '한국인과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가 1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생활비를 충족시키기 위해 청소년기에 아르바이트 및 일의 경험이 불가피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근로보호를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3) 진로/진학

조사응답자들의 진로정체감은 평균 3.61점이며, 이는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진로정체감은 평균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평균 3.62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 평균 3.61점, '5년 이상'이 평균 3.47점으로 거주기간에 따라 진로정체감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들의 향후 진로계획은 '한국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가 27.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취업할 예정이다(18.9%)', '앞으로 계획이 없다(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한 청소년들은 주된 이유로 '한국어가 부족해서(40%)',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정보가 부족해서(29.6%)'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진로선택이나 미래계획에 대한 고민을 주로 '부모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39.1%)'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순위 결과). 이러한 결과를 보아,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학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가정환경

조사 대상 중도입국 청소년 중 69%는 한국 입국 전 부모님과 짧게는 6개월 미만(5.9%), 길게는 3년 이상(41.8%) 떨어져 지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2%(117명)으로 떨어져 지낸 기간은 '1개월 미만'이 30.8%, '2년 이상'이 27.4%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 주된 이유에 대해서는 '학교 및 직장 때문(45.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오랜 시간 부모님과 별거한 경험이 있고, 한국 입국 후에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어머니와의 관계(평균 4.05점)를 아버지와의 관계(평균 3.80점)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가족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평균 3.89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부모님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대해서 어머니(평균 2.21점)가 아버지(평균 2.15점)보다 더 부정적이라는 응답을 나타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 및 양육태도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 거주기간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아버지(평균 3.92점), 어머니(평균 4.11점)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아버지(평균 3.57점)/어머니(평균 3.93점)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가장 낮고, 아버지(평균 2.48점)/어머니(평균 2.21점)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긍정적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5) 입국 전 상황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 주된 이유 및 경위의 경우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35.9%,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가 34.5%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 동기를 자발적/비자발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중도입국 청소년 본인이 한국에 오길 원했기 때문에 입국한 경우가 61.3%, 부모님 혹은 환경적 강요에 의해 입국한 경우가 2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준비한 사항에 있어서는, 특별히 없는 경우가 39.1%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어 공부'가 19.9%를 차지했다.

(6) 사회적 인식

조사 응답자들의 다문화 친구 수용성 응답결과, 단짝(동성/이성)친구의 경우 한국인(평균 3.86점)보다 다른 나라 출신인(평균 3.89점)과 사귄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이성친구로는 다른나라 출신인(평균 3.69점)보다 한국인(평균 3.75점)을 더 선호했다.

한국 입국 전/후 삶의 만족도에 대해서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입국 전(평균 7.01점)이 입국 후(평균 6.92점)의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여학생은 입국 후(평균 6.86점)가 입국 전(평균 6.82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17세 이하 청소년은 입국 전(평균 7.23점)의 삶의 만족도가 입국 후(평균 6.94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18세 이상 청소년은 입국 후(평균 6.92점)의 삶의 만족도가 입국 전(평균 6.84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문화 및 한국사회에 대한 생각은 성별, 연령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국 문화에 더 많은 관심(여:3.67점>남:3.43점)과 흥미(여:3.79점>남:3.53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한국에 사는 것에 대한 포부(여:3.63점>남:3.39점)가 높았고,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여:3.71점>남:3.52점). 연령별 차이로는 18세 이상 청소년이 한국 문화에 관심(18세이상:3.63점>17세이하:3.41점)과 흥미(18세이상:3.72점>17세이하:3.55점)를 더 많이 갖고 있었으나,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는 17세 이하 청소년보다 더 낮은 것(17세이하:3.55점>18세이상:3.39점)으로 나타났다.

행복한 삶의 요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손꼽은 것은 ‘화목한 가정(40.4%)’과 ‘건강(19.5%)’, ‘재력(18%)’이었으며, 성공의 평가 기준은 ‘꿈이나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50%)’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에서 성공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은 ‘노력과 성실성(33.1%)’, ‘학벌과 학력(21.1%)’이라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공에 필요한 수단 및 조건을 고려했을 때, 본인이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10점 만점에 6.34점으로 보통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6개월 동안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약 39% 청소년들이 차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차별 대응방법으로 1순위는 ‘그냥 참는다’로 58.9%의 응답률을 보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했을 때 대부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한국사회 이탈 가능성은 36.9%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21.1%)’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냈다(1+2순위 결과).

(7) 신체 및 심리적 건강

조사응답자들의 신체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평가점수는 평균 3.69점, 자아존중감은 3.59점, 삶의 만족도는 3.60점으로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 및 심리적 건강상태에 대해 '보통수준'이라는 응답을 하였다.

(8)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이슈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최근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이슈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은 '진로문제(54.5%)'이다. 다음으로는 '돈 문제(채무, 가난 등)'가 23.4%,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가 20.9% 등으로 나타났다(1+2순위 결과).

(9) 매체이용 실태

조사응답자들 중 92.8%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며, 66.5%는 온라인 게임(PC, 스마트폰 포함)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가 SNS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SNS 이용률은 46.3%, 출신국 언어/다른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SNS 이용률이 52.2%로 나타났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높은 스마트폰과 비한국어 사용 SNS 이용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6시간 이상'이라 응답한 비율이 각각 35.7%, 24.5%로 높게 나타났으며, 온라인 게임의 경우 15.3%, 한국어 사용 SNS의 경우 14.2%가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씩 각각의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온라인 게임 집착과 관련한 문항 응답결과, 대부분의 응답 평균이 1점대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매체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좀 더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10) 프로그램 및 정책제안

조사응답자들은 중도입국 청소년 및 가정에 필요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수준별 한국어교육(24.9%)'을 가장 많이 제안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직업기술훈련(11.8%)', '학교수업/교과목지도

(11.7%)’ 등을 꼽았다(1+2순위 결과).

한편 성별, 연령별, 한국 거주기간별로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의 순위차이가 있었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필요한 정책 및 프로그램 Top 5로 수준별 한국어교육, 학교수업/교과목지도, 직업기술훈련, 재정지원정책, 취미활동지원’의 순을 제시한 반면, 여자청소년은 수준별 한국어교육, 학교수업/교과목지도, 직업기술훈련, 진로 및 적성탐색프로그램, 1:1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순으로 꼽았다. 연령별로는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정책 및 프로그램 욕구 Top 5를 수준별 한국어교육, 학교수업/교과목지도,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 직업기술 훈련 등의 순을 제시하였는데 수준별한국어교육, 직업기술훈련,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 재정지원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별로는 한국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준별 한국어교육,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직업기술 훈련, 한국사회 및 문화적응 프로그램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한국거주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준별 한국어교육, 직업기술 훈련, 취미활동지원, 학교수업/교과목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거주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수준별 한국어교육, 직업기술 훈련, 학교수업/교과목지도, 진로 및 적성탐색 프로그램의 순을 제시하였으며, 한국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수준별 한국어교육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직업기술훈련, 재정지원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프로그램 및 정책을 제안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세부 집단별(성별, 연령별, 한국거주기간별)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한 욕구가 상이함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집단별 욕구에 따른 촘촘한 프로그램 및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2)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1) 지원체계 및 정책의 필요성

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현재의 한국어 지원체계, 초기정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제공체계,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 중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에 대한 만족도를 가장 낮게(평균 1.98점) 평가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초기정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제공체계 만족도(평균 2.33점), 한국어 지원체계의 만족도(평균 2.79점) 모두 ‘보통’보

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낸 것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구축의 필요성(평균 4.38점)’이며, 다음으로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및 시설확대의 필요성(평균 4.19점)’,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편/입학 정책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 진입문턱을 낮출 필요성(평균 4.1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

현장 전문가들은 현재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평균 4.25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이는 정책의 중요도와 시급성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정책의 중요도 TOP 5의 순위를 살펴보면, 자녀교육/학교생활/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 대상 교육,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 각 부처의 관련 시행사업 연계 및 효과성 제고 노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시급성 TOP 5의 순위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자녀교육/학교생활/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대상교육, 탄력적 편/입학제도,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심층분석 결과

심층분석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내적자산(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 진행하였다. 내적자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및 자질을 의미하는데 사회·문화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높은 내적자산은 이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심층분석은 (1) 한국 입국 자발성여부에 따른 내적자산의 차이, (2)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태도가 내적자산에 미치는 영향, (3) 사회적 지지자원이 내적 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 입국의 자발성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자발:3.66 > 비자발:3.48), 자아정체감(자발:3.38 > 비자발:3.22), 자아존중감(자발:3.66 > 비자발:3.52) 모두 차이가

있었다. 즉,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비자발적인 동기를 갖고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내적자산을 갖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한국문화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beta=.298, p<.001$), 자아존중감($\beta=.242, p<.001$), 자아정체감($\beta=.269, p<.001$) 모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며,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이들의 내적자원(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지지자원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내적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정체감은 교사의 지지($\beta=.179, p<.01$)를 많이 받거나 어머니와의 관계($\beta=.140, p<.05$)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아버지($\beta=.258, p<.001$), 어머니와의 관계($\beta=.155, p<.05$), 또래와의 관계($\beta=.148, p<.001$)가 좋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아버지와의 긍정적인관계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자원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4) 질적 조사 결과

(1) 중도입국 청소년 SNS 토론단 운영 결과

중국어권과 베트남어권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SNS상에서 온라인 토론형식을 빌려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각각 수행하였다. 토론활동의 경우 ① 한국의 첫인상과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운 점, ② 진로·진학 관련 장래 희망, ③ 한국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이란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약 4주간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마지막 주에는 포토보이스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희망자에 한해 사진을 통해 자신의 느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모든 토론은 모국어로 이루어졌으며 원활한 토론진행을 위해 해당 국가 출신 대학원생들에게 토론 중재자의 역할을 맡겼다. 다음은 약 5주간 이루어진 토론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

① 한국의 첫 인상과 한국생활의 어려운 점 :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 중 대표적인 것이 낯설음과 외로움이다.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출신 중도입국 청소년들에 비해 베트남 출신

청소년들이 이 같은 느낌을 더 강하게 갖고 있었다. 대다수의 토론 참여자들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첫 인상으로 친절함을 들었다. 그러나 양면성을 띠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수룩한 외국인이라는 생각에 택시기사가 먼거리로 돌아가고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한국인으로 부터 받은 차별적 언행을 감내해야 했던 경험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다.

② 장래희망과 꿈 :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중도입국이란 특수성이 더해지면서 이들의 진로고민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깊어보였다. 이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가졌던 꿈들은 한국에 살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인식에 따라 절충을 시도하고 있었다.

③ 한국사회와 정부에 바라는 점 :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체류신분 불안에 따른 어려움과 비자연장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사례들을 이야기하였다. 비자 연장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지 않아 고생했던 이야기, 심사기간의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시선에 대한 불만과 이와 관련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④ 포토보이스 : 포토보이스는 주로 사회 약자나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사진을 통해 이들의 내면에 깔린 의견과 감정을 밖으로 표출토록하고 연구 참여자들끼리 사진을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참여적 실험연구 방법론 중 하나이다(이현주, 2015). 중국어권 토론단과 베트남어권 토론단들이 제시한 사진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외로움과 그리움, 둘째는 한국생활의 적응 노력. 한국에서의 적응 노력을 보여주는 사진으로는 스마트폰 길찾기 기능으로 보여지는 지도 사진, 한국생활동안 애용한 한국어 사전, 최근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체험활동을 통해 만든 접시, 그리고 한국인 양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었다.

(2) 심층면접조사 결과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다수를 차지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조사에는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 두 명, 중국 한족 출신 두 명, 중국 조선족 출신 한 명, 몽골 출신 한 명과 이들 중 네 명의

어머니와도 별도의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① 령OO : 중국 한족 출신인 령OO는 제천에 소재한 폴리텍다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수도권 2년제 대학에 진학하였다. 양아버지의 재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학비 일부를 대고 자신이 새벽까지 대학인근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다.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양아버지의 입양거부의사에 따른 체류신분 유지의 어려움, 비자 연장 문제, 부모님의 갈등, 진로 고민 등을 담담히 이야기해주었다.

② 김OO 모자 : 중국 조선족 출신인 김OO은 하루에 온라인게임을 10시간 이상 할만큼 게임과다사용으로 부모님과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비자발적인 한국 입국으로 결국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삼 년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한국인 남편은 경제력이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남편의 의처증과 전처의 아들이 김OO을 심하게 폭행한 사건 등으로 결국 이혼을 선택하고 지금은 모자만 함께 살고 있다. 김OO의 한국어 실력이 공교육 진입을 가로막았다. 김OO을 데리고 입학을 위해 찾아간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로 가거나 검정고시를 보는 것을 권했다고 한다. 한국생활에 무기력해지면서 게임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다고 한다.

③ 송OO : 18세에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 23세의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중국에서 경제적 빈곤과 방임으로 힘든 시기를 겪다가 어머니가 있는 한국으로 왔다. 한국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그를 기다리는 현실은 탈북자 출신인 양아버지와 심한 갈등, 사회적 차별, 경제적 빈곤이었다. 그도 역시 불안한 현실의 도피처로 게임에 몰두한 적도 있었으나 지금은 한국어 공부와 자격증 시험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개선과 출입국 사무소의 서비스 개선을 요구하였다.

④ HuangOO 모녀 : 친아버지의 배신으로 가족은 해체되고 엄마와 딸은 살길을 찾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왔다. 다행히 재혼한 한국인 남편과 시댁식구는 그들에게 매우 호의적이다. 언어장벽으로 인한 한국적응의 어려움을 주위의 도움과 노력으로 이겨내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회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확대되기를 소망하였다.

⑤ VanOO 모녀 : VanOO은 한국인 아버지의 입양에 따라 한국에 왔다. 언어장벽은 VanOO에게

한국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왔다.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다. 우울증세와 학교부적응으로 고민하는 VanOO을 보며 어머니는 죄책감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모녀는 진로프로그램의 확대와 귀화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⑥ 엘OO : 몽골 출신의 엘OO은 현재 국제고등학교에 재학중이며 유명 사립대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상태였다. 중학교 1학년 때 교우로부터 받은 차별과 폭행으로 입학 3개월만에 결국 중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았다. 엘OO의 교육비는 몽골에 있는 전남편이 전담하고 있다. 막내를 한국인 남편과 합의하여 입양을 하려했으나 시댁식구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몽골 국립대 의과대 출신인 어머니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를 위한 별도의 특별전형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 해외사례 결과

(1) 호주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살아가는 호주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인구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나라이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연방 정부 주도하에 Top-down 형식으로 만들어진 국가 후원형 정책이며, 이는 주로 연방 정부의 행정 부서에 의해 운영된다. 호주의 다양한 사회통합 정책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①이민자 대상 언어교육 프로그램(ESL, VoRTCS 등)과 ②이민자 정착 및 적응 관련 교육프로그램(IHSS, NAYSS, 무슬림 청소년 고용증진 프로젝트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사례로 소개 된 프로그램 및 지원정책 중 VoRTCS(Volunteer Refugee Tutoring and Support)은 자원봉사자가 난민가정을 방문하여 청소년들에게 언어 및 교과목 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정착을 위한 생활기술 및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호주사회가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사회에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루어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규 이주민 청소년 대상 지원서비스(NAYSS)는 중도입국청소년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일자리,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지원 사업이다. 즉, 호주정부는 중도입국 청소년 중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려는 고민을 하며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캐나다

대표적인 다문화 사회가 세계 최초로 '다문화 주의 정책'을 채택한 캐나다는 이주민의 다양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델을 취하고 있는 나라이다.

캐나다에서 이주민을 위한 주된 정책 시행의 중심축은 연방정부의 이민부(CIC)이다. 그러나 캐나다 역시 이주민이 유입되면 연방정부에 소속된 각 부처,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각 사안에 대해 협력 관계를 맺고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①정착 및 적응프로그램(SP, SWIS, 호스트 프로그램 등), ②언어교육(LINC 등), ③기술훈련 및 고용알선(취업관련서비스)의 목적으로 이민자 정착 및 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착지원 담당자 학교 배치 프로그램(SWIS)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을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학생과 가족이 학교와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지원은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인해 기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취업관련 서비스는 신규 이민자가 국제적으로 훈련된 이민자들과의 1:1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 준비부터 취업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하고 있다.

2. 정책제언

정책제언은 중도입국 청소년과 관련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들을 살핀 후,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양적·질적 조사 결과 분석과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자문조사 결과 분석, 그리고 국내외 사례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여가부, 법무부 등 부처와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의 관계자와의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도 본 보고서의 정책제언에 활용하였다.

2010년을 전후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눈에 띄는 증가세와 맞물려 이들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무지개센터, 서울다솜학교,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등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생겨나고 교육, 진로, 상담 등 각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지원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상당수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여전히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이익과 스트레스, 체류신분 문제로 인한 고민, 취업시장 등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 등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가 이 같은 현상을 잘 대변한다. 한국에 오기 전 자신의 모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점수보다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 점수가 오히려 미세하게나마 감소하여 100점 만점에 70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현장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을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43점에 머물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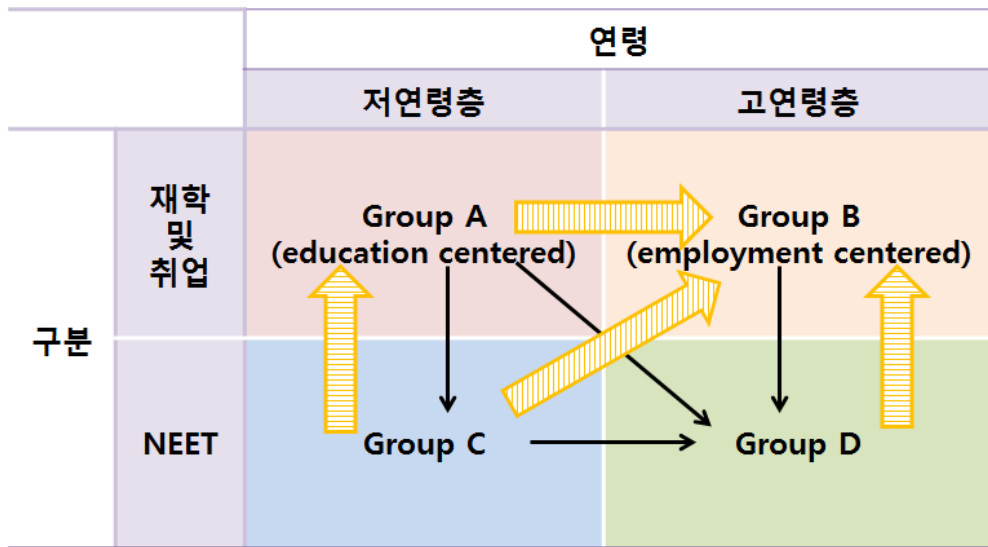
1)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시행에 있어서의 거시적 접근 방법

중도입국 청소년은 우리 사회와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다. 굳이 UN아동권리협약을 들먹이며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인재 양성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그리고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이들이 가진 역량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방안 마련의 구체적인 정책제언에 앞서 우선 본 보고서에서 규정한 ‘자립’의 정의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자립은 영어로 self-reliance로 번역될 수 있으며,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영역에 따라 자립의 종류는 다양하게 나뉘질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연령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9세의 청소년과 24세의 청소년에게 요구하는 자립의 영역은 분명 차이가 난다. 저연령층에게 경제적 자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방안 마련은 정책 대상에 대한 구분에 따른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의미한다.

[그림 VI-1]은 연령층(저연령층 대 고연령층), 교육 및 취업 여부에 따라 2×2의 분류체계를 표현한 것이다. 저연령층인 A그룹과 C그룹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연령층인 B그룹이나

D그룹으로 옮겨가게 된다. 소위 니트(NEET)층에 포함되는 C그룹과 D그룹은 효과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된다면 각각 A그룹과 B그룹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림 VI-1]에 묘사된 것처럼 중도입국 청소년의 국내 초기정착부터 A그룹과 B그룹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과 굵은 노란색 화살표 방향의 이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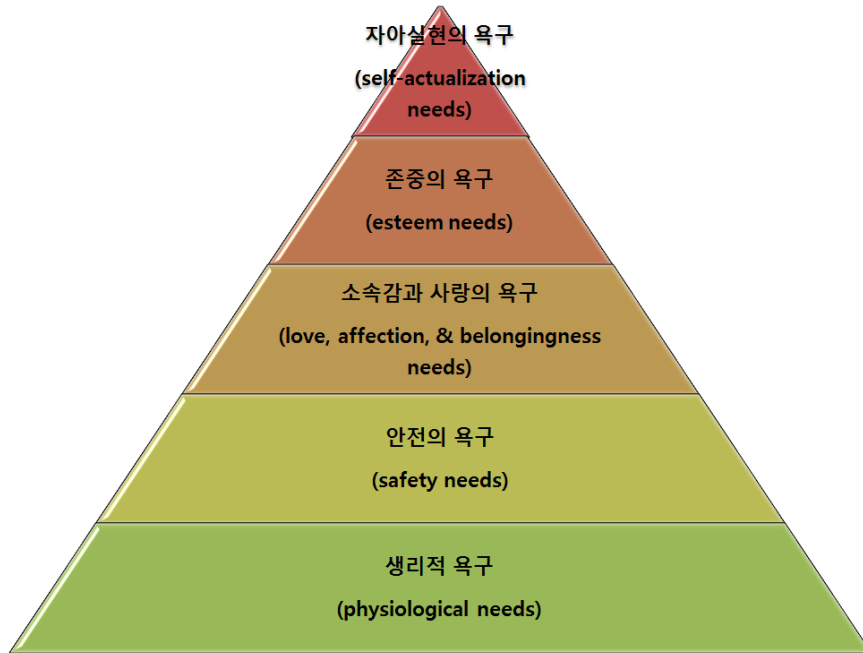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직접작성

【그림 VI-1】 연령과 교육/취업 여부에 따른 2×2 분류체계와 집단간 이동 방향

[그림 VI-1]에 나타난 것처럼 저연령층의 경우 공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고연령층의 경우는 진로탐색, 직업기술교육, 취업처 알선 등이 보다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 정착 단계에 한국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과 언어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년들이 낯선 환경과 새로운 가정에서 생활함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적인 상담이 가급적이면 이들의 모국어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VI-2]는 매슬로(Maslow)의 5단계 욕구이론을 표현한 것이다.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 욕구를 채우려는 본능을 갖고 있으며, 욕구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Maslow, 1943). 매슬로의 욕구 이론의 핵심은 단계별 욕구의 충족이 상위단계 욕구 발생의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출처: Maslow(1943)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진 직접작성

【그림 VI-2】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

[그림 VI-2]에 묘사되어 있듯이 최하위단계 욕구는 생리적 욕구(physiological needs)이며, 그 다음 상위 단계가 안전에 대한 욕구로 각종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하는 욕구(safety needs)이다. 세 번째 단계에 다다라서야 형이상학적인 욕구의 단계로 접어든다. 애정과 소속의 욕구(love, affection, and belongingness needs)가 그것이다. 이것이 충족이 되면 존중의 욕구(esteem needs)로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 것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5단계 욕구인 자아실현의 욕구(self-actualization needs)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하려는 최고수준의 욕구이다(Maslow, 1943).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상황을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다. 가정간의 갈등이나 낮은 환경에서의 삶이 안전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자아 존중과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들에게 언급생심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우 및 또래 관계에서 차별과 상처를 받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는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며 그 보다 상위 욕구인 존중과 자아실현의 욕구 단계로 옮겨가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이 말은 특정 중도입국 청소년이 공교육 시스템이나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다하더라도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가 단계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며 시간과 재원만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다. 반대로, 각 개인을 둘러싼 상황과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단계별 욕구 충족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정책에 투자된 재원의 효율성 제고와 정책의 근본 취지에 있어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핀 매슬로의 5단계 욕구이론과 함께 생애주기에 따른 이민자들의 정보추구 패턴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초기 이민자들은 낮은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취합에 열중할 것이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었을 때 새로 이주한 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영주권 및 국적 취득에 대한 정보에 가장 큰 관심을 두게 된다. 체류신분이 해결됐다는 의미는 교육적 혜택과 취업에 따른 소득 창출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 관련 정보와 취업정보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를 모두 충족하게 되면 여가생활에 대한 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Bai, 2010B). 욕구충족의 한 방편으로 그에 걸맞은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는 이민자와 그의 자녀들을 위한 각 영역별 구체적인 정보 제공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거시적 차원에서 본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과 현장전문가들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꼽은 한국어, 공교육, 직업기술교육, 상담, 취업 지원 등 일련의 지원 영역은 각각 분절된 것이 아닌 높은 연관성을 갖고 연쇄적으로 또는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살핀 양적·질적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 한국어 능력이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제대로 펼치며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이고 핵심적인 역량이기 때문이다. 한국어 실력은 자신의 진학과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자신의 사회경제적지위(SES)를 결정짓는 취업과도 연관된다.

종합하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지원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 이들의 삶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재원과 인프라의 투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코 단일 성격의 집합체(monolithic group)가 아니다. 이들은 연령, 성별, 문화적 배경이 모두 다르며, 진로 및 진학 등과 관련한 의지와 역량이 다를 수 있다. 대상의 니즈(needs)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서 분석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3대 고민거리는 1위가 자신의 진로 문제, 2위가 경제적 어려움, 3위가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로 나타났다.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한 질문에 1위 수준별 한국어 교육, 2위 직업기술훈련, 3위 학교수업 및 교과목 지도를 꼽았다. 우리 사회와 정부는 과연 이들의 고민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100점 만점에 69점이란 낮은 점수를 주었고,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부의 전반적 정책에 대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43점에 머물렀다는 점은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책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2) 지원체계별 자립지원 정책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자립지원 방안에 대한 거시적 논의에 이어 핵심적 6대 지원 체계를 다음과 같이 선별하여 각 체계별 정책 추진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① 공교육 체계, ②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③ 진로 및 취업 지원 체계, ④ 체류 신분 관련 입법 체계, ⑤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체계 ⑥ 기타(심리치료/상담/부모교육/다문화교육) 체계. 각 지원 체계는 타 지원 체계와 분절된 관계가 아닌 상호적 또는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정책 마련과 시행에 있어 주지할 필요가 있다.

(1) 공교육 체계

선행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률은 국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반면, 중도탈락률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초등학생 연령대에서는 대부분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이상 연령대의 청소년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공교육 재학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Piketty)는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2013)에서 “모든 나라에서 교육에 공공지출을 하는 주요한 목적은 ‘사회적 이동성’ 즉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데 있다. 공언된 목표는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려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되며 ‘사회적 이동성’ 기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공교육의 혜택을 법적·경제적·사회적 제약들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책적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① 낮은 공교육 진입률과 높은 중도탈락률의 원인 파악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공교육 재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학률이 낮은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총 일곱 가지 주요 원인을 제시하였다.

a. 낮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에 따른 학업수행의 어려움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연령별·수준별 학습이 요구되나 현재로서는 사업비 부족 등을 이유로 다문화 배경이란 테두리 속에서 한꺼번에 교육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특히 연령이 높은 청소년들은 연령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언어 습득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 학업을 이수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교사 및 현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교육에 진입한 청소년들도 절반가량은 정상적인 학업이 불가능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어능력 시험 2급을 받더라도 사실상 입시위주의 한국 교육시스템에서 일반 학생들의 교육 커리큘럼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가 벅차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살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연령, 성별, 거주기간, 재학여부에 상관없이 중도입국 청소년들 상당수가 한국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학부모 관심 및 지지 부재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낮은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지지가 낮다. 이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낮은 한국에서의 복잡한 교육 제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으며 상당수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일일이 기울이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이 녹록치 않다. 소위 먹고살기 바쁜 현실에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질 만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수년간 자녀와 부모가 서로 떨어져 산 가정이 많아 가족 간의 유대가 약화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처럼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국가 출신의 학부모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조차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교육 관련 정보 추구나 자녀 학습 지도가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

c. 경제적 빈곤/어려운 가정형편

상당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속한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인 지원이 없다면 무상교육 혜택을 볼 수 있는 중학교 이후부터는 자녀의 교육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또한, 주위 환경의 영향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나 꿈에 대한 고민을 할 여유나 기회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막상 공교육에 진입했다가도 가정형편으로 인해 취업을 선택하여 학업을 소홀히 하거나 중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d. 정체성 혼란

본 보고서 조사결과에도 드러났듯이 부모의 강요나 주위 환경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또는 갑작스럽게 아무 준비 없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살아야한다는 현실을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현상들은 결국 학습의욕 저하 및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e. 교내 갈등과 교육시스템 부적응

막상 공교육에 진입한다고 해도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엘OO의 심층면접조사 분석에도 나타났듯이 부모도 자녀교육에 열성을 보이고 자녀도 공부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경우라도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 왕따, 폭행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교육 체제에서의 학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입시위주의 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빈번한 시험과 늦은 시간까지의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많다.

f. 제도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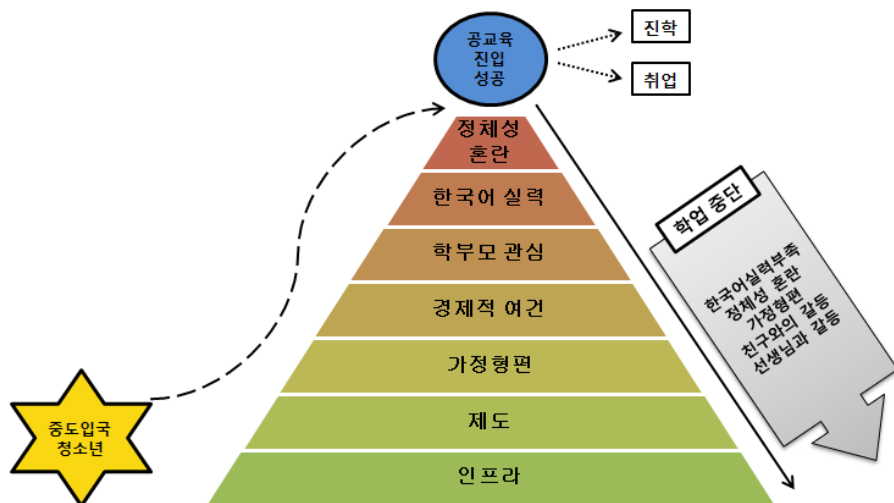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현장전문가들은 공교육 진입률 제고를 위해서 관련증빙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를 제안하였다. 학교의 편입학 규정이 까다로워 공교육 진입을 위해 본국에서의 전학년 성적증명서와 재학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번역공증하고 영사인증을 받거나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국의 경우는 아포스티유 서류를 발행받아야 한다. 문제는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서류준비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담감으로 서류준비를 애초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포스티유 미협약국인 중국의 경우 서류 발급 문제가 더 어려워 중국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률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학력 서류 발급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온라인 전산망의 문제 때문에 본교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받아야 하는 등 서류 준비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일반학교의 경우 학교장

제량에 따라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입학이 가능하지만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입학허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입시위주 시스템에 맞춰진 학교 측 입장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받아들여서 얻게 되는 이익보다 부담이 더 크다.

g. 인적·물적 인프라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유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전문교육기관과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교육에 진입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교사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다. 자신에게 차별적인 언행을 보인 교사들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상당수다. 교사들은 이들의 언행이 납득이 안 되며 불손한 언행을 일삼는다고 하소연이다. 이 둘 사이의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문화차이에 의한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과 학부모에게는 한국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에게는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이나 별도의 연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상황을 이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다룬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률이 낮고 중도탈락률이 높은 주요 원인들을 [그림 VI-3]에서 시각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의 개선점을 모색하였다.



* 출처: 연구진이 직접 작성.

【그림 VI-3】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재학률 저하의 주요 원인

② 공교육 체계에서의 정책 방안

a. 교육 바우처(voucher)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부모들도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자녀들에게 필요한 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자녀교육과 교육정보 취득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 가정이 많아 자녀교육에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한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원토록 한다. 학령기의 중도입국 청소년 가정에 직접 발급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방식이 사교육기관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식보다 자금의 관리적인 면과 교육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학기별로 일정한 금액 수준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하며 안이한 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액지원보다 사교육비의 일부는 가정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효과적일 것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되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교육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일반 사교육 시장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특화된 사교육 시장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언어별, 문화별, 수준별 지도가 가능하며 교과목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교육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b. 중도입국 청소년 재학률 및 진학률/취업률에 따른 학교 대상 인센티브

학교 측 입장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재학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이 따르게 된다. 앞서 살핀 교내 갈등 문제, 언어장벽과 문화차이로 인한 학업부진과 지도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부담을 무시하고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만을 유도하는 것은 학교나 중도입국청소년 입장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이나 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현재 교육부의 학교발전 전략의 하나로 시행되는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이란 테두리에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닌 중도입국 청소년을 별도로 항목화하여 이들의 재학률과 상급학교의 진학률 또는 취업률을 반영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학교와 중도입국 청소년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학교 측은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시설을 확충할 것이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공교육 진입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며 이들에게 특화된 교육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c. 중도입국 청소년 특별전형 신설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의 진학에 있어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특별전형에 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의 테두리 속에 중도입국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으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과는 다른 성격의 집단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특별전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2조에 따라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을 가진 친부(모)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대학입시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특별전형과 별도로 대학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대부분 국가보훈대상자나 벽오지 거주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다문화가정 자녀 특별전형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것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 유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며, 다양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재 양성이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d. 교원 양성 과정 및 연수 프로그램

교사 연수 시 다문화감수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하는 다문화예비학교 교사들은 학기당 1~2회 가량 모여 오후에 연수를 받고 있으나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시수 확대 및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배경 청소년들을 담당하거나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하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별도의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통 교사 연수에서 이뤄지는 강의식 연수보다는 스토리텔링 방식과 참여식의 커리큘럼으로 채워지는 것이 교사들의 다문화 배경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보다 다문화사회가 먼저 이루어지고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선진지에 우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면 동기부여 및 교사들의 인식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 공교육 진입 제도의 간소화 및 대체 방안 마련

증빙서류의 미비로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없도록 증빙서류의 간소화

나 대체 방안이 요구된다. 입학 절차에 대한 간소화와 증빙서류 준비의 부담을 덜어준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이 현재 실시중인 「다문화예비학교」는 공교육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공교육 진입의 대체 방안으로 관심이 높다. ‘다문화학생학력심’ 제도를 두어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여 학교로부터 편입학이 거부된 학령기 청소년이 다문화예비학교를 수료하면 심의회는 담당교사의 평가보고를 토대로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심의에 통과한 상당수의 학생들은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한 학교에 그대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이미 학교분위기에 친숙하며, 교사와 일반 학생들과도 래포(rapport) 형성이 되어 있어 공교육의 적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현재 경기도 교육청이 29개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다문화예비학교의 확대를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공교육 진입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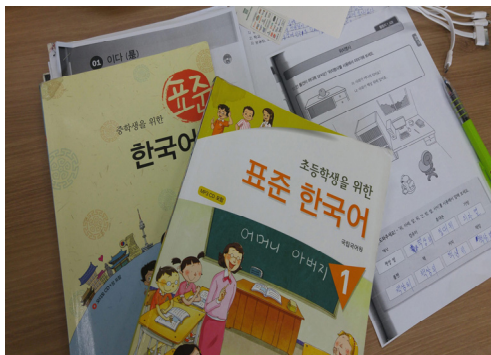
f.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시설 확충과 교재 및 커리큘럼 개선

한국어 수준이 낮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예비학교나 예비학급 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내 학교에 개설된 예비학급이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 지역에 각 한 개씩 개설되어 있으며 예비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각 1개교가 있어 중도입국 청소년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2015년부터 경기도 교육청이 시행중인 다문화 예비학교는 현재 경기도 관내 29개의 학교에서 운영 중이다. 경기도 안산의 경우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수만 비공식 집계로 3,000여명에 달한다. 이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지역의 경우는 예비학교를 담당하는 인력과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들은 인력 및 시설 면에서는 비교적 여유가 있으나 커리큘럼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현재 ‘다문화학생학력심’ 제도를 두어 입학, 전학, 편입학이 거부된 학령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예비학교를 수료하면 심의회는 담당교사의 평가보고를 반영하여 학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다문화학생학력심의 요청을 위한 필수 이수과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두고 있다. 주당 10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내로 운영되며 및 하루 3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학생별로 총 240시간 이상의 이수를 요구한다.

경기도가 실시하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취지와 장점을 살려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교육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 현장전문가들은 문화적 배경과 언어가 다양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40시간의 한국어 학습으로

는 성공적인 공교육 진입과 학업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예비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재 역시 중등과정의 연령층인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중학생용 KSL 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용 KSL 교재(초등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국립국어원 발간)를 이용하여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VI-4] 참조). 일반 초등학생보다도 낮은 수준의 한국어 실력이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용 한국어 교재를 이용하는데 있어 담당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어 수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중등과정 연령에 상응하는 콘텐츠를 담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 교사들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워크북(workbook)을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제작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교재 및 워크북은 관련 교육전문가들과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가급적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보조교재가 지원된다면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며 교육 효과도 높아질 수 있다.



*출처: 연구진 촬영

【그림 VI-4】 경기도 다문화예비학교 교재(국립국어원 발간)

g. 모국어로 번역된 학교운영 및 교육제도 매뉴얼 보급 및 학교통신문 번역 앱 개발
중도입국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 중 대부분은 어머니가 외국 국적 출신자들이다. 한국인 양아버지는 여러 이유로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의 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어머니 역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나 특정 학교의 운영에 대한 지식과 교육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매뉴얼과 학교운영 매뉴얼은 보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중도입국 청소년 자녀의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학교 통신문이

그들의 모국어로 제공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지적이다. 학교 통신문과 교육관련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학교 등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는 클래스팅(classting)과 같은 앱에 한국어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한다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여 불이익을 받는 중도입국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① 1+3 제도의 운영

중등과정 정규교육제도 최초 진입 이전에 디딤돌 학교나 예비학교 등을 전국적으로 마련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집중 교육이 무상으로 약 일 년 간 실시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과 함께 한국 문화와 교육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전문 교사 인력을 확충한 후 이수시간을 하루에 최소 다섯 시간 이상 배정하여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 학급에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 경기도 교육청의 다문화예비학교의 경우 한국어 실력이 천차만별인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 명의 교사에 의해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실정으로 학습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교사 인력 확충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최소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초급반 소속 학생의 한국어 실력이 늘어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 중이라도 중급반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특히 「1+3제도」하에서 첫 해는 중도입국 청소년이 일반 한국학생들과 함께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현재 시행중인 「다문화예비학교」의 경우 240시간 이수를 마친 중도입국 청소년이 다문화학생학력심의위원회에서 학력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한국어 강사가 KSL 교육과정 평가기록부에 교육이수를 마쳤다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때 평가의 기준은 한국어 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따른다. 현실에서는 240시간 이수를 한 중도입국 청소년 대부분이 한국어 수준의 엄정한 평가 없이 승인을 받게 되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 학력인증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 기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학습과 평가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만큼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여 이수시간을 늘리고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학기당 3회 이상의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는 보강학습과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학교부설 한국어 집중교육기관 vs. 별도의 운영 기관

앞서 제기한 「1+3 제도」가 앞서 설명한 「다문화예비학교」처럼 일반학교에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학습이 이루어질 경우의 장점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한국교육제도가 자연스럽게 학습될 수 있으며, 교사 및 또래관계에 대한 래포(rapport) 형성을 통해 첫 해를 마치고 같은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심리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하마마츠시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위시(WISH: Wide International Support in Hamamatsu)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입학 전 초등학교를 일주일간 미리 체험하는 「삐약삐약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다. 실제 입학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현실적 어려움을 사정에 예방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이 프로그램으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이 수월해지는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중앙시사매거진, 2016. 03.17.). 학교 내 다문화예비학교의 운영은 이 같은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도의 운영 기관을 두고 한국어 집중 교육을 맡기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경험이 있는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 운영을 하여 1+3의 1인 한국어 집중 교육을 담당한다면 교내 다문화예비학교 운영 방식에서 찾을 수 없는 여러 장점들이 있다. 첫째,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와 현장전문가들에 의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운영되는 예비학교 소속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일반 학생들을 담당하는 상담교사가 상담을 맡기에는 언어장벽, 다문화 감수성, 과중한 업무 등 사실상 어려움이 많다. 둘째, 학교마다 인력배치와 시설 확충을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포함한 다문화배경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한국어 교육을 받게 되어 예산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셋째, 비슷한 배경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있어 수준별 수업이 더욱 용이하며 심리적인 안정감이 더 생겨 이들을 지도·관리하기에도 보다 효율적이다.

③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 주말 교실, 맞춤형 교육, 온라인 강좌 개설

a. 주말 교실 운영

「1+3 제도」가 아니더라도 취업이나 검정고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어 실력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한국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개인적 사정으로 평일에 참석이 어렵거나 보강을 원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주말에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과정에 이미 진입한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주말을 이용해 한국어 학습을 보충할 수 있다.

b. 연령과 대상을 고려한 한국어 수업

앞서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듯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이 결혼이주민여성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령과 대상을 무시한 채 다문화라는 공통분모에 따라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효과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참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결혼이주민여성과는 별도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c. 소셜러닝 개념을 적용한 스마트폰 앱 개발

모국출신 강사나 모국어 자막이 들어간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동영상을 개발하여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한국어 학습이 가능할 것이다.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서울지역이나 중도입국 청소년 밀집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한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 확충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소수의 중도입국 청소년 거주 지역에 시설확충이나 인력배치는 예산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어려움이 따른다.

본 보고서 설문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하루평균이용시간도 4시간이 넘을 만큼 스마트폰 친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살린 소셜러닝개념을 도입한 별도의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한국어 강좌를 듣는 방식에서 벗어나 질의응답 형태로 교수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용자인 중도입국 청소년들 간에도 실시간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교육적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다. 실제로 「바풀」이란 앱은 수학문제를 올리면 다른 앱 이용자들이 함께 그 문제를 풀면서 소통하는 소셜러닝 방식을 도입하여 국내 일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어 학습 소셜러닝 앱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배경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교감으로 흥미성과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동시에 집단지성의 힘으로 한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학습효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이 같은 앱의 장점으로 언어별로 온라인 스터디그룹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될 수 있어 소통과 공감 능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

연령이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중반의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는 진학이나 교육보다 진로나 취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매우 크다. 상당수의 학령기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가정 형편 등을 이유로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형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공교육 제도로의 진입을 원하지 않거나 진입이 사정상 어려운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직업훈련 교육이 국비지원 등을 통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탐색의 기회가 다양한 연령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주어질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취업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니트족이나 비자발적 프리터족으로 내몰고 있다. 앞서 살핀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도 넘지 못한 것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 및 취업 지원 정책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① 다문화 취업 박람회 개최 및 중도입국 청소년 채용 기업 세금감면 혜택 부여

다문화 배경에 특화된 직업군 및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직종에 대한 파악과 취업처와 수요자간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 취업 박람회를 매년 상설화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외국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제약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중도입국 청소년 채용 시 세금 감면 혜택과 같은 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② 중도입국 청소년에 특화된 진로탐색 교육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중도입국 청소년 대상으로 직업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진행되는 「무지개 잡(Job)아라」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와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데 따른 프로그램 진행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수자인 중도입국청소년 입장에서는 정보의 충분한 이해와 흥미 유발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무지개청소년센터를 포함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이나 단체에서 행하는 진로탐색 프로그램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비교적 다루기 쉽고 체험학습을 위해 필요한 시설 투자에 있어 초기비용이 비교적 낮은 업종들로 채워져 있으나 이 같은 업종들의 상당수는 취업시장에서 공급자들이 넘쳐나거나 필기시험에는 합격해도 실제로 자격증을 따서 직업현장에 나갈 수 있는 경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지적이다.

③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모델 전국적 확대

충청북도 제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2012년 개교 이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기술교육과 취업지원에 힘쓰고 있다(그림 VI-5 참조). 폴리텍다솜고등학교는 컴퓨터 기계과, 플랜트 설비과, 스마트 전기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기술을 익히고 자격증 취득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학교차원에서 기업들과 MOU를 맺고 3학년 2학기에는 현장학습을 통해 실제 직업현장에서 실무경험을 쌓도록 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2년간 교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취업현장에서의 고민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취업을 하지만 일부는 한국폴리텍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에서 보다 수준 높은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교생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며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등의 엄격한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 중도입국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의 호응이 매우 높아 매년 지원율이 150% 이상을 웃돌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은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기능대학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를 부설하여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는 제천에 소재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기능대학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고등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비교적 어려운 가정형편과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에 자주 노출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처럼 기숙형 학교로 운영이 된다면



*출처: 연구진 촬영

【그림 VI-5】 한국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이들의 진로·진학지도와 생활지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교육복지 차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능대학의 특성화 전략에 따라 학교마다 전공분야를 달리하고 다양한 업종의 전문 인력을 양산한다면 인력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산업계에 전문기술인력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단기형 취업이나 니트족으로 전락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여러 기능대학 부설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전공분야가 신설된다는 것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적성과 관심에 따라 학과 및 업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앞서 심층면접조사에서 서술한 링OO의 경우처럼 경쟁력 있는 학과(컴퓨터 기계과)를 피하고 여성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종(플랜트 설비)을 피하다보니 스마트 전기과에 입학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대학 측 입장에서도 특성화 전략에 따른 학과 발전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기능대학이 보유한 기존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운영비용의 절감을 이룰 수 있고, 졸업생들이 해당 기능대학으로 진학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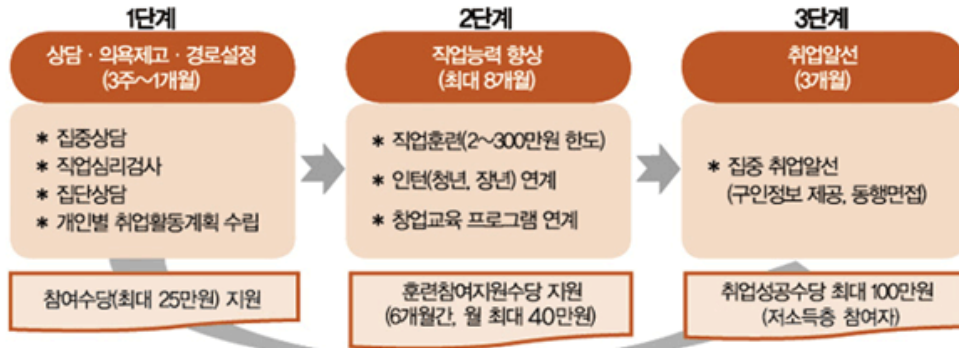
④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¹⁶⁾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 촉진 및 빈곤탈출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취업성공 패키지 I, II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로 구분된다. 18세 이상의 후기 청소년들부터 대상이 되며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소득과는 무관한 고교·대학 재학생 및 졸업 후 미취업자, 고졸 비진학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기타 특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I의 경우도 청소년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학교 중도탈락, 가출, 폭력, 학대나 범죄 피해, 성매매 등에 노출되어 있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구직자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다.

[그림 VI-6]에 묘사된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1단계 수료 시 최대 25만원이 지급되며,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이름으로 2단계 직업 훈련 참여자에게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비 지원과 함께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1단계에서는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며, 2단계부터는 본격적인 직업훈련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취업알선을 통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니트족화를 방지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귀화가 완료된 중도입국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에 체류한지 3년 이상인 18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귀화시험에 합격하였으나 국적취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18세 이상의 청소년들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1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policyinfo/new/support/view_content04.jsp)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설명 참고
(접속일자: 2016. 10. 10.)



- ◆ 1단계(진단 · 경로설정, 1개월) : 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지원계획 수립
- ◆ 2단계(의욕 · 능력증진, 최장 8개월) : 집단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지원, 창업지원 등 실시
- ◆ 3단계(집중취업알선, 최장 3개월) : 동행면접 실시 등 집중적인 취업알선 실시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policyinfo/new/support/view_content04.jsp) (검색일자: 2016. 10.10)

【그림 VI-6】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패키지

(4) 체류신분 관련 입법 체계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법적 체류 자격의 문제로 불안감 속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심층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적취득 전까지 일상생활의 불편과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장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들의 체류신분과 관련한 법 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만 19세 이상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내체류자격이 상실되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이 불안감으로 학업이나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중도입국 청소년이 원하는 일정 수준의 학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비자를 연장해 줌으로써 체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만 19세 이후의 비자코드를 만들어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또한, 법무부에 따르면 귀화시험에 합격하여 국적 취득까지 평균 17개월이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들의 경우 국적 취득 전이라도 잠정적 국적 취득자로 간주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고 취업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비자 정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초청으로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수 년 동안 살았어도 국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취업을 못하며 생계를 위해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을 해도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법적·행정적 조치로 이들이 합법적 거주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은 어린 시절 모국을 떠나 장기간 한국에 체류하여 모국에 삶의 기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한국에서 법적 보호 및 행정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거주를 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광취업비자인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비자 개념을 확대 적용하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도입국 청소년들도 국적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합법적인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 기간 동안 성실한 근로활동이 증명된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는 장기체류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핀 심층면접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정에서는 한국 양아버지의 입양에 따른 갈등과 양아버지의 일방적인 횡포가 발생하기도 한다. 입양 절차 중 이혼하더라도 체류자격 관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간이귀화 자격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양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의만으로 중도입국 청소년의 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였던 엘OO 가정의 경우처럼 시댁식구가 외국인 출신 자녀의 입양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입양에 반대해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입양조차 제삼자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대한민국 헌법 6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다. UN아동권리협약문 중 실제적인 아동권리를 담고 있는 조항은 총 40조이다. [그림 VI-7]은 1조부터 4조, 7조부터 9조, 그리고 30조의 내용이다. 아동권리협약문의 내용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 1조: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까지로 한다.
- 2조: 당사국은 아동이나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재산, 장애여부 등의 차별 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3조: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4조: 당사국은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해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7조: 아동은 누구나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 8조: 당사국은 아동의 이름과 국적과 가족 관계 등 법률에 의해 인정된 신분을 보존해 줄 의무가 있다.
- 9조: 당사국은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 이외에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30조: 인종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 아동은 본인이 속한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고유의 문화, 종교, 언어를 가질 권리가 있다.

*출처: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의 내용을 재구성함(접속일자: 2016. 9.20.)

【그림 VI-7】 UN아동권리협약문 발췌내용

(5) 제도 및 인프라 구축 체계

① 중앙 컨트롤타워 및 허브 구축

다양한 제도들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지원센터 신설 및 허브의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장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마다 제각각 시행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행정적·입법적 지원 및 조치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본 보고서의 현장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일선에서 지원하고 지도하는 현장전문가들은 행정적 지원 정책방안들의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 중도입국 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에 이어 2순위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응답하였다.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별도의 신설 센터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정착부터 지역사회 정착까지 단계별·영역별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 신설 센터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이나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두고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입법적·행정적 정책 시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설 센터의 주요 기능과 장점으로 ①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② 부처 간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관련 정책들의 교통정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지원혜택을 받는 대상자 확대, ③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행정적·법적 정보 및 지원에 관한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 제공, ④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법적·행정적 정보 제공으로 정보격차 해소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다문화가족 홈페이지(예: 서울시의 한울타리)와 애플리케이션(MySeoul)은 육아, 취업, 생활정보 등의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를 중도입국 청소년에 특화시킨 콘텐츠와 보다 인터랙티브(interactive)한 소통 기능을 추가한 별도의 홈페이지와 앱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중앙 컨트롤 타워의 기능은 탑다운(top-down)식 정책의 시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지 않고 일괄적이고 유연성 없는 정책의 시행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보다 현실과 동떨어진 자칫 보여주기식 지원에 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앙 컨트롤 타워의 또 다른 핵심기능으로 전국에 산재한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한다. 효과적인 공조체제의 구축력을 갖추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에게 신설 센터의 운영에 일정한 직책과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신설 센터가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기관 및 단체 별로 저마다의 노하우와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복지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핀 호주와 캐나다의 해외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성공적인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중앙정부, 지역사회, 민간단체 간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②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확대 운영

지역사회 내 대안교육 시스템의 확대차원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위탁형 다문화 대안학교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생과 달리 언어습득 능력이 떨어지는 중등과정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공교육에 진입하여 일반 청소년들과 경쟁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비자연장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학력인정기관인 공교육에 진입하는 경우, 학업이 부진하거나 학업에 관심이 없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공교육 현장에서 겉도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중도입국 청소년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차원에서도 큰 손실이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는 통합방식과 비슷한 다문화 배경의 청소년들을 별도의 공간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분리방식 중 중도입국 청소년이 학력수준 및 성향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학교에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대안학교를 선별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학제를 인정해줌으로써 학생들의 비자연장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맞춤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시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③ 소수민족 커뮤니티(ethnic minority community) 지원

광주 새날학교 학생의 상당수는 인근 고려인마을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다. 학력인가를 받은 초·중·고 통합형 학교가 있어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것인가, 커뮤니티가 있어 학교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인가의 궁금중이 생길만큼 이 둘은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인상적인 활동을 펼치며, 국내 소수민족 커뮤니티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에서 연구진이 주목한 최근의 활동으로 <고려 FM>의 개국을 들 수 있다. 고려인 커뮤니티 구성원들을 주 대상으로 고려인들이 직업 운영 및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문화재단과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아 수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방송이 현재까지 활발히 운영되며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정보제공과 유대감 강화에 기여를 할 수 있기까지는 광주 새날학교 소속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됐다. [그림 VI-8]은 최근 고려인마을 온라인 소식지가 전한 기사내용이다.

고려인마을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신나는 마을방송 고려FM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 열기와 자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2일 국내최초로 개국한 고려인동포를 위한 고려FM은 매일 6시간 이상 제작되어 102.1 MHz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프로는 10대들의 세상이다. 자신들의 이야기와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계를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느라 자신과 놀아줄 시간이 없는 엄마를 향해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마음 짙한 이야기가 청취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다.

(2016. 09. 21. 김율라 기자¹⁷⁾)

지난 2014년 한국에 입국한 김빅토리아(18세)양은 "최근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에 합격했다"며 "동포들을 위한 한국어교육 방송에 도움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매주 금요일 방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6. 10. 14. 김엘레나 기자¹⁸⁾)

* 출처: 나눔방송 홈페이지(<http://www.nanumyes.com/>) (접속일자: 2016.10.27.)

【그림 VI-8】 광주 고려인마을 「고려FM」 관련 소식

상기 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소수민족별 커뮤니티의 형성과 다양한 활동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된 시혜성·일회성 지원사업과는 견줄 수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소수민족 언론의 대표적 기능으로 교육, 체류신분, 여가 등 다양한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와 이민자들의 순탄한 정착을 돕고, 심리적인 위안 및 유대감 강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주류사회 및 정부는 이 같은 소수민족 언론의 사회 통제 기능(social control function)을 통해 소수민족 구성원들이 사회적 부담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곳에서 융화하여 살아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Bai, 2010A; Viswanath & Arora, 2000).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인타운

17) http://www.nanumyes.com/kunsolution/webzine.php?webzine_id=nanum_01&web_page=8&article_no=3249&webzine_page=view (접속일자: 2016. 10. 27.)

18) http://www.nanumyes.com/kunsolution/webzine.php?webzine_id=nanum_01&web_page=7&article_no=3275&webzine_page=view (접속일자: 2016. 10. 27.)

(Koreatown)이 형성되어 자체 방송국과 언론사가 생겨나기까지 미국 정부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소수민족 커뮤니티 지원 정책이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간접 지원을 통해 소수민족별로 자체적인 관리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6) 기타 체계 : 다문화 학부모 진로코치 양성, 상담, 다문화감수성 교육 등

현장전문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 입시정보, 자녀교육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학교, 일터, 길거리 등에서 외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모와 오랜 시간 떨어져 살던 경험을 가진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가정교육이 부재하여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경우도 많다.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상담은 가족 구성원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무관심으로부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담은 모국어로 이루어질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이나 또래 자원봉사 청소년들을 선발하여 일대일 멘토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생활과 개인적 고민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다.

이 같은 교육 및 상담의 필요성은 현장전문가와 학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 상담 및 가족 상담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 제고 노력은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들이기에 우리 사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이 밖에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코치 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부모진로코치 양성」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진로코치들은 자유학기제의 확대와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진로체험을 위한 일터 발굴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운영지원을 맡는 등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학교와 가정을 잇는 연결고리로서 학부모 진로코치의 존재감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자녀의 진로고민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서울시의 학부모 진로코치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중도입국 청소년을 포함한 다문화배경의 학부모들을 위한 양성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선발하여 진로코치로 양성한다면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 교육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의 심층 분석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도입국 자녀의 진로 정체감과 자존감에 어머니의 역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도입국 청소년들 입장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가 높은 진로코치가 자신과 같은 모국어로 진로상담을 함에 따라 거부감이 낮고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교육청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다문화 학부모 진로코치들이 수행하는 사회와 가정의 가교 역할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진로고민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살린 진로 탐색에 대한 정보(예: 국내외 직종, 일터, 보수 등)를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3. 로드맵

<표 VI-1>는 중도입국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제언 내용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관련 부처의 관련 업무들을 총괄·기획·평가하는 신설 센터 및 허브 구축을 이 년 동안 논의 과정을 거쳐 갖추며 신설 센터의 지휘 하에 세부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를 2018년부터 매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교육 체계 및 한국어 지원 체계는 교육부 및 각 교육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2019년부터 개선된 제도의 시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교사연수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원활한 제도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 개선 사항 시행도 2019년부터 단계별 시행을 목표로 이 년 간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체류신분 관련 입법체계의 정비도 2018년까지 이루어져야 각 영역별 제도개선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

표 VI-1 중도입국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정책 로드맵

관련정책	2017	2018	2019	2020	2021
중앙콘트롤타워 신설 및 허브 구축	⇒	⇒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조사		⇒		⇒	
체류신분 관련 입법 체제 개선	⇒	⇒			
교육관련 인력 양성 및 물적 인프라 구축		⇒	⇒	⇒	⇒
공교육 제도 개선 사항 시행			⇒	⇒	⇒
진로 및 취업지원 체계 개선 사항 시행			⇒	⇒	⇒

.....

참 고 문 헌

[참고 문 헌]

- 고남정, 오성배. (2016). 학교 재학과 학교 밖 기관 이용 여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2(4), 271~289.
- 김석준(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58(3), 6-41.
- 김이선, 정해숙, 동제연(2015).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 여성가족부
-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제오(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진희(2016). 다문화교육과 평생교육, 박영스토리: 서울.
- 김진희(2014). 이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캐나다의 교육 사례와 평생교육에의 시사점,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 17권 3호 (pp.45~65)
- 김진희(2012). 호주사회의 국제난민을 둘러싼 다문화담론과 난민 이주민을 위한 교육,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제 15권 3호(pp.209~237)
- 김진희(2011). 영국의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다문화교육연구*, 4(2), 43~72.
- 김현철, 모상현, 오성배(2015).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눔뉴스(2016). 내가 바로 아나운서,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광주고려인마을 방송 '고려FM'. 김율라 기자. http://www.nanumyes.com/kunsolution/webzine.php?webzine_id=nanum_01&web_page=8&article_no=3249&webzine_phase=view (검색일자: 2016. 10. 27.)
- 나눔뉴스(2016). 정규방송 시작한 고려FM, 고려인마을 주민 자원활동가 참여 열기 고조.

- http://www.nanumyes.com/kunsolution/webzine.php?webzine_id=nanum_01&web_page=7&article_no=3275&webzine_phase=view (검색일자: 2016. 10. 27.)
- 류방란, 오성배(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 박영준(2016). 한국 다문화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21, 297~322.
- 배상률, 김형주, 성은모(2013). 2013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률, 황여정, 김소라(2013). 2013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덕희, 김은석, 조은혜, 임경환(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석희정, 하춘광(2015).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가족생활적응경험에 대한 질적연구. *학교사회복지*, 31, 1~35.
- 성상환, 김명정, 배화순, 이운주(2011).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성연옥(2013). 미국, 캐나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비교 연구. *경영컨설팅 리뷰* 제 4권 제2호, 2013년 8월, pp.23~44.
- 손영화, 박봉수(2015).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1(1), 75~102.
- 송효진, 김소영, 안소영, 김연재(2015). 다문화가족의 자녀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 신현옥, 양계민, 서윤정, 김미라(2013).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앤서니 기든스(2003).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 양계민, 김승경, 김윤영(2012).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조혜영(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 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 오성배, 김경미, 김재우, 서덕희, 오정은(2013).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
- 오승환, 좌현숙(2015).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비교. 학교사회복지, 32, 385-412.
- 유비, 김기현(2015). 한국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한국인 부모가정)의 진로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2, 5-29.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http://www.unicef.or.kr/education/outline_01.asp (접속일자: 2016. 9.20.)
- 윤경희, 양문승(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위험성 요인이 비행경험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4(2), 313~338.
- 윤철경, 최인재, 유성렬, 김강호(2015).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I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향희, 김경제(2016).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개선방향. 유럽헌법연구, 353~388.
- 이규용, 노용진, 이정민, 이해경, 정기선, 최서리(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정책연구 2014-16), 한국노동연구원.
- 이로미, 장서영 (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179~208.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439629>(접속일자:2016.09.21)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고은혜(2010). 지표를 통해 본 한국 아동의 삶의 질 2015. 서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
- 이수진, 김현주(2016).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족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3(5), 205~235.
- 이유신, 김한성(2014).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차별경험과 학교생활부적응: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263~292.
- 이은영, 황혜원(2016). 연구논문: 가족환경스트레스가 중도입국자녀의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자아정체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4), 397~423.
- 이재원(2012). 호주의 이중 언어 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439629>(접속일자:2016.09.21)
- 이현주(2015).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포토보이스 (Photovoice) 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위기관리논집, 11(4), 243-268.
- 장명선, 송연숙(2011). 서울시 중도입국청소년 현황과 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 이애란(2010).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방안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해숙, 김이선, 이택면, 마경희, 최윤정, 박건표, 동제연, 황정미, 이은아(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혜영, 양계민(2012). 중도입국청소년 학업실태 및 진로포부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3), 141~168.
- 좌동훈(2014). 중도입국청소년의 출신 국적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 97~126.
- 중앙시사매거진(2016). [현지취재] 일본의 다문화정책에서 배운다. 이에스더기자.
<http://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0686> (검색일자: 2016년 09.20.)
- 최대희(2014). 중도입국청소년 정체성 연구를 위한 일고찰. 다문화와 인간, 3(2), 133~165.
- 한광현, 강상경(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교육지원서비스 이용 예측 요인.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7(단일호), 89~11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청소년문화론 제2판. 교육과학사.
- 허경미(2015).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 243~274.
- 홍종명(2014). 중도입국 청소년 한국어 학습 동기 연구. 어문론집, 60, 421~446.
-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황창순(1992). 청소년문화와 질적연구방법론. 한국청소년연구, 11(겨울), 5-18.
- 행정자치부(2015).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46327 (2016.09.20. 인출)
- 행정자치부(2009). 2009년도 외국인주민 현황

- http://www.moi.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SMSTR_000000000054&nttId=19613 (2016.09.20. 인출)
- Bai, S. Y. (2010A). Constructing Racial Groups' Identities in the Diasporic Press: Internalization, Resonance, Transparency, and Offset. *Mass Communication and Society*, 13(4), 385~411.
- Bai, S. Y. (2010B). Making Korean American news: Korean American journalists and their news medi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03). Evaluation of the Integrated Humanitarian Settlement Strategy, Australian Government
- Francis S and Cornfoot S, (2007). Working with Multicultural Youth: Programs, Strategies and Future Directions, Australian Research Alliance for Children & Youth <http://cmy.net.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Programs,%20Strategies%20and%20Future%20Directions%202007.pdf>
- Maslow, A. H. (1943). A theory of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50(4), 370-396. <http://psychcentral.com/classics/Maslow/motivation.htm> (접속일자: 2016.09.21.)
- Mason, J.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김두섭 (1999).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OECD, (2010). Education for Refugee and asylum seeking children in OECD countries. The 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2016. Annual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building a diverse and Inclusive society 2014-2015
- Piketty, T. (2013).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장경덕 외(2014). 『21세기 자본』. 서울: 글항아리.
- Viswanath, K. & Arora, P. (2000). Ethnic media in the United States: An essay on their role in integration, assimilation, and social control.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1), 39~56.
- Wang, C., & Burris, M. A. (1997). Photovoice: Concept, methodology, and use for participatory needs assessment. *Health education & behavior*, 24(3), 369~387

〈인터넷 참고자료〉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rpp/2016-2017/>(접속일자: 2016.09.20.)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publications/rpp/2016-2017/#a2.3.1>(접속일자: 2016.09.20.)

<https://www.chs.ca/governance-and-leadership>(접속일자: 2016.09.21.)

<http://www.bmccentre.com/index.php/programs/job-search-workshop>(접속일자: 2016.09.20.)

<http://www.tvdsb.ca/programs.cfm?subpage=123449>(접속일자: 2016.09.20.)

<http://www.cnmag.ca/issue-22/845-host-program-creating-friendships-e08>(접속일자: 2016.09.21.)

<http://www.nanumyes.com/>(접속일자: 2016.10.27.)

http://www.moel.go.kr/policyinfo/new/support/view_content04.jsp(접속일자: 2016.10.10.)



부 록

1. 한국어 설문지(재학생)
2. 한국어 설문지(비재학생)
3. 전문가 설문지

1. 한국어 설문지(재학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D

--	--	--	--

이 부분은 작성하지 마세요.

20160721-01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고,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활용됨을 밝혀드립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조사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복수 응답을 요구한 문항이나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고 표현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질문에는 단일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조사의 응답방법 :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O)해 주세요.

※ 본 조사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6. 07

▶ 조사연구기관: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책임: 배상률 부연구위원, 044-415-2220; 010-7727-9210; drbai@nypi.re.kr

▶ 설문내용 및 조사진행 문의: 고은혜 위촉연구원, 044-415-2221; graceko@nypi.re.kr

아래 질문부터 응답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3] 귀하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① 한국 ② 중국 ③ 중국(한국계) ④ 베트남 ⑤ 필리핀 ⑥ 러시아 ⑦ 기타(직접 기입 :)
[4] 귀하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① F-1 ② F-2 ③ F-4 ④ F-5 ⑤ C-3 ⑥ 기타 (직접 기입 :) ⑦ 모름
[5] 다음 중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O표 해주세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교육 및 일상생활

[문항 1] 귀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출신국에서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교 중퇴 ⑧ 대학교 졸업 이상

[문항 2]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⑤ 고등학교 2학년 ⑥ 고등학교 3학년 ⑦ 대학생

[문항 3] 귀하는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학교까지 다니길 원하십니까?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학교(2·3년제)
 ④ 4년제 대학교 ⑤ 대학원 ⑥ 모르겠음

[문항 4] 귀하가 처음 한국에 와서 정규학교에 입학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①	3개월 미만	☞ 문항 5로 이동
②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4-1. 귀하가 입국 후 정규학교에 바로 입학하지 못하고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체된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입학하려는 학교에서 서류미비로 거절되어 ②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③ 원래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을 다녀야 해서 ④ 바로 학교에 다니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⑤ 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입학절차를 잘 몰라서 ⑥ 부모님이 다니지 말라고 해서 ⑦ 단순히 학교 입학 시기가 맞지 않아서 ⑧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제제가 있어서 ⑨ 한국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어서 ⑩ 기타(직접기입)_____
③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④	1년 이상 ~ 1년 6개월 미만	
⑤	1년 6개월 이상 ~ 2년 미만	
⑥	2년 이상	

[문항 5] 귀하가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학교에서의 생활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해당 칸에 O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선생 님이 있다	1	2	3	4	5
②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 는 선생님 이 있다	1	2	3	4	5
③ 학교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 는 선생님 이 있다	1	2	3	4	5
④ 학교에는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 가 있다	1	2	3	4	5
⑤ 학교에서 친구 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	2	3	4	5
⑥ 나는 학교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 들 과 함께 지낸다	1	2	3	4	5
⑦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 들이 도와준다	1	2	3	4	5
⑧ 학교 수업내용 에 흥미를 못느낀다	1	2	3	4	5
⑨ 학교 수업내용 이 전반적으로 내 수준보다 어렵다	1	2	3	4	5
⑩ 한국어로 진행되는 학교 수업내용 을 이해하기 힘들다	1	2	3	4	5

[문항 6] 한국에 있는 귀하의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칸에 O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 을 존중해준다	1	2	3	4	5
②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1	2	3	4	5
③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1	2	3	4	5
④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1	2	3	4	5
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5
⑥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	2	3	4	5
⑦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 고 싶다	1	2	3	4	5
⑧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⑨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1	2	3	4	5

[문항 7] 귀하는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있다	없다
① 현재 다니는 학교 이외에 다른 정규학교에 다닌 적 있다 (학력 인정 대안학교 포함)	1	2
② 지역 및 종교단체 등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1	2
③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등)	1	2
④ 사립 학원(검정고시, 컴퓨터 학원 등)에 다닌 적 있다	1	2
⑤ 아르바이트나 일한 적이 있다	1	2

일 / 노동

[문항 8] 귀하는 한국에서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항 9] 로 이동 ② 아니요 ☞ [문항 13]로 이동

[문항 9] 귀하가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아르바이트나 일의 종류를 모두 적어주세요

(예: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직접 써주세요) _____

[문항 10] 귀하가 가장 최근에 근무한 그 직장에서...

10-1. 평균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또는 했습니까?)

약 _____ 일

10-2. 평균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또는 했습니까?)

약 _____ 시간

10-3. 임금을 받는 방식과 평균 임금은 얼마였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O표시하고 평균 임금을 적어주세요.

① 월급으로 받았다: 평균 _____ 원

② 주급으로 받았다: 평균 _____ 원

③ 일급으로 받았다: 평균 _____ 원

④ 시급으로 받았다: 평균 _____ 원

[문항 11] 귀하가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선택해주시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등록금을 벌기위해
- ② 나의 생활비(용돈)를 벌기위해
- ③ 나 이외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 ④ 나의 빚을 갚기 위해
- ⑤ 나 이외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 ⑥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 ⑦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 ⑧ 해외연수/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 ⑨ 다른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하지 못해서
-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_____

[문항 12] 최근 6개월 동안 직장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있다	없다
①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②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1	2
③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2
④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1	2
⑤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1	2
⑥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⑦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⑧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⑨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	1	2
⑩ 한국인과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	2
⑪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	1	2
⑫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진로 / 진학

[문항 13] 귀하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O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1	2	3	4	5
②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1	2	3	4	5
③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1	2	3	4	5
④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한다	1	2	3	4	5
⑤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1	2	3	4	5
⑥ 외국출신이기에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가 힘들 것 같다	1	2	3	4	5
⑦ 한국은 내 장래 희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1	2	3	4	5

[문항 14]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 중 해당되는 것에 O 표시해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 한국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 ② 다른 나라로 유학 갈 예정이다
- ③ 검정고시 준비를 할 예정이다
- ④ 취업할 예정이다
- 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⑥ 학업을 계속하거나 정식으로 취업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로를 모색할 것이다
- ⑦ 기타(직접기입)_____
- ⑧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  14-1로 이동

└─ 14-1.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정보가 부족해서
- ② 한국어가 부족해서
- ③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④ 심리 및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 ⑤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서
- ⑥ 기타()

[문항 15] 귀하는 진로선택이나 미래계획에 대한 고민을 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
합니까? 다음 중 가장 자주하는 방식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 ② 한국에 사는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사람과의 소통/대화를 통해
- ③ 귀하의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대화를 통해
- ④ 한국의 정부나 지원기관을 통해
- ⑤ 한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매체를 통해
- ⑥ 출신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비한국어 매체를 통해
- ⑦ 기타(직접기입) _____

가정 환경

[문항 16]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 친어머니 ② 친아버지 ③ 양어머니 ④ 양아버지 ⑤ 조부모
- ⑥ 형제/자매 ⑦ 친척(고모, 삼촌 등) ⑧ 친구
- ⑨ 혼자 살고 있음 ⑩ 기타(직접기입) _____

※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소년만 응대해주세요.

16-1. 한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16-2.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과의 갈등 ② 형제자매와의 갈등 ③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④ 학교나 직장 때문에 ⑤ 부모님이 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 ⑥ 기타(직접 기입 : _____)

[문항 17]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① 없다 ②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3년 미만 ⑥ 3년 이상

[문항 18]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O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②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③ 내 말을 경청해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④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⑥ 내 생각과 감정을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⑦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⑧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⑨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⑩ 나를 차별없이 공평하게 대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문항 19] 다음은 가족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가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① 가족이 있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4	5	0
② 나와 형제자매는 우애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0
③ 우리 가족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자주 보낸다	1	2	3	4	5	0
④ 부모님(보호자)은 서로 사이가 좋으시다	1	2	3	4	5	0

[문항 20] 귀하는 현재 경제적인 지원(용돈, 생활비 등)을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 ① 친아버지 ② 양아버지 ③ 친어머니 ④ 양어머니 ⑤ 친척
⑥ 조부모 ⑦ 나 스스로 벌어서 충당함
⑧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21] 귀하의 가정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보통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1	2	3	4	5

입국 전 상황

[문항 22] 귀하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 ② 부모 외의 가족 또는 친척과 함께 살기 위해서
- ③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 ④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 ⑤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23] 다음 중 귀하가 한국에 오게 된 경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나는 싫었으나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원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 ② 어머니(또는 아버지)는 고국에서 살기를 원했으나 내가 들어오기를 적극 원했다
- ③ 나와 부모님 모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 ④ 나와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 ⑤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24] 귀하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다음 중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
- ②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 ③ 한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 ④ 한국 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 ⑤ 한국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 ⑥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 ⑦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공부하였다
- ⑧ 기타(직접기입)_____

사회적 인식

[문항 25]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에 O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출신국(한국 제외)의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1	2	3	4	5
② 한국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1	2	3	4	5
③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출신국(한국 제외) 사람을 기꺼이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2	3	4	5
④ 한국 사람을 기꺼이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2	3	4	5

[문항 26] 귀하의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1(매우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1(매우 불만족)---2---3---4---5---6---7---8---9---10(매우 만족)

[문항 27] 귀하가 한국에 오기 전 고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1(매우 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1(매우 불만족)---2---3---4---5---6---7---8---9---10(매우 만족)

[문항 28]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순위 2개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재력·경제력 ② 화목한 가정 ③ 건강 ④ 직업·직장
 ⑤ 감사긍정적 태도 ⑥ 연인(이성관계) ⑦ 친구대인관계 ⑧ 자아성취
 ⑨ 꿈목표의식 ⑩ 종교생활 ⑪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29]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항 30] 한 개인의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데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 ② 사회적 지위나 권력 ③ 주위의 평판이나 명성
 ④ 삶의 주관적 만족감 ⑤ 꿈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⑥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31] 귀하가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타고난 자질·재능 ② 학벌·학력 ③ 가정환경·집안배경 ④ 돈·재력
 ⑤ 노력·성실성 ⑥ 인맥(학연·지연·혈연 등) ⑦ 외모
 ⑧ 운 ⑨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32] 귀하가 답한 '성공의 평가기준'과 '성공의 조건'을 고려하여, 귀하의 한국에서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1(전혀 없다)부터 10(매우 크다)까지의 숫자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전혀 없다)---2---3---4---5---6---7---8---9---10(매우 크다)

[문항 33]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문화 차이, 언어 장벽, 외모 차이 등)로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최근 6개월간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 문항 34로 이동
②	약간 있었다	33-1. 한국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귀하가 가장 자주했던 행동 <u>두 가지</u> 를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❶ 그냥 참는다 ❷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알린다 ❸ 친구나 선생님, 지인 등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❹ 정부나 관련기관에 민원처리를 한다 ❺ SNS 등 인터넷에 올린다 ❻ 차별을 한 당사자에게 따진다. ❼ 기타(직접기입)_____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문항 34] 최근 귀하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개인적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큰 고민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돈 문제(채무, 가난 등) ② 진로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③ 건강 문제(신체적 또는 정신적) ④ 가족 간 불화
 ⑤ 이성 문제(연애, 결혼 등) ⑥ 인간관계(배신, 갈등, 괴롭힘, 왕따 등)
 ⑦ 외로움 ⑧ 학교 성적
 ⑨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⑩ 고민 없음
 ⑪ 기타(직접기입) _____

[문항 35] 귀하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벗어나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 [문항 36]으로 이동
②	예, 출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③	예, 한국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④	모르겠음

35-1. 귀하가 한국을 벗어나 살고 싶은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는 차별 때문에
 ②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의 법적, 제도적인 제재 때문에
 ③ 한국어가 어려워 소통의 문제가 많아서
 ④ 한국문화가 너무 달라 적응이 어려워서
 ⑤ 한국서는 구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⑥ 한국에서의 삶은 외로워서
 ⑦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⑧ 기타(직접기입) _____

신체 · 심리 · 정신적 건강

[문항 36] 귀하의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문항 37]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해당 번호에 O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②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③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④ 내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⑥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⑦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⑧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⑨ 나는 사는 게 즐겁다	1	2	3	4	5
⑩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1	2	3	4	5
⑪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⑫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1	2	3	4	5
⑬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1	2	3	4	5
⑭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1	2	3	4	5
⑮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매체 이용 실태

[문항 38] 귀하의 매체 이용/소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아래의 각 매체별 귀하의 이용/소비 여부를 ○표시해 주시고, 해당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하루 평균 이용/소비 시간도 적어주세요.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소비 시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문항	이용/소비 여부		하루 평균 이용/소비 시간
	예	아니오	
① 온라인게임(PC, 스마트폰 이용 모두 포함)	1	2	____시간____분
② 한국어 TV프로그램/영상	1	2	____시간____분
③ 출신국 언어 또는 비한국어 TV 프로그램/영상	1	2	____시간____분
④ 스마트폰 이용	1	2	____시간____분
⑤ SNS 이용(한국어 사용)	1	2	____시간____분
⑥ SNS 이용(출신국 언어 또는 비한국어 사용)	1	2	____시간____분
⑦ 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1	2	____시간____분
⑧ 출신국 언어 또는 비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1	2	____시간____분

※ [문항 39]는 최근 6개월 이내 온라인 게임(PC, 스마트폰 이용 모두 포함)에 참여한 학생만 응답해주세요. 온라인 게임 경험이 없으면 [문항 40]으로 이동하세요.

[문항 39] 다음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온라인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진다.	1	2	3	4
②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졌다.	1	2	3	4
③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한다.	1	2	3	4
④ 여러 차례 온라인 게임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1	2	3	4
⑤ 다른 일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게임의 아이템을 얻거나 레벨업 시키는 일에 푹 빠져 있다.	1	2	3	4
⑥ 온라인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줄이게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1	2	3	4
⑦ 가족들과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을 계속한다.	1	2	3	4
⑧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 온라인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	2	3	4

체류 기간 및 상태

[문항 40] 현재 영주권 획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다 ②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다
③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다 ④ 신청할 계획이 없다 ⑤ 모름

[문항 41] 현재 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② 귀화를 신청한 상태이다
③ 귀화신청을 준비 중이다 ④ 신청할 계획이 없다 ⑤ 모름

[문항 42] 귀하는 언제 한국에 처음 입국하였습니까? 년

[문항 43] 귀하는 얼마나 오래 한국에 거주하셨습니다?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 7년 미만
 ⑦ 7년 이상 ~ 10년 미만 ⑧ 10년 이상

[문항 44] 귀하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영역별 귀하의 수준에 해당하는 번호에 O 표 해 주십시오.

영역	전혀 못 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매우 잘 한다
말하기	1	2	3	4	5
쓰기	1	2	3	4	5
읽기	1	2	3	4	5
듣기	1	2	3	4	5
전반적 평가	1	2	3	4	5

한국에서의 삶

[문항 45]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숫자에 O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② 나는 평소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를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③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④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1	2	3	4	5
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1	2	3	4	5
⑥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1	2	3	4	5
⑦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믿음만하다	1	2	3	4	5
⑧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한국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1	2	3	4	5
⑨ 출신국에 있는 친구와 지인에게도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1	2	3	4	5

[문항 46] 현재 한국에서 귀하나 귀하가정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인과 출신국/비한국인별로 나누어 인원을 적어주세요.

- ① 한국인 : 약 _____명
 ② 한국에 사는 고국 출신 동포 또는 비한국인 : 약 _____명
 ③ 고국에 사는 친척, 친구, 지인 : 약 _____명

[문항 47] 한국 정부와 사회가 중도입국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제공한다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골라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수준별 한국어 교육 ②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③ 1:1 멘토링 프로그램
 ④ 직업기술 훈련 ⑤ 진로 및 적성 탐색 프로그램 ⑥ 취미활동 지원
 ⑦ 한국사회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 ⑧ 상담프로그램 ⑨ 주거 지원 정책
 ⑩ 재정지원 정책 ⑪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⑫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48]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귀하의 장래 희망이나 꿈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적어주세요.

(직접기입)_____

[문항 49] 한국사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직접기입)_____

※ (선택사항) 본 연구진의 관련 연구(심층면접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에 추가로 참여를 원하시면 귀하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으시면 빈 칸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한국어 설문지(비재학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ID

--	--	--	--

이 부분은 작성하지 마세요.

20160721-00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을 위한 국가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국무총리산하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의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진로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익명성이 보장되고,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지며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자료로만 활용됨을 밝혀드립니다.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조사 문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복수 응답을 요구한 문항이나 복수 응답이 가능하다고 표현된 문항을 제외하고 모든 질문에는 단일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 조사의 응답방법 : 해당하는 숫자에 표시(O)해 주세요.

※ 본 조사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6. 07

▶ 조사연구기관: 국무총리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책임: 배상을 부연구위원, 044-415-2220; 010-7727-9210; drbai@nypi.re.kr

▶ 설문내용 및 조사진행 문의 : 고은혜 위촉연구원, 044-415-2221; graceko@nypi.re.kr

아래 질문부터 응답해주세요

[1] 귀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년
[3] 귀하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① 한국 ② 중국 ③ 중국(한국계) ④ 베트남 ⑤ 필리핀 ⑥ 러시아 ⑦ 기타(직접 기입:)
[4] 귀하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① F-1 ② F-2 ③ F-4 ④ F-5 ⑤ C-3 ⑥ 기타(직접 기입:) ⑦ 모름
[5] 다음 중 귀하의 현재 거주 지역에 해당하는 곳에 O표 해주세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교육 및 일상생활

[문항 1] 귀하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출신국에서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 ① 미취학 또는 초등학교 중퇴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중퇴
 ④ 중학교 졸업 ⑤ 고등학교 중퇴 ⑥ 고등학교 졸업
 ⑦ 대학교 중퇴 ⑧ 대학교 졸업 이상

[문항 2] 귀하는 한국에서 정규학교에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까?

※ 정규학교란, 초등·중등·고등·대학교 학력을 인정해주는 곳으로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비인가 대안학교 제외)

- ① 예, 과거에 한국에서 정규학교를 다녔다가 중도에 그만두었음
 ② 아니오, 한국에서 정규학교에 다닌 적이 없음

[문항 3] 귀하가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중 해당번호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개인적인 이유로	<p>3-1.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개인적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p> <p>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심리적 혹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③ 내 특기나 소질을 살리려고 ④ 노는 것이 좋아서 ⑤ 비행으로 보호처분(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서 ⑥ 돈을 벌고 싶어서 ⑦ 한국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⑧ 한국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어서 ⑨ 기타(직접기입) _____ ⑩ 해당 없음</p>
----------	---------------------------------------------------------------------------------------------------------------------------------------------------------------------------------------------------------------------------------------------------------------------------------------------------------------------------------------------------------------------------------------------------------------------------------------------------------------------------------------------------

학교 또는 학업관련 이유로	<p>3-2.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또는 학업’ 관련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p> <p>①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② 학교에 가고 싶었으나 입학절차를 잘 몰라서 ③ 원래 나이에 비해 낮은 학년을 다녀야 해서 ④ 단순히 학교 입학 시기가 맞지 않아서 ⑤ 선생님이 싫어서 또는 선생님과 갈등 때문에 ⑥ 학교 친구나 선후배와의 갈등, 따돌림 때문에 ⑦ 학교 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서 ⑧ 학교 규칙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⑨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⑩ 기타(직접기입)_____</p> <p>⑪ 해당 없음</p>
가족과 관련된 이유로	<p>3-3. 학교에 다니지 않는 ‘가족과 관련된’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p> <p>① 가정불화 때문에 ② 부모님이 다니지 말라고 해서 ③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④ 기타(직접기입)_____</p> <p>⑤ 해당 없음</p>
법적 또는 제도적인 이유로	<p>3-4. 학교에 다니지 않는 ‘법적 또는 제도적인’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p> <p>① 비자 문제로 인해 ② 서류 미비로 학교에서 입학허가를 받지 못해서 ③ 기타 법적, 제도적 제재로 인해 ④ 기타(직접기입)_____</p> <p>⑤ 해당 없음</p>
기타	(직접기입: _____)

[문항 4] 귀하는 한국에서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있다	없다
① 정규학교에 다닌 적 있다 (학력 인정 대안학교 포함)	1	2
② 지역 및 종교단체 등에서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 포함)	1	2
③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다(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등)	1	2
④ 사립 학원(검정고시, 컴퓨터 학원 등)에 다닌 적 있다	1	2
⑤ 아르바이트나 일을 한 적이 있다	1	2

※ [문항5]는 현재 센터나 지원단체에 소속된 청소년만 응답해주세요.

[문항 5] 귀하가 현재 소속된 센터나 지원 단체에서의 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센터나 지원 단체에서의 생활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해당 칸에 O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센터나 지원단체에는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선생님 이 있다	1	2	3	4	5
② 센터나 지원단체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 이 있다	1	2	3	4	5
③ 센터나 지원단체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 이 있다	1	2	3	4	5
④ 센터나 지원단체에는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 가 있다	1	2	3	4	5
⑤ 센터나 지원단체에서 친구 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1	2	3	4	5
⑥ 센터나 지원단체에서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 들과 함께 지낸다	1	2	3	4	5
⑦ 센터나 지원단체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 들이 도와준다	1	2	3	4	5
⑧ 센터나 지원단체 수업내용 에 흥미를 못 느낀다	1	2	3	4	5
⑨ 센터나 지원단체 수업내용 은 전반적으로 내 수준보다 어렵다	1	2	3	4	5
⑩ 한국어로 진행되는 센터나 지원단체의 수업내용 을 이해하기 힘들다	1	2	3	4	5

[문항 6]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하는 칸에 O 표 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내 생각을 존중해준다	1	2	3	4	5
②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1	2	3	4	5
③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1	2	3	4	5
④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1	2	3	4	5
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1	2	3	4	5
⑥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1	2	3	4	5
⑦ 나는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1	2	3	4	5
⑧ 나는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⑨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1	2	3	4	5

일 / 노동

[문항 7] 귀하는 한국에서 최근 1년 간 아르바이트나 직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예 [문항 8] 로 이동 ② 아니요 [문항 13]로 이동

[문항 8] 귀하가 최근 1년 동안 경험한 아르바이트나 일의 종류를 모두 적어주세요

(예: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직접 써주세요) _____

[문항 9] 귀하가 가장 최근에 근무한 그 직장에서...

9-1. 평균 일주일에 며칠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또는 했습니까?)

약 _____ 일

9-2. 평균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또는 했습니까?)

약 _____ 시간

9-3. 임금을 받는 방식과 평균 임금은 얼마였습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O표시하시고 평균 임금을 적어주세요.

- ① 월급으로 받았다: 평균 _____ 원
 ② 주급으로 받았다: 평균 _____ 원
 ③ 일급으로 받았다: 평균 _____ 원
 ④ 시급으로 받았다: 평균 _____ 원

[문항 10] 귀하가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가지만 선택해주시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등록금을 벌기 위해
 ② 나의 생활비(용돈)를 벌기 위해
 ③ 나 이외 가족의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
 ④ 나의 빚을 갚기 위해
 ⑤ 나 이외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⑥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
 ⑦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
 ⑧ 해외연수/여행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⑨ 다른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직하지 못해서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해주세요): _____

[문항 11]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	있다	없다
①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2
②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1	2
③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2
④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적이 있다	1	2
⑤ 작업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1	2
⑥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1	2
⑦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1	2
⑧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2
⑨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일한 적이 있다	1	2
⑩ 한국인과 차별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	2
⑪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서 곤란한 적이 있다	1	2
⑫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거나 따돌린 적이 있다	1	2

[문항 12] 귀하는 현재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문항 13] 로 이동 ② 아니오 ☞ [문항 12-1] 로 이동

[문항 12-1] 현재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은 하고 싶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 ② 원하는 조건(전공, 경력, 임금수준, 근로조건)을 만족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③ 아르바이트나 일자리 구인 정보가 부족해서
- ④ 체류자격 때문에 고용자격이 안돼서
- ⑤ 외국출신이라 차별을 받아서
- ⑥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 ⑦ 기능, 학력, 능력이 부족해서
- ⑧ 건강상 이유로
- ⑨ 진학준비나 학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 ⑩ 취미나 특기 생활을 위해서
- ⑪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 ⑫ 가사나 육아 때문에
- ⑬ 당분간 쉬고 싶어서
- ⑭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못느껴서
- ⑮ 기타 _____

진로 / 진학

[문항 13] 귀하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O 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장래에 내가 꼭 하고 싶은 직업 분야가 있다	1	2	3	4	5
② 나는 장래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대체로 방향을 정했다	1	2	3	4	5
③ 대학에 가서 전공하고 싶은 구체적인 분야가 있다	1	2	3	4	5
④ 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소신대로 직업을 결정해야한다	1	2	3	4	5
⑤ 현재 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다	1	2	3	4	5
⑥ 외국출신이기에 한국에서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가 힘들 것 같다	1	2	3	4	5
⑦ 한국은 내 장래 희망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	1	2	3	4	5

[문항 14] 향후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 중 해당되는 것에 O 표시해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 한국에서 상급학교로 진학할 예정이다
- ② 다른 나라로 유학 갈 예정이다
- ③ 검정고시 준비를 할 예정이다
- ④ 취업할 예정이다
- ⑤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 ⑥ 학업을 계속하거나 정식으로 취업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로를 모색할 것이다
- ⑦ 기타(직접기입)_____
- ⑧ 앞으로의 계획이 없다 ☞ 14-1로 이동

└ 14-1.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정보가 부족해서
- ② 한국어가 부족해서
- ③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④ 심리 및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 ⑤ 체류자격이 불안정해서
- ⑥ 기타()

[문항 15] 귀하는 진로선택이나 미래계획에 대한 고민을 주로 어떤 방식을 통해 해결
합니까? 다음 중 가장 자주하는 방식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를 통해
- ② 한국에 사는 친구나 선생님 등 주위사람과의 소통/대화를 통해
- ③ 귀하의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 사는 친구나 지인과의 소통/대화를 통해
- ④ 한국의 정부나 지원기관을 통해
- ⑤ 한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매체를 통해
- ⑥ 출신국의 인터넷이나 서적 등 비한국어 매체를 통해
- ⑦ 기타(직접기입)_____

가정 환경

[문항 16]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골라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 친어머니 ② 친아버지 ③ 양어머니 ④ 양아버지 ⑤ 조부모
- ⑥ 형제/자매 ⑦ 친척(고모, 삼촌 등) ⑧ 친구
- ⑨ 혼자 살고 있음 ⑩ 기타(직접기입)_____

※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는 청소년만 응답해주세요.

16-1. 한국에서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16-2. 부모님과 떨어져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과의 갈등 ② 형제자매와의 갈등 ③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④ 학교나 직장 때문에 ⑤ 부모님이 본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 ⑥ 기타(직접 기입 : _____)

[문항 17] 한국에 입국하기 전 부모님과 떨어져 지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① 없다 ②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1년 미만
- ④ 1년 이상 2년 미만 ⑤ 2년 이상 3년 미만 ⑥ 3년 이상

[문항 18] 귀하가 부모님(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 각 항목의 해당 칸에 O표 해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①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②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③ 내 말을 청청해주시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④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시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⑥ 내 생각과 감정을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⑦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정도 이상으로 심하게 혼내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⑧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⑨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⑩ 나를 차별없이 공평하게 대하신다	아버지	1	2	3	4	5	0
	어머니	1	2	3	4	5	0

[문항 19] 다음은 가족환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가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① 가족이 있는 집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	1	2	3	4	5	0
② 나와 형제자매는 우애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0
③ 우리 가족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자주 보낸다	1	2	3	4	5	0
④ 부모님(보호자)은 서로 사이가 좋으시다	1	2	3	4	5	0

[문항 20] 귀하는 현재 경제적인 지원(용돈, 생활비 등)을 누구로부터 받으니까?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중복응답 가능)

- ① 친아버지 ② 양아버지 ③ 친어머니 ④ 양어머니 ⑤ 친척
⑥ 조부모 ⑦ 나 스스로 벌어서 충당함
⑧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21] 귀하의 가정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난하다	가난하다	보통	부유하다	매우 부유하다
1	2	3	4	5

입국 전 상황

[문항 22] 귀하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 ② 부모 외의 가족 또는 친척과 함께 살기 위해서
- ③ 한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 ④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 ⑤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23] 다음 중 귀하가 한국에 오게 된 경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나는 싫었으나 어머니(또는 아버지)가 원해서 한국에 들어왔다
- ② 어머니(또는 아버지)는 고국에서 살기를 원했으나 내가 들어오기를 적극 원했다
- ③ 나와 부모님 모두 한국에 들어와 함께 살기를 원했다
- ④ 나와 부모님 모두 한국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 ⑤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24] 귀하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다음 중 어떤 준비를 하였습니까? 해당하는 번호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중복응답 가능)

- ① 특별히 준비한 것이 없다
- ② 한국어 공부를 하였다
- ③ 한국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았다
- ④ 한국 학교에 대해 알아보았다
- ⑤ 한국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 ⑥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 ⑦ 한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공부하였다
- ⑧ 기타(직접기입)_____

사회적 인식

[문항 25]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해 귀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문항을 읽고 해당 번호에 O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출신국(한국 제외)의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1	2	3	4	5
② 한국 청소년과 친한 단짝이 될 의향이 있다	1	2	3	4	5
③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출신국(한국 제외) 사람을 기꺼이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2	3	4	5
④ 한국 사람을 기꺼이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	2	3	4	5

[문항 26] 귀하의 한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1(매우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1(매우 불만족)---2---3---4---5---6---7---8---9---10(매우 만족)

[문항 27] 귀하가 한국에 오기 전 고국에서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1(매우 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1(매우 불만족)---2---3---4---5---6---7---8---9---10(매우 만족)

[문항 28]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 2개만 선택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재력·경제력 ② 화복한 가정 ③ 건강 ④ 직업·직장
 ⑤ 감사긍정적 태도 ⑥ 연인(이성관계) ⑦ 친구·대인관계 ⑧ 자아성취
 ⑨ 꿈·목표의식 ⑩ 종교생활 ⑪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29]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항 30] 한 개인의 삶의 성공을 평가하는데 있어,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 ① 금전적 보상이나 재력 ② 사회적 지위나 권력 ③ 주위의 평판이나 명성
 ④ 삶의 주관적 만족감 ⑤ 꿈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노력
 ⑥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31] 귀하가 생각하는 한국사회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수단/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타고난 자질·재능 ② 학벌·학력 ③ 가정환경·집안배경 ④ 돈·재력
 ⑤ 노력·성실성 ⑥ 인맥(학연·지연·혈연 등) ⑦ 외모
 ⑧ 운 ⑨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32] 귀하가 답한 ‘성공의 평가기준’과 ‘성공의 조건’을 고려하여, 귀하의 한국에서의 미래 성공 가능성을 1(전혀 없다)부터 10(매우 크다)까지의 숫자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전혀 없다)---2---3---4---5---6---7---8---9---10(매우 크다)

[문항 33]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문화 차이, 언어 장벽, 외모 차이 등)로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최근 6개월간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①	전혀 없었다	☞ 문항 34로 이동
②	약간 있었다	33-1. 한국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대응합니까? 귀하가 가장 자주했던 행동 <u>두 가지</u> 를 골라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❶ 그냥 참는다 ❷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알린다 ❸ 친구나 선생님, 지인 등 주위사람에게 알린다 ❹ 정부나 관련기관에 민원처리를 한다 ❺ SNS 등 인터넷에 올린다 ❻ 차별을 한 당사자에게 따진다. ❼ 기타(직접기입)_____
③	가끔 있었다	
④	자주 있었다	

[문항 34] 최근 귀하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개인적 고민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큰 고민 두 가지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돈 문제(채무, 가난 등) ② 진로문제(취직, 이직, 진학, 군대 등)
 ③ 건강 문제(신체적 또는 정신적) ④ 가족 간 불화
 ⑤ 이성 문제(연애, 결혼 등) ⑥ 인간관계(배신, 갈등, 괴롭힘, 왕따 등)
 ⑦ 외로움 ⑧ 학교 성적
 ⑨ 목표의식이나 꿈의 부재 ⑩ 고민 없음
 ⑪ 기타(직접기입) _____

[문항 35] 귀하는 가까운 미래에 한국을 벗어나 출신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①	아니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 [문항 36]으로 이동	
②	예, 출신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35-1. 귀하가 한국을 벗어나 살고 싶은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가장 큰 이유 <u>두 가지</u> 를 선택하여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③	예, 한국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❶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 사람들에게서 받는 차별 때문에 ❷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의 법적, 제도적인 제재 때문에 ❸ 한국어가 어려워 소통의 문제가 많아서 ❹ 한국문화가 너무 달라 적응이 어려워서 ❺ 한국서는 구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아서 ❻ 한국에서의 삶은 외로워서 ❼ 한국보다 내 꿈을 실현하기에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❽ 기타(직접기입) _____
④	모르겠음	

신체 · 심리 · 정신적 건강

[문항 36] 귀하의 현재 신체적 건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문항 37] 귀하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해당 번호에 O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②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③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많은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④ 내겐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5
⑤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⑥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⑦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	2	3	4	5
⑧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1	2	3	4	5
⑨ 나는 사는 게 즐겁다	1	2	3	4	5
⑩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1	2	3	4	5
⑪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⑫ 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정해놓고 있다	1	2	3	4	5
⑬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	1	2	3	4	5
⑭ 나는 계획한 대로 일을 끝까지 실행한다	1	2	3	4	5
⑮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매체 이용 실태

[문항 38] 귀하의 매체 이용/소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이루어진 아래의 각 매체별 귀하의 이용/소비 여부를 ○표시해 주시고, 해당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하루 평균 이용/소비 시간도 적어주세요.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용/소비 시간은 적지 않아도 됩니다.

문항	이용/소비 여부		하루 평균 이용/소비 시간
	예	아니오	
① 온라인게임(PC, 스마트폰 이용 모두 포함)	1	2	____시간____분
② 한국어 TV프로그램/영상	1	2	____시간____분
③ 출신국 언어 또는 비한국어 TV 프로그램/영상	1	2	____시간____분
④ 스마트폰 이용	1	2	____시간____분
⑤ SNS 이용(한국어 사용)	1	2	____시간____분
⑥ SNS 이용(출신국 언어 또는 비한국어 사용)	1	2	____시간____분
⑦ 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1	2	____시간____분
⑧ 출신국 언어 또는 비한국어 서적/신문/인쇄물	1	2	____시간____분

※ [문항 39]는 최근 6개월 이내 온라인 게임(PC, 스마트폰 이용 모두 포함)에 참여한 학생만 응답해주세요. 온라인 게임 경험이 없으면 [문항 40]으로 이동하세요.

[문항 39] 다음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귀하의 의견과 태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 질문에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온라인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재미가 되면 무기력하고 우울해진다.	1	2	3	4
② 온라인 게임으로 인해 친구관계가 크게 소홀해졌다.	1	2	3	4
③ 처음 마음먹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한다.	1	2	3	4
④ 여러 차례 온라인 게임을 즐기거나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1	2	3	4
⑤ 다른 일에는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게임의 아이템을 얻거나 레벨업 시키는 일에 푹 빠져 있다.	1	2	3	4
⑥ 온라인 게임을 못하거나 갑자기 재미가 되면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1	2	3	4
⑦ 가족들과 마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임을 계속한다.	1	2	3	4
⑧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 온라인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1	2	3	4

체류 기간 및 상태

[문항 40] 현재 영주권 획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이미 영주권을 취득했다 ②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이다
③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다 ④ 신청할 계획이 없다 ⑤ 모름

[문항 41] 현재 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② 귀화를 신청한 상태이다
③ 귀화신청을 준비 중이다 ④ 신청할 계획이 없다 ⑤ 모름

[문항 42] 귀하는 언제 한국에 처음 입국하였습니까? 년

[문항 43] 귀하는 얼마나 오래 한국에 거주하셨습니다?

-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③ 1년 이상 ~ 2년 미만
 ④ 2년 이상 ~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5년 미만 ⑥ 5년 이상 ~ 7년 미만
 ⑦ 7년 이상 ~ 10년 미만 ⑧ 10년 이상

[문항 44] 귀하의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영역별 귀하의 수준에 해당하는 번호에 O 표 해 주십시오.

영역	전혀 못 한다	못한다	보통이다	잘한다	매우 잘 한다
말하기	1	2	3	4	5
쓰기	1	2	3	4	5
읽기	1	2	3	4	5
듣기	1	2	3	4	5
전반적 평가	1	2	3	4	5

한국에서의 삶

[문항 45] 다음의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숫자에 O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에 관심이 많다	1	2	3	4	5
② 나는 평소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패션 등)를 즐기는 편이다	1	2	3	4	5
③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1	2	3	4	5
④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1	2	3	4	5
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1	2	3	4	5
⑥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	1	2	3	4	5
⑦ 전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1	2	3	4	5
⑧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한국사회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1	2	3	4	5
⑨ 출신국에 있는 친구와 지인에게도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1	2	3	4	5

[문항 46] 현재 한국에서 귀하나 귀하가정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국인과 출신국/비한국인별로 나누어 인원을 적어주세요.

- ① 한국인 : 약 _____명
 ② 한국에 사는 고국 출신 동포 또는 비한국인 : 약 _____명
 ③ 고국에 사는 친척, 친구, 지인 : 약 _____명

[문항 47] 한국 정부와 사회가 중도입국 청소년 및 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제공한다면, 귀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골라 순서대로 두 개만 적어주세요.

1순위 : _____ 2순위 : _____

- ① 수준별 한국어 교육 ② 학교수업/교과목 지도 ③ 1:1 멘토링 프로그램
 ④ 직업기술 훈련 ⑤ 진로 및 적성 탐색 프로그램 ⑥ 취미활동 지원
 ⑦ 한국사회 및 문화 적응 프로그램 ⑧ 상담프로그램 ⑨ 주거 지원 정책
 ⑩ 재정지원 정책 ⑪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⑫ 기타(직접기입)_____

[문항 48]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귀하의 장래 희망이나 꿈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적어주세요.

(직접기입)_____

[문항 49] 한국사회나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직접기입)_____

※ (선택사항) 본 연구진의 관련 연구(심층면접조사, 포커스 그룹 인터뷰 등)에 추가로 참여를 원하시면 귀하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지 않으시면 빈 칸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전문가용 설문지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 전문가 설문조사 요청 -

안녕하십니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의견조사를 요청 드리게 됨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조사는 중도입국 청소년 자립지원의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려합니다. 전문가 여러분의 진솔한 평가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통계법 제34조(통계증서 등)에 따라 응답 내용은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회수기한은 10월 14일(금) 정오까지입니다. 이메일과 팩스 중 편하신 방법으로 회송 부탁드립니다. 짧은 연구일정으로 인해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연구수행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세종시 시청대로 370)

연구책임자 : 배상률 부연구위원(044-415-2220)

당 당 : 고은혜 연구원

문의 전화 : 044-415-2221

팩 스 : 044-415-2369

이 메 일 : graceko@nypi.re.kr

※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표시로 소정의 사례비를 드리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휴대전화번호	
■ 이 메 일	
■ 소 속 / 직 함	
■ 은행/계좌번호	

문 1) 다음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현재의 한국어 지원 체계에 만족한다.	1	2	3	4	5
②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편/입학 정책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 진입문턱을 낮출 필요 있다.	1	2	3	4	5
③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기관 및 시설이 확대 될 필요 있다.	1	2	3	4	5
④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초기정착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정보제공 체계에 만족한다.	1	2	3	4	5
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법적 체류 자격요건 완화 및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	2	3	4	5
⑥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위한 현재의 진로 및 취업 지원 체계에 만족한다.	1	2	3	4	5
⑦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다문화 수용도는 높은 편이다.	1	2	3	4	5
⑧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관할하는 별도의 통합 지원센터 신설이나 허브의 구축이 필요하다.	1	2	3	4	5

문 2) 다음에 제시된 각 영역별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있어 중요도와 시급성을 판단하시어 해당 칸에 ○표하시주시기 바랍니다.

영역	지원 내용	정책의 중요도					정책의 시급성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전혀 시급 하지 않음	시급 하지 않음	보통	시급 함	매우 시급 함
1. 청소년	① 한국어 실력 제고를 위한 체계화된 교재 및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진로탐색을 위한 기회 및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③ 직업교육, 인턴십 등 사회진출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④ 정신건강 상담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⑤ 한국사회 및 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중도입국청소년과 자원봉사자와의 1:1 멘토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⑦ 학문, 예체능 등 각 분야 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⑧ 언어지원 서비스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게임중독 예방 및 사후치료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⑩ 정체성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⑪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및 소통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가정	① 자녀교육, 학교생활, 진로진학 등에 대한 부모 대상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가족상담 및 지원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③ 중도입국 자녀의 입양과 파양에 있어서의 법적 보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영역	지원 내용	정책의 중요도					정책의 시급성				
		전혀 중요 하지 않음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중요 함	매우 중요 함	전혀 시급 하지 않음	시급 하지 않음	보통	시급 함	매우 시급 함
3. 학교/ 기관/ 지역	① 기숙형 지원기관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대안학교 등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기관 확대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③ 공교육진입 및 학교생활 적응 돕는 예비학교 확대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④ 초기적응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의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⑤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시설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 작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⑦ NGO 및 지자체 연계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⑧ 위기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쉼터 시설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취업처 발굴 및 연계 지원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부처/제도	① 공무원, 교사 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② 다문화이해교육을 초·중등 공교육과정에 반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③ 관련정책 개발 및 결정과정에 다문화가정 부모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④ 청소년참여기구에 중도입국 청소년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⑤ 교육, 진로 등 주요 정보 제공 창구의 다각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⑥ 탄력적 편/입학제도 적용으로 공교육 및 고등 교육 진입 유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⑦ 중도입국청소년의 체류 자격요건 완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⑧ 국내 이중 언어 인재 DB 구축 및 활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중도입국청소년의 정확한 실태조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⑩ 중도입국청소년 효과적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또는 허브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⑪ 각 부처의 중도입국 청소년 관련 시행사업 연계 및 효과성 제고 노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 3)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불만족)에서 10(매우 만족)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평가해 주십시오.

1(매우 불만족)-----2-----3-----4-----5-----6-----7-----8-----9-----10(매우 만족)

문 4)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의 초기정착과 자립을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에 관한 귀하의 평가점수를 1(매우 부정적)에서 10(매우 긍정적)까지의 숫자 중 하나로 표시해 주십시오.

1(매우 부정적)-----2-----3-----4-----5-----6-----7-----8-----9-----10(매우 긍정적)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Migrant Youths and Supporting Their Self-reliance

One of the main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pulsion system that can cultivate the unique potential and capacity of migrant youths and help them grow into useful human resources. The author conducted a survey with approximately 600 immigrant youths employing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questions on education, work/labor, career development, etc., written in five languages. In addition, the author carried out in-depth interviews with late adolescents over 18 years of age who have occupied the majority of migrant youths in Korea and got worried seriously about career development and economic independence. In addition, we organized two separate SNS discussion groups (One is for Chinese-speaking immigrant adolescents and the other is for Vietnamese-speaking youths in Korea) and conducted online focus group interviews with them online for five weeks. In order to propose more efficient and workable policy proposals, approximately several on-site experts and teachers working at the school/organization for immigrant youths were survey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immigrant adolescents fu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Korean language ability. They feel, however, that they are disadvantaged by their lack of Korean language ability in terms of education and employment. 69%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had experience of being away from their parents. 42%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were separated from their parents for more than 3 years before entering Korea. Career issues (54.5%) were the most common problems, followed by money problems and absence of goals and dreams. Adolescents who voluntarily arrived in Korea were higher in the measure of career identity and self-esteem than youths who had involuntarily

entered the country. The higher the support of the teacher provides, the higher the career identity adolescents have.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ers and parents has a positive effect on migrant youths' self-esteem. Field experts listed parent education on child education/school life/career advancement, actual situation survey, and mental counseling as a priority of policies for immigrant adolescents in terms of the importance and urgency. In addition, the experts emphasiz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port center or a hub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The proposed policy proposals were presented in six major areas: public education, Korean language, career/employment, legislation etc.

Keywords : migrant youth, self-reliance, career path, education, employment

201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6-R0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소년 삶의 질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세영 · 김남수
- 16-R02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 이창호 · 최용환 · 도수관
- 16-R03 탈북 청소년 지원체계화 방안 연구 - 탈북 청소년 역량 진단을 중심으로 - / 좌동훈 · 이민영
-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배상률
- 16-R05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연구 / 김영한
- 16-R06 대학생 졸업유예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김지경 · 이상호
- 16-R07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 / 황여정 · 변정현
- 16-R08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8-1 2016년 청년 사회 · 경제 실태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 김기현 · 하형석 · 신인철
- 16-R09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09-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Ⅲ :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 · 문호영 · 김정주
- 16-R10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의 자유학기제 연계 운영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 시설과 학교의 협업을 중심으로 - / 임지연 · 김한별 · 한도희
- 16-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유설희 · 이민희 · 김진호
- 16-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 학교 인권 관련 환경이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구정화
- 16-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Ⅶ : 2016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유설희

- 16-R12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Ⅱ’ 운영과 정책화 방안 / 오해섭 · 김세광
- 16-R12-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Ⅳ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 서정아 · 김희주
- 16-R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신현옥 · 최홍일
- 16-R13-1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윤민중 · 최홍일
- 16-R14 청소년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Ⅲ / 강경균 · 이윤주 · 노성호
- 16-R14-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 강경균
- 16-R15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 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Ⅱ - 재중 · 재미동포 청소년 인재 개발 방안 - / 김정준 · 정은주
- 16-R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윤철경 · 성윤숙 · 유성렬 · 김강호
- 16-R16-1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 연구 I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별 특성에 대한 질적 분석 / 성윤숙
- 16-R17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사업보고서 / 이종원 · 모상현 · 강현철 · 정윤미 · 한지형
- 16-R17-1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 -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추이 분석 : 현실비행과 사이버비행 / 이종원 · 이순래 · 정윤미
- 16-R17-2 한국 아동 · 청소년 패널조사 Ⅶ : 기초분석보고서 II - 청소년 매체이용 추이 및 코호트 간 비교분석 / 모상현 · 이장주 · 한지형

협동연구과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초 · 중 · 고등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1)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대학생용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이경상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6-R18-2)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0-O4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Ⅲ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측정 및 분석 연구 / 김태준 · 박인영 · 이호경 · 오민아
(자체번호 16-R18-3)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6-41-O1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I / 김현철 · 백혜정 · 이지연 (자체번호 16-R19)

연구개발적립금

- 16-R20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 · 최정원 · 강지명
16-R20-1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기초분석보고서 / 김승경 · 최정원
16-R21 청소년 참여예산제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 / 윤민중 · 정은진 · 정건희

수 시 과 제

- 16-R22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이창호 · 정의철
16-R23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 하형석
16-R24 대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연구 / 이윤주
16-R25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동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16-R26 놀이정책 수립 지원 연구 / 성은모 · 강경균
16-R27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 황세영

- 16-R28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 조진우 · 김기현
- 16-R29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 최정원 · 정은진 · 조혜영
- 16-R30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 · 연구 / 정은진 · 김기현

수 탁 과 제

- 16-R31 한국사회 20대 청년의 생활 · 의식 실태와 정책과제 / 이종원 · 유한구 · 채창균 · 오승근 · 김윤나 · 한영근
- 16-R32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디지털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II / 성윤숙 · 김경준 · 강경균
- 16-R33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와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통합에 따른 조사항목 등 개선 연구 / 김지경 · 황여정 · 정윤미
- 16-R34 2014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5 20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6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 / 김경준 · 모상현 · 정은주
- 16-R37 2015 학교 내 대안교실 우수사례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8 2015년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39 청소년 체험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최창욱 · 성은모 · 정윤미
- 16-R40 가출청소년 보호 ·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 백혜정 · 김승경
- 16-R41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농산어촌 자유학기제 연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김현철
- 16-R42 2016년도 청소년쉼터 종합평가 / 김승경 · 백혜정
- 16-R43 2016행복교육 학생모니터단 운영 / 오해섭 · 최홍일
- 16-R44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종시 아동청소년 정책기본계획 수립 연구 / 김영지 · 오해섭 · 윤철경 · 김경준 · 최용환 · 유설희

- 16-R45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김영지 · 모상현 · 이운주 · 유설희
- 16-R46 학교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업중단예방프로그램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센터
- 16-R47 군포문화재단 청소년활동본부 중 · 장기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연구 / 김현철
- 16-R48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6 / 이종원 · 모상현 · 유성렬 · 김진석 · 정윤미
- 16-R49 2016년 시립청소년시설 운영실적 평가 / 최용환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정은진
- 16-R50 삼성SDS 강원도 도서벽지지역학교 “행복한 ICT 교실” 효과 및 만족도 연구 / 성윤숙
- 16-R51 실종아동 관계기관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좌동훈 · 문호영
- 16-R52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성 및 만족도 조사연구 / 양계민
- 16-R53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황여정 · 김지경 · 이운주 · 정윤미
- 16-R5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 서정아
- 16-R55 유형별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도방안 연구 / 성윤숙 · 박선영 · 송원영
- 16-R56 멘토링코디네이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성은모
- 16-R57 2016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 최창욱 · 성은모 · 강경균
- 16-R5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김기현 · 장근영 · 김지경 · 하형석
- 16-R59 2016년 동작혁신교육사업 청소년 자치 참여 활성화 정책연구 / 최창욱 · 최용환
- 16-R60 학교 밖 청소년 연계관리 강화방안 연구 / 윤철경
- 16-R6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가이드북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 16-R61-1 재적교 교사를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 /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센터
- 16-R62 청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청년 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한지형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6-S01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1권역 (1/25)
- 16-S02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2권역 (1/28)
- 16-S0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3권역 (1/29)
- 16-S04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관리자 연수 : 4권역 (2/2)
- 16-S05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1권역 (2/17~18)
- 16-S06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2권역 (2/18~19)
- 16-S07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3권역 (2/22~23)
- 16-S08 2016년 제1회 학업중단 예방 교원연수 4권역 (2/25~26)
- 16-S09 제1차 청년정책포럼 (2/22)
- 16-S10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1차) (3/24)
- 16-S11 2015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2차) (4/4)
- 16-S12 청소년정책평가의 현안과 과제 (4/22)
- 16-S13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위원 워크숍 (4/19)
- 16-S14 2016년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5/4)
- 16-S15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1권역 (5/9)
- 16-S16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2권역 (5/11~12)
- 16-S17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3권역 (5/16~17)
- 16-S18 2016년 학교 내 대안교실 담당자 연수 4권역 (5/18~19)
- 16-S19 제2차 청년정책포럼 - 지역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5/17)
- 16-S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말레이시아 푸트라대학 사회과학연구원 간 국제
세미나 (5/17)
- 16-S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2차 심화 워크숍 (5/18~20)
- 16-S22 2016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 (5/23)
- 16-S23 제3차 청년정책포럼 (6/28)
- 16-S24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이론적 탐색 (7/15)
- 16-S25 2016년 꿈키움 멘토단 운영 담당자 연수 (7/15)
- 16-S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담당자 교육 워크숍 (7/20)

- 16-S27 2016년 대안교육 담당교원 등 연수 (8/8~10)
- 16-S28 청소년 행복마을 조성사업 운영 및 정책화 방안 (7/22)
- 16-S29 아동학대사건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23)
- 16-S30 네트워크 사회의 청소년정보 격차와 문화 (8/17)
- 16-S31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1권역 (8/26)
- 16-S32 2016년 학업중단예방 집중지원학교 관리자 연수 : 2권역 (9/2)
- 16-S33 제4차 청년정책포럼 (8/24)
- 16-S34 청소년 현안과제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공동 정책토론회 (8/22)
- 16-S35 아시아 청소년진로교육 사회환경 국제비교 (8/25)
- 16-S36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심포지엄 (10/11)
- 16-S37 학교 밖 청소년 디지털 역기능 예방 워크숍 (10/6~7)
- 16-S38 제5차 청년정책포럼 (10/12)
- 16-S39 제6회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11/18)
- 16-S40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차별 문제 (11/22)
- 16-S4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연계기관 2차년도 사업성과발표회 (12/1)
- 16-S42 제6차 청년정책포럼 (12/7)
- 16-S43 청년 세미나-청년 기본법 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12/14)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1호(통권 제8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통권 제81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3호(통권 제8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4호(통권 제83호)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5호 : 청소년 국제교류 실태 및 효과성 검증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6호 : 청소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7호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 이행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8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69호 : 20대 청년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 전략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0호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1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2호 :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3호 :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4호 : 청소년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5호 : 지역사회 청소년의 인성교육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76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6호 :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정체성 발달특성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7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8호 :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9호 :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연구Ⅱ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0호 :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cohort) 간 휴대전화 이용실태 비교

— KCYPS 초1 및 초4 패널 —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1호 : 청소년 팬덤활동의 종단적 변화 분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2호 :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Ⅶ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5호 :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6호 : 청소년분야 ODA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추진방법 마련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7호 :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8호 :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사업 현황 및 정책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29호 : 미래, 청소년 그리고 새로운 도전
 청소년정책 이슈브리프 30호 : 해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조사·연구

NYPI BLUE ZINE 창간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 필 진 ◆

김진희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위원)

Nguyen Thi Phuong Thao (서울대학교 · 사회복지학 박사)

.....

◆ 자 문 · 협 력 진 ◆

유수형 (광주문화재단 · 연구원)

유봉애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팀장)

이천영 (광주새날학교 · 교장)

김영경 (광주새날학교 · 교사)

안드레이 (광주새날학교 · 교사)

오세련 (글로벌 국제학교 · 교장)

장민제 (나눔과 비움 · 사무원)

조선영 (드림업 · 팀장)

김슬예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 활동가)

박진수 (법무부 · 사무관)

오선희 (부산글로벌 참교육학교 · 교장)

이정애 (부산다문화국제학교 · 교감)

조종기 (서울다솜학교 · 교장)

김명환 (서울다솜학교 · 교감)

이영심 (서울다솜학교 · 교사)

Fan Fan (서울대학교 · 사범대학 석사과정)

Dang Thi Ngoc Nhung (서울대학교 · 언어교육원)

Nguyen Thi Phuong Thao (서울대학교 · 사회복지학 박사)

Zhang Shuai (서울대학교 · 사범대학 박사과정)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 팀장)

김설라 (서울온드림교육센터 · 대리)

김보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지사)

박효석 (아시아공동체학교 · 교장)

오명옥 (아시아공동체학교 · 교사)

오윤아 (안산시다문화지원본부 · 다문화전문위원)

이정혁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 소장)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 센터장)

은수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 대리)

김숙자 (여성가족부 · 과장)

최은주 (여성가족부 · 과장)

송영광 (여성가족부 · 사무관)

노현서 (여성가족부 · 사무관)

윤지연 (여성가족부 · 사무관)

연정미 (용신중학교 · 교사)

신흥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부소장)

허수경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팀장)

김미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팀장)

이해령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팀장)

신국균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팀장)

양순철 (인본사회연구소 · 대표)

박형식 (인천한누리학교 · 교장)

김종호 (인천한누리학교 · 교감)

김사랑 (인천한누리학교 · 교사)

장향화 (인천한누리학교 · 교사)

정혜선 (진위중학교 · 교사)

류승범 (청주새날학교 · 행정실장)

곽만근 (충북다문화지원센터 · 센터장)
최보람 (평택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연구원)
박영신 (포천 다문화국제학교 · 교장)
이주현 (포천 다문화국제학교 · 교사)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권대주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 교장)
심상덕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 교감)
권오석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 교사)
김범년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 교사)
변경환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 교사)
신현옥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 연구위원)
곽재석 (한중사랑학교 · 교장)
정경일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 사무국장)

.....

연구보고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다원기획 전화 044)865-8115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109-7 93330



연구보고 16-R04

중도입국 청소년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39-00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